차 례

제 1 장
운명의 선택

1

그날 시안(중국 산시성 소재지)의 여름밤은 별이 총총하였다.

어느덧 자정이 넘어 해종일 복작거리던 도시는 깊은 꿈나락에 떨어졌다.

《도적을 주의하시오. ― 자정이 넘었습니다. ― 밤도적을 주의하시오. ―》

서서히 다가왔다가 서서히 멀어져가는 야경군의 단조로운 목소리에도 졸음기가 실린듯싶다. 다만 어데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둔중한 포소리만이 국내전쟁의 동란속에 시달리는 광막한 대륙의 몸부림인듯 간간이 어둠을 흔들어놓군 한다.

온 시가지가 어둠의 장막에 싸인 이 시각에 도시의 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우중충한 시청건물과 마주선 자그마한 2층건물의 어느 한 방에서만은 불빛이 꺼지지 않고있었다.

이 도시에서 쟝지에스(장개석)의 국민당을 대표하고있는 시안판사처 사무실이였다.

조용히 방안을 거닐고있는 사람은 몇해전부터 시안판사처 처장으로 사업하고있는 정시명이였다.

보기 좋은 보통키에 왕붓같이 굵고 진한 눈섭과 때일찍 벗어진 시원스러운 이마를 내놓는다면 별다른 특징이 없어보이는 사나이다. 쉰전이지만 고행에 찬 인생의 자국이런듯 어느덧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눈귀에는 가시주름발이 굵게 잡혀있다.

가까이 다가서보면 시원스러운 이마밑으로 호수처럼 그윽하게 빛나는 두눈에는 높은 지성과 존엄이 깃들어있고 두툼한 입술은 내키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져내려도 다시 열릴것 같지 않아보이는데 누구라도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준수함과 세련미가 조화롭게 비껴있었다.

정시명은 문가에 다가가 창가림막을 올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제꼈다.

밤하늘에 길게 꼬리쳐간 은하수를 따라 멀리 동녘의 하늘가에로 눈길이 갔다.

그 하늘밑에 고향이 있다. 홍안의 시절에 눈물을 뿌리며 떠나온 고국산천이 있다.

안겨준것은 가난이요, 남겨준것은 설음이였건만 그래도 하루 한시 잊어본적 없는 사랑하는 조국.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애모쁘게 가슴을 파고들고 걸음걸음에 감겨드는 어머니의 품.

독립연에 오리라
광복의 봄을 안고오리라
압록강에 푸른 맹세 남겨두고
타향살이 흘러흘러 스무세월 지났구나

내 총검 비껴들고 혈전으로 만리
대륙의 광야에서 흰서리 맞건만
조국아 그대 위해
내 바침이 없구나

허나 그대는 언제나
내 심장에 가득차있는
나의 사랑
나의 량심
나의 꿈이거늘

만리타향에서 보내는
아들의 축복을 받아다오
그대 위함이라면
목숨도 초불처럼 태워갈
사나이의 충정을 받아다오

끓어오르는 마음을 시구에 담아보는 정시명의 눈가에 뿌잇한 안개가 서려든다.

이마적에 그가 여느때없이 애틋한 향수에 취해들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는 사연이 있었다.

조국이 해방된지 한해가 가까와오자 중국에서 알게 된 수많은 인물들이 매일같이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저 찾아왔다.

그중에는 일찍부터 중국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혁명가들도 있고 쟝지에스의 국민당계에 망라되여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김구가 두령으로 있는 상하이《림정》을 비롯한 민족주의적인 정당과 단체들에서 이름을 날리던 고명한 인물들도 있었다.

모두들 신바람이 났다. 조국의 어느 한 기관에서 초청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지레 남쪽의 한 기관의 중책을 맡아가지고 간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누구라없이 묻군 했다.

《정향(정시명이 압록강을 건너선 후 왜놈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줄창 써온 가명이였다.)선생, 언제 떠나시겠습니까?》

친분이 두터워진 중국사람들도 자주 물어왔다.

중국혁명에 바쳐진 그의 숨은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있는 중국의 동지들도 그렇게 물어왔고 그를 아직도 자기들의 세력권인물로 알고있는 쟝지에스의 국민당중앙의 고위인물들도 그렇게 물었다.

각양각색의 인물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정시명은 헌헌히 웃으면서 짤막히 대답했다.

《인차 떠나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이렇게 물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정시명은 여전히 짤막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

어정쩡한 대답에 상대방들은 자못 놀라운듯 고개를 기웃거리군 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정시명의 심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지금도 정시명은 그 애매몽롱한 대답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있다.
어디로 가려는가? 평양인가, 서울인가?…
무엇인가 인생의 중대결단이 요구되는 물음이다.
그것은 조국을 위한 복무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량심의 결론이 요구되는 물음이다. 어쩌면 이제 이어질 삶의 질이 평가되고 지금까지 헤쳐온 생의 길이 총화를 받게 될 엄숙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
《조국을 위한 복무…》
정시명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걷어안고 고민하여왔다.
이런 생각에 휘말려들 때면 먼저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에 개선하시여 조국인민들에게 하신 열화같은 호소이다.
정시명은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을 조직에 대한 지도사업차로 다리엔에 갔다가 들었다.
전파를 타고 이국의 먼곳까지 울려오는 **김일성**장군님의 육성을 처음 접했을 때 정시명은 쇠물처럼 끓어번지는 환희와 격정을 금할길 없었다.
오매에도 그리웁던 위대한 장군님!
백두산을 진감하는 총포성이 신문과 방송에 실려 들려올 때면 조선사람으로 태여난 긍지와 자부심을 비로소 실감하며 한달음에 달려가 슬하에서 피와 땀을 바치고싶던 민족의 어버이!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라는 장군님의 그 애국적호소가 귀전을 울리고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날 정시명은 비상한 흥분과 열정에 휩싸여 속깊이 부르짖었다.
《가자, 어서 가자. 하루빨리 그이를 받들어 미력하나마 나의 성의를 건국에 바치자.》
그는 자기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하여가면서 장군님의 그 간곡한 건국의 호소에 몸과 마음을 바쳐나갈 자신을 그려보며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였고 행복스러웠다.
날과 달이 바뀌여가자 정시명은 조국에 대한 복무라는 이 문

제를 걸고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다. 장군님의 애국적호소에 나는 무엇으로 호응해야 하는가?

근래에 와서 정시명은 이렇게 문제를 걸어놓고 갈라진 조국형편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자기의 몫을 찾군 하였다. 나름으로의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 자기가 나설 자리를 더듬었다.

조국땅에서는 두말할것없이 거창한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사회도 사람들도 산천도 인민의 의사에 맞게 훌륭하게 제모습을 갖추고있다.

세기적변혁의 중심에 세상풍파 다 이겨내신 민족의 자랑스러운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확고히 모신 조국땅의 눈부신 변혁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얼마나 기쁘고 배심이 든든해지는 일이랴.

조국을 다녀온 사람들도 한입처럼 말하며 좋아한다.

《인제는 우리 조선이 살아났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모셨으니 내 나라의 앞날은 창창하다.》

그러나 서울소식은 들을수록 짜증이 앞서고 심상치 않았다.

미태평양군 총사령관 맥아더가 남조선전역에 살포한 《포고령 1호》에서 늘어놓은 수작질만 보아도 자자구구 민족의 전도에 불길한 예감을 준다.

《…

본관은 태평양방면 미군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북위 38°선이남의 조선 및 조선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군정이라니? 이 무슨 당치 않은 궤변이냐.

미국이 장장 반세기에 걸쳐 일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삼천리금수강산을 붉은피로 적셔낸 나라에 군정을 실시한다니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정시명은 맥아더의 포고문을 여러번 읽었는데 그때마다 굴뚝같이 솟구치는 억하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군정이요, 점령이요, 온당치 않는 횡설수설로 엮어진 맥아더의 포고는 매 조항과 문구들이 무엇인가 재난의 먹구름을 배태하고있었다.

딱히는 알수 없어도 확실히 남쪽은 엄청난 불행을 걷어안고 날을 따라 력사의 악순환에 깊숙이 빨려들고있다. 쏘미공동위원회가 무엇인가 해줄듯싶어 한가닥 빛을 보며 라지오의 파장을 맞추군 하지만 듣고나면 한숨과 실망만이 남을뿐이다. 미국놈들의 소갈머리가 벌써 짐작이 간다. 하긴 한푼이 굟아도 움직이지 않는 미국이 어찌하여 남조선에 숱한 군력과 정치, 경제, 외교적인 품을 들이고있겠는가. 미군정요원만 하여도 1 750명이나 쓸어들었다고 하니 그것들이 남녘을 어디로 끌고가려고 하는지 길게 생각할나위가 없다.

분명히 미국놈들은 대국들이 모여들어 저 유럽의 히틀러제국을 토막내서 깔고앉듯이 조선의 허리우에 아직은 가늘게 지나간 38°분계선을 고착시키려고 하는것 같다.

해방된 조국땅에 부닥친 분렬이라는 위험천만한 재앙과 완전독립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그의 심중을 괴롭히였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조국의 가장 훌륭한 아들됨을 자부하는 이 시대의 담당자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조국이 애타게 가리키는, 인민이 내세우는 이 절박한 력사의 요청을 회피할수 없지 않느냐.)

시간이 흐를수록 험악해지기만 하는 서울의 흉흉한 소식에 접할 때마다 정시명은 통분함을 못이겨 밤을 뜬눈으로 밝히다가는 이런 생각에 목이 메군 하였다.

그러나 그게 헐하게 마음속에 자리잡는것은 아니였다. 서울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질수록 헤쳐온 40여년 인생의 돌기가 주마등처럼 연줄연줄 풀려지면서 그의 가슴을 벅벅 훑어내렸다.

가난과 천대와 그리고 시련과 자기희생으로 이어온 험난했던 40여생을 더 엄혹할지도 모를 고난의 자국으로 이어야 한다는것이 너무도 야속하다.

평온과 안식에 대한 인간본능의 유혹이 집요하게 그 모든 량심과 리성의 선택을 가뭇없이 밀어던지군 하는것이다.

그럴 때면 속길이에서는 또 한명의 정시명이 불끈 성이 돋쳐 항변을 들이대는것이였다.

(투쟁의 리유와 동기가 어떻든지 그 모든 기저에는 행복에 대한 인간고유의 갈망이 어려있다. 인간이란 자고로 행복할 권리를 위해 그에 도전하는 온갖 불의와 싸우는것이다. 그 권리를 향유하고저 애써 헤쳐온 고난의 길이 마침내 행복의 대문에로 잇닿은 이 시점에 와서 구태여 나라고 차례지는 행복의 몫을 마다할 리유가 있는가.

항차 나는 북녘에 부모처자를 두고있는 사람이다. 내가 고향으로 가는것은 누구도 시비를 걸수 없는 응당한 권리가 아닌가.)

이렇게 정시명은 스스로 걸머진 고민거리를 놓고 복잡한 마음속의 격론을 벌려왔었다.

정시명은 창가에서 물러나 쏘파에 등을 붙이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상하이민중일보사에서 기자노릇하던 시절에 어느 싱거운 친구가 담배를 붙여물면 생각이 잘 떠오른다는 말을 해서 입에 붙이기 시작한것이 이제는 습벽으로 굳어져버렸다.

한번은 의사직업을 가진 한 동지가 찾아와 정시명이 감옥과 적구투쟁에서 얻은 위병을 고쳐주겠다고 며칠 머무른 일이 있었는데 그가 줄담배질을 하고 폭주를 하는것을 보고는 아연해져서 금주금연이 첫째가는 비방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비방이 그럴듯하여 후에 정시명은 주량은 일상시에 한잔, 정 기분이 동하는 자리에서는 석잔으로 줄였지만 한꺼번에 서너대씩 이어대는 줄담배기호만은 종시 버리지 못했다.

정시명이 다시 담배를 갈아대는데 조심스럽게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시명은 담배불을 비벼끄고는 나들문에 다가가서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똑—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마치도 전건두드리는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것은 정시명의 가까이에서 사업하는 동지들뿐이다.

그는 마음을 놓고 문을 열었다.

《정향선생님!》

키가 륙척이고 얼굴이 검실검실한 쟝지에스군 중위복을 걸친 청년이 성큼 들어선다.

《마동열이 이밤중에 어떻게?》

마동열은 10년전부터 정시명의 곁에서 사업해온 사람이였다.

며칠전에 상하이에 보내면서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러야 할 일감을 주었는데 이렇게 때이르게 되돌아선데는 무슨 일이 있는것 같았다.

정시명은 그의 손목을 잡아 쏘파에 앉히고 부채를 쥐여주는데 마동열이 갔다온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은송선생님을 모시고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은송선생?… 어디에 계시오?》

정시명이 뜻밖의 소리에 의아쩍어하면서도 반갑게 마동열의 말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러는데 아래층에서 《은송이 올라갑니다.》 하는 걸걸한 목소리가 크게 나더니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2층으로 올라오는 나무계단이 쾅쾅 울렸다.

정시명이 문을 열고 마중하였다.

2층으로 중절모를 눌러쓰고 개화장을 든 60대의 건장한 사람이 성큼성큼 올라오고있었다.

은송이란 상하이《림정》에서 외무차관으로 지내면서 근래에는 중국관내의 교포들을 묶어세워 민중독립당이라는 중도좌익적인 당을 만들고 그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한때는 서울에서 공산당창건에도 관여하다가 동북오지에 들어가 독립군에 참가하여 왜놈들과 맞불질을 벌린 일도 있는 반일지사이다. 그런가 하면 상하이에 와서는 《림정》의 한직벼슬을 맡아가지고 중국국민당과도 관계하고 최근에는 중국공산당의 본거지로 되여있는 옌안에도 들락날락하는 얼굴이 넓은 풍운아이다.

정시명은 일찍부터 복잡한 경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진리의 길을 갈망하여 한생토록 모대겨온 은송의 인물됨을 헤아려 자주 상종하면서 품을 들여 혁명적인 영향을 주어왔다.

은송은 상하이《림정》의 기본진이 다 서울에 들어간 오늘날

까지 그냥 상하이에 눌러있으면서 여전히 교포들의 뒤치락거리를 하면서 자리를 뜨지 않고있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정시명은 그가 관할하고있는 일부 인물들속에 리범석이 줄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리범석이란 일찍부터 쟝지에스의 특수기관과 미국전략정보국의 첩자로 변질된 우익적인 민주주의자였다. 그는 분명 중도좌익으로 공인을 받고있는 민중독립당에서 심복을 키워 북조선의 주요기관들과 남조선의 좌익권에 끄나불로 침투시키려고 책동하고있었다.

이 소식에 접한 정시명은 그 수습을 위한 의견을 적어 마동열을 파견하였던것이다.

야밤삼경에 당자가 나타난것을 보면 무슨 긴한 일이 생긴 모양이다.

하지만 원래 사람이 좀 엉큼한데가 있어 속심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은송은 정시명의 손을 덥석 잡아흔들고는 너스레부터 부린다.

《이사람, 마중위. 말이야 제대로 해야지. 제가 나를 모시고 왔나, 내가 저를 모시고왔지.》

은송은 중절모를 벗어쥐고 활활 바람질을 하면서 마동열이쪽을 돌아보며 한쪽눈을 장난스레 쫑깃해보였다.

마동열이 정시명의 앞에서 무랍없이 엉너리질을 하는 은송의 거동에 입을 헤 벌리고 소리내여 웃다가 방을 빠져나갔다.

마동열은 오래전부터 중국관내에서 주먹이 드세기로 유명짜한 청년이다.

그는 일찌기 중국 우한의 격술훈련소에서 제일 높은 고단수의 격술을 수련하였고 그것으로 하여 쟝지에스의 호위소대에까지 발탁되였다가 조선사람이라는 리유로 쫓겨났던 일까지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산시지역의 일본놈들은 마중위라는 소리만 들어도 얼굴빛이 새까매지군 했다고 한다.

몇해전부터 동지들이 마동열을 정시명의 주변에 있도록 한것도 실상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그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였다.

마동열은 마당에 나가 집주위를 한바퀴 돌아보고는 집뒤에 있는

련못가에 앉아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음들에 귀를 강구며 2층의 불빛이 꺼지기를 기다렸다.

아직도 정적을 모살하려는 행위들이 여기저기서 그치지 않고 있었다.

은송은 정시명이 권하는 차를 몇모금 마시더니 정시명의 얼굴을 마주보다가

《독립연에 오리라
압록강에 푸른 맹세 남기고
타향살이 흘러흘러 스무세월》

하고는 소리내여 웃었다.

《시가 참 운도 좋고 가슴을 쿵 치는데가 있습니다.》

은송은 여전히 사람좋은 웃음을 입가에 벙글써 담고 롱절반 진담절반으로 말했다.

《어뿔싸, 그러니 남의 속비밀을 말짱 엿들었군요. 그래 언제 오셨습니까?》

《밤차로 시안역에 방금 내려 곧바로 왔지요. 아, 정향선생이 이렇게 향수에 젖어있을줄 알고 마중위가 려관으로 끄는것을 한사코 뿌리치고 깊은 밤 감히 문턱을 넘어섰지요.》

그들은 다시 유쾌하게 웃으며 자그마한 원탁을 마주하고 앉았다.

《향수라… 허허…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마동무에게 보낸 편지에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다 제기했는데요.》

정시명은 은송이 불원천리하고 상하이에서 온게 자못 궁금해서 인차 사업에로 화제를 몰아갔다.

《정향선생, 내 지역장들을 불러놓고 정선생의 통보를 다 알려주고 긴급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사실은 작별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은송은 웃음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작별이요?… 예, 그래서 오셨군요.》

정시명은 그럴법한 일이라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떠날 때가 되였지요. 그래 언제 떠나시겠습니까?》
《래일 아침차로 곧장 베이징쪽으로 갈가 합니다. 아까 역에 내려서 차표예약을 해놓았습니다.》
《베이징쪽이요?… 그건 어째서요? 서울로 가자면 상하이에 되돌아가서 거기서 일본을 향한 배를 타고 시모노세끼로 가는게 제일 안전하겠는데요.》
정시명은 서울로 가는 전우들의 뒤를 여러번 봐준 일이 있어 이렇게 일깨워주었다.
《하, 그래서 내 오늘 정향선생 뵈오러 왔습니다. 좀 의논도 하려고요. 사실은 난 평양에 가렵니다.》
은송이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평양에요?… 은송선생이야 서울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옳습지요. 고향도 서울이고요. 뭐 평양에 가야 날 기다려줄이도 없지요. 하지만 내 열백번 더 재여보고 결심한바입니다.
난 **김일성**장군님의 휘하에서 일하고싶습니다.》
《그래요?!》
뜻밖의 이야기에 정시명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상하이《림정》의 숱한 인물들이 서울길에 오를 때마다 그냥 상하이에 남아서 바재이더니 그들과 뜻을 달리하고저 드디여 용단을 내린 모양이다.
정시명은 은송의 남다른 뜻과 기개가 반가와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두손을 뜨겁게 움켜잡았다.
《훌륭한 뜻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정시명은 진심으로 그의 결단을 축복해주었다.
《정향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은송이 눈덕이 무겁게 드리우고 낯빛이 어두워졌다. 길게 끌다가 여물구지 못하는 말끝에 깊은 여운이 어려있었다.
그는 정시명의 파고드는듯한 눈길을 슬며시 외면하더니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였다.
《말씀하십시오. 은송선생, 무엇때문입니까?》

《내 실은 결심을 굳힌지는 오래지만 막상 걸음을 떼자니 베찬게 있습지요. 평양이 나의 환국을 어떻게 받아주겠는지…》

은근히 긴장되였던 정시명은 그 소리에 사개가 탁 풀린듯 크게 웃음부터 터뜨려놓았다. 그렇지만 은송의 고충이 인차 가늠이 되여 가슴이 뭉클해올랐다.

은송의 지나온 생을 점검해보느라면 공산주의와 담을 쌓고 지낸 시절도 있었던것이다. 그게 은송의 명치에 옹이져 내려가지 않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정시명은 그것으로 해서 평양길을 념려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모대겨왔을 그 심중이 더없이 미덥고 진실하게 느껴졌다.

무릇 사람들치고 한생에 허물이 없는 인간이 몇이 되겠는가.

문제는 생겨난 허물을 돌아보며 어떻게 평가하고 그 허물에서 어떻게 교훈을 찾아내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런 속에서 인간은 수양되며 완성되여가는것이다.

정시명은 세월의 때가 복잡하게 묻어있는 은송을 참다운 애국의 길,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지금껏 들여온 공이 헛되지 않았다는것으로 하여 스스로 감격스럽고 행복해졌다.

《공연한 근심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는 세월의 묵은때를 말짱 지워버리고 애국의 길을 **김일성**장군님의 품에서 찾은 이 인간의 인생의 전환을 끝까지 지켜주고 꽃피워주고싶었다. 그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자기 마음도 깡그리 합쳐주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싶었다. 평양에 가겠다는 리유가 얼마나 의로운것인가.

그래 정시명은 인생의 황혼기에 드디여 비껴든 아름다운 노을을 더욱 찬란하게 빛내주고싶은 마음으로 곡진하게 위로하고 타일렀다.

《은송선생, 평양에 가시면 **김일성**장군님부터 찾아뵙게 되겠지요?》

《물론입지요. 내가 누굴 믿고 평양에 가려는거겠습니까.》

은송이 주저없이 받는 소리가 정시명의 속을 더욱 후덥게 해주었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장군님께서 은송선생의 귀국을 환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애국의 리념을 진보적인 주의주장의 근본으로 내세우시고 삼천만민족을 한품에 너그러이 안아주시는 그분의 도량과 덕망이야 이미 조국광복회정강에 그대로 비쳐진것이 아닙니까.》

정시명은 글귀마다 애족애민이 철철흐르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짓던 10년전의 은송의 모습이 어제런듯싶어 이렇게 말했다.

《정향선생,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이젠 더는 기웃거리지 않고 가볍게 평양길에 오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싶어 마중위를 앞세우고 왔습지요.

예, 됐습니다. 이게 다 아직도 은송의 속대가 궁근탓이지요.… 에, 에… 정향선생속을 그간 무던히도 썩였는데 언제면… 자, 내 술 한잔 낼랍니다. 허허허…》

은송이 고개를 설레설레 젓다가 가슴이 시원히 틔여가지고 큰소리로 한바탕 웃었다. 정시명도 시름이 가셔진 은송의 얼굴을 보는게 흡족해서 즐겁게 웃었다.

은송이 정말 술 한잔 내려는지 손가방에서 목함을 꺼내 뚜껑을 열고 황금빛갈의 도자기술병을 꺼내놓았다.

《아, 이거 내가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을 얻는가 봅니다.》

정시명이 또다시 맑은 소리로 웃으며 벽장안에서 윤기가 자르르한 놋잔을 꺼내놓았다.

그는 어둑시그레한 방안을 더 밝게 해주고싶어 초대 두대를 꺼내 불을 붙여 세워놓았다.

병마개를 뽑자 모태주의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모태주가 세계적으로 이름난것은 그 향기때문이라고들 한다는데 그럴듯한 소리다.

은송은 그 냄새를 맡으며 몇번 코날개를 벌름거리다가 놋잔에 술을 따르고는 자못 감개무량해서 말을 뗐다.

《이렇게 쉽게 풀리는걸 난 벌써 한해째 망설여왔습니다. 내가 어째서 심대가 바른 사람들만 모여드는 평양을 내놓고 각설

이무리들만 번성하는 서울에 간단 말이요. 자, 듭시다.… 내가 먼저 평양에 가서 자리잡고 기별을 띄우리다.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은송은 입가녁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얼굴을 붉혔다. 당안에 생겨난 불미스러운것들을 밀어붙이고 훌쩍 제먼저 떠나는것이 미안했던것이다.

《그 일은 념려마십시오. 은송선생이 떠나시면 내 인차 상하이에 가서 수습을 하겠습니다.》

《그래 정향선생은 언제 오시겠습니까?》

《인차 가야지요. 나도 정말 이제는 더 못참겠습니다. 벌려놓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쉬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떠납시다. 정향선생이 인차 떠날 생각이라면 나도 며칠 출발을 미루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내친 걸음인데 이왕이면 결심대로 인차 떠나십시오. 그리고 나는 사실…》

정시명이 말끝을 꿀꺽 삼키였다. 지금까지 속깊이 묻어두어왔던 말을 비로소 처음 입밖에 내놓으려니 가슴이 쭝해왔다. 아직도 자기의 결심을 공개하기에는 심장의 박동이 가벼운것 같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찌는듯한 봄별아래서 한껏 달아올랐던 도시는 대륙의 서늘한 밤바람에 식어가며 고요히 잠들고있었다. 늦보름달이 고개를 내밀었는지 정원의 나무들이 희푸릿한 달빛을 안고 미풍에 살랑살랑 잎사귀를 흔든다. 쾌청한 하늘에는 빈구석이 없이 뭇별들이 총총히 들어박혀 반짝반짝 무엇인가 신비로운 이야기를 쉬임없이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은송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시명의 등뒤에 다가섰다. 사람들의 눈가에 언듯 스쳐가는 자그마한 감정의 빛갈도 정확히 포착할줄 아는 은송은 정시명이 전에없이 자기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눈치채자 송구스러워졌다.

그가 알고있는 정시명은 언행이 무거우면서도 정확하고 결패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할줄도 알았지만 정

황과 필요에 따라 조절하고 윤색할줄 아는 세련된 투사이다. 그러면서도 벗들앞에서는 흰종이처럼 깨끗하게 마음속을 비쳐보이는 한없이 결백한 인간이다.

인생세파에 부대껴오면서 하늘높은줄 모르던 은송의 자존심이 정시명의 앞에서는 순식간에 허물어지는것이 다른 리유가 아니다.

인간이 깨끗하고 아름답기때문이다.

그 아름다운 인간적매력에 끌려 은송도 열다섯이나 아래인 정시명의 앞에서는 늘쌍 어깨를 떨구고 선배처럼, 맏형처럼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되는것이다.

오랜 세월 그러한 정시명의 마음가짐에 습관되였기에 이 순간 은송은 그의 개운치 못한 모습에서 저으기 당황해지기까지 하였다.

《왜 그러시오? 정향선생,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은송은 상대방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나누어지고싶어 각근하게 물었다.

《아, 아닙니다.》

정시명이 입가에 어설픈 미소를 짓고는 자기의 복잡한 속생각을 썩둑 잘라던질듯이 큰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은송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평양에 간다는 제멋에 둥— 떠서 상대방의 속은 아랑곳없었던게 무척 죄스러웠다.

그래 그는 한결 다심해져서 그의 속을 조심스러우면서도 끈질기게 흔들기 시작하였다. 은송은 정시명의 말문을 열어놓고싶어 그 특유한 우회의 방법으로 느슨하게 공격을 들이댔다.

《정향선생, 우리가 서로 알게 된것이 언제였던가요?》

새삼스러운 소리에 정시명은 창가에서 돌아섰다.

《감옥에서였지요. 벌써 열다섯해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낯을 익히지 못했어도 마음이 쉽게 통했는데…》

《허허—》

두사람의 얼굴에 그윽한 미소가 어려올랐다. 그 조용한 웃음에는 깊은 감회와 함께 따뜻한 인정이 함뿍 어려있었다.

은송은 지금 정시명이 상하이민중일보사 기자로 일본놈들의 침

략성을 후려치는 글을 련속 발표하여 조중인민들의 심장에 반일항전의 불길이 크게 타오르게 한것으로 하여 왜놈감방에서 옥고를 치르던 때를 거들고있었다.

그때 은송은 중국동북지방의 독립군대표로 의연금을 모으려 상하이에 왔다가 왜놈들에게 붙잡혀 정시명의 옆감방에서 옥살이를 하였다.

그때 두사람은 담벽을 사이에 두고 7년간이나 통방신호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그런데 감옥문을 나설 때까지도 종시 얼굴들을 보지 못하고 헤여졌다.

그후에 이렇게 만날 때면 자주 그 시절을 화제에 올리고 회포를 나누군 하였다.

은송은 이날밤 정시명의 심중을 헤쳐보려고 여러가지로 수를 썼으나 끝내 정시명의 꾹 다물린 입은 성벽처럼 열리지 않았다.

2

정시명은 은송에게 자리를 펴주고는 아침에 먼길에 올라야겠는데 다문 몇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계단을 조용히 내려 뒤뜰로 향하였다.

평양으로 떠나는 은송을 만나니 소용돌이치며 가슴속에서 분화구를 찾던 격렬한 감정을 더는 걷잡을수 없었던것이다.

(은송선생이 부럽구나. 장군님을 뵈옵겠다고, 장군님휘하에서 살아가겠노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그 마음이 부럽구나. 그게 이 나라의 민심이 아닌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광복시대의 도도한 대하가 아닌가.)

팽배해지던 마음의 금선을 은송이 별이 총총한 이밤에 튕겨놓고 만것이다. 어찌할수없이 울린 그 메아리가 온 가슴에 꽉 차서 심장을 흔들고 피를 끓게 하며 온몸을 벅차게 하였다.

《조국으로 간다! 평양으로 간다! 은송은 떠난다!》
정시명은 이렇게 되뇌이였다. 억만가지 소원과도 바꿀수 없는 그 소원을 은송이 이제 성취하게 될것이다. 은송이 받아안을 그 행복의 크기가 헤아려져 가슴속에는 자꾸만 뜨거운것이 욱 치밀어 올랐다.
어쩐지 지금 정시명은 자기가 평생을 그 하나의 희망을 위해 바쳐온것만 같았다. 그 하나의 소원에 지나온 나날에 흘려보냈던 한숨과 절망과 용기와 희열과 땀과 피가 다 응축되여있는듯싶었다.
그것은 어제오늘에 싹튼 감정이 아니였다. 조국이 해방되고 흠모하여마지않던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그때로부터 그의 가슴에 가득차있었던것이다.
《**김일성**장군님!》
그는 그리움에 사무쳐 입속으로 조용히 불렀다. 가슴이 울렁거린다. 눈부리가 따가와진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중국의 무변광야에 전설적인 위인으로 전해지는 **김일성**장군님의 명망에 접하였던 정시명은 어느날 장군님의 막하에서 장군님의 전사로 광복전의 정예대오에 참군하고싶은 절절한 청원을 담은 편지를 드린 일이 있었다.
그때 그이께서는 정시명의 련락원으로 간 마동열을 만나주시고 깊은 신뢰와 고무가 담긴 친서를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시명의 활동소식을 여러 동지들로부터 듣고있다고 하시면서 현재 동지가 중국관내에서 혁명의 한 지하전구를 무겁게 떠맡고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국제주의적의무를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라고 하시였다.
또한 정시명이 우왕좌왕하고있는 상하이림시정부인물들과 중국혁명을 도와주고있는 조선사람들속에서 존경과 신임을 받고있는 유리한 환경을 리용하여 그들이 우국충정을 변치 않도록 이끌어주며 특히 《림정》이 민족성을 견지하도록 측면보위사업을 잘해주면 우리 혁명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해방의 날도 가까와오는데 부디 건강에 류의하여 해방의 날에 조국에서 꼭 만나자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마동열에게는 특별히 어려운 적구투쟁을 긴 세월 이어나가는 정시명동지의 신변을 책임적으로 지켜주라고 당부하시였다.

그 뜻깊은 친서와 따뜻한 은정을 받아안고 그리움에 눈굽을 적시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퍼그나 세월이 흘렀다.

마침내 조국은 해방되였다. 평양과 서울 그리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날리는 전파들이 조국소식을 전해왔다.

정시명은 매일 여러 시간 라지오앞에 마주앉군 하였다.

격동적인 사변들이 눈앞에 방불하게 펼쳐졌다.

그이께서 평양에 입성하시였다!

평양은 새 사회로 끓고있다.

인민의 세기적숙망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강산도 사회도 변혁의 열풍에 휩싸였다. 사람들도 강산도 우줄우줄 키돋움하는것이 막 보이는것만 같았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장군님의 두어깨에 실려있을것이냐. 어서 빨리 장군님 뵈옵고 그이의 중하를 덜어드리자. 건국의 거창한 위업에 어깨를 들이밀자.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고 급해났다.

여겨보면 내 나라의 참다운 미래를 위하여 참으로 사심을 버리고 열혈의 심혼을 바쳐온 사람들은 모두가 평양으로 간다.

마땅한 대세다. 해를 따라 만물이 자라나고 꽃피는것과도 같은 일이다. 반대로 력사의 반동으로 락인되여있거나 공산주의를 끝내 접수하지 못한채 력사적감각을 잃은 사람들은 다투어 서울에 몰려간다. 그것들이 이역에서 보인 작태를 보면 서울에 몰려가서 어떤짓을 하겠는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된다. 그러면 저 서울은 어쩔텐가. 나라의 절반땅이 무슨 꼴로 돼가겠는가.

북과 남이 갈라지는 오늘 서울은 더더구나 누구도 비켜서서는 안되는 곳이다.

시간이 흐르고 서울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식들이 겹쌓일수

록 정시명의 생각은 복잡하게 엉켜들고 심각해졌다.

또다시 민중의 피가 흐르는 결전장들이 눈을 떠도, 잠자리에 들어도 자꾸만 밟혀온다. 분노와 원한이 사무친 눈들이 그 처절한 싸움터를 뒤에 남겨둔채 평양으로 길떠날 차비를 하는 자기를 노려보는것만 같았다. 심장은 평양길에 어서 오르라고 흉벽을 마구 두드리건만 리성은 발목을 잡는다.

(아서라… 다시 생각해보라. …)

정시명은 뜨락을 건너 련못가로 걸음을 옮겼다.

어느덧 은하수는 기울고 삼라만상은 려명을 앞둔 고요속에 묻혀있다. 이상스럽게도 귀따갑게 들려오던 련못가의 개구리들의 청비린 노래가락도 다 기진해버린듯 사라졌다. 물기가 번들거리는 련꽃들이 커다란 이파리를 다물고 반듯한 수면우에서 살랑살랑 흐느적이고 이따금 물고기들이 떠다니다가 먹이감을 노리고 쩜버덩 물소리를 내며 뛰여오르기도 한다. 정향나무에서 풍겨오는 향기가 코구멍을 알싸하게 자극한다.

정시명은 련못을 잠시 둘러보다가 뭇별들의 빛이 바래여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방금 은송에게 하고싶었으나 굳이 입을 다물어 삼켜버렸던 그 애끓는 소원을 되뇌여본다.

《나를 리해하여주시오. 나도 피와 얼을 가진 인간이요. 평양에 가고싶소. **김일성**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건국에 몸바치고싶소.

그러나 나는 서울길에 올라야 할것 같소. 거기가 내가 서야 할 새 전구요.》

왜 이 말을 선뜻 입밖에 내놓을수 없었던가.

아니, 더는 동요하지 말라. 나의 선택에 그 어떤 공명도 영달도 없다는것을 량심을 가지고 보증할수 있다. 나는 행복을 누리려고 새로운 선택을 한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시대가 새롭게 끌어안은 과제를 맡아나서려고 할뿐이다.

이제는 세상에 공개할 때가 되였다. …

정시명은 동요하는 마음에 든든한 대못을 꽝꽝 박아넣듯이 마디마디를 씹으며 나직이 부르짖었다.

정시명은 드디여 번거롭던 감정의 충돌에 결단을 내리였다.

그렇게 하니 가슴이 쩡 열리는것만 같다.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언제 나왔는지 은송이 벙글거리며 서있다.
《아니, 언제 나오셨습니까? 난 지금쯤 굳잠에 계실줄 알았는데.》
《한사람은 고민거리를 안고 별만 쳐다보는데 나더러는 셈평좋게 꿈나라에서 딩굴라니 어디 인사가 되였습니까. 내겐 타향의 마지막밤이니 함께 이슬을 맞아봅시다.》
그들은 유쾌하게 웃으며 련못가의 돌걸상에 나란히 앉았다.
《내 정향선생의 생각을 맞춰보라오?》
은송이 비주름히 입가에 미소를 담으며 은근하게 물었다.
《내 생각?》
정시명은 은근히 두려워났다.
그가 정말 내 속심을 다 계산한게 아닐가.
《나도 이젠 한일없이 나살이나 건사하구 하두 많은 사람들을 사귀여서 제법 관상을 볼줄 알지요. … 에, 당신네들은 너무도 몰인정하다, 당신들은 분주스러운 치닥거리는 다 밀어맡기고 떠나면서도 이 방랑객의 피가 설설 끓는 소리는 듣지 못하느냐. …》
은송이 이렇게 운을 달고 구성지게 엮어대자 정시명이 껄껄 웃었다.
은송이 호걸스럽게 웃고있는 정시명의 두손목을 부여잡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풍상고초 다 겪어온 은송의 눈에 눈물이 글썽하다. 그 역시 방랑객의 설음이 뼈에 사무쳐있는 사람이다.
은송은 정시명이 무엇때문에 전에없이 소심해졌는지 딱히 가늠은 안되면서도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 애절한 심정만은 십분 리해하고있었다.
정시명은 오랜 지기의 눈물을 보자 그 열렬하면서도 진정이 어린 인정에 덩달아 목이 잠겨들었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진심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정말 못견디겠습니다. 조국이 그립습니다. 고향이 그립습니다.

눈을 감으면 부모처자들의 얼굴뿐이지요. 왜놈에게 쫓겨다니느라 처자식얼굴조차 변변히 익히지 못했지요.

그리고 은송선생, 솔직히 말해서 난 우리 혁명의 수뇌로 추대된 **김일성**장군님을 한시바삐 뵙고싶습니다. 난 벌써 오래전에 그분의 전사로 살아가는게 필생의 소원이라 다짐드렸지요.

그분을 몰라서야 무슨 조선사람이고 조선의 애국자이겠습니까.

우리 혁명의 력사를 돌아보면 난 이따금 홀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 서울서 공부할 때, 그러니 20년도경부터였지요.

은송선생도 잘 아시는 제노라 하는 〈공산주의〉거물들과 민족주의두령들은 다 만나보았습니다. 서로 질시하고 싸우고 결국은 주저앉아버렸지요. 솟아오르기도 전에 지리멸렬되고말았지요.

무엇때문이였겠습니까. 내 겨레, 내 나라를 한품에 걷어안고 가꾸어낼만한 웅지와 덕망과 배심을 갖춘 도량이 없었던탓이였지요.

그러니 은송선생, 생각해보시오. 내가 **김일성**장군님을 그리워하는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정시명의 이야기는 대하의 물결처럼 력사의 복판을 폭넓게 그러안고 전개되다가도 사품치며 흐르는 여울물처럼 강렬한 열정과 기백으로 격조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정시명은 일상시에는 그 두툼한 입술을 쉽게 열지 않는 과묵한 성미였다. 그러나 일단 마음이 동하면 눈망울에 광채가 비끼고 입을 열기가 바쁘게 청산류수와 같은 열변이 쏟아져나온다.

그는 어떤 복잡한 문제도 론리정연하게 그림처럼 명료하게 펼쳐보이면서 지성과 열의로 상대방의 심금을 울려놓고야마는 비상한 설득력을 가진 놀라운 웅변의 소유자였다.

은송도 정시명이 펼쳐놓은 추억의 세계에 깊이 공감되여 자못 감개무량해서 응수하였다.

《정향선생, 지당한 말씀이시오. 참말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나도 아까 말했지만 그분이 계시는 평양이기에 더욱 그리워지고 고향길도 마다하고 가볍게 떠나는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렇게 괴로와하는 정향선생을 남겨두고 나도 훌훌 떠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은송은 담배를 정시명에게 권하고 자기도 불을 붙여물었다.

정시명은 한모금 길게 들이마시고는 눈을 잠시 감은채 말이 없었다. 정시명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하느라고 숨을 크게 쉬였다. 기세차게 이야기를 몰아갔지만 역시 은송앞에서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 해도 운명적인 량심의 결단을 실토정하기에는 너무도 베찼다. 더구나 고향이 서울이면서도 굳이 평양에 가려고 하는 은송이고보니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은송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하여튼 장군님을 뵈오면 정향선생도 인차 뒤따라온다고 말씀드리겠으니 너무 마음쓰지 마시오.》

그 소리에 정시명은 충동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황황히 그의 뒤말을 가로챘다.

《은송선생, 그러지는 마십시오. 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다니요. 그러면?…》

은송의 가뜩이나 큰눈이 뗴꾼해졌다. 이사람이 설마 귀국을 단념하자는것인가? 이역에서 타향사람들과 어울리더니 여기에 아예 눌러앉자는것인가?

은송의 두눈에 순간 의혹과 질시의 복잡한 빛이 언뜻 스쳐갔다.

은송이 가까이하던 사람들중에도 귀국행을 포기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저마끔 피치 못할 리유는 있건만 그사람들이 곱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사람이야 그럴수 있는가. 아니 속단하지 말자.

은송은 예리한 눈길로 정시명의 얼굴을 더듬으며 다우쳐물었다.

《말씀해주시오. 난 그걸 알아야 떠나겠소.》

《은송선생, … 난 서울에 가야 할것 같습니다.》

《서울에요?!》

은송이 깜짝 놀라서 비명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정시명이 웃몸까지 흠칫거리며 굳어지는 은송을 마주보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정향선생! 그게 정말이요?!》

정시명의 괴로움을 제나름으로 해석하였던 은송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다. 그러나 정시명의 낯빛은 례사스럽다. 여전히 속생각을 깊이 묻어두고있는 천연한 모습이다. 하기는 정시명이 이런 좌석에서 허투로 실언을 내뱉을 사람이 아니다. 이미 결심이 다져진것 같다.

정시명은 자기의 가슴속을 꿰뚫어보듯 예리하게 지켜보는 은송의 눈길을 피하여 하늘을 쳐다보았다. 평온한것 같은 그의 표정밑에는 사실 복잡한 마음의 갈래들이 서리서리 엉켜있었다.

은송은 한동안 정시명의 일거일동을 예민한 감각으로 훑다가 급기야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심중이 대충 건너짚이자 가슴에 불이 달린듯 확 달아올랐다.

그는 잠시후에야 느릿느릿하면서도 정중하게 물었다.

《왜 서울에 가신다는겁니까? 거기에 어떤 패당들이 모여드는지 정향선생이 모르신단 말이요. 내같이 얼룩덜룩하게 살아온 사람도 평양길에 나서는데 정향선생이 어째서 서울에 가신다는거요. 내 개인의 욕심으로도 정향선생이 평양에 가서 신생조선의 큰일감을 말는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시다니?… 난 찬성할수 없소.》

은송은 정시명의 의사를 꽉 눌러버리려고 년장자의 위엄을 휘두르며 다가든다.

《허허허.》

정시명은 은송이 다소 격한 어조로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자기의 결심을 의심스러워하고 비난하자 허거픈 웃음부터 터치였다. 그러나 인차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눈빛으로 되돌아가서 은송의 묻는듯한 집요한 눈길을 마주보았다.

《서울소식도 아시겠지요?》

은송이 다시 확인하듯 물었다.

《예. 대충…》

정시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하였다.

《그런데두 그쪽에 발길을 돌리겠다는거요?》

정시명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사이에는 한동안 납덩이같이 차고 무거운 기운이 떠돌았다.

은송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시명이 어쩌면 일생을 내맡길 모질고도 운명적인 선택을 내렸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이사람이 또 결전장에 뛰여들려는구나!)

은송은 창졸간에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고 《정향선생!》 하고 부르며 그의 든든한 어깨를 그악스레 움켜쥐였다.

(불사신같은 사람!)

그는 정시명의 침착하고도 사려깊은 모습에서 평생을 나라 위한 한길로만 줄달음쳐온 존경하여마지않는 애국지사의 불굴의 넋의 일단을 새롭게 찾아보면서 눈시울이 축축해오고 고개가 깊이 숙어짐을 어쩔수 없었다.

(나라의 재난을 두고 일신의 안락을 흔연히 버릴줄 아는 이같은 지사가 세상에 몇몇이 될텐가. … 아, … 그렇지만…)

정시명의 결심에 은송은 흉벽을 때리는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도 선뜻 지지할수는 없었다. 또다시 생사를 기약하기 어려운 싸움에 그를 떠나보내는것이 너무도 죄스러웠다. 피어린 투쟁무대를 드디여 내리게 되는 이사람이 다시 사선의 고개가 첩첩할 곳으로 떠나는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는가. 뜻은 원대해도 선뜻 공감을 표할수 없다. 아니, 그래서는 안될것 같다. 어쩌면 정시명의 운명에 분수령이 될지도 모를 이밤에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서 후날에 뼈저린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할것 같았다.

은송은 상대방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정향선생이 쉽지 않게 내린 비상한 결심이 리해는 됩니다. 서울에 가서 다시 싸움판에 뛰여들겠다는 그 고결한 마음에 감동도 되구요.

하지만 정향선생, 나는 지지할수는 없습니다. 20년이 말이 쉽지 그게 어디 적은 세월입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거늘 곱이 되는 세월이지요. 하물며 그 세월의 어느 하루인들 편안히 지

낸적이 있었습니까. 반일항전에 비쳐진 정향선생의 수고를 천으로 만으로 헤아리겠습니까.

그리고 선생이야 나하고도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고향도 부모처자도 다 북쪽에 있고 게다가 평양걸음이 정선생이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너무 자신에게 가혹한걸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뭐 가슴에 돌덩이를 차고 다니는거야 아니지요. 수난으로 이어온 인생을 이제야 비로소 총화짓게 되였는데, 나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조국이 아직도 일본놈들의 발밑에 눌려있다면 그런대로 숙명이니 하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은송은 완고하고도 사리정연한 반대의사를 다시금 중언부언하며 내놓았다.

정시명은 은송이 정색을 하고 힐난조로 자기의 진정을 토해놓자 저으기 당황해졌다.

오래동안 숱한 고민속에서 굳힌 결심을 처음으로 내놓았는데 강한 반대에 부딪친것이다.

은송의 말이 심각해지고 사리가 분명할수록 정시명의 가슴은 쓰려왔다. 그는 마음속에 힘들게 세워놓은 인생의 새로운 기둥을 은송이 사정없이 잘라내고 쓰러뜨릴가봐 겁이 났다.

《아, 은송선생!》

정시명이 어망결에 괴롭게 부르짖었다.

《뭐, 나같은 방랑객이 어디 한둘입니까.》

정시명이 목이 쉰 소리로 중얼거리자 은송이 팔을 홱홱 내둘렀다. 더이상 론의할 여지가 없다는것이다.

《뭐 그런줄 아시고 고쳐 생각하십시오. 서울에 가시다니요. 안될 일입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은송은 그를 놓아주고 성난듯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버렸다.

련못가에 홀로 남은 정시명은 그의 뒤모습에 눈을 박고있다가 한손으로 정향나무의 가지를 움켜쥐고 번거로운 생각에 잠겼다.

벌써 오래전부터 일고잦던 번민이 다시 가슴속에서 태질하기 시작하였다.

서울길에 반대의사를 던진 은송의 말까지 들으니 힘들게 내렸던 운명의 선택이 새삼스럽게 얼마나 심각한것인가 하는것이 폐부에 와닿았다.

(저사람은 내앞에서 속에 없는 말을 해본적이 없다. 나에게 들이대는 아픈 말들이 인간의 심정을 뜨겁게 리해하여주는 은송의 속마음그대로인것만은 틀림이 없다. 가슴에 돌덩이를 차고 다니는게 아니라구?… 그래 그 말은 옳아. 돌덩이라…)

예까지 생각이 뻗어가자 정시명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또다시 동요하고있다는 리성의 목소리가 우뢰처럼 터졌다.

(동요하지 말라. 정시명! 이미 선택한 길은 애국의 길이다. 서울로 가야 한다. 가정의 비극을 외면하는 자식이 어데 있으며 나라의 불행앞에 제몸사리는 애국자가 어데 있으랴.)

정시명은 국토의 분렬과 관련한 **김일성**장군님의 말씀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였다. 구절구절에 맥박치는 겨레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민족의 전도를 책임지시려는 그 원대한 웅지와 고결한 덕망에 접할 때마다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은 열배로, 백배로 커만졌다.

그와 함께 그러한 가르치심의 밑바닥에 력력히 어려있는 장군님의 심려와 불안과 비분을 찾아볼 때면 자기도모르게 심장이 졸아드는듯한 진통을 느꼈고 호흡이 가빠지군 하였다.

자자구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는 장군님께서 해방된 오늘에 와서 제일 가슴아파하시는것이 새 나라, 새 제도, 새 생활창조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평양이 아니라 미국놈들의 군화발에 억눌리고 이그러져가는 서울풍경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고있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의 새로운 선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였고 여기에서 뿌리를 내렸으며 여기에서 굳어진 감정이고 리성의 결단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건국위업에 각자가 힘과 지혜와 열을 모아 줄것을 바라고계신다.

내게는 애국에 한몫이 될만한 돈도 없고 기술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국토의 통일에 이바지할수 있는 경험이 있고 토대도 닦아져있다. 건국을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나의 몫이 바로 서울에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가고싶다고 고향으로 갈수 있으며 기다린다고 해서 항일전사로서의 복과 영예를 찾아떠날수 있느냐.

내가 선택한 길에는 보다 사나운 불보라가 마주쳐올수 있다.

감옥과 단두대가 기다릴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가자, 가야 한다.

정시명! 다시 서약을 다지라.

운명은 이미 결정되였다. 끝까지 인생의 종점까지 나라걱정을 하며 나라 위해 몸바치는 인간이 되라!)

정시명은 정말 서약을 하듯 멀리 동터오는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속깊이 부르짖었다.

다음날 정시명은 시안역에서 다시한번 은송으로부터 다짐을 받았다.

《정향선생, 내가 한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생각을 다시 해주시오.》

그 소리에 정시명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아흔들면서 청맑은 소리로 즐겁게 웃었다. 밝고 명쾌한 웃음이였다.

은송은 저사람의 결심을 흔드는건 하늘을 움직이는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도 흔연히 웃어보이고는 렬차의 승강대에 올랐다.

그는 자기 자리를 봐주려 먼저 차에 올랐던 마동열을 세워놓고 근엄한 어조로 훈시를 하였다.

《이보게 마중위, 내 저분의 도움으로 제 나라 백성된 구실을 하게 된 사람으로 긴히 부탁할게 있네. 뭔가 하니 정선생을 잘 모셔달라는걸세. 난 이게 저분과의 마지막작별일것 같은 위태

위태한 생각이 자꾸 들어 못견디겠네. 자네 내 부탁을 허투로 듣지 말아주게.》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마동열은 어제밤에 그들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딱히 알지 못하면서도 엄숙하게 받아들였다.

기차가 움직이자 은송은 두눈에 더운 눈물이 그렁해가지고 손을 높이 들었다. 그는 정시명이 작은 점이 되여 시야에서 아물거릴 때까지 그렇게 손을 쳐든채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바람에 날리며 승강구에 굳어져있었다.

바래워주는 정시명도 오래도록 한자리에 서서 점도록 부러운 눈길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은송은 오매에도 그리운 고국산천을 밟게 될 것이다.

《아, 은송, 당신이 부럽구려!》

그는 역구내에 있는 나무걸상에 앉아 은송을 태운 렬차가 사라진 후에도 그자리에 눌러앉아있었다.

그의 눈앞으로 고행에 찬 지나간 세월이 련련히 비껴가기 시작하였다.

…

여름이면 지붕우에 호박꽃이 노랗게 피고 가을이면 물동이같은 호박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초가삼간…

고향에 대한 추억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일찌기 화승총을 둘러메고 의병대의 선봉에 서서 태백산과 묘향산오지를 주름잡다가 쉰이 넘어서야 부상당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고향집에 들어선 아버지.

해종일 전야에서 노그라지듯 지친 몸을 끌고 들어와서는 밤새도록 대가정의 시중을 들며 밤다듬이질소리에 가락을 맞춰 끝없이 설분을 엮어가던 어머님의 구슬픈 노래.

나어린 학생의 몸에 달린 오롱이조롱이.

그 시절 그 나이엔 누구에게나 례상사였는데 어찌하여 애들의 재

롱을 받아주는것이 그리도 망신스러웠을가.

어질디어질게만 생겨먹은 안해의 품에서 캐득거리던 그애들의 모습이 떠오르자 정시명은 서둘러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려보기조차 죄스러운 추억이였다.

…눈앞으로 서울풍경이 흘러갔다.

열정과 공상, 방황과 좌절…

서울에서도 명문으로 꼽히던 배재고등학교…

종로뒤골목의 찌그러져가는 판자집들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가.

우듬지도 다듬지 않은 박달나무를 뻗쳐놓았던 학생책방에서 자주 열리던 맑스주의독서회…

공산주의선각자라고 자화자찬하던 사람들이 저마끔 열변을 토하던 3. 1공원…

포도우에 흩날리던 6. 10만세운동의 삐라들…

거리의 곳곳에 나붙어있던 《지명수배자－정시명》광고들…

환멸과 좌절끝에 시작된 방랑살이…

눈앞으로 《망명자의 노래》가 처량하게 울리던 압록강의 거센 물결이 너울거린다.

선양과 베이징, 난징과 상하이…

끝없는 방황끝에 충칭의 어느 주막집에서 토했던 절규가 지금도 고막을 아프게 찌르는것 같다.

《누구냐, 나를 이끌어 태여난 보람을 안겨줄이가? 나의 조선을 구원할 혁명의 진리는 어데 있느냐?

온 세계의 무산자가 받아문 맑스의 붉은 리념을 우리 조선은 어찌하여 불국사의 념불처럼 외우고 모독하고만 있느냐.》

아니, 그것은 내 인생을 한바퀴 돌려세운 뜻깊은 총화였지. …

눈앞으로 어지러운 과거가 밀려가고 피빛으로 불타던 붉은기가 떠오른다.

그 붉은기앞에서 주먹을 불끈 쳐들고 다지던 엄숙한 서약이 구절구절 다시 장엄한 메아리로 울려온다.

《나는 리념적좌절과 방황의 험로를 헤매던 조선사람으로

서 동방민족의 공동의 적 일제와 착취계급을 타승하는것이 조선의 독립과 민중해방을 앞당기는 길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세계무산혁명대오에서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싸울것을 맹세합니다.》

정신적방랑은 이로써 끝났다.

싸움의 목표는 뚜렷해지고 투쟁의 강도는 치렬해졌다.

중세기적인 고문으로 이어진 7년간의 감옥살이…

피어린 총격전들…

죽음의 고비를 무시로 넘나드는 지하전구…

간단없는 추격과 미행과 감시…

담도 커지고 지혜도 커지고 인간도 커졌다.

그에게는 혁명의 커다란 전선이 맡겨졌고 김구의 상하이림시정부도, 쟝지에스의 국민당도 하나의 사업대상으로 되였다.

하지만 중국의 무변광대한 대륙을 누비며 20년세월을 분주히 뛰여다니면서도 어느 순간인들 조국의 산과 강과 그 땅의 주인들을 잊은적 있었던가.

살래야 살길 없어 떠나온 산천이건만 선조들의 뼈가 묻혀있고 부모형제가 살아가고 처자가 기다리고있는 땅이 아닌가. 불타는 전쟁터에 나설 때도 정시명은 처절하던 3.1인민봉기의 피의 나날들을 더듬었다.

구이저우의 유명한 고량주를 들면서도 고향의 시큼털털한 막걸리생각에 가슴이 저려들군 하였다. 수도물도 끓여먹는 난징의 황토빛 물을 마실 때에는 고향마을뒤산에 사시장철 퐁퐁 솟아나던 수정같은 옹달샘이 생각나 눈부리가 따가와지군 했다.

참으로 조국이란 살아생전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만리혈전터에 피를 뿌리고 쓰러진다 해도 기어이 묻히고싶던 향토였고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간직된 사랑이였다. …

《가자, 어서 가자! 내 나라, 내 겨레를 위한 싸움의 불바다를 다시 헤쳐보자!》

정시명은 나무걸상의 모서리를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자리에서 성큼 일어났다.

3

(무엇부터 할것인가?…)

서울행 결심이 드팀이 없어지자 점차 정시명의 어깨는 천근짜리 추가 매달린듯 무겁기만 하였다.

막상 서울로 떠나자고 하니 자신의 력량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정말 그 커다란 짐을 받아멜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에 잠도 오지 않았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얻어듣는 토막자료만 련결시켜보아도 남조선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 력사의 분기점에 놓여있는가 하는것이 인차 판단이 갔다. 이미 료해하고 분석평가된 문제들도 새로운 시각과 립장에서 다시 떠올라 정시명의 심중을 무겁게 하였다.

…남조선정국은 일본《천황》이 1945년 8월 15일 정오를 기하여 항복선언을 발표한 그 순간부터 악마구리끓듯 하였다.

이날 려운형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와 담판하고 그날중으로 서울안의 유지들로 권력인수를 위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다음날에는 이른바 고려공산당이 생겨나고 련이어 백남운이 신민당을, 려운형이 인민당을 조직하였다. 때를 기다린듯 수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경쟁이나 하듯이 서울의 곳곳에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간판들을 걸어놓기 시작하였다. 《3인1당》의 시절이였다.

정당은 삽시에 200여개가 되였다.

남조선전역에 인민위원회들이 재빨리 조직되여 행정관리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순리대로 굴러가던 새 력사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였다.

력사적으로 파쟁을 물려받은 좌익권의 이색분자들과 민족주의자

들이 시대의 변혁에 슬그머니 제동을 걸기 시작한것이다.

그들은 마땅히 조성된 해방정국을 백방으로 리용하여 모든 애국력량을 단합시켜 반동세력을 결정적으로 타승해야 했으나 저마끔 력사의 노를 저들이 젓겠다고 암투를 벌리면서 시간만 랑비하였다.

민주세력이 우물거리고있을 때 불청객이 가뜩이나 소란스러운 집안에 대포를 끌고 달려들었다.

미국놈들은 서울에 기여들자바람으로 《군정》을 선포하였다.

정치라고는 일자무식인 미군장교들이 군정의 각 부서에 책임자로 틀고앉아 일시에 남조선의 권력을 거머쥐였다. 소학교를 겨우 마친 애숭이포병장교가 문교부를 깔고앉아 지체높은 이 나라의 대학교수들과 인테리들을 다스리자고 접어들었다.

침략군의 본색은 강점 첫날부터 드러났다.

미24군단장으로서 강점군사령관직을 차지한 하지는 남조선에서 수세식변소를 가지고있는 유일한 집이였던 일제총독 아베놈의 관사인 경무대에 거처를 정하고 승용차도 일본놈들이 타고다니던 승용차를 리용하면서 일본총독행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는 인민위원회부터 들부셔놓았다. 이해 10월 중순에는 반동세력을 부활시킬 목적으로 손때묻은 주구 리승만을 끌어들였다.

파죽지세로 몰려든 해방기운에 넋을 잃고 시대의 음달에 기여들었던 반동들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반동세력도 순탄치 못하였다. 세상에 나타난 그날부터 골받이로 세월을 보냈다.

미국놈들은 오산하였다. 리승만을 끌어들인것부터 반동세력의 합이 아니라 분렬을 가속화한 화근으로 되였다. 리승만의 매국행적을 알고있는 정객들은 누구나 그놈의 귀국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리승만을 떠밀어주는 미국에 대해서도 싸늘한 눈초리로 노려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때 리승만을 일찌기 상하이《림정》에서 추방하는데 주역으로 나섰던 김구와 김규식이 서울에 들어왔다.

김구는 상하이《림정》을 정통정부라고 주장하면서 리승만의 합

작제의에 코방귀로 대답했다. 한걸음 나가서 친일세력을 정계에서 모조리 추방하라고 하지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우익의 모순과 알륵은 남조선안에 식민지현지기구를 내오기 위한 미제의 흉계가 표면화됨에 따라 더 커갔다.

좌익진영안에서도 곡절이 많았다.

좌익계정당, 단체들이 민전에 결속되고 남로당합당사업이 진전을 보고있었으나 파쟁군들의 책동으로 사분오열의 골이 깊어가고있다.

소용돌이치는 력사의 와류속에서 더욱 첨예화되고있는것은 애국과 매국과의 대결이다. 이것은 낡은 력사가 토해버리고 새 력사가 받아문 필연이였다.

팽배하게 맞선 두 세력의 대결에서 기폭제로 된것은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쏘, 미, 영외상회의에서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기 위하여》 장차 통일적인 정부를 세울것을 권고하는 결정이 채택되였다.

리승만과 김구를 비롯한 우익세력은 이를 신탁통치라고 즉각 반발해나섰다.

미국놈이 바라는바였다.

이해말에 서울운동장에서는 전국반탁운동대회가 열리고 다음해 정초에는 3상회의결정을 지지하는 좌익이 주도한 민족통일촉진서울시민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드디여 좌, 우의 암투가 폭력적인 싸움으로 전환되였다. 동족끼리 때리고 부시는 류혈전이 해방된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인민보》신문사가 습격당하고 좌익인사들이 일체 공직에서 축출되였다.

복잡한 정치정세를 배경으로 남조선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를 비롯한 폭압기관들이 미군정의 조정밑에 하나둘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드세찬 공격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앞에 존재리유가 점차 의심스러워진 미군정은 식민지통치의 주역으로부터 막

뒤조종자로 슬그머니 물러서고있었다.

무대에는 새로운 상전을 날쌔게 업은 매국노들이 조심히 낯짝을 내밀고있었다. …

정시명은 이러한 정세의 기본흐름을 해부하면서 각 세력들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였다. 조만간에 반동세력이 미제의 비호밑에 자기의 대오를 결집하리라는것은 어둠속에서 불보듯 뻔한것이였다.

날을 따라 미국의 예속과 지배가 제도화되여가고 남조선의 권력이 우익의 수중에 빠른 속도로 빨려들어가고있다.

또다시 외래침략자를 반대하는 항전의 기발을 올려야 할것이 아닌가.

정시명은 얼마전 미국의 어느 잡지에 실린 토막기사를 보고 터져오르는 울분과 비애로 온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 기사에는 미륙군성의 대령이 지도상에서 조선을 자막대기로 재여 두토막으로 갈라놓은 선이 38°분계선으로 되였다는 이야기가 짤막히 실려있었다.

반만년을 이어온 단일력사국의 운명이 일개 장교놈의 장난질에 롱락되였다니? 아무런 설명없는 그 간단한 기사가 의문스럽기는 했지만 통탄할 일이였다.

그것이 만약 지속적인 남북의 분렬로 이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주먹이 떨리였다.

그런데도 지금 서울의 정객들이라는것들은 권력쟁탈에만 동분서주하면서 겨레의 머리우에 드리운 이 비운을 생각지도 않고있다.

연구가 심화될수록 정시명은 뒤잔등에 불달린듯 급해났다. 어서 빨리 서울에 가서 그들의 머리우에 천둥번개를 날리고 우뢰를 불러내여 정계를 마구 흔들어놓고싶었다.

(무엇부터 시작할것인가?)

이 저녁에도 정시명은 담배를 붙여물고 방안을 천천히 거닐며 사색을 모아나갔다. 거창하고 책임적인 일거리들이 눈앞에서 산더미처럼 솟아올랐다가는 일시에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하였다.

정시명은 낚시대를 찾아들고 강기슭으로 나갔다. 복잡한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정시명은 줄담배를 태우면서 강가나 호수가에서 낚시질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가벼이 물결치는 수면우에서 간들거리는 낚시깜부기를 바라보며 정시명의 생각은 다시 (무엇부터 할것인가?) 하는 물음앞에서 소용돌이를 하였다.

그가 자리잡은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는 언제 따라왔는지 마동열이 낚시대를 드리우고 이따금 주위를 둘러보군 하였다.

은송의 정중한 부탁까지 받은 마동열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왔다. 벌써 서울에서는 《한민당》의 실권자인 수석총무 송진우가 암살당하고 려운형에 대한 암살미수도 있었다는데 적수를 요람에서 제거하려는 책동이 어찌 중국땅에서라고 없으랴.

실지 마동열은 여러번 정시명을 제거하려는 여러 계파들의 비렬한 기도를 목격한바가 있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있었다.

마동열은 이따금 눈길을 돌려 정시명쪽을 바라보는데 그는 마치도 그자리에 얼어붙은듯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다.

사색이야말로 혁명가들의 존재방식이라고 늘 강조하는 정시명이다.

사색의 심도에 따라 활동의 승패가 결정된다는것은 정시명이 책에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활동과정에 터득한 하나의 신조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임무가 제기되거나 뜻밖의 정황에 부닥쳤을 경우에는 행동에 앞서 사색을 깊이하여 머리에서 무르익고 승리가 내다보이는 완성된 전술적구상이 섰을 때에야 구체적인 행동에로 넘어가군 하였다.

더구나 지하투쟁이란 지혜와 지혜의 대결이며 결국은 두뇌의 전쟁이다.

정시명은 서울에 나갈 생각을 할 때부터 거기서 벌려나갈 투쟁의 성격을 명백하게 지하투쟁으로 설정하여놓았다.

이미 좌우익이 뚜렷이 갈라지고 개개의 정당들이 기틀을 다져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합법적인 조직을 꾸려가지고 이미 첨예화된 정쟁에 진입하는것은 여러모로 얻을것은 적고 오히려 정계를 혼란시키는 결과만 빚어낼수 있다.

그러므로 정계의 막후에서 소리없이 애국의 세력권을 확대시키는 사업을 도와주며 외세와 그에 아부하는 반애국적인 세력들을 고립시켜 최대한 약화시킴으로써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정시명은 투쟁의 총적방향을 이렇게 세워놓고 구체적인 세부를 하나하나 그려나갔다.

낚시줄이 팽팽해지면서 손바닥이 뻐근해지는 감촉이 와서야 정시명이 사색에서 깨여났다. 아까부터 미끼를 꼬리로 툭툭 치며 낌새를 보던 물고기가 《이봐, 엉터리낚시군이구나.》 하고 입질을 시작하는것 같았다.

하지만 무던히도 약은 놈인지 아직은 덥석 물지 않고 살짝 물어뗴고는 동정만 엿보는것 같았다.

《허, 요놈이 나하고 희롱질이구나.》

정시명은 소리없이 웃으며 낚시줄을 늦추어주었다. 고기를 낚으려면 고기의 재롱을 받아주기도 하고 낚시줄을 길게 늘여주며 그놈이 제놈의 장난에 지치도록 해야 한다. 드디여 물고기가 야금야금 갉아먹는 입질에 싫증을 느꼈는지 깜부기가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 주먹에 묵직한 감촉이 왔다.

(그러면 그럴테지.)

정시명은 낚시대를 머리우로 쳐들었다. 팔뚝만한 송어가 낚시에 매달려 펄떡거렸다.

《잡았다!》

마동열이 이쪽을 보다가 환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마동열은 모래우에서 푸들쩍거리는 고기를 두손으로 움켜잡고 제가 좋아 어쩔줄 몰라하였다.

《오늘도 공탕인가?》

정시명이 낚시에 미끼를 걸며 넌지시 물었다.

《에, 에…》

마동열이 대답은 하지 않고 입이 쓰거운듯 투덜거렸다.

《고기도 사람을 알아보고 덤벼든다니깐.》

《흥, 미친년 모꽂듯 해서야 어떻게 고기를 낚아내겠나. 우물들고 마실 생각 말고 마음을 늦춰가며 낚시질을 해야 하는거야.》

《오늘은 기어이 한놈 둘러메고가야지.》

마동열은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미친년 모꽂듯 한다는 말이 그럴듯싶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사실 낚시질에는 전혀 미립이 트지 못하고 재미도 붙이지 못한 마동열은 깜부기가 흔들릴세라 잡아채군 해서 미끼만 떼우군 했다.

다시 낚시를 물속에 던져넣은 정시명은 깜부기에 눈길을 주고 끊어졌던 사색을 이어갔다.

될수 있는대로 빨리 서울에 가야 할것 같다. 정세가 한시도 어물거리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기를 낚으려면 줄을 길게 늘이고 품을 들이듯이 사업준비를 착실히 해야겠다.

무엇보다 남조선정세를 더 깊이 연구하자. 남조선을 둘러싼 렬강들의 동향도 아직 잘 모르고있다. 이런것은 서울에 들어가기보다 남조선밖에서 고찰하는것이 더 정확할수 있다. 그다음에는 남조선에 믿음직한 동지들을 보내는 사업도 해야 할것 같다.

그의 눈앞으로 중국에서 사귀여둔 전우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친분을 두터이해온 인물들중에는 김구의 계렬과 중국국민당계인물들도 있다.

이들이 남조선정계와 권력기관에서 터를 닦는다면 애국세력의 힘을 키워나가는데 크게 도움을 줄수 있다.

정시명은 낚시줄을 강물에 드리운채 사색을 이어나갔다. …

설계가 기본적으로 끝나자 정시명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정향이 서울에 간다는 소식부터 날렸다.

그의 영향속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 소식에 접하고 선참으로 달려왔다.

정시명의 집문턱을 맨 처음 넘어선것은 애국렬사 안중근의 조카 안지생이였다. 안지생은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이였는데 첫눈에는 얼굴이 해말쑥하고 애티가 있어 얌전한 처녀와 같은 인상을 준다.

웃는것도 소리없이 하얗고 가지런한 앞이를 드러내며 발씬 웃는데 그럴 때마다 왼볼에 보조개가 생겨 누구나 사내답다는 말보다 귀엽다는 말부터 하여 당자를 노엽히기도 한다. 그러나 속은 딴판으로 튀기면 챙챙 소리가 나도록 되알지게 여물고 지식도 상당한 정도로 갖고있는 중산대학 중퇴생이였다.

한해전까지만 하여도 안지생은 정시명의 지시를 받고 《림정》계의 후원으로 중산대학에서 공부하여왔다. 대학의 한 지하조직을 움직이다가 지난해 《림정》이 서울에 돌아간 후 대학에서 나와서 그 잔류세력들과의 사업을 하고있었다. 그는 사물에 대한 관찰과 분석도 예리하고 교제술도 좋아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사귀는 재간둥이였다.

두번째로 달려온것은 호남땅의 호부자의 자식으로 일찍부터 인테리들과의 사업을 하여온 김증원이였다. 정시명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속에서 첫째가는 인격자로 존경을 받는데 리론이 있고 웅변이 좋고 행동거지가 정중하여 중국의 군벌들이 수하에 두려고 군침을 흘리던 사람이였다.

정시명의 지도밑에 난징에서 쟝지에스군 참모부의 조선인장교들과 상하이《림정》의 군대인 광복군사령부의 진보적인 민주주의자들과의 련계를 이어주고있던 림인석이도 왔다.

림인석은 첫눈에도 완력이 드세보이는 마동열이와는 대조가 되게 몸매가 호리호리한 청년이였다. 매사에 꼼꼼하고 빈틈이 없었다.

정시명의 지시를 받고 광복군 시안훈련소 부소장을 하다가 쟝지에스군 허베이지구 전선사령부 작전고급참모로 활동하던 조태준도, 동북군에서 려단장으로 있는 최원기도 달려왔다.

모두가 옹근 하나의 지역이나 전구를 타고앉아 쥐락펴락할수 있는 끌끌한 혁명가들이였다.

정시명은 그들에게 남조선정세를 해설해주고 서울에서 나라의 재난을 막기 위한 싸움에 자기와 뜻을 같이해줄것을 뜨겁게 호소하였다.

새로운 싸움은 그 어떤 지시나 강요가 통할수 없었다. 그들의 심

장을 움직이기 위해 련일 밤을 밝히며 입술이 부르트도록 열변을 토해야 했다.

누구나 처음에는 놀라고 의아해하고 대답을 쉬이 하지 못했다.

모두가 평양으로 자기 행선지를 정해놓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의 결심이 충분히 공감이 되여 탓할수는 없었다. 그래 정시명은 벌써 여러차례의 공개장소에서 남녘의 현실을 심려하시는 **김일성**장군님의 말씀들을 라지오와 출판물에서 전해들은것을 다 알려주면서 장군님께서 제일 아파하시는 시대적과제를 함께 맡아안을것을 진지하게 력설하였다.

끝내 전우들은 정시명의 애국충정을 접수하고 그가 내미는 손을 뜨겁게 잡았다.

하나같이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억척의 투지를 안고 기세충천하여 떠나갔다.

정시명이 마침내 서울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각지에 있는 조선교민조직들의 여러 인물들과 중국의 벗들도 찾아와서 작별의 정을 나누었다.

어느날에는 오래전부터 친교를 맺어왔던 중국공산당의 책임일군들도 련이어 달려왔다.

그들은 정시명의 세계무산혁명에 바쳐진 숨은 공로와 혁명가적풍모를 높이 찬양하였으며 작별의 서러운 정을 송별주에 담아 나누었다. 밤을 지새우며 세계혁명가들의 격동적인 행진곡으로 불리우는 《인터나쇼날》노래를 나직이 부르며 기어이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기도 하였다.

정시명은 떠날 차비가 되자 함께 귀국할 전우들만 시안으로 불렀다.

그런데 어느날 마동열이 하얼빈에 갔다가 듣고온 동북소식이 그의 서울길을 지체시키였다.

제 2 장
출 진 전 야

1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큰 키에 이목구비가 굵직굵직하게 생긴 마동열이 갔다온 이야기를 하고나서 한마디 덧붙이는것이였다.

《큰일이 나다니?》

《지금 동북지방의 교포들이 말이 아닙니다. 귀향길에 오른 사람들이 무리로 죽어가고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어째서 귀향길에 오른 사람들이 무리로 죽어간단 말이요. 누구한테 말이요?》

정시명은 마동열의 어정쩡한 이야기에 대번에 기가 뻗쳐올라 말꼬리가 높아졌다.

《누구겠습니까. 일본놈패잔병들과 마적놈들이지요. 제가 밀양간다는 사람과 기차를 함께 타고왔는데 처와 두 자식이 마적패에 걸려 죽고 고향간다고 꿍쳐온 약간의 재물마저 다 털리웠다고 합니다.

그 오라질눔새끼들이…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해방이 된 오늘에까지도 우리 교포들이 이역땅에서 죽어간다는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어질면서도 대가 곧고 의협심이 강한 마동열이 큰 주먹을 부르르 떨며 울화를 터뜨렸다.

정시명도 주먹이 떨렸다. 스쳐보낼 일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오늘에 와서 이역땅에서 생죽음을 당하다니. 너무도 분통한 일이다.

자기 아들딸들을 품에 안아줄 참다운 조국이 없을 때엔 그런대로 살이 떨려도 참는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당한 주권행사를 하게 된 조국을 두고있는 지금에야 또다시 이방의 무리들에게 짓밟히고 수모받는것을 용납할수 있는가.

이걸 모르고있었다면 떠날수 있어도 일단 알게 된 이상 정시명은 훌떡 떠나갈수가 없었다.
서울에 가기 전에 우선 동포들에게 닥쳐든 이 재난부터 막아주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쟝지에스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다.
동북 3성은 일본놈들이 패망한 후 쟝지에스가 통치하고있었다.
그러므로 관권을 업은 공개적인 무장조직을 꾸려가지고 판을 크게 벌리자면 쟝지에스를 내세워야 동북지역의 마적패들과 일본패잔병들의 횡포를 막을수 있었다.
정시명은 곧 난징으로 갔다. 쟝지에스군대의 유일한 조선인장성이던 훈련국장 김송일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정시명이 새로운 조직체를 내올것을 구상하면서 김송일과의 사업을 먼저 생각한것은 그의 영향력을 리용하자는데 있었다.
쟝지에스가 황푸(황포)군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당시 2기졸업생으로서 쟝지에스와도 가까이 상종하였던 김송일은 국민당이 관할한 륙군대학까지 졸업하고 쟝지에스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있었다.
김송일은 완고한 민족주의자로서 김구《림정》에 동조하면서도 반일을 제창하는 좌익세력도 우호적으로 대하고있었다. 그는 충칭에 있을 때 정시명과 몇번 상종하였는데 대번에 그의 인간됨에 반하여 정시명의 말이라면 무겁게 받아들이군 하였다.
정시명이 방에 들어서자 안락의자에 앉아 부하장교의 보고를 듣고있던 김송일은 뚱뚱한 몸을 일궈세워가지고 《아, 정향선생이 오셨소이까.》 하고 뚱기적거리며 반갑게 마주나왔다. 그는 부하장교에게 보고는 한시간후에 청취하겠다고 내보내고 담배부터 권하였다.
《양담배인데 맛이 괜찮소다. 정선생이야 담배부터 내놓아야 좋아하시지.》
정시명이 김송일이 권하는 쏘파에 앉자 그도 재털이를 들고와서 그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새 소식이 없더니 웬일이시오? 혹시 조국으로 떠나시지 않았는가 해서 궁금했소이다.》

《아니, 그런 인사불성이야 있겠습니까. 떠난다면야 김형께 하직인사를 올려야지요. 오늘은 긴히 상론할게 있어 왔소이다.》

정시명은 부관이 들고온 차잔을 받으며 신중하게 인사말을 건네였다.

김송일은 어서 말을 꺼내라는듯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다른게 아니고 전일에 친구에게서 들은 소식인데 동북지방의 조선사람들의 처지가 입에 올릴바가 못됩디다. 나라는 해방되여 한해가 가까와오는데 동북오지에서는 일본놈패잔병들이 무시로 출몰하고 게다가 치안이 문란한 틈을 타서 마적놈들의 행패가 극성입니다.》

《음… 그래서요?》

김송일이 번들거리는 이마를 찌프리며 말을 받았다.

《무슨 방책이 없을가 해서 김형한테 왔습니다.》

《하, 나야 무슨 방책이 따로 있겠소이까. 정선생이 고견을 내놓으면 나도 기꺼이 따르리다.》

김송일의 말은 진심이였다.

우직한 성미를 타고난 김송일은 창조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간은 아니였다. 그런데 그 타고난 성미가 사람들간에 변덕이 없는것으로 하여 때로는 사랑과 존경을 받기도 하는데 그 무지에 가까운 충직성이 쟝지에스의 눈에 들어 조선인으로서 첫 장성별을 따내게 했던것이다.

로회한 정치적수완가로 자처하는 쟝지에스에게는 사고하는 두뇌보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두뇌가 더 쓸모가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조선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에 〈한교사무처〉라는 조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돌봐주는 거류민단체를 꾸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여러 지방에 산재하여있는 조선인조직들과 련계를 가지면서 그들이 귀국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나서서 동포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을듯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조선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주자면 어차피 무장을 잡은 사람들의 행정조직이 있어야지 민간단

체로서는 어림이 없습니다.》

정시명이 취지를 저저이 설명하자 김송일은 대뜸 무릎을 치며 동감을 표시하였다.

《옳소. 그게 좋겠소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 책임자를 어떤분을 내세우는가 하는것인데 내 생각에는 수고스러운대로 김형이 직접…》

《내가? 난 그런 일은 못하오. 나야 무인이 아니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라면 거야 벌써 정사지요. 난 누구하고 말싱갱이를 하고 연설을 하고 수를 내서 백성을 다스리는건 아예 질색이요. 그리고 내 모르는 소견에도 무관이란 정사에 관여해서는 안될 법인줄 아오.》

김송일은 자기 식의 주장을 펴며 정시명의 호의를 조용히 그러면서도 완고하게 사절하였다. 정시명은 그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어느해 김송일이 정시명과 같이 충칭에서 김구가 주관하는 민족주의자들의 모임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조선독립을 운운하면서 차분하게 흐르던 모임이 자아수양과 실력배양을 부르짖는 안창호와 무력항쟁을 주장하는 리동휘의 연설이 엇바뀌면서 열이 올라 미구하여 연단을 저마끔 차지하느라고 주먹싸움까지 벌어졌다.

원래 《림정》의 소란스러운 집안꼴에 환멸을 가지고있던 김송일이 오만상을 해가지고 그네들이 하는 짓거리를 쏘아보다가 권총을 뽑아들고 벌떡 일어났다.

《에잇, 잰내비같은것들!》

김송일은 연단에서 추태를 벌리고있는자들의 머리우로 권총을 마구 쏘아댔다.

벌둥지처럼 소란하던 회의장이 삽시에 조용해지고 연단에서 주먹질을 하던자들도 혼비백산해서 매 본 까투리처럼 연탁뒤에 고개를 틀어박았다.

《림정의 정사라는게 이런건가? 구린내가 난다! 정향선생, 선생은 뭣하려 저런 어지러운 놈팽이들과 어울리는거요. 갑시다.》

김송일이 거칠게 숨을 내쉬며 큰소리로 떠들었다.

그후로는 김송일이 다시는 《림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김송일이 두말을 못하게 돌아앉자 정시명은 난처해졌다.

김송일을 놓친다면 한교사무처의 조직이 불가능하며 설사 조직한다 해도 큰 의의가 없을것이다. 그를 끌어당기는것은 장차 남조선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벌써 정시명의 머리에는 남조선에서 그가 차지하게 될 위치가 선명히 그려져있었으며 그와의 사업목표와 방법이 일목료연하게 세워져있었다. 물러설수는 없었다.

어떻게 하든지 김송일을 가까이 끌어당길것을 결심한 정시명은 말을 잠시 멈추고 김송일의 유들유들한 얼굴을 엄숙한 눈길로 지켜보았다.

숱이 많은 눈섭밑에 유별히도 광채가 번뜩이는 부리부리한 눈망울에 위엄이 어릴 때면 누구나 등골에 찬바람을 느끼게 한다.

김송일이 정시명의 그 랭담하고 무게있는 눈길에 질려 슬그머니 외면을 하자 정시명은 정중하게 말을 이었다.

《김형, 난 이렇게 하는것이 김형을 위해서도 의로운 일로 생각하고 기꺼이 찾아왔소이다. 까놓고 말해서 내나 김형이 이국의 하늘아래서 반생을 전란에 바쳐왔다지만 내 나라, 내 동포를 위해 돌팔매 한번 해본적이 있소? 그런데 어찌하여 김형은 백의동포를 위한 이 자그마한 봉사마저 마다하시오? 이제 조국으로 돌아갈 때 삼천만겨레를 위해 무슨 장한 일을 했노라 하시겠소?》

《아, 아니 그런게 아니웨다. 내 아까 말했지만 정향선생도 내라는 위인을 잘 아시지 않소.》

김송일은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몰아대는 정시명의 말에 맥락이 없이 대답을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김형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김형을 받들어 그 사업을 보겠습니다.》

《정향선생이 직접?…》

《결심을 내리시오.》

목표가 설정된 이상 정시명은 물러서거나 동요할줄을 모른다.

끝까지 검질기게, 완강하게 내밀어 시도했던바를 성사시키고야 물러서는게 정시명의 기질이였다.

마침내 김송일이 요구에 응해나섰다.

그들은 이날 중국 동북의 3성중에서 조선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사는 랴오닝성 소재지 선양에 한교사무처를 두기로 실무적인 합의를 보고 차후행동계획까지 토론하고 헤여졌다.

그 다음날 김송일은 정시명과 함께 쟝지에스를 직접 찾아갔다.

김송일은 정시명을 소개하고나서 조선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북지방의 실태에 대하여 말하고는 그곳에 가서 얼마동안 일하게 해달라고 제기하였다.

쟝지에스는 동북의 조선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불어넣을수 있다는 정치적타산이 서자 그들의 요구대로 한교사무처설립에 관한 명령서를 즉시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김송일을 처장으로 임명하였다. 동시에 김송일이 현지에 가서 주둔군과의 사업도 해야 한다고 선심을 쓰면서 동북보안장관부 고급참모로 임명하였다.

쟝지에스는 김송일의 제의에 따라 정시명을 한교사무처의 부처장으로, 륙군대령으로 임명한다는것도 즉석에서 발표하였다.

김송일은 한교사무처의 조직운영과 관련한 사업은 전적으로 정시명에게 밀어놓았다.

정시명은 김송일의 이름으로 마동열과 안지생을 비롯한 여러명의 전우들을 쟝지에스군대의 별을 달아 한교사무처에 받아들이였다.

김송일이도 어느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눈밑에 마마자국이 남아있는 리창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로어에 능한데 동북지방에 가면 로씨야사람들과 자주 맞다들수 있으므로 쓸모가 있을것이라는것이였다.

김송일은 국민당중앙의 지시라면서 두명의 중국사람도 데리고 왔다.

정시명이 한교사무처에 구태여 중국사람을 두는것이 재미없다고 말했으나 김송일은 쟝지에스비서실의 전화부탁까지 있었다고 하면서 난처해하였다. 그래 정시명은 그 어느 연줄을 탄 밀정들일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이였다.

한교사무처의 역원이 다 꾸려지자 그들은 군용비행기편으로 선양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정시명은 선양에 몰려와있는 조선인거류민들과 피난민들을 모여놓고 한인교민대회를 크게 열었다. 한교사무처의 현판식도 그들이 지켜보는데서 벌려놓았다.

당시 선양에는 정착되여있는 조선사람이 3만명을 헤아렸다.

여기에 조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동북 3성과 중국관내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을 합치면 그 수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대체로 남조선으로 갈 사람들이였다.

다음날 정시명은 김송일을 앞세우고 쟝지에스의 동북보안장관부에 가서 한교사무처가 활동을 시작하므로 지원해주며 동북지방의 유일한 조선인교민권익옹호조직으로 인정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쟝지에스의 비서실로부터 통보를 받은 장관부에서는 그들이 요구하면 병력지원도 주겠다는것을 약속하였다.

돌아올 때 김송일이 장관부의 사령관을 만나 지체하자 정시명이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다.

2

그가 자기 방에 들어서자 마동열이 기다리고있다가 손님이 찾아와 대기하고있노라고 전했다. 정시명의 묻는듯한 눈길에 접한 마동열이 간단히 설명했다.

《매우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시명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마동열이 되돌아가서 쟝지에스군의 대위견장을 단 한 중년사나이를 앞세우고 들어왔다.

《옳구만! 왼쪽날개!》

사나이가 먼저 알아보고 탄성을 지르며 뛰여와 다짜고짜 정시명을 얼싸안았다.

길쑥한 얼굴에 관자노리가 조금 나오고 푹 꺼져든 눈확우로 이마가 두드러져나온 모색이 어데선가 보아두었던 모습이다.

상대방의 순해보이는 얼굴을 세세히 뜯어보며 희미해진 옛 기억을 더듬던 정시명이 문득 생각이 나서 부르짖었다.

《아니, 이게 누구요?! 배재고등의 문지기 김정필!》

서로 얼싸안고 돌아가는 두사람의 얼굴에 상봉의 기쁨과 환희가 밝게 피여났다.

김정필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축구팀의 문지기, 정시명은 왼쪽공격수였다. 독서회에도 같이 다녔고 6.10만세투쟁에도 선두대렬에서 어깨겯고 나란히 행진해갔다. 조선공산당 역원으로도 함께 활동한바가 있다. 스무해전에 일제의 지명수배도 함께 받고 압록강도 함께 건넌 막역한 옛친구였다. 김정필이 부둥켜안은채 말을 잇는다.

《이보게 생각나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정시명이 김정필의 흐느끼듯 갈린 소리에 목소리를 합쳤다.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떠밀어서
나를 떠나가게 하니
간다한들 영 갈소냐
나의 사랑 한반도야》

다 읊고나자 그들은 호탕하게 웃는데 둘 다 눈부리가 벌짓해졌다.

이는 민족주의운동의 거물인 도산 안창호가 1910년경에 반일애국단체였던 신민회의 결정으로 미국으로 망명의 길에 오를 때 마

포에서 작은 배를 타고 조국산천과 하직하면서 읊조렸던 거국가였다. 그후에 《망명자의 노래》로 널리 애창되던 노래였다. 그들도 압록강을 건넌 후 중국땅에 올라서서 조국산천을 피눈물속에 바라보며 목청을 돋구어 이 노래를 불렀던것이다.

그들이 노래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야 그때까지 어지간히 긴장해서 새로 나타난 손님을 살피던 마동열의 얼굴도 벙글써해졌다.

그는 이내 마음이 놓여 밖으로 나갔다.

《어제 교민대회에 우연히 참가했지. 자네 얼굴을 봤네. 그런데 정향이라고 소개하기에 혹시나 했는데.》

《중국관내에 들어와서 이름을 고쳤네. 자네도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게.》

《음… 그렇게 하지. 참 이게 몇해만인가!》

그들은 서로 두손을 맞잡은채 깊은 감회에 잠겨들었다.

압록강을 건넌 후 김정필은 큰아버지가 먼저 솔가하여 자리를 잡고 산다는 허이룽강쪽으로 함께 가자고 권했다. 그러나 정시명은 자기까지 폐를 끼칠수 없다고 굳이 고개를 저었다. 보다는 상하이에 본거지를 둔 민족주의운동에 뛰여들고싶은 열망이 간절해서였다. 그렇게 헤여진 후로는 서로 소식을 모르고 지내왔다.

《허이룽강성에 갔다가 독립군에 들어갔네. 한두해 일본놈들과 불질을 해봤지. 에… 안되겠더라구. 뿔뿔이 흩어졌지. 떠돌다가 쟝지에스군에 들어갔네. 얼마전에 이국살이를 마치고 조국에 돌아갈 승인을 받았지. 그래 돌아가는 수속절차를 알아보려고 선양에 왔다가 자넬 이렇게…》

김정필이 이렇게 20년 곡절많은 인생을 간추려서 단숨에 엮어댔다.

《아직 홀몸인가?》

《웬걸, 잘 생긴 딸이 있지. 난징서 색시 구했지. 신통히도 고향이 나와 같은 경상도태생이였네. 내겐 과남하게도 미녀였지. 절색단명이라고 구름처럼 떠도는 나를 기다리다가 딸 하나 남겨놓고 해방을 두달 앞두고 저세상에 갔네. 왜놈들이 도망치면서 학살

했더구만. … 수속이 끝나면 난징가서 딸을 찾아가지고 인차 고향에 가려네. 집떠나 20년, 생긴건 주름살이고 얻은건 이 누런 장교복 한벌밖에 없네만 그래도 어미닮아 고운 딸 하나 앞세우고 고향집뜨락에 들어서게 됐으니 참 다행일세구려. 허허… 며칠전에 그애 편지를 받았는데 고향에 간다니 그애도 요즈음은 붕 떠서 살아간다네. 허허…》

김정필이 연신 창자가 텅 빈듯싶은 웃음을 터치는데 헐끔한 얼굴에 한없는 비애와 슬픔이 가닥가닥 어려있다.

그 눈길을 슬며시 외면하며 고개를 돌린 정시명의 마음도 처량해졌다. 20년 고행끝에 그래도 저 량반은 딸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고향집에 들어선다. 어떻게들 지내고있는지?… 안해와 자식들의 얼굴이 우렷이 떠오른다. 세월이 하도 흘러 깊은 밤 꿈자리에 들면 쉽게 떠오르는 모습들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표상이 명료하지 않아 어떤 때는 처자식앞에서 심심히 속죄하기도 하는 그였다. 하기는 그 세월에 향학열에 들뜨고 시대사조에 잠겨들어가지고 애당초 처자식에게 정을 두고 살아본적도 없었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부간의 살뜰한 정을 바라는껏 안겨주지 못하고 무정한 세월을 속절없이 기다리게 하는것이 죄스럽기만 하다.

《참, 내 말만 말이라고… 그래 정형의 춘향이는 어떻게 지내는가?》

김정필이 자기의 사말사만 엮어댄것이 미안쩍어 화제를 옮겨놓았다. 배재학교시절 그들의 학급에는 신랑쟁이가 여러명 있었다.

고향 떠날 때 정시명이 두 아이 아버지였다는것을 그도 잊지 않고있었다.

《잘 있겠지.》

《소식은 모르나?》

《모르네.》

《그쪽에서도 정형의 소식을 모르는가?》

《모르겠지.》

정시명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다. 하긴 그가 어떻게 해마다

학생복차림을 한 작은 수첩만한 크기의 그의 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있는 고향집의 기막힌 사실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정시명은 구슬픈 추억에서 벗어나고싶어 우쩍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밤 그들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도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벽무렵에야 잠에 들었던 김정필은 아침을 치른 뒤에 《이보게 정형.》 하고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김정필은 가명을 불러달라는 정시명의 부탁을 뜻있게 받아들인지라 아침부터 부름말을 달리했다.

《난 이런 생각을 했네. 정향형은 무엇인가 뚜렷한 자기의 지향점을 안고 여전히 살아간다고. 학창시절에도 우리들의 길잡이였지.…오늘 우리 시대에 똑똑히 사는 인생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건 우리가 청춘시절에 찾아헤매였던 그 진리의 길에서 보람을 찾는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확신이 맞는다면 나를 예전처럼 가까이 해주게.》

순해보이는 그의 눈에 진지한 빛이 어리였다.

《그러면? … 자네가 입은 이 대위군복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나?》

《그렇다면 정향형의 이 대령옷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필요해서…》

《피차에 그렇게 생각해주게. 난 이젠 이 땅에서 결산을 치른 사람이니 구태여 감출것도 없는 사람일세.》

뜨거운 우정이 넘치는 눈길이 마주쳤다. 정시명은 열렬하게 그의 두손을 잡아흔들었다.

김정필은 자신이 10년동안 국민당군대에서 혁명조직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는것과 장차 새로운 투쟁에 참가할 포부를 안고 고향에 간다는것을 실토하였다.

김정필의 고향은 경상도 경주였다.

학생시절의 김정필은 우정에 충실하고 벗들과의 교제가 넓고 어질면서도 활동적인 열혈청년이였다.

세월의 년륜은 그에게 주름살만 깊이 새겨준것이 아니라 투사다운 굳세고 세련된 미와 향취를 풍기게 해주었다.

정시명은 새로운 투쟁무대에 오르면서 너무도 쉽게 믿음이 가는 동지를 얻게 되여 여간 흡족하지 않았다.

김정필은 함께 움직이겠으니 자기를 한교사무처에 받아달라고 하였다. 그 소리에는 정시명이 심중해졌다.

《이보게, 이왕 떠나는 길이니 곧바로 조국으로 가게. 집에 소식을 전했다니 얼마나 기다리겠나. 난징에 있는 딸도 귀향길이 미루어졌다면 섭섭해할게 아닌가. 먼저 가는것도 필요하거든.

우린 아직 여기서 몇달은 더 일을 해야겠네.》

그러나 김정필은 한사코 자기를 수하에 받아달라고 떼질을 하였다. 타향에서 겨레를 위한 마지막봉사인데 꼭 참가시켜달라는것이였다.

하는수없어 정시명은 내키지 않는 마음에서 반승낙을 하고 김송일한테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래도 인원이 찼다는 핑게로 도리질을 했으면 했는데 정시명의 소개말을 듣더니 두말없이 그에게 손부터 내밀었다.

《부처장의 의향이신데 내게 가부를 물으실게 있소.》

이리하여 김정필이도 한교사무처사업에 인입되였다.

한교사무처가 선양시 복판에 커다란 현판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귀국민들도 찾아오고 강도들에게 략탈을 당한 중국사람들도 송사를 하려고 찾아왔다.

당시 이곳은 조선인뿐아니라 미처 귀국하지 못한 일본인들과 중국내륙에서 온 피난민들까지 겹쳐 혼잡하기 그지없었다.

이 틈을 타서 나쁜놈들이 작당하여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물을 략탈하였으며 부녀자들을 백주에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서 공공연히 릉욕하였다. 극도의 사회적불안이 조성되여 그야말로 선양일대는 범죄의 마굴로 전락되여갔다. 그러던 선양에 현판까지 버젓이 내붙인 한교사무처는 이 일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와도 같은 존재였다.

동북의 민심이 한교사무처에 쏠리게 되자 기세를 얻은 김송일은 선양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조중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걸싸게 벌려나갔다.

한교사무처는 무장부대까지 인입하여 시안의 질서를 교란시키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로략질하는 수많은 떼강도배들과 비적들을 숙청하였다. 어떤 때는 시내와 린근농촌지역들에서 격렬한 총격전도 벌렸다. 선양시를 비롯한 동북지역의 쟝지에스의 관할밑에 있는 주요조선인거주지역의 치안은 점차 안정되여갔다.

3

그들의 활동에는 뜻하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였다.

한교사무처의 명성이 높아져 서울까지 전해지자 우익계렬이 《조선인선무단》이란것을 조직하여 선양에 들이밀었던것이다.

책임자는 상하이시절에 리범석의 밑에서 테로를 벌려온 놈이였다.

이자들은 동북지방의 조선사람들속에 한교사무처가 공산주의위장조직이며 부처장 정향대령도 공산주의자라는 여론을 돌리였다.

정시명은 이들을 청산해버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김송일에게 그놈들이 선양일대를 싸다니면서 한교사무처의 권위를 헐뜯고있는 사실을 자료로 묶어 넘겨주었다.

한교사무처의 활동성과로 하여 동북지방에서 명성이 부쩍 높아지고 저으기 기세가 좋았던 김송일은 그 자료를 보자 단박에 낯색이 불그락푸르락하였다.

《당장 쫓아내든지 목대를 분질러놓든지… 이놈들이 감히 눈앞에 김송일이 버티고있는걸 몰랐던 모양이군. 이건 나에 대한 선전포고야!》

김송일은 자리를 털고일어나 정시명이 보고서의 마지막에 서

술한 대책적행동방향에 따라 동북보안장관부 사령관을 찾아 갔다.

그동안 한교사무처의 활동을 루루이 보고받아왔던 동북보안장관부 사령관은 김송일의 제안을 쾌히 받아들여 이튿날 《조선인선무단》패거리들을 전부 장관부에 잡아들이였다.

며칠후 다시는 선양일대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문건에 지장을 꾹꾹 찍게 하고는 호송병을 한개 소대나 풀어 베이징북쪽으로 추방해버리였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졌으나 정시명과 그의 전우들에 대한 도발은 상시적으로 존재하였다.

베이징북쪽으로 쫓겨난 놈팽이들은 조선사람이 많이 사는 동북에서 자기의 활동거점을 잃게 되자 음흉하게 정시명을 모해하기 위한 책동을 벌렸다.

놈들은 선양에 자객을 고용하여 잠입시키거나 제놈의 심복들을 내세워 정시명과 한교사무처에 대한 여러가지 험담을 퍼뜨리기도 하고 지어는 암살단을 무어 정시명의 뒤를 검질기게 쫓아다니게 하였다.

어느날 저녁 한교사무처에 소속되여있는 중국사람이 찾아왔다.

정시명은 지금까지 그사람들의 정체를 파악해내지 못하였다.

수상한것이라면 이따금 두사람중에서 한명씩 어데론가 사라졌다가는 나타나군 하였는데 둘 다 선양교외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군 한다고 했다.

이날 중국사람은 선양시의 조선인거주지역의 어느 한 2층집에 정향선생에 대한 암살을 이틀후에 벌리게 될 테로단이 모여있다고 전하였다.

정보의 출처를 캐물으니 자기도 얻어들은 소리인데 틀림없는것 같으니 대책을 세우는것이 좋겠다고 하고는 조용히 물러갔다.

정시명은 그의 정보를 우선 믿기로 하였다.

정시명은 주저없이 옷을 갈아입고 침실을 나섰다.

(위기를 피해다니기만 해서는 피동이다. 맞받아나가 위험인자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놈들을 완전히 눌러놓지 않으면 금후 활동에 엄중한 후과가 조성될수 있다.)

송사리떼와 아귀다툼을 하는것 같아서 싱거운 생각도 들었지만 어차피 한번은 맞다들어 되게 다불려놓아야 할것 같았다.

정시명은 마동열의 침실에 들려 제기된 상황을 설명하였다.

마동열이 자못 긴장해서 정선생님은 계시라고, 자기가 몇명을 데리고 가서 놈들을 체포하여 장관부에 넘겨주겠노라고 말했으나 정시명은 떠들지 말고 자기를 조용히 따라서라고 하고는 문을 나섰다.

그들은 주저없이 악당들의 소굴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안에는 다부산자를 입은 건장한 사나이 넷이 해사하게 생긴 계집을 끼고앉아 화투놀이를 하고있었다. 마개 뽑힌 술병들이 딩굴고있는것으로 보아 술도 마신듯 했다.

정시명은 정중하게 자기 소개를 했다.

《내가 당신들이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시안판사처 처장 정향이요. 그리고 이 젊은인 당신들이 무서워하는 마중위요.》

그러자 놈들은 아연실색해서 서로 눈길을 마주치며 어쩔줄 몰라했다.

시안판사처 처장의 명망은 상하이패들속에 너무도 잘 알려져있었던것이다. 마중위라는 이름도 이놈들이 알고있었다.

네명중에서 이마에 칼자리가 나있는 놈이 두목이고 나머지놈들은 그놈이 달고온 심복들인것 같았다.

정시명의 정중하면서도 위엄이 있는 소개말에 두목이 저도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약간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이거, 선생님을 몰라보아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차렸다.

좌중을 둘러보던 정시명이 양복에 넥타이까지 꼼꼼히 매고 색안경을 끼고앉아 뒤에서 눈치만 살피고있는 사나이에게 칼끝처럼 예리한 눈길을 박았다.

《옳지. 이 암살단이 누구의 조간인줄 알겠다. 문진국! 정체를 밝히지.》

정시명의 담담하면서도 서리발같은 추궁에 그 사나이가 안경

을 벗더니 앞으로 나선다.

《정향선생, 오래간만입니다.》

인사가 제법 정중하고 틀진데가 있었다.

《당신도 리범석이처럼 끝내 미국의 개노릇을 하고있는 모양이군.》

《뭐요?》

헤식은 웃음을 띠우고 창졸간에 벌어진 일에 극도로 당황망조해하던 문진국이 발끈 화를 내며 도전적으로 정시명을 노려보았다.

《네놈이 김구의 이름을 걸고 또 주인님을 해치려 해. 에잇, 돼지보다 못한 자식!》

마동열이 문진국의 상판에 한주먹 먹이고싶어 벽력같이 소리를 치며 한걸음 나섰다.

《마중위, 그만하오!》

정시명이 조용히 타일렀다.

두해전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림정》의 무력이라고 칭하던 광복군사령부에 참모로 공작하던 조태준이 정시명을 찾아왔다.

그는 정시명에게 피신하라고 하면서 리범석이 세개의 암살대를 조직하여놓고 기회를 노리고있다는것이였다.

평소에 안면이나 익힌 정도로 알고지내온 리범석이 정시명을 향해 칼을 뽑아든데는 리유가 있었다.

당시 정시명은 리범석이 쟝지에스의 비밀정보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정보자금을 받으며 특무노릇을 하는가 하면 미전략정보국 충칭지부에 정식 등록된 요원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림정》참모총장 류동명에게 통보해주었다.

류동명은 그것을 김구한테 보고하고나서 한주일동안 리범석을 독감방에 가둬놓고 끝내 토설을 받아내고야말았다.

당장 목을 치라고 불호령을 내린 김구는 닭똥같은 눈물을 둘둘 굴리며 사죄하는 리범석의 가련한 몰골과 그놈을 처치하는 경우 받게 될 외부세력의 압력을 우려하여 일단 풀어주었다. 리범석이 뒤날에 그 자료를 정시명이 제공한것임을 알아가지고 살인지령

을 내렸던것이다. 조태준은 그 암살단을 조종하고있는자가 리범석의 부관으로 있는 문진국이라고 하였다.

정시명은 이튿날 류동명과 함께 김구를 찾아갔다.

정시명의 이야기를 들은 김구는 당장 리범석과 문진국을 잡아들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윽고 리범석과 문진국이 《림정》요인들이 주런이 올방자를 틀고앉은 대청에 대령하였다.

《이실직고하라.》

김구는 대청이 떠나갈듯 소리질렀다.

리범석은 고개를 들어 좌우팔방을 살피다가 정시명이 앉아있는것을 보자 고개를 꺾어질듯 푹 떨구었다. 그놈이 얼마나 기절초풍했는지 쓰고있던 도수높은 안경이 돌마루에 툴렁 떨어져 박살이 나기까지 하였다. 가까스로 용서를 받고 풀려났지만 리범석은 그후에도 정시명을 제거하려고 별지랄을 다 썼으나 그때마다 그의 발밑에 묻혀있는 성원들과 마동열을 비롯한 정시명의 전우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때에 적발분쇄되군 하였다. 이번에도 리범석이 동북지방의 소식을 전해듣고 후에 제놈의 강력한 적수로 귀국할 정시명을 지레 타향에서 모살할것을 시도하여 문진국을 현지에 파견하였던것이다. 적수들을 파리잡듯 하는것이 체질화된 놈들이였다.

《정향선생은 어째서 우리 참모장님을 그렇게 하치않게 랭소하는겁니까. 그러니 그 어른도 선생을 가만두자고 할수 있소?》

문진국이 정시명의 규탄의 목소리에 도전조로 대들었다.

문진국의 소리를 듣자 정시명은 상대방을 뚫어지라 쏘아보았다.

(그러니 저녀석도 리범석의 무엇에 매혹되여있는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천진스러운 소리를 하고있겠는가.)

문진국이 리범석의 정체를 아직도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무슨 소리요? 당신들은 그때 나의 통보를 반신반의하였지만 그건 여러 선에서 확증된 정보였소. 생각해보오. 해방이 되여 김구의 귀국을 그렇게도 막아나서던 미국놈들이 리

범석만은 특별비행기를 내여 중국주둔군 미군사령부 웨드모웨이까지 직접 동행하여 서울에 〈모셔〉갔소. 하지중장이 직접 소개를 받았지.》

《그건 나도 압니다. 그 석상에 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건 공식적인 면담이고 거기에서 의심할만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요. 리범석이 얼마전에 정식으로 귀국할 때는 김포비행장에서 환영식까지 크게 벌려놓았소. 당신은 김구선생이 비행장에 내려 미군병졸들의 감시밑에 풍차에 실려 서울에 들어간것을 알고있소?》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

그때 옆에 있던 마동열이 문진국의 대답질이 하도 답답스러워 꽥 소리를 질렀다.

《여보, 당신이 도대체 리범석의 눈치밥을 먹은 사람이 옳긴 옳소? 그쯤 되면야 당신 상전이 어느 놈의 개인지 판단이 안간단 말이요?》

문진국은 마동열의 까박까지 당하고는 더는 대꾸질을 못하고 《두고봅시다.》 하고 꽁무니를 빼려고 방에서 나갔다. 마동열이 두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문진국을 따라나가다가 《됐소. 그까짓거 놔두라구.》 하고 정시명이 눌러놓는 바람에 돌아섰다.

문진국이까지 사라지자 테로단놈들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 서로 쥐구멍에라도 숨어들듯한 꼴이 되였다.

《보아하니 당신들도 살인을 치를 졸부들은 아닌것 같구려. 내 생각던 끝에 당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찾아왔소. 아니 당신들의 죄상을 회계하자고 왔소.》

《거 무슨 말씀이시오?》

일당중에서 눈알이 앞으로 툭 삐여져나온 눈딱부리가 쥐고있던 화투목을 마루바닥에 홱 던지며 벌컥 성을 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했다. 흉기를 꺼내려고 한 모양이였다.

두목이 그의 옷섶을 잡아당겨 제지시켰다.

《자중하고 다들 앉으시오. 경거망동은 사내들이 할짓이 아니요.》

정시명은 그놈을 노려보며 위압조로 말했다.

《정말 당신들의 죄상을 세상에 발가놓아야 정신이 들겠소?
청맹과니 아닌 이상 대세를 알아야지. 당신들이 지난날 자파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분별없이 날뛴것은 그래도 리해가 되오. 강도 일제에게 조국을 빼앗긴 설음이, 살래야 살길 없는 인생의 막바지가, 더우기는 좌표가 없이 좌충우돌하던 복잡다단한 운동들이 당신들을 생사를 기약할길 없는 극단의 싸움에서 리성을 잃게 했을거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지 않소.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소. 우리를 손저어 부르는 어머니품이 있단 말이요. 피눈물을 뿌리며 한을 남기고 떠나온 조국산천이 지금 우리를 찾고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아직도 옛적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공산주의자요, 민족주의자요 하며 마구 류혈의 칼을 휘두르고있으니 그래 이게 조선사람이 할짓이요? 어디 말들 해보오. 이 정향이 당신들의 머리카락 한오리 다쳐놓은적 있었는가? 한교사무처가 당신들의 돈구멍을 막은적이 있는가? 내 나라, 내 겨레를 위해서 그래도 자그마한 성의라도 보이고싶어하는 한교사무처가 어째서 당신들의 눈에는 가시가 되여보이는가.
설사 당신들의 주장대로 공산주의조직이라 한들 내 조국에 대한 봉사를 하고있는데 흠잡을게 뭐가 있단 말이요. 오늘이나 래일이나 종당에는 당신들도 내 나라지경에 들어가 뼈를 묻힐것이 아닌가. 그런데 해방된 오늘에까지 이국땅에서 이따위 모략과 류혈참극을 벌리려 하니 그래 인민이, 조국이, 고향땅이 용서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시명의 추상같은 단죄에 패당은 무릎을 꿇고야말았다.
상대방의 심리를 꿰들어 명석한 지성과 론리의 힘으로 놈들의 죄상을 준절히 꾸짖는 정시명의 류창한 열변이 수십년세월 죄악의 버캐에 눌리워있는 량심의 마지막쪼각을 세차게 흔들어놓았던것이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두주먹을 돌덩이처럼 틀어쥐고 놈팽이들을 노려보던 마동열은 정시명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놈들을 보자 안도와 경탄과 통쾌함을 금할수 없었다. 마동열은 정시명을 따라나설 때만 하여도 오늘밤은 필경 류혈적인 싸

움이 있으리라는것을 의심치 않고 매우 긴장되여있었다.

정시명은 이자들이 오늘은 자기들의 죄상을 뉘우치지만 며칠 지나면 또 굳어진 본성이 살아날수 있다는것을 예상하여 오금을 박았다.

《일어들서시오. 나는 당신들의 참회를 받으러 오지 않았소.

내 굳이 찾아온것은 당신들때문에 이 동북땅에서 내 나라 망신을 시키는게 가슴아팠기때문이요. 난 당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겠소.

하지만 귀국민들을 마저 보내야겠소. 그러니 당신들부터 당장 선양을 떠나시오. 요구한다면 조국으로 가는 배편을 주선해주겠소.

하지만 다시 동족을 물어뜯는 너절한 놀음을 한다면 우리의 동료들이 당신들을 가만놔두지 않을것이요. 위협이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밝혀두오.》

그러면서 정시명은 푸른 색갈의 마분지로 만든 장지에스의 특별신임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두목의 코앞에 내밀었다.

신임장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본 신임장의 소지자에 대하여 총통의 동의없이 구속 또는 활동제한을 불허한다.》

놈팽이들은 신임장을 돌려보고나서 더욱 눈이 휘딱해졌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이런짓을 하지 않으렵니다.》

두목놈은 연신 허리를 굽석거리고는 정시명과 마동열을 길가에까지 따라나와서 바래주었다.

정시명에게 위압되고 어느 정도로 감화된 테로단놈들은 다음날 아침 선양에서 꼬리를 감추었다. 문진국이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4

정시명은 새벽무렵에야 김정필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김정필은 쇠침대에 눕고 정시명은 노전우에 누웠다.

아침에 김정필은 떠나간다. 난징에 가서 딸을 찾아가지고 정시명일행에 한발 앞서 서울로 들어간다. 그래 저녁상을 물린 후에는 지금까지 사업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자기 침실로 돌아가겠다는것을 굳이 붙잡았다. 김정필에게는 이밤이 이국의 하늘밑에서 보내는 마지막밤이 아닌가.

정시명은 어쩐지 그 마지막밤을 자기 잠자리에서 보내게 하고싶은 감상에 젖어있었다. 김정필이 자꾸만 궁싯거리고 그럴 때마다 쇠침대가 삐그덕거리는것으로 보아 확실히 김정필에게서는 생각이 많은 저녁이다.

《정향형, 자나?》

김정필이 노전에 허리를 붙인 정시명이 쥐죽은듯 잠잠하자 이렇게 불렀다.

정시명은 입가에 미소를 담으면서도 일부러 데면데면한 어조로 응수하였다.

《음… 난 좀 피곤해.》

몇시간 지나면 먼길에 오를 김정필이 얼마간이라도 눈을 붙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면서도 김정필이 무슨 이야기라도 다시 꺼내주었으면싶었다.

정시명은 김정필과 더불어 지낸 나날들이 몇달 되지 않았어도 참으로 마음이 편안하였다. 학창시절에 있었던 가지가지 이야기들이 둘의 사이에 떠오를 때면 정시명의 마음에도 젊음이 돋쳐 끝없이 펼쳐지는 추억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수리개마냥 훨훨 나래치군하였다. 한바탕 신이 나는 이야기에 묻혔다가 나면 내게도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막역한 친구가 있었던가싶어 얼마나 다행스러웠던가.

지금까지 그가 상종해온 사람들은 공작상 필요로부터 이어진 벗들이거나 아니면 적들이였다.

그는 벌써 20년 방랑생활에서 자기를 잊어버린지 오랬다.

멀리로 아득히 멀어져갔던 생활, 비켜갔던 생활의 향기와 정을 김정필이 안아온것이다. 세월없이 흐르던 시내물의 조잘거림도, 방학이면 신이 나서 달려가던 고향의 동뚝길도, 서울 궤도전차

의 딸랑거리는 종소리도, 티각거리다가도 얼싸안고 돌아가던 학우들의 따스한 입김도, 재미나게 옮겨지던 벗들의 련애담도 김정필이 안아온것이다.

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수 있는 하루를 보내고 몰려든 피로를 그러한 이야기속에 가뭇없이 씻어갈 때면 정시명은 《아, 삶이란 얼마나 귀중한것이냐.》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으로 때없이 흐뭇해지군 하였다.

김정필의 숨소리가 커졌다.

(저 친구, 벌써 잠든게 아니야?)

정시명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상반신을 일으켜 친구의 잠든 모습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에잇, 벌써 곯아떨어지다니…)

김정필의 앞에서는 허물됨이 없었다. 아무런 이야기도 간격을 버리고 할수 있다.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구태여 가꾸느라 윈심을 쓸 필요가 없다. 너무도 서로를 잘 아는 터이라 생겨먹은 그대로 통하면 된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정시명은 비로소 깨달은것 같다. 참으로 마음을 터놓을수 있는 혈육도, 친구도 없이 헤염쳐온 20년간의 망명살이에 처음으로 찾아든 행복이였다. 이래서 옷은 새옷이 좋고 친구는 오랜 친구가 좋다는걸가.

코고는 소리가 났다. 고지식한 김정필이 무슨 말을 할듯싶었는데 정말로 자기 말을 곧이 듣고 생각을 지워버린 모양이다.

정시명은 자리에서 살그머니 일어나 벽장에 감추어두었던 빼주 한병을 꺼냈다. 그리고 마른 명태 몇짝을 꺼내 잘게 찢었다.

며칠전에 마동열이 가져온것이였다. 정시명이 저녁마다 한잔씩 하고 잠들라고 마련해오군 하지만 실은 마동열이 정시명이 몰래 마셔버리는 술병이 더 많다.

정시명이 놋잔까지 꺼내놓고는 김정필을 조용히 흔들었다.

김정필이 벌떡 일어났다. 늘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살아온 탓으로 이 무던하기 그지없는 사람도 예민한 감각이 굳어진 모양이다. 김정필이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등잔불밑에 차려진 술판을 보더니 대번에 입귀가 가로 째졌다.

그래도 침대에서 내릴 차비가 아니다. 선잠에서 깨여나기가 아수한 모양이다.

《에잇, 못난이. 잠은 서울 가서 실컷 자라구. 작별주야 들고 떠나야지.》

정시명이 그가 아직도 걸치고있는 담요를 훌렁 벗기며 유쾌하게 말했다. 그제서야 김정필은 시무룩이 웃으며 《작별주는 무슨 작별주. 이제 인차 서울에서 만나겠는데. 서울에 가면 인차 우리 고향에 함께 가자구.》 하며 침대에서 내렸다.

《경주 법주를 동이채 내놓으리다.》

《하하하.》

그들은 사뭇 즐겁게 웃다가 정시명이 《쉿!》 하며 손가락을 입에 가져가서야 둘은 동시에 뚝 그쳤다. 나무로 지은 건물인데다가 간벽이라는것도 목삭판이여서 옆방에서 울리는 기침소리마저 들리군 한다.

《정말, 김형이 가져오는 법주가 일품이였소.》

정시명이 목구멍이 화끈 달아오는 빼주 한잔을 마셔버리고는 감회에 젖어 중얼거리였다.

예로부터 경주 법주라면 령남이 자랑하는 3대명산의 하나이다.

청주빛갈처럼 술빛갈이 노르므레하게 곱고 향기 또한 그윽한데다가 감칠맛이 좋아 리조시기에는 왕실에 가야 맛보았다고 한다.

배재고등학교시절에 김정필이 방학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의례히 열홉들이 오지항아리에 목까지 채워와서는 신포친구가 메고온 북어를 씹으며 마시군 하였다.

김정필이 명태쪽을 씹으며 느닷없이 《여보게, 정향형. 맏이가 이젠 몇이 되더라?》 하고 물었다.

《우리 맏이가?… 음, 스물하고도 여섯이 됐지. 갑자기 그건 왜?》

김정필의 눈이 의뭉스럽게 쫑깃거린다. 정시명이 이내 김정필의 속내를 알아차렸다.

《하하…》

정시명이 그만에 속이 텅빈듯한 웃음을 터뜨려놓았다.

그러나 이내 웃음을 그치고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흉중에서 알찌근한것이 매달려 가슴을 후비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정필이 상대방의 속셈은 생각못하고 나무라운 소리를 했다.

《왜?…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라. … 이건가?》

《아, 아니.》

정시명이 김정필의 엄청난 곡해에 당황해서 고개를 들고 빙그레 웃기부터 하며 그의 잔등을 쿡 찔렀다.

《우리 딸은 안팎으로 절색일세. 자랑같네만 거기다가 면무식은 했거던. …》

김정필이 일부러 화가 돋친 어조로 말했다.

《이보게, 김형. 난 지금 우리 맏이가 살아있는지도 몰라.》

《원, 끔찍한 소리. 설마…》

김정필이 가슴이 선뜩해서 정시명의 어기가 질린 말을 대바람에 막아버렸다.

《설마가 아닐세. 왜놈들이 내가 서울서 수배령을 받고 숨어다닐 때에도 우리 부친과 처를 붙잡아다가 곤장질을 마구 해댔다고 하더군. 살아있더라도 그앤 산골에서 무지렁이로 살고있을걸세. … 그러루한걸 생각하느라면… 자네 딸이야 도회지에서 자라나 공부까지 한 이를테면 신녀성이지.》

정시명의 비감이 서린 이야기가 뜻밖으로 번져가자 김정필이 비워둔 잔들에 술을 부었다.

《정향형, 너무 상심말게. … 좋네, 좋아. 그 문젠 우리 서울 가서 아퀴를 지읍세. 무지렁이면 어떤가. 팔심은데서 팔이 나겠지. 그애들이 행복하게 지내는걸 보느라면 우리 지나온 험한 인생도 보람이 더 클게 아닐가. 자, 잔을 내라구.》

《난 딱 한잔이 주량인데.》

《원, 친구의 단잠을 앗아내고는 저는 수염 뻑 씻고 샌님구실 하겠다는건가? 에, 이제 석잔을 더 들어야 하네. 첫 잔은 조국의 해방을 축하해서, 둘째 잔은 새로운 투쟁의 승리를 축원해서, 셋째 잔은… 셋째 잔은 뭘 위해서 든다?… 그렇지, 자네 춘향이가 제

발 젊어있기를 바래서…》

《허허, 좋네. 좋아.… 까짓거 한잔은 더 듭세. 자네 부인의 명복을 위하여…》

정시명이 김정필이 내미는 잔을 받아드는데 별안간 되알진 총성과 함께 창문유리가 산산쪼각이 되여 날아들었다. 정시명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김정필의 어깨를 눌러놓고는 등잔불을 꺼버렸다. 련이어 벼락치듯 총성이 울리고 유리창이 뎅강뎅강 깨져서 날렸다. 김정필이 날쌔게 기여가서 권총을 잡고 벽에 붙어섰다.

《조선놈들 나오라!》

사이사이 고함소리가 들렸다. 서툰 억양으로 보아 중국사람들의 소리다.

《강도단이요. 우리가 제놈들의 돈줄을 끊어놓으니 분풀이하러 온거요.》

정시명이 재빨리 정황을 판단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판단은 정확하였다. 한교사무처의 활동으로 선양, 티엔진, 다리엔일대에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놓치게 된 중국인무장강도단들이 무리지어 달려든것이였다.

총성이 점점 몰방으로 터지고 고함소리가 어지럽게 들렸다.

달빛에 얼른거리는 놈들을 어림짐작으로 내다보니 스무나문명 잘될것 같았다. 놈들은 총을 마구 란사하고 수류탄까지 던지면서 얼마 크지 않은 2층건물을 단숨에 요정내려고 날뛰였다.

《정향형, 이건 정향형을 노리는거요. 현관에 나가주오.》

김정필이 놈들에게 대응사격을 하다가 소리질렀다.

《김형, 창문에 너무 나서지 마오. 허리는 낮추고.》

정시명은 그의 걱정에는 개의치 않고 김정필의 사격자세가 위태로와 명령조로 소리쳤다.

강도배들은 수적우세를 믿고 계속 덤벼들었다. 총격전이 치렬해지는데 갑자기 그놈들의 배후에서 기관단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따르륵! 따르륵!》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교사무처에 소속된 중국사람들이 강도배들의 등뒤에 나타나 기관단총으로 련발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던것이다.

정시명과 김정필이 바깥형편을 보려고 사격을 멈추는데 남아있던 창문이 쨍가당—하고 깨지면서 시꺼먼 물체가 날아들었다.

수류탄이였다. 정시명도 김정필도 묵사발이 되고말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엎디라!》

정시명은 그쪽으로 나서며 구령을 쳤다.

그찰나 김정필이 홱 돌아서서 정시명을 옆으로 힘껏 밀어던지며 수류탄을 들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비호같이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창밖으로 던지면 되겠는데 너무 급해맞은 나머지 정시명을 살려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에 떠밀려 몸을 던졌던것이다.

김정필이 틀어쥔 수류탄은 그가 마당에 떨어지기 전에 허공에서 폭발하였다.

이 모든 일은 순간에 벌어졌다.

정시명이 창문에서 뛰여내리고 전우들이 마당으로 쓸어나왔다.

정시명은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채 숨이 진 전우를 끌어안자 너무도 억이 막혀 눈물도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것이 순간에 정지되여버린것 같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해방된 조국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무참히도 숨지다니… 서울에 가서 나라위해 공을 세워보겠노라 그리도 큰 꿈을 속삭이던 귀중한 친구였다.

홀로 집을 지키며 아버지를 기다리고있을 딸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며 때로는 눈물을 짓던 다감한 동지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지난 여름에 고향으로 기어이 등을 떠밀어보내야 했다는 후회가 가슴을 저며내는듯 했다. 자기의 우유부단한 처사가 미더운 옛친우를 이 지경으로 만든것만 같다. 방금전에 술잔을 권하며 작별주라고 했던것까지 크게 후회가 되였다.

(정말 이렇게 작별하자고 깨웠던가. 그 잔이 고별주가 되고말았구나.)

지난 시기 숱한 전우들이 대륙의 전장터와 백색테로의 피비린 도살대에서 흔연히 웃으며 쓰러졌지만 이렇게도 절통해보기는 처음이였다. 수십년세월 모진 고생 다 겪으며 소원했던 그것이 마침내 성취된 오늘에 와서 그리도 밟고싶던 고향땅을 끝내 밟지 못하고 비명에 쓰러진 김정필의 가슴에서는 정시명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피에 젖은 사진 한장이 나왔다. 안해의 사진인듯싶었다. 아련히 웃고있는 그 모습이 사무처의 전우들을 더 크게 울렸다.

정시명은 이틀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말 한마디없이 지내다가 그 허우대 큰 사나이가 한줌의 재가 되여 사기단지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야 비분의 눈물을 뿌리며 통곡을 하였다.

5

김정필의 장례를 치르고난 정시명은 안지생을 따로 불렀다.

《지생이도 서울로 떠나야겠소.》

정시명은 발갛게 상기된 안지생의 애리애리한 볼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을 뗐다.

《알겠습니다.》

안지생은 벌써 정시명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얼굴에 그 인상깊은 웃음을 벙싯 담으며 짤막히 대답했다.

《먼저 상하이에 들려보오. 상하이에서 서울로 아직 못간 김구의 측근들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오. 김구는 해방전에도 망명한 민족주의자들의 두령노릇을 하였지만 앞으로도 남조선사회의 두령노릇을 하자고 덤빌거요. 물론 미국놈들이 김구의 완고한 민족성을 좋아할리는 없지만 김구와 그의 측근들이 앞으로 남조선사회의 주요명맥을 틀어쥐리라는것은 명백한 일이요.

그러니 지생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 지금 단계에서 지생의 임

무는 그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가지는거요. 그들을 지금부터 우리의 영향으로 포섭하는것은 현실성이 없는 모험이요. 조급성은 금물이야. 내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야 우리의 싸움은 오래 갈것 같구만.》

《명심하겠습니다.》

안지생은 령리해보이는 두눈을 반짝이며 짤막히 대답을 남기고는 인차 상하이로 떠나갔다.

정시명의 머리에는 이미 안지생이 김구를 대표로 하는 우익민족주의세력안에 장차 뿌리를 내릴 조직의 책임자로 내정되여 있었다. 정시명은 그전에도 김구의 비서로 안지생의 형인 안우생을 붙여주어 그들이 반일의 길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마음을 써왔다.

안지생이까지 조국을 향해 출발시키자 정시명은 그동안의 사업정형을 전우들과 함께 총화하였다.

10월 중순에 이르러 귀국을 원하는 교민들이 거의 조국으로 돌아갔으므로 한교사무처의 기본임무도 종결된셈이였다.

서울로 돌아가는 교민들을 매번 정시명이 바래주군 하였다. 그들은 몸성히 돌아와 서울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떠나가군 하였다.

드디여 총화모임에서는 한교사무처를 해산하고 그 성원들도 귀국하기로 론의되였다. 모두가 숙연하면서도 환희에 넘쳐 귀국에 대한 정시명의 의향을 지지해나섰다.

정시명은 곧 김송일을 만나 조국에 돌아갈 의향을 내비치였다.

김송일은 두말안팎에 《그렇게 하시오다. 나도 인차 뒤따라 돌아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김송일이 인차 뒤따르겠다는 말에 정시명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형이야 쟝지에스총통의 신임이 있는분이니 피난민들과 함께 떠나서야 안되지요. 내 소견에는 쟝지에스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남조선에 귀국함이 어떠시겠소. 조국에 돌아가서도 김형이야 소일거리에 묻혀살분이 아니지 않소.》

김송일은 처음에는 자기도 한시바삐 서울에 가고싶다고 하였다.

앞서들어간 어중이떠중이들이 권력의 노란자위는 다 삼켜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들떠지고 급해났던것이다.

정시명은 그의 속궁냥을 넘겨짚었으나 시치미를 떼고 자기가 이미 세워놓은 김송일의 운명선에서 리탈되지 않도록 타이르기 시작하였다.

《김형, 내 말을 새겨들어주시오. 김형의 곧은 성미(정시명은 김송일의 우직하고 단순한 성미를 이렇게 불렀다.)를 가지고 서울에 지금 곧바로 들어가야 저마다 제노라고 각축전을 벌리는 권력싸움에서 밀려나기가 십상이요. 그러니 내 생각에는 정치구조가 완비될 때까지 총통과의 교분이나 더 두터이하다가 지레 공직을 얻어가지고 들어서는것이 좋을듯 하오.》

평소에 정시명의 말이라면 조건없이 받아들이는데 습관되여온 김송일은 정시명이 다심하게 조언을 주자 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정향선생, 나를 그렇게 믿어주어 고맙소다.》

김송일은 인차 한교사무처의 해산을 선포하고 쟝지에스가 둥지를 틀고있는 난징으로 가서 쟝지에스의 국방부고문으로 취임하였다.

정시명은 출발에 앞서 한교사무처성원들을 다 모여놓고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는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라고 하였다.

모두가 정향선생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데 김송일이 데려왔던 리창순만은 주저하는 기색이였다.

정시명은 어쩐지 그를 마주할 때마다 믿음이 덜가고 목덜미에 송충이 기여오르는듯 섬찍하고 께름한 인상을 받아오군 하였다.

그래서 《리군은 백계로씨야인식당에 취직을 한다던데…》 하고 그가 내키는대로 마음을 정하라고 일렀다.

정시명은 리창순이 어느새 선양 번화가에 있는 백계로씨야인이 경영하는 고급식당에 인수원자리를 하나 마련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리고 그 식당의 접대원과 정분을 나누고있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런건 아니구…》

리창순이 그동안 함께 지내온 동료들앞에서 죄의식을 느꼈는

지 얼굴이 벌개서 입속말로 웅얼거리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정작 일행이 떠나게 되자 자기도 같이 움직이겠노라 결심을 바꾸었다.

정시명은 그의 말이 반갑기도 해서 고향을 떠나온지 10년이 가까와온다는 사람이 돌아갈념을 하지 않은데 대하여 따끔하게 이야기하여줄가 하다가 위인이 그런것을 알아들을것 같지 못하여 고개만 끄덕이였다.

티엔진항에 갈 준비를 갖춘 그들은 출발날자를 미루었다.

피살된 김정필의 딸을 데리러 간 마동열의 걸음이 늦어졌기때문이였다. 마동열이 쉬이 돌아서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 예정보다 이틀이 지난 저녁에 허리가 날씬하고 목란처럼 복스럽게 생긴 처녀를 앞세우고 헤벌쭉거리며 나타났다.

《에에, 제 이 중국관내에 바람처럼 싸다니며 별일 다 겪었지만 이번 임무처럼 고생스럽게 수행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마동열이 왜 늦어졌는가고 정시명이 묻기도 전에 능청을 부렸다.

《왜?》

《아니 뭐 늙은 총각이라고 어디 곁을 줍니까. 난징서 예까지 어데입니까.》

마동열이 처녀를 시까스르며 말을 늘어놓는데 마동열의 말이 길수록 처녀의 말쑥하던 두볼이 잘 익은 홍시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여지고 가리마가 반듯한 머리가 자꾸만 내려갔다. 정시명이 웬일이 있었는가고 하니 마동열이 또 말을 하려는데 처녀가 용기를 내여 마동열의 발등을 살그머니 밟아주었다. 그 어질면서도 숫기어린 동작이 정시명의 눈에 안겨들었다.

처녀가 수집은 태를 짓고도 총각의 발등을 누를만한 용기를 내게 된데는 연고가 있었다. 마동열이 난징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자기들을 쫓고있는 불량기 있는 눈초리들을 띄여보고 처녀더러 자기곁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고 일렀는데 그게 오히려 처녀의 가슴을 활랑거리게 만들었다. 하긴 피묻은 어머니의 사진 한장 달랑 들고와서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고 무턱대고 따라서

라니 어디 될법이나 한 일인가.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는 절대로 좋은 사람 해치는 사람이 아니니 그리 알라고, 시간이 없어 더 자기를 밝힐 겨를이 없으니 그냥 태가락을 부리면 오라를 지워 둘러메고 가는수밖에 없다고 달래기도 하고 엄포도 놓는 사내의 이야기에 따라는 섰지만 마음은 잔뜩 도사리였다. 그래 처녀는 될수록 마동열과 간격을 두고 따라나섰는데 마동열에게는 생야단이였다. 렬차에 올라서도 마동열이 처녀에게 자기 옆자리를 마련하였건만 부등부등 등받이를 사이에 두고 뒤걸상에 앉았다.

일은 선양에 거의 이르러서 벌어졌다.

마동열이 잠에 곯아떨어지면서 위생실에 갈 때면 자기를 깨워 함께 가자는 말을 잊지 않고 해주었는데 처녀가 그대로 할리 만무하였다. 끝내 위생실에 갔다가 불량배들에게 걸려들었던것이다.

당시 중국의 여러 지역에는 불량배들이 처녀들은 물론 유부녀들까지 덮쳐서 술집이나 부자놈들의 노리개로 팔아먹는 일이 드문하였다. 마동열이 처녀를 찾느라고 이틀간 속이 한줌만 해서 돌아쳤다.

《에에, 내 말 그만둔다. 자, 선생님 이제는 말으십시오.》

마동열이 이렇게 말하고는 그 큰 눈망울을 둘둘 굴리며 《이제 말을 안들었다간 알지. 우리 선생님은 인정사정이 없소. 난 그래도 다행으로 총각이니 마음을 썼지만…》 하고 엄포를 놓았다.

마동열이 총각이라는 소리를 연방 내지르며 롱절반 진담절반으로 을러메는 소리에 처녀는 더욱 몸둘바를 몰라 쩔쩔매고 그들을 맞이한 사나이들은 모두들 껄껄 웃어댔다.

《됐네. 나가보라구.》

정시명이 마동열의 실팍한 어깨를 주먹으로 쿵 소리나게 쳐주자 마동열이 그제야 물러났다.

정시명이 전우의 딸을 맡아 키우리라 이미 속구구가 되여있던지라 아버지처럼 처녀의 손목을 꼭 잡아쥐고 쏘파에 앉히였다.

정시명은 처녀의 얼굴을 마주보다가 저도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동그랗게 선을 지은 복스럽고 탄력이 있어보이는 얼굴이 금방 망울을 터친 목란꽃처럼 싱싱한데 진주같은 두눈에 그윽히 어려있는

정기가 애틋한 인상을 진하게 주었다. 곱게 흘러내린 코마루며 륜곽이 뚜렷한 입술이 잘 다듬어놓은 조각상처럼 흠할데 없이 조화를 이루고 중국처녀들처럼 뒤로 마주이어놓은 투실한 량태머리가 몸을 흔들 때마다 매출한 허리에 잘 어울리는 옥색쟈케트우에서 달랑거렸다.

난징에서 체신학교까지 다녔다는 처녀는 아버지를 닮은듯 수집음을 잘 탔다.

하지만 정시명은 그 순하게 생긴 모색과는 달리 속알이 여물고 리지가 깃든 총명한 처녀라는 직감이 들었다.

정시명이 자기 이름을 대며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고 하자 사붓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길을 소곳이 내리깐채 조선절을 곱게 하고서야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이름은 김례영이라고, 례절 례자에 꽃부리 영자라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어조로 대답했다. 안팎이 절색이라던 김정필의 말이 헛자랑이 아니였다.

《례영아,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애비구실을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다.》

《아버지!》

오랜 세월 아버지품을 그리며 살아온 처녀는 이렇게 목이 메여 부르며 무랍없이 정시명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윤기가 자르르 도는 처녀의 머리칼에서 풍기는 동백기름의 향긋한 냄새가 물씬 코를 찌르자 정시명은 불시에 김정필의 선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다 큰 처녀가 얼마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으면 생면부지의 아버지친구에게 수집음도 잊고 담쑥 안길가. 이자리에 내가 아니라 김정필이 서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녀상봉의 화폭이 마련되였으랴.

(정필이 이 사람! 며칠만 견디여주지, 이거야 너무 무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곱고 정한 딸을 남기고 그렇게 가버리다니…)

가볍게 떨고있는 처녀의 함함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시명은 오래동안 창밖으로 뿌잇하게 흐려져있는 하늘을 얼없이 바라보았다.

마가을의 검푸른 하늘에서는 뭇별들이 바들바들 떨고있었다.

6

이튿날 식전바람에 마동열이 불쑥 정시명의 방에 들어왔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 웬 영문인지 고개부터 푹 떨구는것이였다.

떠나기 앞서 방안을 정돈하던 정시명은 말장처럼 버티고서서 까닭없이 굳어져버린 마동열을 보자 어리둥절해졌다. 십년나마 데리고있었지만 마동열이 이렇게 소심한 꼴을 보이는게 처음인것 같다.

《웬일이요. 마중위?》

《저…》

마동열이 여전히 두볼이 벌그레해가지고 거친숨만 씩씩거리였다.

《허허— 말해야지. 마중위, 동열이도 이렇게 얌전할 때가 있었군.》

정시명은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그의 신상에 생겼나부다 하고 지레속셈을 하면서도 안색을 밝게 하고 가볍게 웃어보이였다.

《저, 다른게 아니고 좀 선생님과 상론할게 있어서…》

마동열이 힘들게 이어가는 소리다.

《뭐요?》

정시명은 일견 긴장해서 물었다. 그는 마동열의 떡판같은 잔등을 밀어 걸상에 앉혔다.

《뭘 그래, 동열이, 내가 뭘 싫어하는지 알지?》

정시명은 여전히 마동열의 속구멍을 틔워주느라고 윈심을 썼다.

그제야 마동열은 고개를 쳐들었다.

《다름이아니라… 선생님두 기어이 서울에 가셔야 합니까?》

《으음?!… 그래서?…》

정시명은 너무도 돌발적인 질문에 선뜩한것을 느끼며 성급히 되물었다.

《뭐, 글쎄 전 고향이라 이름붙일만큼 정을 붙인 곳이 없어 떠

살이처럼 지낸 놈이지만 그래도 정작 조국으로 간다니 이왕이면 평양에 가고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의논할려고…》

정시명은 가슴 한귀퉁이가 뭉청 내려앉는듯이 힘이 쭉 빠지였다.

《아, 그래서…》

정시명은 짤막히 마동열의 말을 받아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동열이 무엇인가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 정시명의 눈가에 비낀 서글픔을 보자 다시 두툼한 입술을 닫아붙이고 고개를 떨구었다. 정시명은 말없이 마루바닥을 뚜벅뚜벅 거닐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마동열이 하직인사를 하러 왔는가? 혈붙이처럼 생각되여온 마동열이 이제 곁에서 떨어져나간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마동열은 방안을 오락가락하는 정시명의 옆모습에 허둥지둥 눈길을 좇아다니다가 몇번 마른기침을 해서 목구멍을 열어놓고 결연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서울에 가시려는 선생님의 결심에 대해 다 리해합니다. 그러나 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동열은 말꼭지를 떼자 그도 어쩔수없이 흥분이 앞서 자주 떠듬거리였다. 오래전부터 속에 꿍져왔던 얘기였다. 시안을 떠날 때부터 혀끝에서 그냥 맴돌던 말이였다.

《우리가 이국땅에서 이만큼 고생을 했으면 이젠 고향땅에 가서 살만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천만 조선사람들치고 부모처자 다 버리고 스무해세월 등에다 칠성판을 메고 사지판을 넘나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야 북쪽 태생들이 아닙니까?》

마동열이 시작할 때와는 딴판으로 자기의 속을 시원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정시명이 돌아섰다. 말없이 생각깊은 눈으로 그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 눈길에 주눅이 든 마동열이 입을 크게 벌린채 이야기를 중도에서 꺾고말았다.

정시명은 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며 넌지시 물었다.

《그래서… 어쩌자는건가?》

《선생님, 저도 선생님도 쇠꼬치야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모여온 사람들은 다 남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서울행이야 마땅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가야 할 리유도 없고 또 이길에 나서라고 등을 미는이도 없지 않습니까.》

마동열이 이왕 시작한김에 밸머리가 생겨먹은대로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듯한 배포로 꿋꿋이 대답질을 했다.

사실 마동열은 정시명에게 자기를 빗대고 이제라도 서울길을 다시 고려해보라고 청을 드려보고저 했는데 인차 준비해왔던 말들이 뒤죽박죽이 돼서 생각한대로 이야기가 엮어지지 않았다.

마동열은 그 누구보다도 정시명의 고민을 속속들이 헤아리고있었다. 헤아려질수록 마동열의 가슴도 쓰라린 생각으로 터질듯 팽팽해져왔다. 정시명의 결단에는 무척 감동되여왔지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존경해오는 동지가 마땅히 차례진 행복을 마다하고 새로운 험로에 몸을 던지는것을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자기처럼 일가식솔에 대한 차분한 정을 다 잃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다. 정시명이 아무리 심장이 돌멩이처럼 차고 든든하다 한들 어찌 끝이 언제일지 모를 고생을 또 짊어지려 하는가. 세상천지를 둘러봐야 아무도 정시명이나 자기가 평양에 간다고 입을 비쭉거릴 사람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평양으로 가는 길은 마땅한 길이요, 또 가야 할 길이다. 량심에 꺼릴것도 없다. 기나긴 항일싸움터를 거쳐 해방된 조국으로, 부모처자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니 박수를 받으며 당당히 고개들고 가는 길이다. 중국에서 싸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남쪽에 고향을 두고도 붉은 기발이 날리고있는 평양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조국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와 사랑을 받고있으며 현재 중요기관들에서 활약하고있다. 평양에 애국자들이 모여드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런데 부등부등 이 모든걸 순간에 다 버리고 서울에 간다니 기막힌 일이 아닌가.

서울이 어떻다는거야 정향선생이 너무도 잘 아는바이다. 미국놈들이 깊숙이 발톱을 박고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반동들이 온통 모여들어 소동이다. 벌써 거기서는 미국놈들을 반대하는 피의 항전이 벌어지고있다.

마동열이 보건대도 서울땅의 공기가 날을 따라 랭랭해지고있다.

정시명을 서울에서 반겨맞아줄 사람도 많지 않을것이요, 반일운동자로서 차례질 영예도 행복도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다. 물론 정시명이 뒤날의 명예나 부귀영화를 위하여 생사가 눈섭끝에서 오락가락하는 혁명전에 뛰여든 사람은 아닐것이다. 허나 나라가 해방된 오늘에 와서 부모처자 다 버리고 사선을 헤쳐온 20년 고행이 싸늘한 대접을 받는다면 너무도 허무하고 분한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결심을 굳히기까지 곁에서도 보기가 숨이 가쁜데 당자의 고충과 아픔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짐작이 간다. 그 자별한 뜻과 기개가 얼마나 장한지도 가닥이 잡히지 않는바가 아니였다.

그래서 마동열은 여직까지 바질바질 끓는 속을 묵새겨왔는데 정작 서울길에 오르게 되니 명치에 옭맺혀서 자꾸만 골받이하는 울분을 터뜨리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정시명은 마동열의 두서없는 이야기가 곬을 타고 육박해오자 당황해졌다.

투박하면서도 솔직한 이야기가 다 아물었던 마음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놓았던것이다. 그래 지금 마동열을 대상하여 전례없이 거칠게 반응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 동열인 나와 걸음을 달리하겠다는건가? 그건 뭐 결심대로 하라구. 난 누구에게나 서울행을 강요하지 않았어. 자네에게도 례외가 아니야.》

정시명은 가까스로 이 말을 하였다.

순간 마동열의 눈이 번쩍거리였다. 삽시에 눈굽에 물기가 촉촉해서 정시명의 발부리에 어푸러지듯 꿇어앉았다.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데두요. 전 선생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천리라도 만리라도 따라가렵니다. 선생님이 그래 이걸 모르십니까?》

마동열은 정시명에게서 뜻밖의 오해를 받는게 절통한듯 젖어든 목소리로 웨치였다.

정시명도 마동열의 속궁냥을 모를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못 격앙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일어나라구. 그 말도 옳지 않아. 탈선이야. 아주 엄중한 탈선이거든. 내가 가는 길이라면 무턱대고 따른다면 그게 무슨 뜻을 가진 인간인가. 우린 혁명가들이야. 애국자야.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구태여 서울길을 선택한것은 이길이 새로운 수난을 안게 된 겨레가 떠미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때문이야. 그래 나도 쇠끄치는 아니야. 내게도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처자가 기다리고있지. 눈을 감으면 그네들이 날찾는 소리가 귀전을 때리고 심장을 비틀어대지. 내가 또다시 그들을 다 버리고 서울길에 떠났다는것을 알면 얼마나 애통해하겠나.》

《선생님!》

마동열이 급기야 오열을 터치며 정시명의 두다리를 부여안았다.

정시명은 다리를 잡힌채 고개를 쳐들고 천정을 올려다보면서 여전히 석쉼한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고향길에 들어선단 말인가. 엉?》

그의 눈앞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은송의 담찬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이야기들이 귀전을 윙 울린다. 그도 내가 나선 길을 막아서지 않았던가. 그의 얼굴이 지워지자 20년전의 그리운 얼굴들이 번갈아 떠올랐다.

자기를 손저어 부르는 그 애모쁜 모습들을 세워놓고 자기의 결심을 설명해주고 변명을 하고싶었다. 그네들의 량해와 지지를 얻고싶었다. 그리고 아직도 량심 한구석에서 부지불식간에 머리를 쳐들군 하는 마음속의 동요에 모진 채찍질을 하고싶었다.

《나라앞에서 백성된 한사람으로 제할바를 지켜야 될게 아닌가. 갈테면 가라구. 난 막지 않겠네. 동열이도 료량이 돼있겠지만 우리가 나선 길은 혁명에 나선 스무해품삯을 받으러 가는 길은 아니야. 더욱 힘겨울수 있는 싸움이지.

내가 흔해빠진 소릴 하는구만. 뭐 평양길도 나들이가는 길은 아니고 그것 역시 건국에 이바지하는 길일테니 피차에 아픈 말을 거두세나. 어쩌겠나. 리별주라도 한잔 해야지.》

정시명이 꽉 찬 울화를 다는 터뜨릴길 없어 술병을 짐짝속에서 들춰내여 술잔에 붓기 시작하였다.

초점잃은 눈으로 정시명을 멀거니 쳐다보던 마동열이 그제야 정신이 펄쩍 들어 자리에서 성큼 일어나더니 정시명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듯이 넘겨받았다.

《리별주는 무슨 리별주입니까.》

마동열이 정시명의 아픈 가슴만 긁어놓은 자기의 소행에 화증머리가 났던지 병채로 꿀꺽꿀꺽 마셔버리고는 방에서 휭하니 나가버렸다.

《저런! 그게 맹물인줄 알아?》

마동열의 데설궂은 행동에 정시명이 눈이 뎅그랑해졌다가 《허허…》 하고 크게 웃고말았다. 마동열이 마구 탕탕 해대던 소리가 방안에 꽉 차서 그냥 윙윙거리는것만 같았다.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하였다.

그는 걸상에 주저앉아 괴롭게 중얼거렸다.

(동열이, 자네 말이 옳을수도 있어. 하지만 이젠 그 누구도 날 돌려세우지 못해. 나의 선택은 내 량심의 결단이야. 우리가 애국자라면 어떻게 나라 반쪽 겨레가 또다시 침략자의 노예로 굴러떨어지는것을 그냥 놔두고 행복을 찾아,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갈수 있단 말인가. 그건 량심이 용납하지 않아.)

정시명은 번거로운 상념에 이제는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싶어 두주먹에 힘을 주고 고개를 힘껏 저었다.

《다시는… 다시는!》

그리고는 다시 길떠날 행장을 꾸리기 시작했다.

일행이 선양역으로 나가는데 마동열이 자그마한 보짐을 막대기에 꿰들고 뒤꽁무니에서 스적스적 따라섰다. 앞에서 걷던 정시명이 걸음을 멈추고 그가 가까이 다가서자 옆구리를 툭 치며 슬쩍 한마디 건늬였다.

《어델?》
《…》
마동열이 얼굴이 벌개져서 정시명을 힐끔 돌아보고는 길가에 딩구는 마른 말똥을 군화발로 힘껏 차던지고 바람을 일구며 달아나버렸다.
《허허허…》
청높은 정시명의 웃음소리가 호탕하게 들렸다.

일행은 선양을 떠나 티엔진항으로 향하였다. 거기에는 김송일이 일행이 숙박할 려관까지 마련해놓고 기다리고있었다.
김송일은 특별히 대기시켜놓은 일본인귀국선으로 그들을 안내하였다. 김송일은 일본인선장을 불러 전승국군대로서의 최상의 봉사를 해줄것을 여러번 다짐받고서야 정시명을 끌어안고 작별을 고하였다.
정시명이 갑판에 올라 얼마 되지 않는 환송객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데 마동열이 슬그머니 그의 옆에 다가와서 손에 쪽지를 쥐여주었다.
《뭐요?》
《읽어보십시오.》
쪽지를 펴보니 이렇게 써있었다.
《정향동지! 저희들은 정향동지의 무사출국을 보장할데 대한 우리 당 지도부의 지시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세계혁명 만세! 중조친선 만세!》
정시명이 그제야 중국사람들이 한교사무처에 망라된 사연을 알게 되였다.
그동안 요긴한 대목마다 그 사람들의 귀중한 방조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 각별히 마음을 써준 중국당지도부 동지들의 동지적우정과 보살핌이 무등 고마와졌다.
《뚜―》
배가 드디여 닻을 올리고 출항의 고동소리를 길게 내질렀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선미에 얼어붙은듯 서서 해풍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멀어져가는 중국대륙을 바라보는 정시명의 마음은 더없이 감개무량하였다.

(이국의 하늘아래서 청운의 푸른 꿈 안고 반일전에 청춘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다.

피끓는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을 묻어둔 땅인가.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으로 얼룩져있는 땅인가. 쓰라린 실패와 좌절과 위훈으로 엮어져온 파란곡절 많은 20년 고행길언덕을 넘어 조국으로 간다. 내 겨레의 품에 안긴다!)

갈매기 두마리가 깃을 치며 배전에 날아예다가 무엇을 찾아낸듯 넘실거리는 바다물에로 쏜살같이 내려꽂혔다. 그리고는 다시 날아올라 정시명의 머리우를 넓게 원을 짓고 돌아가다가 날개를 푸덕거리며 동쪽으로 날아갔다.

정시명은 갈매기가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홀리운듯 눈길을 보내다가 《허, 네가 나먼저 조국에 가겠구나.》 하고 부러운듯 중얼거리였다.

갈매기들이 사라지자 일시에 여러 모습들이 기다린듯 그 하늘에 두둥실 떠올라 눈앞에 우줄우줄 다가든다. 아버지의 모습이 선참으로 다가선다. 항일운동에 나설 아들의 뜻을 흔연히 받아주고 대범하게 등을 떠밀어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정시명에게는 언제나 힘이 되고 용기로 되여왔었다. 그뒤로는 노상 밖에 떠도는 남편을 대신하여 억척스레 밭일을 하며 큰 집안을 다스려오던 어머니의 모습이 따라선다.

(애들은 어떻게 하고 지낼가? 소학교나 마쳤는지. 할아버지슬하에서 천자문이야 깨쳤겠지. …

아, 이젠 다들 장정들이 됐겠구나.… 허허 참, 세월이란 류수와 같다더니…)

정시명은 허거픈 미소를 담고 나직이 중얼거리였다.

그들의 모습을 지우며 한 녀인의 어리무던한 얼굴이 다가들었다.

어디서나 뒤구석에서 있는듯없는듯 조용히 지내던 안해의 어진 모습이 떠오르자 정시명은 가슴이 뻐근해왔다. 그 여린 몸에 아

이들을 맡겨두고 세상천지를 떠돌다가 이제 빈손으로 찾아가는 것이 여간 죄스럽지 않았다.

(이제 또 서울에 눌러앉으면 여전히 갈라져 지내야 되지 않을가. 아니 그렇게 해서야 안되지. 그건 피차에 너무 혹독한 일이다.

어떻게 방도를 찾아보자. 아무리 서울땅이 험하기로 처건사 못할만큼 험할텐가. …)

생각이 이렇게 뻗어가자 속이 무직해왔다.

(서울… 서울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줄가.

미국놈들이 정말로 타고앉을 생각일가. 정말로 우리가 반미대결의 새로운 장을 벌려나가게 될것인가. 어차피 싸움은 해야 할 것 같다.

미국놈들이 쉬이 물러갈 차비가 아닌것만은 분명하다. 이건 벌써 **김일성**동지께서 경종을 울리시였다. 미국놈들은 우리 나라에 발톱을 박으려고 백년전부터 덤벼들었다. 조상들은 그 백년간 미국놈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냈다. 결국 우리 나라를 노리는 침략의 백년력사를 가진 미국놈들과 미국놈들로부터 제땅을 지켜온 이 나라의 애국의 백년력사의 대결이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시작된셈이다. …)

입을 꾹 다문채 마음속다짐을 엮어가던 정시명은 《음!—》 하고 전신의 기운을 뽑아올리듯 길게 코소리를 냈다.

《뚜—》

크나큰 환희와 함께 무거운 시름을 안고 새로운 전구를 그려보는 정시명의 마음속에 길게 울리는 배고동소리가 유별난 정회를 담고 흘러들었다.

배는 대양의 거센 물결을 헤가르며 조선을 향하여, 그리운 조국을 향하여 기운차게 달렸다.

주체35(1946)년 10월 24일이였다.

제 3 장
구름깔린 서울

1

미군항으로 전변된 요꼬스까항을 떠난 맥아더의 전용요트 《5성》은 시모노세끼항에 들려 하루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일찌기 부산을 향하여 물결 거치른 현해탄을 헤가르기 시작하였다.

《5성》은 맥아더가 미국의 건국이래 최초의 5성장군으로 된 후 그의 고향도시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증한것이였다.

화려하게 장식을 한 요트의 객실에는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인 미24군단장 하지가 양탄자를 깐 쏘파에 비스듬히 등을 붙이고 가없이 펼쳐진 바다를 내다보고있었다. 오목하게 꺼져든 눈확에서 매섭게 번뜩이는 눈이 여간 차겁지 않다.

맞은편 쏘파에는 아놀드소장을 대신하여 미6사단장 겸 쏘미공동위원회 미국측 수석대표로 임명되여오는 브라운소장이 역시 창밖에 시선을 박은채 생각에 잠겨있었다.

올해 갓 60에 잡아든 브라운은 청년시절을 국무성계통에서 보낸 경력이 있는, 정치경향이 우세한 군사외교관이라는 인정을 받고있다.

하지가 눈빛에 독을 올리고 심사가 꼬여있는것은 전혀 파악이 없는 사람을 수하에 두게 된 불쾌감이 아니였다. 브라운의 선임으로서 정부담당 군정장관의 직함을 가지고 가까이 상종해온 아놀드소장의 해임리유때문이였다. 그는 지금 일본의 유명한 유흥명소인 닛꼬온천에서 그 리유를 지껄이던 맥아더의 주글주글한 상통이 더듬어져 막 구겨놓은듯한 이마살을 펴지 못하고있었다.

…맥아더는 사면을 푸른 비단으로 둘러치고 밝은 무리등불빛으로 낮조명을 대신한 밀실에서 정치보좌관인 애치슨을 대동하고 하지와 브라운을 만나주었다.

맥아더는 커다란 원탁두리에 빙 둘러앉은 좌중을 색안경을 벗어놓고 한명한명 일별하고나서 브라운소장의 임명부터 정중하게 선포하였다. 이어 맥아더는 《이제부터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에

서 부문별군정장관직제를 없애고 당신에게 모든 권능을 집중시키게 되였소.》 하며 하지에게로 미소어린 눈길을 보냈다.

하지는 그 소리에 어깨를 으쓱거렸을뿐이였다. 첫 이야기부터 듣기가 좋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모든 권능을 행사한것이 이 하지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군정장관이 주둔군사령관의 꼭두각시라는건 세상이 다 인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걸 강조하는 말은 뒤집어놓으면 이제부터 모든 책임을 너에게 묻겠노라고 일종의 경고를 해두는것이다.

하지가 무표정해서 반응이 없자 맥아더는 좌석을 차분하게 하여보려고 그들에게 방금 부관이 가져온 커피를 권하며 브라운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소장, 당신은 미군정청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미쏘협상대표니만치 여전히 정치적문제들에 대해서는 중장을 잘 도와야 하오.》

《알겠습니다.》

브라운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참대로 엮은 등받이걸상을 뒤로 옮겨놓는데 맥아더가 그냥 앉아있으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러자면 아놀드의 해임리유에 대하여 똑똑히 알아야 하겠소. 아놀드는 옳게 일하지 못했소. 남조선을 옳게 평정 못했거든.》

맥아더가 이렇게 투박한 어조로 아놀드의 해임리유를 단마디로 찍어넘기는데 그에게로 흘끔 고개를 돌린 하지의 세모눈이 거칠게 번뜩거리였다.

맥아더는 그 눈빛의 의미를 무시해버리듯 여전히 고저가 없는 랭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엮어나갔다.

《물론 당신들은 점령군으로서 1단계의 작전 말하자면 공격전야의 포병대의 준비사격은 멋지게 해냈소. 에, 정치적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뭐라던가, 그렇지, 과도기의 임무는 잘해냈단 말이요. 당신들은 인민위원회들을 쓸어버렸고 좌익을 지하에 몰아넣었소.

1차미쏘회담을 걷어치움으로써 미국의 반도정책이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질수 있는 아슬아슬한 고비도 용케 넘겼소. 현지의 공산화를 막음으로써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첫 단계 목표를 달성했단 말이요. 헌데 이 정도의 작전은 사실상 포병대 소좌정도로서도 얼마

든지 해낼수 있소. 사격제원을 알려주고 명령을 내리면 포탄은 날아가고 목표는 소멸되기마련이거든. 당신들 최정예군단 7만 8천의 무쇠주먹을 가지고 그쯤한것을 공로라고 이름을 붙일수는 없소.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점령군의 힘의 시위에 불과하거든. 헌데 보다 정치적으로 성숙된 과제를 맡겨주자 아놀드의 지도력이 한계점을 나타냈단 말이요. 나의 사령부는 유감스럽지만 아놀드가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집행해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소.》
맥아더는 예까지 마치도 보고서를 읽듯이 띠염띠염 쉬여가며 말하고나서 은장식을 한 굵다란 곰방대를 입귀에 가져갔다.
하지는 례사롭게 고저가 없이 메마르게 울리는 맥아더의 말투며 아놀드에 대한 질책이 사실상 자기의 뒤통수를 겨누어 던진것이라는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이래서 아마도 한시가 새로운 이때에 자기를 도꾜에 불러댄 모양이였다.
맥아더는 하지가 여전히 푸른 휘장에 거친 눈길을 박은채 덤덤해있자 몇모금 빨지 않은 곰방대의 불을 재털이에 대고 신경질적으로 털어버렸다. 그리고는 옆자리에 공손하게 앉아있는 애치슨을 돌아보았다. 당신이 뒤말을 넘겨받으라는 속심이였다.
미국의 외교권을 틀어쥘 꿈을 안고있는 야심적인 외교관인 애치슨(그는 후에 미국무장관으로 자기의 꿈을 실현하였다.)은 시누런 별을 어깨에 무겁게 메고있는 장성들을 거만하게 굽어보다가 맥아더의 말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놀드는 정치에서는 둔재요. 정치감각이 퇴화된 사람이요. 해임리유는 바로 그것이요.》
하지는 그 말에 놀란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쏘아보았다. 애치슨이 독설가라는 말은 여러번 들어오지만 이건 너무 도수를 넘는다.
그의 지적은 맥아더보다도 더 랭소적이고 로골적으로 자기를 강타한다.
《당신들이 상식으로 알겠지만 우리의 대조선정책은 궁극에 있어서는 깔고앉자는것이고 당면해서는 그 명분을 세우고 기틀을 마련하자는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여 세개 사단이 깔고앉은 정복지에서 일본치하에서도 흔치 않았던 소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방자의 월계관을 목에 건 미국에 대한 민중항쟁이 우리의 무자비한 철의 세례를 받은 일본이나 도이췰란드가 아니라 반도에서 터져나왔는가. 반미농도로 말하면 일본에 비할바도 아닌 서울의 공기가 어째서 그리도 매운지 리해가 안된단 말이요. 지금 반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란스러운 일들에 미국의 이름이 거들어지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만한 일이요. 그건 아놀드가 이태가 가까와오도록 미군정을 이어받을 권력기관의 실체를 찾아내지 못한데 있소.》

하지는 애치슨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귀가 따갑기 그지없었다.

맥아더가 빙빙 에돌아 뒤통수를 쳤다면 애치슨의 질책은 면상을 마구 후려치는 방망이와도 같은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는 일종의 조롱이고 모욕이다. 그런대로 참는수밖에 없다. 애치슨은 현실을 그대로 빠개놓고 마구 란도질을 해댄다. 사실이 그런데야 울며 겨자먹기로 씹어삼키는수밖에 없었다.

《다그치시오. 늦잡아서는 안되오. 시간을 놓치면 우린 많은걸 잃게 되오.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린 2차미쏘회담에 나서야 할거요. 그런데 2차미쏘회담에서 모스크바3상회의결정리행이 구체화되면 미국의 립지는 최소화되고 우린 반도에서 발을 뽑게 될거요. 그렇다고 여론을 납득시킬수 있는 명분이 없이 협상을 계속 중도반단할수는 없소. 그럼 2차미쏘협상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이건 그때에 가서 봅시다. 당장은 북조선의 공산세력에 대치해놓을수 있는 집단을 무어내야 하오. 일본을 모델로 삼으시오. 진주만을 불더미로 만들어놓고 태평양을 저들의 호수로 만들어놓으려고 덤비던 야마도족속이 얼마나 고분고분해졌소. 그렇소. 일본을 모델로 삼으시오.》

일본을 모델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곱씹자 하지는 충동적으로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로골적으로 자기들을 내세우며 자화자찬하는 애치슨의 이야기가 점점 시시껄렁한 랑설로 들렸다.

일본의 정치를 평정하는데서 애치슨의 배후조종이 크게 실적을 보였다는것은 워싱톤정가에서 이미 여러차례 돌아간 후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저들을 따라배우라고 일장 훈시까지 하는것은 너무도 치졸한짓이다.

(자식, 도꾜에 틀고앉아 호통을 치지 말고 너희들이 건너와서 해봐라.)

하지는 이렇게 불끈거리는 속을 가까스로 누르느라고 세모난 주걱턱을 부르르 떨었다.

맥아더가 언듯 하지의 불편한 마음속을 그 주걱턱에서 알아본듯 애치슨의 이야기를 중둥무이하고 끼여들었다.

《중장, 그래 어떻던가?… 그 갓쟁이족속들이 듣던바 하고는 다르던가?》

하지는 맥아더의 돌발적인 조롱기 어린 질문이 뜻하는바를 딱히 모르고 색안경을 다시 코등우에 걸어놓은 맥아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문득 한 생각이 그의 뇌리에 번개치듯 떠올랐다.

이것은 2년전 남조선의 모든 령역의 통수권을 거머쥔 점령군사령관의 직함을 안겨주면서 자기의 잔등을 너그럽게 다독여주며 뇌까리던 맥아더의 훈시였다.

《장군, 축하하오. 장군은 이제부터 조선반도의 통수권자요. 하지만 뭐 어렵게 생각할건 없소. 조선사람들이란 얼마전까지만해도 갓쓰고 하늘소 타고다니던 족속들이요. 이건 내가 소년시절에 선친과 함께 직접 현지에서 체험했던바요.》

하지는 그날의 일이 떠오르자 이마가 좁고 하관이 벌어진 세모진 얼굴을 찡그린채 저도모르게 화가 우쩍 동했다.

(빌어먹을, 갓쓰고 하늘소를 타고 다녔다고?… 흥, 남 하는 일은 다 땅짚고 헤염치기라는거지, 주제에…)

그는 거친 눈길로 모멸과 질책이 묘하게 얽혀있는 맥아더의 상판을 보며 속으로는 랭소를 지었다.

원래 맥아더수하에서 오래동안 굴러온 하지는 그의 은총을 받아 3성장군까지 되기는 했어도 미국민의 우상으로 되여있는 맥아더의 인격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있었다. 하지에게는 맥아더가 미국회가 높이 평가한 백전로장으로 보이는것이 아니라 흰소리 잘 치는 대포쟁이요, 고집과 변덕이 많은 허세군으로나 보일뿐이였다.

지금 맥아더는 트루맨대통령의 빈번한 호출지령도 《태평양을 한

가히 날아다닐 여가가 없다.》는 극히 방자하기 그지없는 단마디로 무시해버리면서 《군인은 명령에 불복하는자가 더 유명해진다.》고 함부로 지껄여대는 안하무인이 되였다. 하지만 그건 단연코 태평양전쟁에서 숨진 수십만 장병들의 피로 얻어진 권위일뿐이지 그자신의 인격이나 비범성으로 차례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지였다. 맥아더는 이따금 수하막료들도 종잡기 어려운 황당한 수작질을 련발하여 막료진이 그 수습에 곤욕을 치르게 하군 한다. 정황판단과 정세평가에서도 전문가들의 보고서보다도 자기나름의 분석과 추리와 직감을 중시하는 맥아더였다. 그에게는 쪽발이족에 정복되였던 조선사람들의 짓눌린 모습만 있고 부단한 항거로 사무라이들의 《대동아공영권》의 현실화된 꿈을 배후에서 쳐갈긴 백의민족의 기개는 안중에 없는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조선사람들에 대한 맥아더의 그 희떠운 평가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황당한것일수밖에 없다. 하지가 만난 이 나라의 정치인들치고 누구 하나 갓쓰고 하늘소 타고 오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들중 어느 한 인물도 쉽게 휘여잡을 위인이 없었다.

…하지가 남조선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현지의 정치인이 려운형이였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리가 끗끗해온다.

하루는 정무담당 군정장관 아놀드가 기가 죽어가지고 찾아왔다.

그가 하는 말이 미국이 상륙하기 전에 정권형태로 존재한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려운형에게 군정장관의 개인고문으로 되여달라고 찾아갔다가 퇴를 맞고 왔다는것이였다. 그것은 이미 하지와 토론이 있었던 문제였다.

려운형이 대답하기를 《남조선에 우리가 인민공화국을 세웠는데 그대들이 우리의 고문이 될수 있어도 내가 그대의 고문이 되는것은 주객이 뒤집힌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불손하기 그지없군. 려운형이 어떤 놈이기에 감히 점령군장관한테 그따위로 엇서는가.》

하지는 대뜸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방이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렀다.

《그 방자한 놈이 조선사람이 옳을테지.》

《각하, 사령관각하께서 려운형씨를 친히 만나주시여 협조를 부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본천황이 대만총독이 돼달라는 요구도 사절했던 인물입니다.》

《좋소. 당장 끌고오시오.》

하지는 기고만장해서 윽윽했다.

얼마후에 아놀드의 안내를 받으며 려운형이 들어왔다.

려운형이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키가 꺽두룩하면서도 머리가 작고 머리칼을 조야스럽게 짧게 깎은 하지는 나비수염을 기른 풍채 름름한 그 사나이앞에서 자기도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커다란 두눈에서 금시 빛줄기가 뿜어져나오는듯싶어 하지는 자연히 자세가 굳어졌다.

《하지중장, 내가 려운형입니다. 당신이 나를 찾는 용무는 무엇이요?》

려운형은 류창한 영어로 이렇게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엄숙한 눈길로 하지의 얼굴을 쏘는듯 바라보았다.

《려운형선생,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하지는 그제야 점령군사령관의 위엄을 다시 회복하고 그를 쏘파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고는 자기도 그의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려운형이 자리에 앉자 하지는 미군이 태평양전쟁을 힘겹게 치른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는 남조선에서 질서가 잡힐 때까지 군정을 실시할것이니 그동안 군정장관을 도와주다가 때가 되면 도로 정권을 이양받으라고 루루하게 부탁하였다.

려운형이 하지의 언행이 듣던바와는 달리 고압적이 아니고 계속 사절하기도 난처하여 당분간 그렇게 해보자고 하고는 일어났다.

하지는 그에게 그러면 아놀드장관과 함께 고문실에 들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를 문밖에까지 나와 상냥하게 바래워주었다.

그런데 그가 떠나간지 5분도 되지 않아 도로 들어왔다.

《하지중장, 당신은 조선사람들의 지탄을 받고있는 송진우나 김성수와 같은 친일매국노들과 날더러 자리를 같이하라는거요? 똑똑히 들어두시오. 당신들은 조선사람을 잘 알아야 하오. 난 당신이 부여한 고문직을 이로써 끝낼가 하오.》

려운형은 고문실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미 임명된 친일분자들인 김성수와 송진우를 보고 돌아서 온 모양이였다.

하지는 그에게서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저 다가갔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려운형은 인사도 없이 총총히 사라지고말았다.

《저게 갓쓰고 하늘소 타고 다닌다는 조선사람이라는건가.》

려운형의 도도한 기상에 얼이 빠진 하지는 저도모르게 그가 사라진 나들문쪽을 풀어진 눈으로 멀거니 바라보다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두번째로 만난것이 리승만이였다. 미국무성은 리승만은 고집이 세지만 골수에까지 친미로 젖어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리익을 위해 충실히 복무할것이라는 소개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하지는 리승만의 야단스러운 입국때부터 불만이였다.

하지는 일본놈들이 쫓겨나자마자 상하이림시정부의 《해외대표》라는 공식직함을 가지고 입국하려는 리승만의 청원을 서울민심을 고려하여 일축하여버리였다. 그렇게 하자 리승만은 미국에서 사귄 미국인동료들을 내세워 미전략정보국으로 하여금 미군대좌복을 입히게 하는 놀음을 벌리도록 하고 그후에는 맥아더가 직접 비행기를 보내주도록 막후공작을 벌리였다. 그리고는 측근미국인들이 서울에 선발대로 와서 터를 잡은 다음 들어왔던것이다.

리승만은 첫 대면에서 하지를 은근히 경계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줄 알았다. 만나는 회수가 늘어나자 하지에게는 이 늙다리가 권력욕에만 환장이 되여 돈과 재물과 주색을 마구 휘뿌리는 광인이라는 판단이 갔다. 그러나 미국의 여러 인물들이 늙다리의 권력독점야망에 놀아나고있는것을 볼 때면 부아가 났다. 그 대표적인물이 구펠로였다.

미전략정보국의 부국장이라는 고위전직까지 가진 구펠로는 리승만을 정치의 중심에 내세우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있었는데 전략정보국과 미국무성의 후광을 받아 그 도수가 위압적이여서 그와 마주서기조차 싫었다. 그러니 리승만을 다루기도 무척 까다롭고 조심스러웠다. 김구나 김규식이도 여러차례 만나보았으나 그들 역시 자기들의 당리당략에서 한발자국의 양보와 타협도 하지 않았다.

맥아더가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던 그 조선사람들이 정치적배심에 있어서나 정치술수에 있어서 도무지 휘여잡을수 없었다.

달이 바뀌여질수록 백악관과 국무성은 남조선에서 북의 공산력량과 견줄수 있는 친미적인 정치세력을 만들어내라고 불같은 독촉이였다. 하지만 하지는 서울에 들어선지 두해가 되여오는 이 시점에까지 남조선의 우익세력들을 하나의 세력권으로 결합시키는것은 고사하고 아직 그 중심에 세울 인물도 선정하지 못하였다.

이제 당장 전조선적인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자기의 관할지역을 대표하여 이 나라에 내세울 인물이 없다. 아무리 달래고 위협하여도 정치의 주도세력들은 저마다 자기 두령의 휘하에서만 움직이면서 부단한 리합집산으로 우익과 중도세력의 혼선만 빚어내고있었다. 최근에 와서 리승만이나 김구는 로골적으로 자기에게 도전하면서 미국무성을 상대로 고소질까지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니 맥아더가 《하지, 그 친구 정치로 말하면 갓 국민학교를 졸업한셈이니 좀더 기다려주자.》고 《도량이 넓게》 관용을 베푸는가 하면 국무성의 양복쟁이들에게서 《정치학의 1장도 떼지 못한 외교무식쟁이》라는 치욕스러운 뒤공론을 들을만 하게 되였다. 헌데 맥아더의 잠꼬대는 얼마나 얼빠진것인가. 갓쓰고 하늘소타고 다니던 보잘것 없는 족속들이라고? 흥…

맥아더는 오만상을 풀지 않고 생각에 잠겨있는 하지를 보다가 《중장, 우린 군인들이야. 정치는 군인의 체질에 맞지 않거든. 그래서 정치란 요지경속처럼 대중할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하며 어조에 아량을 담아 하지의 불만을 눅쳐주느라고 윈심을 썼다.

그 소리도 하지에게는 곱게 들리지는 않았다. 여전히 정치초년생이라는것을 강조하는듯싶다. 하지만 상대가 상대니만치 꿈틀거리는 불단지를 꾹 누르고 가까스로 흔연한 미소를 만들어내고는 애매하게 대꾸했다.

《글쎄요.》

시종 불편한 심사를 가까스로 이겨내는 하지를 어루만져주기 위해 맥아더는 그들을 지역의 유명짜한 무녀들이 참가하는 저녁만찬에 주빈으로 초청한다고 하면서 사업상용무는 끝났다는듯 자리

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하지는 머리가 어지럽다는 핑게로 점잖게 사절하고는 브라운만 남겨놓고 도꾜로 올라왔다.

다음날 맥아더는 직접 데이고꾸호텔에서 류숙하고있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중장이 한번 시원한 해풍에 려독을 풀라고 삽삽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전용요트를 타고 유람삼아 돌아가라고 특혜를 베풀었다.

하지는 그것마저 사양할수가 없어 고맙다고 깍듯이 인사를 올리고는 《5성》에 몸을 담고 요꼬스까를 떠났던것이다. …

2

정교하게 만들어진 요트는 바람을 등에 달고 거친 물결에도 크게 요동을 치지 않고 쾌속으로 달렸다.

지금도 맥아더와 애치슨의 이야기들이 구절구절 어지럽게 떠올라 신경을 자극하였다.

하지는 현해탄의 사나운 물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브라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브라운은 귀밑머리가 희슥희슥한 신사풍의 무관이다. 첫 인상에 정숙이 깃들어보이고 무게와 인내가 어려있어 믿음이 간다. 하지는 브라운이 정통 앵글로색손족의 후예라는 말을 들은바가 있다. 영국에서 앵글로색손족은 전통과 례의를 존중하고 사람들을 대상하는데서 원만하다고 해서 《영국신사》라는 말을 만들어낸 족속이다.

아놀드의 길다란 상판이 떠올랐다. 어찌보면 그는 실패한 인간이다. 오끼나와에 군단이 선견대로 상륙할 때 부대지휘를 훌륭히 했다고 대통령의 감사까지 받도록 내세웠었던 인간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서울에 와서 조선사람들과의 정치전에서는 패자가 되여 군복무를 만기전 해임이라는 비참한 최후로 마치게 되였다.

아놀드에 대한 해임은 사실상 하지자신의 해임이나 같은것이

였다. 아놀드대신 자기가 심문대에 올라서야 했었다. 그래서 하지는 아놀드의 해임건이 상정되였을 때 군인다운 솔직성과 량심을 가지고 자기를 심판하고 벌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아놀드는 자기와 같은 스코트족의 후예이다. 스코트족은 영국에서도 다혈질로 평가를 받는 족속이다. 용감하다는 평판을 듣는 반면에 덤빈다는 혹평도 듣는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도이췰란드군도 스코트계영국대대가 나타났다면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다고 한다. 하지도 아놀드도 이걸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있었다.

이제 브라운은 또 어떤 운명을 강요당하겠는가. 군사외교관으로서 실력을 보였다는 저 사람이 서울에서도 자기의 명예를 보존할수 있을가. 아놀드와는 비교적 티각태각없이 호흡을 잘 맞춰왔는데…

(스코트와 앵글로색손이라…)

하지는 속으로 쓰겁게 웃었다. 이 두 종족은 예로부터 마주서면 조화가 되지 않아 집안에서도 마을에서도 지어 정치무대에 나가서도 자주 충돌하여왔다.

《중장각하. …》

브라운이 여전히 창밖에 시선을 박은채 조용히 말했다.

《난 워싱톤을 떠나올 때 국무성 태평양지역담당 차관보 테일러를 만났습니다.》

《테일러?…》

하지가 흥미가 있어 물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와 아놀드소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를?…》

《네, 당신은 그 보고서에서 리승만세력과 김구세력을 배제한 보다 온건적인 집단을 물색하겠다고 하였던데…》

하지는 생각이 났다. 그것은 트루맨의 요구에 따라 백악관에 보냈던 긴급전보문보고였다.

보고서는 이렇게 되여있었다.

《미국은 남북의 좌익세력을 막아나가기도 벅찬데 우익진영에서

뿔뿔이 싸움질만 하고있으니 우리는 세 방향에서 걷어채우는 축구공신세가 되였다.

나는 서로 물고뜯는 두 파벌— 리승만과 김구계렬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 보다 조용한 집단을 물색하려고 한다.》

트루맨이 이 보고서를 보고 국무성에 내려보냈던지 테일러가 아놀드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긴급전문을 보내왔었다.

하지는 아놀드가 합의를 받으려 들고왔던 보고전문이 생각났다.

아놀드는 보고문에서 하지의 립장을 이렇게 지지해나섰다.

《남조선의 주요인물들중 손꼽히는 인물은 려운형이다. 그는 정치가로서의 훌륭한 풍모와 실력을 겸비하고있다. 그러나 그는 좌익에 기울어지고있다.

김구는 강하지만 지나친 민족성으로 페쇄적이며 독선적이고 대세에 둔감하여 점차 지반을 잃고있다.

리승만은 정치력이 있고 통솔력도 있지만 사리사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민적호응을 받지 못하고있다.

극히 소수의 무사공정한 인물이 있는데 그 으뜸을 차지하는 사람은 김규식이다. 미국은 이러한 세력들을 조화시킬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야 할것이다.》

브라운이 말을 이었다.

《마샬국무장관도 만났는데 미국이 관할하고있는 점령국중에서 남조선정치정세가 가장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마샬은 특히 금후 조선반도를 유라시아대륙의 동쪽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로 확보하자면 조속한 시일내에 미군정청을 대신할수 있는 현지통치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건 옳소. 맥아더와 애치슨의 말도 쥐여짜면 그 소리거든.》 하며 하지는 저도모르게 한숨을 내쉬였다.

남조선정객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골부터 쑤셨다. 그는 브라운이 지금 자기에게서 남조선의 현지통치집단을 내오기 위한 미군정청의 공작실태를 알고싶어한다는것을 느끼자 동업자로서 허심탄회하게 말꼭지를 떼놓았다.

《소장도 이제 협상수석으로 부닥쳐보게 되겠지만 코코에 짜

증부터 앞서는게 그 일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통치권의 중심에 내세우려 했던 인물들에 대한 평정은 소장이 보고서에서 보고온 그대로요.》

《난 워싱톤에서 전략정보국 부국장이던 구펠로의 방문도 받았습니다.》

《구펠로? 흥.》

하지가 이마살을 찌프리고 코방귀를 뀌였다.

브라운이 호기심이 어린 눈매를 지어보였다.

《그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군. 아마 리승만을 잔뜩 추켜올렸겠지. … 하긴 우리도 처음에는 미전략정보국에서 품을 들여온 그 늙다리를 중심인물로 내세우려고 했던건 사실이요.

그건 이미전에 워싱톤에서 기존공론으로 굳어진것 같았소. 우리도 그에 따라 리승만과 대치될수 있는 일체 세력의 통치권접근을 차단해버리였소. 가장 위력한 집단은 김구세력이였소. 우린 벌써 45년 3월부터 쟝지에스가 김구가 주석으로 있은 상하이림시정부를 독립된 조선의 정통정부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일축하여버렸소. 김구가 해방직후에 정통성 있는 망명정부의 수반자격으로 귀국하겠다고 여러차례 요구해왔을 때도 끝내 개인자격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소. 이렇게 한데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지배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기 전에 다른 형태의 권력집단의 존재를 불허하려는 요구로부터 출발하였지만 다른 하나의 중요리유는 리승만의 세력팽창을 도모하려는데 있었소. 우리는 지어 김구일행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에 한발 먼저 들어온 그의 측근세력들이 환영군중을 끌고나올수 있다고 예견하고 그의 도착을 비밀에 붙이기까지 하였소.

사실 김구가 들어오자 미군정청과 리승만, 김구와의 사이에는 삼각관계가 조성되고 그 삼각이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했소.

조선사람을 바지저고리로 알고있는 시대착오적인 백악관과 국무성사람들은 그들을 포용하여 리승만을 축으로 하는 현지통치권을 일본식으로 만들어내라고 매일같이 들볶아대오. 한데 이제 당신이 만나보면 첫눈에 짐작이 가겠지만 리승만이라는 위인은 한마

디로 권력에 로망이 든 늙다리요. 김구세력을 배격하고 우리가 난처할 정도로 친미일변도로 기승을 부려 이 나라 국민의 감정을 너무 거슬려놓는단 말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 미국의 정치적립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해서 우릴 난처하게 만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요. 리승만은 중간세력과 김구세력을 덮어놓고 좌익으로 몰아붙이고 공격을 해대오. 아마 친미지레대를 든든히 하려는 심산이겠지. 그들을 끌어당기려는 우리 군정당국에 대해서도 불질이요.

결국 내나 아놀드가 리승만의 정치적무게를 재평가하지 않을수 없었던거요.》

《그래도 미국무성에서는 리승만을 일본의 요시다와 같은 인물로 평가하는것 같던데요.》

《그게 우리 현지인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비극이요. 요시다의 친미를 어떻게 리승만의 친미와 비할수 있단 말이요. 요시다는 신사요. 그의 친영친미는 국가의 흥망을 견져보려는 그 나름의 고민과 세계의 정치방식과 력학관계를 깊이 연구하고 분석한데로부터 나온 결단이요.》

하지는 언젠가 자기의 정보담당고문 노불이 하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무성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그건 중장각하의 고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시다는 오래동안 런던에서 일본대사로 일하면서 서방세계의 정치와 문물에 대해 깊이 통찰했다고 합니다. 그가 일본내각에서 추방되여 특고(일본의 고등경찰)의 독감방에 갇혀있으면서도 히틀러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영국과 미국과의 제휴를 일관하게 주장한것은 그 인간의 선견지명이였다고 봐야 옳을것입니다.》

《리승만은 다르오. 그 인간은 이 나라의 옥좌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빌리려는 단순하고 너절한 욕망으로부터 미국에 철저히 기생해사는 늙은이요. 이런 인간들을 내세우는건 우리의 수치요.》

《김구는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서부도이췰란드의 아데나우어에 비하기도 하던데요.》

《근사한 비유요. 민족주의자들속에서는 두령으로 우상화되고있소. 물론 정권야심이 큰 인물이요. 김구는 림정이요, 림정은 민족

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렇기때문에 김구는 자기들만이 남조선에서 정통정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자처하고 그밖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고있소.

김구세력이 우리가 부활시킨 친일적인 세력들을 일괄적으로 배격하는데 문제가 있소. 그들을 곱게 봐주려는 우리에 대해서도 함부로 삿대질이요. 물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질시하는건 진주직후에 우리가 저네들을 정계에서 소외시켜왔다는 원한도 있지요.

우린 사실상 국제적인정을 받으려던 그네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걸음마다 좌절시켜버렸으니까. 영국과 프랑스외무상들이 김구의 특사를 현재로서는 조선의 림시정부승인문제를 고려할 리유가 없다고 외면해버린것은 다 우연이 아니요.》

브라운은 하지의 말을 주의깊이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되였다. 미쏘협상에는 방청으로 남북정당, 단체대표들도 참가하는데 정무담당 군정장관이라는 직함을 내놓고라도 어차피 하지가 떠올리는 인물들과 만나야 하는것이다. 그리고 싫든좋든 자기를 생소한 서울땅에 보낸 국방성과 국무성의 요구대로 하지옆에서 정치권의 편성사업을 진두지휘하라는것이 틀림없다.

브라운은 피뜩 국무성에서 보아두었던 조선관계자료들중에서 유모아적인 한건의 신문기사가 생각났다. 기사를 보면서 그는 현지의 점령군사령관이 정권인수를 노리는 거물급정치세력을 지나치게 비하했다고 비판적시각에서 평가했는데 하지의 고충을 들어보니 리해가 되였다.

《각하께서 올봄에 벌려놓으신 기자회견내용이 생각납니다.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중장각하의 제스츄어가 지나치다고 속단하였지요.》

브라운은 그때의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도 인차 상기되는지 껄껄 웃기부터 하였다.

《아, 그것말이요?… 국무성이 짜준 각본이였는데 미련을 부리는수밖에 없었지요. 정치라는게 참 어떤 의미로서는 너절한 놀음이요.》 하고 하지는 또다시 껄껄 웃고나서 말을 이었다.

《그날 우린 남조선에서의 미군정의 역할이라고 일부러 기자회견의 제목을 크게 걸어놓고 김구세력을 견제해서 포섭하려는데 목표를 두었지요.

기자회견의 조직자인 노불은 프랑스의 〈몽드〉신문 기자에게 돈을 찔러주고 김구의 상하이림시정부의 성격과 그에 대한 미군정의 견해를 묻도록 해놓았소.

나는 이미 노불이 써준 각본을 그대로 외웠지요.

〈글쎄요. 난 조선에 림시정부가 존재했다는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듣건대는 중국의 동남부지역에 조선사람들의 큰 테로집단은 있었다지만…〉 그 내용이 미국과 서방세계는 물론 남조선의 신문, 잡지들이 받아물어 대서특필로 세상에 전해진겁니다. 하하…》

《중장각하, 국무성은 필시 밀어붙이기로 고단수의 효과를 노렸겠는데 그만 필요이상의 자극제로 되지 않았는가싶습니다.》

《하하, 옳소. 필요이상의 자극이였지요. 내 그 말 하나때문에 혼났소. 고단수의 계략이 아니라 상대역을 잘못 파악하고 서투른 연기를 보인 졸작이였소. 노불이 설명하기를 되게 때려 매여달리게 하는 전술로 한번 해볼만 하다 했는데 웬걸요.… 역반응이 일어났지요. 김구세력은 국제적인 승인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던 시도가 우리의 모욕적인 평가로 랭대를 받게 되자 매달리기는 고사하고 더욱 고집스럽게 미군정청은 물론 리승만과 친일자산가들의 집단인 〈한민당〉을 반대하는 길로 나갔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였겠소.

혹 떼려다가 혹 하나 더 얻은셈이지요. 백악관이나 국무성은 대양건너에서 입방아나 찧지만 조선사람들을 너무 모른단 말이요.》

《그래, 그 조용하다는 3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브라운이 다시 기본문제에로 화제를 몰아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내용을 상기시키자 하지가 또다시 껄껄 웃기부터 하였다.

《왜요?… 국무성에서 배격을 당하였습니까?》

브라운은 국무성관리들의 립장을 듣고온지라 지레짐작하면서도 넌지시 물었다.

《아니… 배격이라니?… 전적인 지지를 받았지요.》

하지가 웃음기를 지우고 다시 이야기를 엮어나갔다.

《트루맨대통령도 우리의 제안을 승인하고 우익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사업을 조속히 끝내도록 지시를 보내왔지요. 그래서 걸려든게 〈자주련맹〉 총재인 김규식이라는 사람인데 김구의 밑에서 부두령을 하던 사람이였소. 사람이 조용하면서도 강직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지요. 내 방에 자주 불러들이고 공식장소에 나가서는 가까이 세워놓으면서 김규식을 장차 큰 인물로 내세우려 한다는 정보를 여론에 흘려놓았소. 사회적반향이 어느 정도이겠는지 타진하기 위해서였소. 그런데 김규식이 아무리 우리의 후원을 받고 날고뛰여도 김규식이쯤은 하인취급하는 김구나 리승만을 옆에 낄만한 재목은 못되더란 말이요. 결국 우린 김규식의 정치력을 재인식하고 방향전환을 했는데 국무성에서 천재적인 인간을 천거해왔지요.》

《천재적인 인간? 필립 제이슨을 말입니까?》

《옳소. 서재필이지요.》

브라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하지가 갑자기 실성한 사람마냥 또 요란스럽게 웃기 시작하였다. 우묵하게 패여든 가뜩이나 작은 눈이 아예 지워져버리고 말이발처럼 굵은 앞이가 이몸채로 드러났다.

그는 브라운이 지켜보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을 야단스럽게 흔들어 대며 제풀에 눈물이 글썽해서 폭소를 그치지 않았다.

브라운은 처음으로 상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첫 인상에 세모진 얼굴이라는것이 두드러졌는데 얼굴의 륜곽을 뜯어놓고보아도 다 세모진것들이 오종종하게 이어져있는것 같다. 이마도 삼각으로 보이고 눈도 꼭 세모가 져있다. 턱도 세모진 턱이요 코도 세모가 뚜렷하다. 그 세모진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세모진 얼굴을 만들어놓았는데 저렇게 웃고보니 얼굴의 특징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그만에야 브라운도 영문을 알길 없으면서도 주빗이 따라웃었다.

하지는 한참 그렇게 발작적으로 웃고나서야 간신히 자신을 억제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런걸 말해서 신문쟁이들은 정치만화라고 부르더구만.》

하지가 다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이야기하였다.
하지가 엮어놓은 정치만화란 이런것이였다.

… 김규식이마저 통수권의 후보에서 지워버리자 국무성에서 소개장을 보내왔다. 서재필이라는 미지의 인물이였다.

그에 의하면 서재필은 3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주도자의 한사람으로서 김옥균과 같이 일본에 망명했다가 미국녀자와 결혼하여 미국시민권을 따낸 철저한 미국계의 조선사람이라는것이였다. 서재필은 이미 미국의 압력밑에 1897년에 리씨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독립을 선포했을 때 김홍집내각의 고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식이름까지 가지고 미군의 군의계통에서 복무하였다. 하지는 전혀 파악이 없는 인물이였지만 국무성이 직접 추천해온 인물인데다가 경력으로 보아 리승만이나 김구를 대적할만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의하였다.

하지는 초기에 서재필을 자기의 개인고문자격으로 옆방에 앉혀놓고는 그를 장차 세워질 남조선《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할것이라는 소문을 광범하게 류포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승만과 김구가 호상간의 맹렬한 비난과 공격을 중지하고 미군정에 바싹 접근하도록 심리적충격을 주자는것이였다.

이러한 충격료법은 일정한 기간에는 효험이 있었다. 그러나 날이 지남에 따라 그로 인한 후과는 치명적이였다. 서재필의 몸값이 하지도 모르게 항간에는 너무도 잘 알려져있었던것이다. 그가 평생에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면 김옥균의 벗으로 나섰다는것과 《독립문》건설에 많은 출자를 한것이다.

서울서대문밖의 무악재에 리조의 태조 리성계가 명나라 황제의 사신을 례의를 갖추어 영접한다며 세워놓은 《영은문》이라는 루각이 있었다. 이것이 1896년경에 와서 사대주의의 극치로 규탄을 받게 되였다. 그래서 《영은문》을 헐고 그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기로 공론이 되여 빠리 어드와드개선문의 축소판과 같은 《독립문》이 서재필이 기부한 돈으로 설계되고 건립되였다. 그런데 이 일로 일약 이름을 날린 서재필의 인금이 바로 그 《독립문》앞

에서 그것도 하지까지 지켜보는 속에서 땅바닥으로 추락될줄은 하지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였다.

《독립문건립 50주기 축하식》이 내외의 명사들의 참석밑에 열렸는데 여기에 하지도 참가했다.

서재필이 80객이 된 몸으로 주빈으로서 처음으로 연탁에 올랐다.

그런데 《여러분!》 하고 겨우 조선말을 번진 다음에는 입을 헤벌린채 그자리에 굳어진듯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모국의 말을 다 잊어버린탓으로 그 다음말을 이을수 없었던것이다. 말을 그냥 하자니 조국사람들앞에서 차마 영어로 할수도 없고 조선말을 하자니 한마디도 번질수 없어 뒤로 훌렁 벗어진 대머리에 땀발만 서리고있었다. 행사참석자들이 영문을 알길 없어 어리둥절해졌는데 사회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뭐라고 했다. 그제야 서재필은 죄송하다고 먼저 사죄부터 하고 영어로 축사를 해나갔다. 래빈으로 초대된 서울적십자병원 원장인 서양인이 통역으로 나서서 서재필의 영어말을 조선말로 통역을 하는 웃지 못할 희극이 연출되였다. 행사장이 술렁거리고 여기저기서 경멸과 조소어린 비웃음과 지탄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자리에 서있던 하지까지도 속이 한줌만 해져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싶은 심정이였다.

고국이 준 이름을 갈고 말까지 다 잊어버린 인물을 나라정사의 중심에 앉히려 한다는것부터 조선사람들의 감정을 미처 계산하지 못한 정치적만화였다. 리승만과 김구는 물론 적지 않은 정당, 사회단체들이 하지에게 공식대표들을 파견하여 서재필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려 한다는 소문의 진의를 따지고들면서 이 나라의 존엄과 체면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라고 규탄하였다.

국무성의 연출에 놀아난 하지는 곤욕만 치르었다.

남조선의 정국은 더욱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들고 일은 하지의 욕망대로 진척되지를 않았다. 김구와 리승만, 김규식 그리고 려운형과 같은 인물들의 반목질시는 더욱 골이 깊어 하지의 재간으로 더는 메울수 없게 되였다. …

《국무성것들이 하는짓이란 이렇소.》

말끝에 하지는 또한번 한바탕 폭소를 터뜨려놓았다.

브라운도 연탁에 올라 진땀만 바질바질 흘렸을 서재필의 가련한 몰골을 그려보면서 따라웃었다. 그러면서도 만사를 다 겪어본 사람처럼 태연히 웃고있는 하지에게 깊은 동정이 갔다.

(나도 저렇게 숨가쁜 처지에 빠지지 않을가.)

브라운은 이런 생각이 들자 자기도모르게 주먹을 꽉 틀어잡았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것이다, 그렇게는…)

브라운은 속으로 강심을 다지며 한마디 했다.

《각하, 최선을 다해 각하를 보좌하겠습니다. 해방정국이니 혼란을 피할수야 없겠지요. 하지만 평정은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하지는 외교적인 례의가 다분히 어려있는 신임보좌관의 결의를 듣자 놀란듯한 눈찌로 그를 힐끔 돌아보고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너무도 자신감에 넘쳐 박력을 찍는 그의 말투가 슬그머니 비위를 건드렸던것이다. 그래 《고맙소.》 하려고 하던 답례를 버리고 고개를 시큰둥히 꺼떡거려보일뿐이였다. 그는 한참후에야 시들한 어조로 한마디 하였다.

《잘해보시오. 마샬은 당신이 협상의 명수라고 말해줬소.》

《과찬입니다, 중장각하.》

브라운은 직속상관의 돌변한 태도와 비꼬는듯한 말에서 이제부터 익숙되여야 할 인간의 성격적기질의 일단을 재빨리 포착하고 그에 맞게 싹싹해진 어조로 공손하게 대답했다.

3

티엔진항을 떠난 배는 6일만에 일본의 사세보항에 기항하였다.

전승군이라 우쭐거리는 쟝지에스군의 장교들이 여러명 나타나자 사세보항에 주재하고있던 일본귀국민영접위원회 역원들은 눈이 둥그래졌다.

마동열이 나서서 려관도 고급으로 알선받고 부산행 선박도 어렵

지 않게 소개를 받았다.
그런데 부산항에 내렸을 때 일행은 모국에 첫발을 들여놓은 눈물겨운 격정도 터쳐놓기 전에 뜻밖의 상황에 부닥쳤다. 그들을 맞이한 첫번째의 사람들이 군화를 신고 엠피철갑모까지 쓰고 껌을 징글맞게 씹어대고있는 양키들이였던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거야?》
마동열이 손가락으로 자기를 부르고있는 미군 엠피놈을 쏘아보다가 분통이 터져서 꽥 소리질렀다.
마동열은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그놈의 상판에 쟝지에스군의 중위증명서를 꺼내 집어던지며 욕질을 했다.
《옛다, 내겐 이젠 필요치 않아. 한데 어떻게 바다건너에서 온 네놈들이 여기서 문지기노릇을 하는거냐?》
정시명은 분통을 터뜨리고있는 전우들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분명 이 땅에서는 주객이 바뀌고있었다. 귀국의 감격으로 부풀어오르던것이 졸지에 사그라지고 기분이 침울하기만 하였다.
일행이 심사가 꼬여서 걸음을 쉬이 옮기지 못하는데 졸병 여럿이 또다시 그들에게로 달려왔다. 그놈들은 다짜고짜로 정시명일행을 그옆에 있는 빈 창고로 몰아갔다. 거기에는 이미 끌려온 사람들이 까닭을 몰라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고있었다.
《웬일이냐?》
마동열이 한 졸병놈의 팔목을 비틀어잡고 꽥 소리질렀다.
그놈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경적소리를 울리며 여러대의 자동차가 모터찌클의 호위밑에 부두선창에 쏜살같이 들어섰다.
멈춰선 승용차들에서 미군장성들과 군복을 입은 조선사람들이 내리였다.
그쪽을 바라보던 정시명은 방금 차에서 내린 조선사람들속에서 낯이 익은 모습들을 보았다. 그는 마동열을 손으로 불러 나직이 말했다.
《저길 좀 보게.》
정시명의 눈길을 따르던 마동열이 나직이 탄성을 올렸다.
《아! 류동명참모총장입니다.》

분명 미군들속에 서있는 류달리 머리가 크고 풍채가 름름한 사람은 상하이림시정부에서 군무를 주관해보던 참모총장 류동명이였다. 그옆에 어깨가 쩍 벌어지고 다부지게 생긴 사람은 쟝지에스참모부의 중령으로서 《림정》과의 군사관계를 맡아보던 송호정이다.

마동열은 송호정을 모른다.

잠시후 부두가에는 경쾌한 고동소리를 울리며 호화스럽게 장식을 한 요트가 들어섰다. 요트에서 몇명의 미군장성들이 내려 마중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자동차들은 인차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부두에서 사라졌다.

미군졸병들은 그제야 창고에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었다.

마동열이 아까 손에 잡혔던 졸병을 손가락으로 불렀다.

《어느놈의 행차냐?》

례영이가 통역을 하였다.

그놈은 눈을 부라리다가 여차직하면 받아넘길 자세로 매섭게 눈총을 쏘는 마동열의 기상에 혼이 빠진듯 《하지사령관님이 일본서 오시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정시명은 하지라는 소리에 귀가 커졌다. 그러니 류동명과 송호정이 미군장성들속에 끼여서 하지마중을 나올만한 위치에 있다는건가. 생각밖의 희한한 일이였다.

때마침 림인석이 어서 부산역에 나가자고 일행을 몰아댔다.

일행이 서울 역전려관에 려장을 풀어놓았을 때는 벌써 그들의 도착을 알리는 석간신문이 서울일판에 뿌려진 뒤였다.

《20여년간 해외에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분골쇄신하던 정향선생 일행 서울착》이라는 제목으로 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보도기사였다.

《열혈청년시절에 나라를 광복코저 타향에 건너갔던 정향선생 해방소식에 접하자 귀로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타국에 의연히 남아 방랑하던 동포들을 모아 귀국을 종결짓고 떳떳이 환국했다.》

보도기사여서 기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향의 애국의 길고 험한 20년과 남다른 우국충정을 간단명료하게 세상에 밝혀낸 글

이였다.
시안판사처 처장 정향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삽시에 남조선각지에 전해졌다. 서울 역전려관은 그에게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손님들의 발길이 뜨음해진 어느날 해질무렵이였다.
려관에 넥타이에 중절모를 눌러쓴 멋쟁이신사가 개화장을 휘저으며 나타났다. 희고 넓은 이마아래 시커먼 눈섭이 넓게 지나가고 두눈이 방금 닦아놓은 방울처럼 어글어글한데 이목구비가 번듯하고 풍채가 름름한데다가 걸음걸이마저 사뭇 정중해서 문앞에 서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슬금슬금 길을 비켜주었다.
려관문지기가 막아서자 《이건 어데서 막 굴러먹던 개똥쇠야. 〈한민당〉 선전부장도 몰라봐!》 하고 버럭 고함을 지르며 들어섰다.
려관문지기는 고함소리에 얼이 빠져 개화장을 흔들며 거드름스럽게 현관복도를 걸어가는 신사의 뒤모습만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는 정시명이 몇달전에 남조선에 들여보낸 김증원이였다.
김증원은 중국 칭화대학을 졸업한 후 인차 혁명의 폭풍에 뛰여들어 주로 지식인들속에서 활동하다가 정시명의 지하조직에 망라되였다. 그는 서울에 온지 반년도 안되는 사이에 룡산에서 자그마한 고무공장을 경영하면서 앞으로 리용할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정계의 우익집단에 발을 붙이는데 성공하였다.
벌써 남조선의 우익에서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있던 한국민주당의 선전부장으로 등용되기까지 하였다. 김증원을 앞으로 정당들과의 사업에서 주역으로 내세울 계획밑에 우익정당에 들어가라고 당부하였는데 그대로 집행된셈이다. 정시명의 서울도착에 대한 신문기사도 김증원이 내도록 했지만 당자는 우정 며칠후에야 정시명의 앞에 나타났다.
《정선생님!》
《김선생!》
그들은 뜨겁게 포옹하였다.
김증원은 그들일행을 서울의 일류급료정인 국일관으로 이끌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증원선생?》
삐거덕거리는 전차에서 내려 김증원의 뒤를 따르던 정시명은 《국일관》이라는 화려한 간판이 붙어있는 료리점앞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었다.
《해방된 내 나라에 와서 료리점 한번 들어가는데 뭐가 잘못되였습니까. 베이징반점에서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시던 생각이 나십니까?》
《에잇 사람두, 그 소릴 몇번째 하는가?》
《정말 그때 그 맛이 잊어 안집니다. 기막히게 맛이 있었는데. 아침점심은 빵 하나, 저녁은 미시가루 두 숟가락… 고학생의 빈 창자에 그 고급한 음식이 춤을 추며 들어가던 그때가 늘 잊어 안집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우로만 쳐들린 고개가 평생 가야 굽혀들지 않을것 같던 신사가 이렇게 자못 흥겨워서 우스개소리로 너스레를 부리는데 그 음성이 이상하게도 축축히 젖어있다.
김증원은 호남벌의 부자집자식이였다. 대를 이어오던 땅마지기를 넘겨주려고 탈가를 바라지 않던 그의 아버지는 한사코 대처에 공부하러 떠나겠다는 아들의 말을 듣자 《좋다, 어데 가서 배곯으며 살아봐야 애비마음 알게 될거다.》 하고는 돈 한푼없이 떠나보냈다.
후날 김증원은 고학생의 고달픈 생활이 가난한 인간을 위한 리념인 맑스주의에로 자기를 접근시켰고 한생을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살아가리라는 맹세를 인생관으로 접수하게 했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정시명이 어느날 베이징에 왔다가 베이징반점에 데리고가서 짜장면 네그릇을 사놓고 한번 배불리 먹어보라던 일을 이렇게 두고두고 외웠다.
《자, 들어갑시다. 모두 네뭈은 제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알겠거든 이 국일관에 와서 한나절 앉아있으라는 말도 있으니 바지띠를 늦추고 시간을 보내봅시다.》
김증원이 일행의 기분을 흥겹게 해주며 안내하였다.
사실 김증원은 한교사무처의 소식을 귀국민들을 통하여 들을 때

마다 그렇게도 기다려오던 조국에로의 귀환도 마다하고 겨레를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를 바쳐가고있는 전우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면 축하연부터 크게 차리리라고 은근히 별러왔던것이다.

기생이 나와서 김증원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그들을 2층의 다다미방으로 안내하였다. 열려진 사이문으로는 정객인듯싶은 사람들이 빈 술병을 가득히 벌려놓고 무엇인가 론쟁을 하고있었다.

일행이 자리를 잡고 앉자 김증원이 한마디 하였다.

《저 사람들이 〈한민당〉과 반공련맹의 수장들입니다. 똑똑히 봐두십시오. 저기 저 자지색넥타이를 맨 사람이 〈한민당〉의 송진우를 대신하여 실권을 쥔 저의 사촌형 김성수이고 그옆에 모시적삼을 걸친 사람이 반공련맹의 회장입니다. 아마 료정정치가 또 시작되였나봅니다.》

정시명이 옆방의 론쟁에 귀를 기울이니 과연 심각한 문제를 놓고 격론을 거듭하는것 같았다. 두 당사이의 의견상이를 해소하고 련합을 이루자는것인데 술잔을 찧으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쏘아보는걸 보니 저도모르게 쓰거운 웃음이 떠올랐다.

잠시후 또 한패거리의 신사들이 떠들썩거리며 앞방에 자리를 잡는다. 얼핏 눈에 띄는것이 그들속에 끼여있는 대좌의 계급장을 단 미국인장교의 모습이였다.

《〈족청〉패이군.》

김증원이 쓰거운듯 내뱉았다.

《〈족청〉이라니?》

《리범석이 민족청년단이란걸 만들었답니다. 저놈은 〈족청〉의 고문입니다. 리승만이나 김구, 려운형이 떠들썩거리면서도 일진일퇴를 거듭하지만 리범석은 〈족청〉을 만들어놓고 소리없이 실력을 키우고있습니다.》

김증원이 실태보고하듯 차분히 이야기를 펴나갔다.

약간의 료리들이 나오고 술상이 차려졌다.

《귀국을 축하해서 제가 한잔을 냅니다. 서울명기 구경도 시킬랍니다.》

《아니, 우리끼리 조용히 앉읍시다.》
번거로운것을 싫어하는 정시명이 기생소리에 이마살을 찡그리였다.
《뭐 한번 들어봅시다.》
서울에 처음 와보는 마동열이 반죽좋게 거들었다.
《제가 특별히 부탁해두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봐두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김증원이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이어 가야금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들어 춤가락에는 한물 진듯한 기생이 가야금을 튕기면서 처량한 음조에 맞추어 장탄식같은 신세타령을 뽑기 시작하였다.

우리 엄마 날 키울 때
쥐면 깰가 불면 날가
오만 간장 태우시더니
스무냥에 날 팔아
장사로 떠났다오

아하야 무정쿠나 세월아
백옥같던 내 얼굴에
오이꽃이 폈으니
랑군님 만나드릴 고운 웃음은
거문고에 묻어두고
해와 달을 보낸다오

오마니, 오마니
날 찾아오지 마소
비바람에 흐무러진
청산의 란초는
남산의 남도령도
한번 보고 가버렸다오

해방의 기쁨이 차넘친 조국산천을 그려오던 일행은 기생이 목갈린듯한 쐑소리로 저저히 엮어가는 사설에 목이 꽉 메였다.

《김선생, 이게 어떻게 되여가는 판국이요? 부산에 오르니 미국놈이 총대를 건들거리며 몸수색을 하지 않나, 나라가 해방되였다면서 저 녀자들은 어째서 그 덕을 입지 못하오?》

림인석이 비분강개한 어조로 부르짖으며 김증원이 권하는 술잔을 받았다.

《이게 남녘민중에게 차례진 해방덕이 아니요. 남쪽땅의 운명이요.》

《운명이라니?》

기생의 신세타령에 눈굽이 젖어든 마동열이 기가 차서 부르짖었다.

가야금을 뚱땅거리게 해서 일행을 흥겹게 해주려 했던 김증원은 얼른 기생더러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기생이 제꺽 자리에서 일어나 다홍색치마를 곱게 휘저으며 방에서 나갔다. 하지만 좌중에는 웃음이 사그라들고 모두가 묵묵히 음식만 집었다.

김증원이 권하는 료리를 이것저것 맛보던 정시명은 아까부터 《족청》패들속에서 자기 등뒤를 집요하게 따르는 눈길이 있다는것을 포착하였다. 오랜 지하활동이 그에게 키워준 예민한 륙감이였다.

정시명이 또다시 김증원이 부어주는 술잔을 받다가 슬쩍 고개를 돌려 앞방을 돌아보았다. 《족청》패에 섞여있던 경찰차림의 사나이가 정시명의 눈길을 그때까지 기다리고있은듯 벙긋 웃어 알은체를 하였다. 짧게 깎은 머리에 얼굴은 둥글고 코마루가 우뚝 솟은게 참나무처럼 단단해보이는 사나이였다.

그가 일어나려고 하자 정시명이 얼른 왼손을 가벼이 흔들어 도로 주저앉게 하였다. 그는 반년전에 주로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사업할데 대한 임무를 주어 서울에 들여보낸 조태준이였다.

《거 참, 눈에 익은 사람이다. …》

정시명이 김증원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넌지시 말했다. 조태준이 어떻게 지내는지 김증원의 입을 통하여 알고싶었던것이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누구말입니까?》

《저 건너방에 있는 제복쟁이가 말이요.》

김증원의 자리에서는 그 방이 정면으로 보이는지라 김증원이 고개를 들어 그쪽을 둘러보다가 설명해주었다.

《오, 조태준… 아, 정선생님도 아실겁니다. 거 쟝지에스의 수하에서 고급참모로 있으면서 시안훈련소의 부소장을 력임했던 리범석의 직계인물입니다. 〈족청〉조직부장인데 얼마전에 경찰학교 교무주임직도 차지했다고 합니다. 리범석이 경찰계에도 재빨리 줄을 놓고있습니다.》

《그렇구만.》

정시명이 례사롭게 그의 말을 받았으나 마음은 이를나위 없이 흐뭇하였다. 리범석이 서두르는 품이 일을 칠 조짐이니 그놈의 밑에 든든히 자리를 펴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보냈는데 말을 듣고보니 임무를 수행한것 같다.

정시명은 벌써 오래전부터 리범석의 정치적야망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왔다. 지금 나이로 볼 때 남조선정계에서 두각을 보이고있는 리승만이나 서재필, 김구, 려운형이가 다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리범석은 정치인으로서는 청춘기라고 볼수 있는 50대이다. 개인의 정치성향으로 볼 때도 정시명은 이제까지 대상한 수많은 인물들중에서 리범석이만큼 악질적이고 파렴치하며 의식적인 반공광신자는 보지 못했다. 김구의 반공은 편견과 무지로부터 생겨난것이라면 리범석의 반공은 그의 철저한 리념이였다. 게다가 리범석은 재빠르게 미국의 힘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리범석의 망동을 그대로 방임해두다가는 종당에는 그놈에게 남조선의 권력이 집중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조선사회의 반동화는 최악의 사태에로 치달아오를것이다.

언젠가 리범석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어느것이냐는 물음에 히틀러의 《마인 캠프》(나의 투쟁)라고 대답한적이 있었다. 그 대답만 가지고도 반동의 극단에서 권력의 칼을 벼리고있는 그놈의 체질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날밤 김증원은 정시명과 잠자리를 같이하고 남조선의 복잡한 정치정세에 대하여 밤이 새도록 개괄하여주었다.
조태준의 소식이 못내 궁금하였는데 어느날 조태준이도 찾아왔다. 정시명이 호실에 들어선 그를 끌어안으니 숨이 막혀 죽겠노라고 엄살을 떨었다.
《아, 선생님 간지럽습니다. 절을 먼저 드리고요.》
《절은 무슨 절…》
마치도 며칠전에 나들이 갔던 친동생이 문턱을 넘어선듯싶은 그 스스럼없는 태도에 정시명은 대번에 속안이 홀가분해져서 롱조로 그의 인사를 받았다.
《조직부장벼슬까지 땄다는데 이젠 머리도 기르고 쪽 빼고 다녔으면 좋겠군.》
《뭐 막 돼먹은 상놈 다스린다고 량반이 되겠습니까.》
《허허—》
정시명은 언제나 꾸밈새없이 달라붙는 청년의 익살에 소리내여 웃으며 정찬 눈길로 그를 살피였다. 외관상으로는 키가 작고 몸이 체소하며 그리 볼품 없어보이는 사람이다. 머리를 늘쌍 짧게 깎고 다니는데 구태여 멋부릴 생각도 없으니 건사하기 좋고 시원해서 좋다는것이다.
하지만 이 사나이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으며 출세도 빠르다.
그는 쟝지에스군에서 스물일곱살에 중령별을 따내고 허베이지구사령부 고급참모가 되여 관록있는 장군들과 사업한 인물이며 리범석이 제 손아귀에 걷어쥐려고 무던히 윈심을 썼던 수완가다.
조태준은 원래 평양출신으로 도꾜 와세다대학 영문과졸업무렵에 독서회사건에 걸려들어 상하이로 도망쳐왔다가 정시명을 알게되여 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이였다. 총명한 두뇌와 박식이 뭇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출세의 길에 재빨리 오르게 하였다.
조태준은 그동안 진행한 일들을 이야기하고는 정시명의 요청에 따라 남조선에서 권력기관들의 구조가 축성되여가고있는 자료를 설명하였다.
정시명은 조태준이 몸을 담고있는 리범석의 민족청년단에 대

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조직체계며 활동방식을 캐여물었다. 조태준의 말을 듣고보니 어제 국일관에서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하던 김증원의 분석이 옳다는 생각이 났다. 정시명의 판단에도 《족청》이 현단계에서 우익반동진영에서 가장 확고한 정치적기반을 가진듯싶었다.

《어떻게 리범석의 참모장자리에 올랐소?》

《뭐 그저 그렇게 됐습니다.》

조태준은 치하가 섞인 정시명의 물음에 어물쩍 대답하고는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정파들의 혼탁한 각축전에서 리범석은 슬쩍 비켜섰습니다.

이른바 〈비군사〉, 〈비종파〉, 〈비정치〉라는 〈3비정책〉을 내걸고 〈족청〉을 조직하였지요. 그러자 끝이 없는 파쟁에 환멸을 느낀 많은 청년들이 리범석의 구호에 매력을 느끼고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리범석은 서울에 오자마자 서울중심구역인 을지로 5가에 있는 3층 적산건물을 불하받아 중앙훈련소까지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원들에게는 히틀러의 청년단을 흉내내여 가슴과 팔소매에 보라매를 그린 곤청색제복과 채양이 달린 둥글모자까지 씌웠습니다. 히틀러 청년단의 제복과 다른게 뭔가 하니 상징적인 독수리대신 보라매를 내놓은것뿐입니다. 얼마전에는 〈보라매〉라는 기관지까지 발행하여 청년들에게 제놈의 영상을 높이고 그들속에서 반공리념을 고취하고있습니다. 벌써 면에까지 〈족청〉의 말단조직을 내왔는데 창립선포후 석달도 안되는 사이에 100만에 가까운 청년들이 망라되였습니다.

미국놈들도 리범석에게 커다란 기대와 재정적지원을 주고있습니다. 그놈들은 래년도에는 2천만딸라라는 거액의 자금을 미군정청의 〈일반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불할것이라고 합니다.

지어 미국놈들은 〈족청〉의 중앙훈련소와 지방의 곳곳에 분산설치한 훈련소들을 병영화하고 여기에 미국제보총과 기관총, 박격포까지 넘겨주어 장차 남조선군부와 폭압기관의 골간을 키워내도록 적극 부추기고있습니다.

정치의 거목들이라 하는것들이 공리공담만 일삼으면서 물고뜯는 개싸움에 힘을 빼고 경황이 없어하는데 리범석은 이렇게 배포유하게 정객들의 당파싸움에 미소를 지으면서 물밑에서 유유히 권력의 기초를 다져가는것입니다. 전 상하이에서 그놈밑에 좀 있어보기는 했지만 리범석이 이렇게 그릇이 크고 머리가 도는 놈인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이놈의 기를 눌러놔야 되겠습니다.》

조태준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에 아퀴를 지었다.

정시명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조태준의 말을 듣고 리범석이 과연 위험한 인물이라는 판단이 적중했다고 생각했다.

조태준을 돌려보낸 후 정시명은 아직 남조선실태에 대해 다 파악하지 못했어도 리범석이 권력지반을 넓히는 놀음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며칠후 찾아온 안지생에게 광복군에서 리범석의 상관으로 있던 리청천을 끄드겨 리범석의 비대를 견제할수 있도록 《족청》과 평행선을 달리는 우익계청년조직을 내오도록 하라고 긴급임무를 주었다.

정시명은 김중원이 제공한 자금을 가지고 일행에게 림시생활대책부터 마련해주고는 찾아오는 동지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었다.

누구나 조국땅에 와서 하루하루를 헛되게 생활하지 않은것 같다.

사람들을 만날수록 힘이 생기고 자신심이 커진다. 그는 동지들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떠나보낼 때마다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이미 터를 잡은 분야에 더 깊이 뿌리를 박으며 손을 잡을만한 사람들을 물색하는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하였다.

정시명을 기쁘게 한것은 중국관내에서 가까이 지내온 류동명이 미군정청의 통위부(남조선《국방부》의 전신) 부장으로, 송호정이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으로 등용된것이였다.

부산부두에 하지를 마중하려 그들이 나타난것이 우연이 아니였다. 그들은 애국에 눈을 뜬 인간들이다. 일찌기 망국의 비운에 가슴을 치며 압록강을 넘었던 이 나라의 선각자들이다. 군부의 실력자들이 애국의 편에 확고히 몸을 담는다면 두말할것없이 여러

모로 요긴한 도움을 받으리라는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미심쩍은것도 있었다. 그들이 무슨 돌풍에 휘감겨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에 와서 속심이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하는것이다. 미국놈들의 눈에 걸려든 리유가 의심쩍다.
두 인물이 다 미국놈들의 시중군치고 제일 고급한 자리에 틀고앉았는데 그게 어디 좀해서 차례지는 자린가. 8.15후의 급변하는 정치기류에 재빨리 날개를 펼쳤다면 그건 분명히 미국놈의 정책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동조하는 인물이라고 평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시명은 송호정이나 류동명이 벼슬자리가 탐나서 애국의 초지를 마른 나무가지 꺾어버리듯 하고 외세에 아부할 비루먹은 인간들이 아니라는것을 굳이 믿고싶었다.
(아, 아, 송호정, 자네만이라도 뜻을 거두지 말아주게. 자네가 잡은 칼에는 제발 민중도살의 피가 발리지 않게 해주게.)
정시명은 친구를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기도 했다.

4

어느날 미군정청에 있는 류동명의 부관이 정시명의 거처를 찾아왔다. 그는 만나고싶은 마음이 급하여 부관을 먼저 보내 문안을 드리니 시간을 얻어 인차 찾아오겠다는 류동명의 인사말을 전하고 돌아갔다.
정시명은 봉건적례의에 푹 젖어있는 류동명이 찾아오겠다는 소리는 뒤집어보면 와달라는 이야기같아서 부관이 갈 때 인사가 늦었다는 사죄를 전해보내고는 그날 늦은저녁에 류동명을 찾아갔다.
부관이 적어놓고간 주소를 찾아가니 남산기슭에 벽돌담장을 두른 양옥집이 나타났다.

정시명은 담장너머로 뜰안을 들여다보았다. 뜨락이 꽤 넓고 규모있게 정리되여있었다. 담장밑으로는 아직도 푸름이 싱싱한 가지들에 노란 감알이 다롱다롱 달려있는 감나무와 살구나무, 앵두나무, 단벚나무가 일매지게 서있고 대문으로부터 현관문까지는 포도덩굴이 나무버팀대우에 얼기설기 엉켜있었다. 그밑에는 화강석으로 다듬은 걸상이 주런이 놓여있고 옆에는 이미 말끔히 거두어 버린 꽃밭이 새하얀 조가비에 둘러싸여있었다. 뜨락의 남향쪽에는 밑둥아리가 어른의 팔뚝만한 참대나무들이 꽉 들어차서 뜨락을 한결 정갈하게 해준다. 꽃이 피고 열매맺는 시절에는 과원속에 묻혀 살것만 같다. 뜨락만 들여다봐도 주인의 지체가 엿보인다.

정시명은 마동열이더러 돌아가라고 이르고는 초인종을 눌렀다.

이내 산듯하게 군복을 다듬질해입은 류동명의 부관이 대문밖으로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이미 낯을 익힌 부관은 대문가에 서있는 정시명을 보자 깍듯이 인사를 한 다음 잠간 기다려달라고 이르고는 절도있는 걸음으로 다시 뜨락으로 들어갔다. 이어 안쪽에서 문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니, 정선생을 대문가에 세워놓다니.》 하고 크게 부관을 나무라는 소리와 함께 반달음으로 뛰여오는 발자국소리가 났다.

아직도 풍신이 좋고 눈정기가 어려있는 류동명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대문의 두쪽을 와락 밀어내며 실내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오셨구려, 정향선생!》

《그동안 옥체만강하셨습니까?》

정시명이 허리를 굽히는데 류동명이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가움에 흠싹 젖어 답례를 하였다.

《내 얼마나 정향선생을 기다렸다고… 자, 어서 들어갑시다.》

류동명은 그의 허리를 오른팔로 감싸안고 집으로 안내하였다.

리조 말기에 조선군대의 교관대장으로 있었던 류동명은 70객이 된 오늘까지 줄창 군무에 몸을 담아온 오랜 무장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걸음걸이가 방정하고 몸가짐이 절도가 있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만은 거역할수 없는듯 그의 머리에도 백발이 내

리고 아직도 희고 살진 볼과 이마에 거무스레한 로인반점들이 드문드문 박혀있었다. 그는 나들문에 이르자 《이게 내 집이요. 어서 들어서시우.》 하며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그 모양새가 꼭 사지판을 넘나들고온 친자식을 맞아 기쁨에 겨워하는 인자한 촌늙은이의 순박한 모양이다.

응접실에 들어선 류동명은 잠시 기다려달라고 량해를 구하고는 옆방으로 갔다.

너렁청한 방에는 응접탁과 나무걸상이 몇개 있고 창문턱에 있는 커다란 백자기에서는 백리향이 오늘아침 갓 망울을 터친듯 향기를 그윽히 풍긴다. 벽에는 《제일강산》이라고 쓴 안중근의 필적족자가 걸려있을뿐이다. 청렴하고 검소한 옛 무인의 성품이 그대로 비껴있는 방이였다.

류동명이 김구의 각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붕괴와 추방과 개각의 파행을 거듭해온 상하이림시정부에서 군부계통의 요직을 그대로 력임해온것은 그의 타고난 청렴결백과 정직한 품성때문이라고들 한다.

잠시후 군복을 깐깐히 떨쳐입은 류동명이 마누라와 집안에 있는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응접실에 들어섰다. 군복차림을 한 류동명은 대번에 걸음걸이와 몸가짐이 달라졌는데 무게가 있고 엄격해보이였다.

정시명은 중국에서 류동명과 여러번 상종하면서 교분이 두터워졌으나 그의 가족들과 만나보기는 처음이였다.

《인사들을 올려라. 우리 〈림정〉의 귀인이신 정향선생님이시다. 소시적부터 독립운동에 헌신하시고 광복성전에 무공을 크게 쌓으신 이 나라의 성인이시다.》

류동명의 인사소개가 얼마나 장중하였던지 정시명조차 엄숙해졌다. 그는 구식절을 사뿐히 하는 안로인과 자식들의 인사를 받느라고 여러번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면서 맞절을 하였다.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한줄로 서서 다시 절을 하고 응접실에서 나갔다.

그들은 응접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

《정말 정선생은 우리 〈림정〉의 귀인이시오.》
《류총장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저로서야 마땅히 도리에 맞는 일을 했을따름입니다.》
정시명이 곱씹는 류동명의 인사말이 거북스러워 얼굴을 붉혔다.
《〈림정〉에 닥쳐든 폭풍을 단신으로 막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였소?》
류동명이 다난한 세월에 대한 추억에 감개가 되살아나 두툼한 눈두덩이를 내려붙인다.
류동명이 정시명을 귀인이라 부르는것은 인사치레가 아니였다.
정시명도 무등 감회에 젖어들었다. 눈앞으로 자그마한 2층 목조건물이 다가온다. …
상하이… 상하이의 으슥진 뒤골목… 쾅쾅 울리던 널판자마루… 한숨과 담배내굴이 뒤엉켜 언제나 숨이 막히던 비좁은 방들…
《림정》이 상하이시의 프랑스조계지에서 세방살이하던 집이다.
그 집에 불시에 들이닥친 폭풍… 폭풍…
(그래 그것은 폭풍이였지.)
정시명이 입속으로 되뇌여본다.
《폭풍이였어.》

그 폭풍을 가라앉히려고 어느날 《림정》참모총장 류동명이 느닷없이 정시명에게 달려왔다. 인사법도가 틀이 박히고 간결한 류동명이 팔부터 덥석 잡고 《정선생.》 하며 찾아온 용건부터 황황히 내놓았다.
《이거 야단이 났소이다, 큰 야단이 났소이다.》
류동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사연인즉 조계지안에 반일을 표방하는 조선민족주의단체를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일본놈들과 여러모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있던 프랑스총령사가 조계지의 질서에 혼란을 준다는 당치 않은 구실을 걸고 《림정》이 당장 철수하라고 한다는것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김구가 렬사 윤봉길을 시켜 상하이홍구공원에서 일본 《천황》놈의 생일경축행사에 참가한 현지의 거물급일

본놈들을 폭탄공격으로 저승에 보낸 뒤이고 일본놈들이 《림정》계인물들을 잡느라고 눈에 피발이 되여 돌아치던 때였다.

프랑스총령사도 이 사건으로 해서 일본놈들로부터 단단히 입침을 맞은 모양이였다.

그날 작열하는 드센 폭탄파편에 저승에 간 놈들은 모두가 상하이주둔 일본군사령관 사라가와대장, 상하이일본총령사 가와하시, 일본함대사령관 노무라 등 현지의 거물급왜놈들이였다.

일본놈들이 혼비백산해질만한 사건이였다. 《천황》의 칙령까지 내려 범인들을 잡아내느라고 할 때 프랑스총령사의 요구대로 하면 영낙없이 김구이하 《림정》계의 인물들은 서울형무소로 끌려가게 될 판이다. 그러니 그렇게도 도고하던 류동명이 서른살이나 아래인 정시명의 옷자락을 붙잡게 될만도 하였다. 류동명은 길고 숱많은 장미를 푸들거리며 《정선생, 어떻게 손을 써주시우. 거기서 쫓겨나면 〈림정〉은 거덜이 나고 독립운동의 맥이 끊어지는 형국이 창졸간에 벌어집니다.》라고 눈물겨운 호소로 매듭을 지었다.

정시명은 《림정》을 아직도 독립운동의 맥을 이어가는 정통정부로 착각을 하고있는 류동명의 시대착오적인 말은 귀에 거슬렸지만 반일이라는 립장에서는 아직 동요가 없는 이 민족주의단체의 바람앞의 초불같은 운명을 두고 수수방관할수는 없었다.

그는 류동명의 부탁을 쾌히 접수하였고 그 실행에 달라붙었다.

류동명이 정시명을 구원자로 믿고 찾아오게 된데는 그가 중국의 좌익계는 물론 우익계에까지 넓은 인맥을 가지고있다는것과 함께 불의앞에는 타협이 없는 강직한 성미와 정의를 위함이라면 주의주장을 초월하는 아량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정시명은 필요한 대책을 궁리하다가 먼저 《상하이일보》의 석간신문에 상하이주재 프랑스총령사를 격찬하는 기사를 크게 내도록 하였다. 이 기사에서 정시명은 프랑스총령사가 《자유세계》의 공명정대한 외교관답게 약소민족의 불행과 고통에 동

정과 뉴대를 가지고있는 《진보성이 강한 인물》이라고 잔뜩 춰주었다.

《총령사는 정의와 진리에 투철하고 불의앞에서 용감한 명망높은 외교관이다. 그는 외부의 압력에도 끄떡없이 조계지안의 약소민족의 애국단체들을 보호해줌으로써 민족주의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자유프랑스의 위상을 높이고 만인의 찬탄을 받고있다.》

하루저녁사이에 용감한 외교관으로 상하이일경에 유명짜해진 프랑스총령사는 으쓱해졌다.

다음날 점심녘에 령사관원을 정시명에게 보내여 만찬회에 초대한다는것을 정중하게 통지하여왔다.

총령사는 그에게 두번세번 사의를 표하며 감사의 축배를 권하다가 그자리에서 《림정》에 대한 추방령을 취소한다고 선포하였다. 외부의 압력에 끄떡없는 명망높은 외교관이라는것을 다시한번 과시한것이다.

저들의 운명은 물론 조선독립운동의 《대본영》이라 자화자찬하던 《림정》의 존재가 막바지벼랑턱에 나섰을 때 슬기롭게 건져준 정시명을 류동명은 물론 김구도 두고두고 은인으로, 평생의 지인으로 부르며 감지덕지해하였다.

정시명은 그후에도 《림정》계를 친일친미집단으로 변질시키려고 침투해오는 특무들의 정체도 제때에 통보해줌으로써 피해를 덜게 해주군 하였다.

김구의 《림정》계는 지난해에도 정시명으로부터 요긴한 도움을 받았다. 8.15후 《림정》을 인솔하고 귀환길을 서두르던 김구는 예상밖의 암초에 부닥쳤다. 그것은 김구의 도고한 민족성에 위협을 느끼면서 남조선의 정계편성을 진척시켜나가던 미국이 《림정》의 영상을 왜소화할 정치적기도로부터 《림정》주석으로서의 김구의 개선을 반대해나섰던것이다.

김구가 미군정청대표와 몇차례의 공방전을 벌렸으나 그놈은 개인자격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종전의 립장으로부터 한걸음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해방된 다음날부터 시작된 말싸움은 10월에 이르기까지도 끝

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김구는 쟝지에스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류동명을 또 다시 시안에 있던 정시명에게로 파견하였다. 김구와 쟝지에스와의 회견을 주선해달라는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시명도 신중히 대하였다. 그것은 그러지 않아도 어중이떠중이 우익세력들이 모여드는 서울에 김구의 세력을 들이미는것은 반동세력의 힘을 가세해줄수 있다는 타산에서였다. 그러나 김구의 비서 안우생과 김규식의 비서 신기언을 통하여 《림정》의 동향과 금후 남조선정치세력의 재편전망을 예리하게 주시해온 정시명은 결국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하였다. 그것은 당시 미제가 보다 우익적인 반공광신자 리범석일파와 리승만, 서재필을 비롯한 미국에서 기른 친미주구들을 장차 남조선통치기관의 중추에 내세우려 한다는것을 간파하였기때문이였다. 그놈들을 견제하자면 그래도 《림정》계를 맞세우는것이 제일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시명은 일찍부터 여러가지 직급의 합법적신분을 리용하여 상하이림시정부의 거물급인물들과 자주 접촉하여 독립운동의 선에서 리탈하지 않도록 영향을 주었다.

당시 상하이림시정부 주석 김구나 부주석 김규식, 조소앙, 조완구, 엄항섭, 최동오, 류동명 등 수많은 민족주의거두들은 대체로 반공을 리념으로 내세운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정향이 공산당에 동조하는 인물이라고 하면서도 만리타향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을 벌리는 지조높은 우국지사로 인정하고있었다. 더구나 한번 만나면 쉽사리 끌려들게 되는 그의 높은 인품과 다재다능한 식견으로 해서 그와 사귀는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의 말이라면 군말없이 따르군 하였다. 정시명은 앞으로 서울에 나가 활동하는데도 그들과의 선을 가지고있는것이 좋을것 같았다. 어차피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양이 아니라 서울로 향할 인물들일것이다.

정시명은 쟝지에스의 턱밑에 있는 동지들을 발동하여 쟝지에스가 공개석상에서 김구를 만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쟝지에스의 총애를 받던 김송일까지 내세워 현시국에서 김구에게 정치적투자

를 해주는것이 좋으리라는것을 력설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쟝지에스는 정시명의 조종에 따라 자기 부인인 송미령이까지 참가시켜 김구를 위한 작별연회를 차려주고 20만딸라의 정치활동자금까지 제공하였다. 그리고 자기 측근의 미군고문들도 연회에 초빙하여 김구를 소개하였다.

쟝지에스의 후원은 김구와 《림정》계의 몸값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였다.

미군정청은 하는수없이 《림정》이 두번에 나누어 들어오는것을 승인하고 제놈들의 《씨－47》수송기까지 내여 그들의 입국을 공식적으로 보장하여주었다.

김구는 정시명의 거듭되는 지원을 받고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류동명을 그에게 파견하여 자기의 감사와 사의를 정중히 표하도록 하였다. 귀국에 앞서서는 직접 정시명을 찾아와서 눈물이 핑그르르해서 그의 손목을 잡고 오래동안 놓을줄을 몰랐다. …

류동명의 딸이 쟁반에 김이 몰몰 오르는 커피잔을 들고 방안에 들어서서야 그들은 생각에서 깨여나 마주보며 싱긋이 웃었다.

《선생님, 중임을 맡으신것을 축하합니다.》

정시명이 이렇게 첫말을 떼자 류동명은 《어험, 어험.》 하고 마른기침을 몇번 하더니 손을 내둘렀다.

《말도 마오. 축하를 받을만 한게 못되는것 같소. 사실 내 백범(김구의 호)이 미군에 관여하지 말라는걸 그냥 우겨서 다시 군복을 입었소이다. 바깥에 나앉으면 또다시 정계의 탁류에 말려들것이니 그게 이젠 신물이 나는것이요. 차라리 이길이 좋을듯싶었는데 막상 나서보니 후회되는바가 많소.》

류동명이 백발의 머리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기염을 토하다가 《그건 그거구…》 하고 쳐들었던 손을 아래로 내리찍었다. 오랜 무인생활이 체질화된 류동명은 언제나 군설명이 없이 자기 속을 직통으로 헤쳐놓는 사람이다.

《정향선생, 어서 빨리 이 어지러운 정국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주시오. 눈꼴 사나운것이 너무 많소.》

류동명은 이렇게 간곡한 청으로 화제를 돌려놓았다.

《난 지금 민족군을 만드는 일을 벌려놓았소. 우리 통위부에 고문직을 하나 더 받을테니 내결에서 좀 끌어주시우. 부탁이요. 내 이것때문에 정선생을 더구나 기다렸소이다.》

부탁하는 품이 극성스러워 정시명은 순간적으로 그것도 좋지 않을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어느 행정기관에 매운다면 여러모로 행동의 구속이 있어 사업의 폭을 넓혀나가는데도 제한적일것이라고 생각을 고쳐하였다.

《신의에 보답을 못하는 이놈을 용서해주십시오. 항간에 묻혀 조용히 여생을 보냄이 이 20년방랑객의 일루의 희망입니다.》

《그게 웬말이시오? 내 정향선생이 왼쪽에 기울어져있는분인줄 알면서도 익히 사귀여온것이 백의동포를 귀하게 여기는 그 거룩한 뜻이였는데 정국이 어지러워지는 이 판국에서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시오?》

류동명은 다소 실망이 가는듯 격앙된 어조로 여전히 정시명을 공박하여나섰다.

《안될 말이요. 이 남쪽땅에 생각되는 인물을 꼽아보시오.

내 어제도 백범어른을 만나보았는데 기는 있으나 확실히 지와 인이 모자라오. 겨레를 거느리고저 하면서도 수를 내놓아 민심을 모으고 도량을 넓혀 3천만을 한식솔로 만들 생각은 없이 고집만 앞세우고 의합이 안되는 사람은 무턱대고 삿대질이니 그게 지금 세상에 통할상싶소. 그래서 김구를 따라선 〈림정〉식솔들이 이제는 저마다 영웅호걸이 돼서 뿔뿔이지. 리승만도 내 몇번 만나봤는데 난 그 서양향수냄새부터 코살이 여의치 않아 길게 앉아볼 생각이 없더구만. 미국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리승만에게 주패장을 던지는것 같은 낌새가 보이는데 난 반대요. 백가지를 제껴놓더라도 그래 우리 민족이 무엇이 모자라서 대양건너서 온 오랑캐계집을 항차 국모로 섬긴단 말이요? 그걸 달고 해방된 제 나라로 기여든게 애당초 심보가 고약하단 말이요. 더구나 제 태를 묻힌 땅에는 30년가까이 저를 기다려준 마누라가 새끼들을 거느리고 눈이 새까매있는데…》

류동명이 비분강개한 어조로 설분을 토했다.

정시명은 이 사람이 여전히 애국의 지조만은 변치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속으로는 기쁘기 이를데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자기의 진속을 터놓을수 없어 묵묵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이 남쪽에서 이렇게 저마끔 자리다툼에 열이 나서 이마받이를 하고있을 때 지금 북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슬금슬금 자기네의 기틀을 다져가고있소. 내 전일에 북쪽에 갔다온 기자를 만나고 얼마전에 김장군을 뵙고온 몽양 려운형씨도 만나 얘기를 나누었는데 민심은 확고히 공산주의로 기울어지고 질서가 서고 민생이 안정도모되여있더라오. 정향선생이야 정치를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토지개혁 하나만 가지고도 북조선인구의 7할을 자기편에 끌어모았소. 정사야 그렇게 해야지.

참 정향선생, 내 제 말만 말이라고 인사가 늦었소. 아직 똑똑한 거처가 없다면서?》

《같이 온 사람들이 여럿이 돼서 서울 역전려관에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음, 그거 안됐구만. 부관이 말을 했소. 반생을 이국살이로 고생하였는데 제 나라에 와서까지 궁하게 지내서야 될 말인가. 그래 몇세대가 되오?》

《다섯세대가 됩니다.》

류동명은 그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서대문구 서소문동에 있는 적산가옥 한채를 정시명과 일행에게 넘겨주도록 지시를 내렸다.

류동명의 딸이 들어와 저녁상이 준비되였다고 일렀다.

류동명은 식사중에도, 식사를 마치고도 정시명을 어떻게 하든지 정계에 끌어내려고 애를 썼다. 그의 끈질긴 부탁을 단마디로 거절하기 미안하여 종시 정시명은 생각해보겠노라고 대답했다.

류동명은 그런 정도의 대답이라도 듣자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를 놓아주었다.

정시명은 류동명이 말은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속을 몹시 쓰고있다는것을 직감하였다.

류동명과 그의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대문을 나서니 부관이 승

용차를 대기시켜놓고 기다리고있었다.
부관옆에는 마동열이 서있었다.
정시명이 놀라서 《아니, 지금 몇시라구 마중위가 여적 있었단 말이요?》 하고 책망조로 말했다.
승용차가 떠나자 정시명이 창밖으로 시선을 보내며 엄하게 말했다.
《가라면 갈노릇이지 할 일이 없어 여기서 빈둥거린단 말이요? 다시는 데리고나오지 말아야겠군.》
《아, 아니 그건 선생님의 권한에 속하지 않습니다.》
마동열은 이 문제에서는 양보가 있을수 없다는듯 선뜻 자기의 주장을 내비치며 고집을 부렸다. 사실 마동열은 중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신경을 예리하게 해가지고 정시명의 주변을 살피고있었다.
여기저기서 정치적테로행위들이 감행되고있었던것이다. 벌써 김구와 려운형이 각각 세차례의 저격을 당하였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동열은 잠이 오지 않았다.
승용차는 어둠이 깔린 길을 미끄러지듯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정시명은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고 방금 류동명과 나눈 대화를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령감이 여전히 나라걱정하는것이 천만 다행스러웠다. 사람이 열백번 달라질수는 있어도 달라지지 말아야 할것이 있으니 그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일수록 나라위한 마음에 좀이 쓸기 시작하면 그 인간은 쉽게 사회의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런데 류동명이 의연히 그 마음이 결곡하기 그지없다. 그 속대가 단단하기로 쇠돌같고 그 뜻이 높기로 하늘같다.
헌데 문제가 있다. 어떤 나라를 위한 충의인가. 이게 문제다.
미국놈들이 만들어주는 나라가 이 나라 백성의 구미에 맞지 않으리라는것을 류동명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있다. 미국놈들이 분명 류동명의 무인기질과 애국심을 높이 산것은 아닐것이다. 민족주의운동에서 지울수 없는 그의 이름을 리용해먹으려고 중임을 맡겨준것이 틀림없다. 이걸 류동명이 모른다.
종당에 자기의 운명이 인민을 반역하고 나라를 등지는 매국의 길

에 굴러떨어지리라는것을 모르고있다. 북녘에서 벌어지고있는 눈부신 변혁에 탄복하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다는 그 한가지 리유로 두려워하고있다. 무지와 편견, 뿌리깊은 불신으로부터 초래된 인간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이다. 진보와 시대의 추이에 둔감하고 한생을 보듬어온 고루한 민족주의울타리에 속박되여있는 인간의 체질적본능을 미국놈들이 롱간질해먹고있다.

그 울타리를 헤쳐줄수 있을가? 지금 반공이라는 구호를 자랑거리처럼 휘두르면서 칼부림을 마구 하는 김구와 엇비슷한 저런 인간들을 자기 만족감에 도취된 세계에서 끌어낼수 있을가? 저 모양대로 둬두어서는 안되겠지만 끌어내주는게 너무도 아름이 버는 일이다.

보매 이 서울장안에만 하여도 저같은이들이 부지기수일것 같다.

하지만 품은 먹어도 저들을 돌려세워야 한다. 힘에 부친다고 저들을 방임해둔다면 내가 구태여 무엇때문에 이 력사의 먹구름이 짙게 깔린 서울에 들어섰는가. 이미 좌익권은 자기의 서렬을 완비해놓았다. 내가 또 새로운 합법적인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내오면 오히려 좌익권의 력량을 분산시키거나 애국진영의 혼란을 더 복잡하게 할수 있다. 그래 나는 저들속에 들어가야 한다.

좌우익이 힘겨루기를 하는 중간에 끼여들어 거기에 우리의 좌지를 전개해야 한다. 저들을 저 모양대로 놔두면 미국놈들과 반동의 힘을 더해주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죄악이다. 저들에게 나라를 위한 참애국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주어야 한다. 그래서 저들이 인생말년을 겨레에 대한 정직하고 훌륭한 복무로 장식하도록 지성을 다해보자.

외세를 쫓아내고 분렬을 막으며 민족의 결합을 실현하는 지름길은 여기에 있다. …

승용차는 여전히 서울장안에 짙게 서린 어둠을 헤치며 기세차게 달리고있었다.

5

해방전에 왜놈의 관사로 리용되여왔던 서소문동의 집은 2층 건물로 그들이 살아가기에는 족하였다.

일행은 류동명이 구해준 그 집으로 이사하여 세대별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직업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지고있는 돈을 밑천으로 서울시장에 나가 장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행중에서 리창순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해방된 제 나라 땅에 와서까지 비누장사요 남새장사요 구차스럽다는것이였다. 그래 평소에 리창순을 마뜩지 않게 보아온 마동열이 국일관에 가서 기둥 서방노릇이라도 할셈인가고 핀잔을 주자 젊은 놈이 고약하다고 눈을 부라리였다. 정시명이 며칠동안만 각자 호구대책을 세우는것이라고 달래였지만 막무가내였다.

이틀후에 례영이가 쏘련대표부앞에서 리창순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마동열에게 이야기하였다.

당시 평양과 서울에는 쏘미공동위원회 사업보장을 위해 각각 대표부를 두고있었다. 그런데 미국놈들이 서울에 설치된 쏘련대표부 성원들이 남조선의 좌익정당들을 조종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돌리면서 집요하게 미행감시하고있었다.

마동열이 대뜸 성이 돋쳐 《어쩔셈이요, 미군정의 치하에서 쏘련대표부와 거래하다가 수갑을 차려고 안달이요?》 하고 투박하게 쏘아붙였다.

《내 입구멍은 내가 책임지는거야.》

리창순이 묵묵히 앉아있는 정시명의 눈치를 흘끔흘끔 보다가 대답했다. 로어재간을 써먹으려고 쏘련대표부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틀림없었다.

정시명이 마동열의 말이 옳다고 긍정하였다.

여럿의 핀잔에 리창순은 하는수 없는듯 덤덤해있다가 고개만 끄

덕거리였다. 정시명은 일행을 이미 터를 잡은 전우들에게 하나씩 붙여주어 일자리를 얻게 해주었다. 례영이는 타자수강습소에 들여보내여 타자를 배우도록 하였다.

슬픔을 이겨내기 힘들어 언제나 다소곳이 고개만 떨구고 뒤자리만 찾던 처녀는 새로운 일거리에 재미를 붙이자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리창순이도 량곡도매소 회계원자리가 차례졌는데 그리 달가운 기색은 없어도 림시적이라는 말에 때를 기다려볼 심산으로 불만을 새기는것 같았다.

일행의 거처와 생활대책까지 세워지자 정시명은 남조선정세를 파악하는데 힘을 넣었다.

김중원이나 기타 정세에 대한 연구가 깊은 사람들을 만나 정세문제를 놓고 의견교환도 자주 진행하였다.

어떤 날에는 서울도서관에 해종일 틀고앉아서 점심도 건느면서 신문과 잡지에 붙박혀있기도 했다.

조만간에 반동세력이 미제의 비호밑에 자기의 대오를 정비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통치기능을 장악할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시간은 확실하게 반동들에게 유리하게 흐르고있었다.

남조선사회의 암담해지는 실태를 파헤칠수록 나라의 통일적발전이 장기성을 띠게 되리라는 생각에 머리가 무겁기만 하였다. 중국에서 서울에 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아시아정세의 유리한 발전추이에 편승하여 남조선사회의 발전도 비록 당면하여 곡절은 있어도 비교적 순조로이 발전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암담하다.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련일 조성되고있었다.

남조선사회의 파국을 이대로 방임하여둔다면 정국은 결정적으로 전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적지배밑에 몰아넣으려는 미제의 위험천만한 야망대로 굴러갈것이다.

정시명은 혼탁한 시국과 위태로운 정세추이를 파고들수록 나라와 겨레의 운명에 대한 걱정으로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다.

김증원과 조태준이 그리고 군부에 벌써 확고한 자리를 잡은 최원기도 만날 때마다 시국을 통탄하며 빨리 무슨 수를 내놓아야지 야단이라고 정시명의 얼굴을 쳐다보군 한다.

마동열이와 림인석이도 저녁마다 정시명을 만나 일사업정형을 보고하고는 꺼칠해진 얼굴로 한숨부터 내쉬군 하였다. 남조선사회의 반동화를 막지 못하면 결국 나라의 분렬이라는 비극적결과에로 이어질수 있다. 이 말은 정세추이에 민감하고 예리한 안지생이 처음으로 입밖에 냈다.

안지생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너무 쉽게 그 말을 토해놨을 때 정시명은 온몸에 찌르르 전률을 느끼며 순간에 눈물이 찔끔 솟아났다.

일제를 대신하여 기여든 미제에 의한 식민지예속화, 나라의 분렬! 입에 담기조차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지금 저마끔 외세를 등에 업으려고 미국놈들앞에서 구역질나는 요사와 아부와 처세를 보이고있는 간사한 무리들이 력사앞에 지닌 세대의 사명감을 인식하고나 있는가. 예속과 치욕의 천길나락에로 굴러가고있는 대세를 역전시키려면 이 남녘의 하늘밑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지.

정시명은 어떤 날에는 울적해지는 심사를 달랠길 없어 남산의 다박솔에 해종일 몸을 묻고 혼탁된 력사의 기류가 어지러이 회오리치고있는 서울장안을 굽어보면서 해답을 찾아 고심을 하였다.

무엇보다 미국놈의 팔다리부터 잘라야 할것 같다. 제놈들의 영향밑에 민주진영까지 끌어들이려는 미제의 책동을 분쇄하고 미제의 몸뚱이에 기생하여 해방된 정세를 일신의 안락과 공명과 벼슬길에 리용하려는 반동세력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 중간에서 동요하는자들은 끌어당기고 진보의 길에서 주춤거리는자들에게는 힘을 주고 벌써 외세를 업은 놈들은 그 요람기에 기세를 꺾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조성된 정세와 전략적인 과제들은 더욱더 풀길없는 수많은 의문점을 던지면서 그의 심중을 사색의 미궁에로 몰아넣

군 한다.

이 방대한 과업을 위해 조직을 어떻게 꾸리며 조직의 성격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겠는가. 조직은 어디에 뿌리를 박으며 주요활동무대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민족세력과의 련계는 어떻게 가지며 반동진영과의 사업은 어떤 방향에서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겠는가.

더듬을수록 삭막해지고 깊어질수록 헤여날길 없는 앞날의 문제들을 그러안고 사색을 거듭하던 정시명의 마음은 평양으로 달려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만이 이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을 주실것이다.

그이께서만이 이 혼탁한 남조선정치의 탁류를 정화시키고 민족의 완전자주독립을 이룩하여 이 땅에 겨레가 길이 복락을 누려갈, 인민의 락원을 가꾸어갈 원대한 구상을 안고 계실것이다. 벌써 남조선의 민심은 평양으로 쏠리고있었다.

더더구나 민족의 사활을 념려하는 지성과 량심의 라침판은 확고히 평양을 향하고있었다. 각이한 정견을 가진 민주인사들과 혁명가들, 기자들, 과학자들, 문화인들, 우익정객들과 지어는 학생들까지도 명예도 재산도 직위도 던지고 장군님의 품을 찾아 38°선을 넘나들고있다.

그들중에는 장군님의 품에 아예 눌러앉는이도 있고 민족재생의 대강을 받아안고 다시 서울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시명은 자기도 더는 지체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제 4 장
해발을 안다

1

날씨가 유난히 맑은 어느 일요일 아침, 정시명은 마동열을 조용히 불렀다.

《우리도 평양으로 떠납시다. 동열이가 먼저 갔다와야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여느때없이 흥분이 어려있었다.

《알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기를 바라는 정시명의 요구에 습관되여온 마동열은 짤막하게 대답하고는 당장 떠날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덤비지 마오.》

정시명은 그를 손짓으로 눌러앉히고 잠시 마동열의 밝아진 얼굴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말을 이었다.

《오후 4시까지 출발준비를 완료하시오. 난 오후 4시에 창경원 앵무새집 앞에 있겠소.》

정시명은 이날 점심시간에 《국방경비대》총사령관인 송호정의 초대로 창경원야유회에 가게 되였던것이다.

송호정은 쟝지에스의 휘하에서 중령으로 있으면서도 《림정》계 사업에 깊이 관여해오다가 귀국도 김구와 함께 한 민족주의거두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림정》집단의 다른 중진인물들과는 년령상으로 퍽 아래인 쉰살안팎인데다 경향도 진취적인것으로 하여 잘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민족의 래일을 대표하는 인물로 믿고 의식적으로 가까이 접근하여왔었다. 그는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으로 정의감이 강하고 지조가 높은 사람이였다.

일찌기 칭화대학을 졸업한 송호정은 대세의 추이에도 민감하였으며 시대적사조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손문의 삼민주의나 맑스나 레닌의 저서들도 열심히 탐독하였다.

정시명은 벌써 오래전에 송호정의 사람됨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와 인간적으로 깊이 사귀여왔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적으로

너나들이로 상종하군 하였는데 송호정의 처와 그의 자녀들도 정시명을 집안사람처럼 허물없이 정을 주고 지내온다. 서울에 온 후 정시명은 송호정과 여러번 마주앉았는데 바쁜 사람이라 깊이있는 이야기는 나누어보지 못하였다.

벌써 솔문장식을 한 창경원어귀인 홍화문에서 송호정과 그의 가족들이 정시명을 기다리고있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요? 나무잎이 다 졌는데 야유회는 무슨 야유회요?》

정시명이 마주 걸어오는 송호정의 어깨를 무랍없이 건드리며 인사를 건네였다.

《아니, 야유회가 아니라 단풍놀이지. 저사람이 어찌나 보채는지 추석때부터 단풍놀이 가자는걸 일에 몰려 못갔더니 조국에서의 첫가을을 그냥 보낼수가 없다누만.》

《총사령관에게는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아주머님의 정성은 과히 이를만 합니다.》

정시명이 매달리는 송호정의 아들딸들과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송호정의 처를 둘러보며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

《저 량반이 언제 제 말 듣는답니까. 그래 부관더러 수를 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모셔왔구만요.》

사실은 송호정의 처가 어제저녁 아들을 시켜 정시명에게 야유회에 와달라는 부탁을 전하게 하고는 송호정의 부관에게는 정향선생이 래일 창경원에 휴식하러 가자고 한다고 이야기해 보냈던것이다.

안해의 수에 걸려든 송호정이 정향이 온다는 소리에 더는 어쩌지 못하고 만사를 미루고 창경원에 나타난것이다.

정시명이 남조선권력집단의 중추에 올라 벌써 안락한 생활에 재미를 붙인 송호정부처의 호의에 기꺼이 응해나선것은 그를 앞으로 남조선군부와의 사업을 위한 중요인물로 점을 찍어놓았기때문이였다. 남조선군부상층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인물은 미군정청 통위부장 류동명과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정이였다.

그들중 류동명은 인간적으로는 정시명에게 흠뻑 반해있으면서도

완고한 민족주의자로서의 고집은 좀체로 버릴 위인이 아니였다. 한때 중국에서 리청천에 앞서 광복군사령관으로 있을 때 공산주의파쟁군들과 행세식사회주의자들의 모략과 권모술수를 많이 체험한 류동명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게 보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시명만은 배척하지 않고 오랜 세월 깊이 사귀여왔는데 그 리유에 대하여 동료들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정향이 무슨 공산주의자인가, 그는 애국지사요, 조선독립운동의 거물이다. 정선생이 설사 공산주의자라 해도 난 그만큼 도량이 크고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의사를 지기로 둔것을 기꺼이 자랑한다. 정향에게 견줄만한 광복투사를 어디 내세워보라.》

정시명은 류동명이는 당면해서는 사업에 직접 인입하지 않으면서 리용하려고 계획하고 그와의 사업을 더 전진시키지 않았다.

송호정이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보다 적극적인 공산주의동정자로, 나아가서는 앞으로 출현할 애국적인 군사조직의 핵심으로 포용하여 같이 손잡고 일하고싶었다. 그것뿐이 아니였다. 송호정이 미국놈의 앞잡이로 되여가는것을 곁에서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와의 친분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은 의리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군부의 실력자인 송호정과의 사업을 첫 사업으로 내세운데는 그밖의 절박한 사정도 있었다. 그를 애국의 길에 돌려세우면 권력기관의 기둥으로 기틀이 잡혀가고있는 군집단을 무력화시키거나 인민의 편에 가까이 접근시켜 자주독립지향력량의 진출과 재편성과정을 측면에서 지원해줄수 있다는것이였다.

정시명이 들은데 의하면 지금까지는 군집단이 인민탄압에 직접 동원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군부가 자기의 조직구조를 완성하면 반드시 미국놈들의 총알받이로, 반북대결과 인민탄압의 도구로 리용되리라는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정시명은 우선 그 우두머리로 있는 송호정부터 단단히 틀어쥐고 군의 반동화에 가능한껏 제동을 걸어 일정한 기간만이라도 남조선에서의 통일세력의 재편성과정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날 정시명은 볕이 좋은 창경원의 아늑한 잔디밭에서 송호정가족과 다과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시명이 한담을 주고받다가 우스개소리로 《나를 위해서도 총사령관노릇을 길게 하게나.》 하자 송호정은 벌컥 화를 냈다.

《만저우패들때문에 못해먹겠어. 일본놈들 사타구니에 끼여 개질을 하던것들이 어떻게 신성한 국방에 기여들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당시 미제는 총사령관자리에는 내외의 여론을 타산하여 명색이나마 항일을 표방했던 쟝지에스군의 중령 송호정을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실권은 관동군출신의 장교들이 좌지우지하도록 세력균형을 이루어놓았다.

《만저우패들?… 전범죄를 지은자들이 어떻게 해방된 오늘에 국방에 주력으로 나섰는가?》

정시명도 송호정의 각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맞장구를 쳤다.

《그게 이 남쪽의 독립선물이라는거야. 정형은 아직도 모르고있군. 해방은 무슨 해방이야. 송호정이 뭐 머리속이 맑아져서 이 벙거지를 썼는줄 아나?》

《송형, 자넨 점점 아리숭한 소리만 하는구려. 그럼 자넨 만저우패의 꼭두각시가 됐단 말인가?》

《차라리 만저우패의 꼭두각시라면 좋기나 하겠네. 그건 그래도 동족이 아닌가. 내 지금 일일보고는 미군고문한테 하네. 그 녀석은 새파란 중좌놈인데 이건 사무실에 들어가도 앉으라는 소리도 없이 턱질이지. 〈림정〉의 참모총장 류동명장군신세도 하지손아귀에 있다는걸 정말 모르는가? 거기에도 손아래에서는 만저우패가 득세하네.》

정시명은 입가에서 웃음을 거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송호정의 기분상태로 보나 그의 강직한 성품으로 보나 이대로 가다가는 그자리를 얼마 유지 못할것 같았다. 그래 심각한 어조로 충고를 하였다.

《송형, 정신차리게. 이 어지러운 정국에 자네 위치가 얼마나 중

요한가. 다른 놈은 몰라도 참모장만은 기맥이 통하는 측근으로 앉혀놓고 틀어쥐게. 신통치 않으면 몰아내게나. 막중한 자리에 앉아있을수록 곁에 살을 나눌만한 인물을 두고있어야지 껄렁한 친구를 앉혀놓으면 만사를 그르치네. 내 오늘 진심으로 권고하네. 송형은 총사령관자리를 지켜야 하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남쪽땅을 지키기 위해서지. … 다시한번 당부하네만 참모장을 틀어쥐라구. 그가 만저우패라고 해도 무방하네. 사령부안에서 참모장을 내세워 송형의 지반을 닦아야 하네. 바닥이 단단하면 물도 새지 않을걸세. 그리고 이걸 생각하라구. 사람을 사귀면서 해방전의 과거사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구.

내 두루 생각해보니 해방후 이 남쪽땅의 세력구조나 의식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고있네. 틀림이 없거던. 어제날엔 무산혁명을 위한다고 돌아치던 사람이 권력과 치부의 노란자위를 삼키려고 분별을 잃고 뛰는가 하면 일제의 기관에 붙어살던 사람이 해방된 조국에서 자기를 속죄하면서 바른길을 찾느라고 애쓰기도 하네. 과거사는 새 벗을 사귀는데서 참고는 되겠지만 기준으로 되여서는 랑패야.》

송호정이 예나제나 다름없이 진정에 넘치면서도 쉽게 공감을 가지게 하는 정시명의 사리정연한 조언을 심중히 받아들이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였다.

송호정은 이날 수하에 있는 문제성있는 요직인물들과 그와 관계하고있는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털어놓으면서 그의 조언을 요구하였다.

정시명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자 앞날이 더욱 걱정스러워졌다.

그가 현위치에서 밀려난다면 두말할것없이 크게 랑패다.

앞으로 군부의 요직을 차지하게 될 인물들중에서 송호정만한 믿음직한 사람을 찾기는 힘든것이다. 그래 정시명은 송호정이 제기한 문제들에 일일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마동열과 약속한 시간이 되여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만나 사업토론을 할것을 약속하고 송호정의 일가와 헤여졌다.

오후 4시 정각에 마동열이 구경군들속에 끼여 앵무새집에 나타났다.

그들은 창경원숲속에 있는 휴식장으로 갔다. 이미 꽃밭을 말끔히 거두어버리고 잎새 떨어진 나무가지들만이 앙상하게 서있는 곳이였지만 그래도 창경원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 휴식장은 인산인해였다.

《준비가 다되였소?》

《예.》

《우리의 도착보고를 드리는것이 마동무의 임무요. 38°선 어느 지점을 통과하겠소?》

《저…》

마동열이 우물쭈물하였다.

《개성에 가서 장사군들에게 물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군.》

정시명이 엄하게 나무랐다.

《목표가 똑똑치 않은 화살이 명중될리 만무요. 중요한 임무를 맡고가는데 평양까지 며칠동안 가며 어느 경로를 어떤 방법으로 통과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산이 있어야지. 여기가 적구라는걸 잊은게 아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신심이 없을 때는 애초에 나서지 말아야 해. 서울장안에 대북장사군들이 수두룩한데 왜 한두명 만나서 사전료해를 하지 않았소.》

《잘못하였습니다. 이제 곧 나가서 장사군들을 만나겠습니다.》

워낙 천성이 고지식하고 가식이 없는 마동열은 정시명의 엄한 질책에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잘못을 뉘우치였다.

《내 말을 듣소. 개성행렬차는 서울역에서 오후 5시반에 떠나는데 개찰은 20분전에 하게 되오.》

정시명은 송호정을 만나기에 앞서 서울 마포시장에 들려 장사군을 통해 북반부로 들어가는 밀로를 료해한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

려주었다.

평양까지 들어가는 로상에서 생길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들도 이야기해주고 그를 극복한 장사군들의 경험에 대해서도 실감있게 들려주었다. 도중에 숙박할수 있는 려관과 해당 려관들의 숙식실태까지 설명하면서 황해도지방에 악성감기가 돌고있으니 주의하라는 말도 해주었다.

《자신이 생깁니다.》

마동열이 뒤덜미를 슬슬 문다지며 입가에 어줍은 웃음을 담으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정시명은 출발을 허락하였다.

2

벽시계가 방금 한점을 때렸다.

마동열의 북행길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던 정시명은 대문을 조심히 여는 소리에 상반신을 일으켜세우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일행이 나다니는 곳은 각이하여도 이 시간에 밖으로 다닐 사람은 없었다. 정시명이 찬찬히 내려다보니 예닐곱의 시커먼 형체가 대문쪽에 얼씬얼씬 나타났다가는 사라졌다. 머리칼이 오싹해졌다. 이어서 아래층 문들이 벌컥벌컥 여닫기는 소리가 나고 구두발소리가 2층으로 접근하고있었다. 정시명은 겉옷을 대강 걸치였다. 그리고 미닫이로 된 나들문을 벌컥 열며 《웬놈들이냐?》 하고 벽력같이 소리질렀다.

그러자 전지불들이 일시에 얼굴에 와닿았다.

《령감님, 미안합니다.》

대령옷을 걸친 정시명의 노기 서린 기상에서 다소 주눅이 들었던지 한놈의 경찰이 이렇게 말하고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자는 전지불로 먼저 제놈의 어깨에 붙어있는 경찰계급장을 비쳐보이고 이어 증명서를 꺼내보였다. 중부경찰서의 형사놈들이였다.

《도대체 깊은 밤중에 웬일이요?》
정시명은 복도에 나가서 물었다.
《쏘련대표부와 접선을 시도하는 수상한자가 이 집에 드나들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령감님은 이 집의 가장이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소. 다섯세대가 살고있소.》
정시명이 선뜻 짚이는데가 있었다. 리창순이 끝내 일을 친 모양이다. 리창순에게 차례진 자리가 량곡도매소 회계원이 틀림없는데 요새는 어디서 얻었는지 중절모에 신사복을 입고다녔다. 여러번 충고를 받고도 일행중에서 이색적인 냄새를 풍기는 버릇은 끝내 못고친다고 생각해왔는데 쏘련대표부에 드나들었던 모양이다.
《령감님, 집사람들을 확인해주십시오.》
《그럽시다.》
정시명이 경찰들의 요구에 쾌히 응해나섰다.
아니나다를세라 리창순의 방에 가니 그는 없고 처와 아이들이 겁에 질려 오돌오돌 떨고있었다. 강릉에서 살던 그들은 얼마전에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따리를 꾱져들고 서울에 왔었다.
《이 집 주인은 자주 나가군 합니까?》
《글쎄 장사질을 하며 살아가자니 이따금 촌에 가서 물건들을 구해오지요. 나도 래일쯤은 장사일로 집을 뜨자던 참이였소.》
《령감님도 장사를 하시오?》
《어떻게 하겠소. 먹고 살아야겠으니… 양복상회나 하나 꾸려볼가 하오.》
정시명이 말나가는대로 대답을 붙였는데 입밖에 뱉아놓고보니 그럴듯했다. 앞으로 자신도 사업에 필요한 직업을 가져야 했다.
양복천도매점 같은것을 벌려놓으면 그 매매를 위해 여러 지역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닐수 있고 장차 기업을 확대하면 외국에까지 문을 열고나갈수 있을것 같았다.
《그런데 이 집은 누구의 인가를 받으시였소?》
아직 장사일도 크게 못하는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 큰 집을 쓰고 사는게 괴상쩍은 모양이였다.
정시명은 시끄러운 생각이 들어 큰소리로 일축해버렸다.

《미군정청 통위부장 류동명한테 가서 물어보오. 난 몰라.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고들어.》

이 말투에 높은 권력의 입김이 확연히 느껴졌다.

《아, 그렇습니까. … 편히 쉬십시오.》

형사들은 대번에 안색이 달라져 황급히 인사를 남기고는 저들끼리 투덜거리며 대문을 나섰다.

《어찌된 일이요? 주인은 어데 갔소?》

그들이 사라지자 정시명이 리창순의 처에게 물었다.

녀인이 입안소리로 웅얼거리는데 어느새엔가 어둠속에서 리창순이 엉거주춤거리며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리창순이 큰 허우대를 구부정해가지고 그앞에서 고개를 떨구고섰다. 정시명은 그의 처와 자식들을 방안에 들여보내놓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갔다.

《당신이 경찰들이 찾아온 그 수상한자가 맞소? 쏘련대표부에 드나들었다고 하더군.》

리창순은 입을 다물고있다가 재차 물어서야 일자리때문에 쏘련대표부의 성원들과 몇번 만났다고 실토했다. 그러니 그때부터 리창순이 경찰의 미행을 당해온 모양이다. 각성이 없는것은 둘째치고 살림살이걱정까지 해주는 자기와 상론도 없이 그만큼 위험성을 이야기해주었건만 쏘련대표부를 찾아다닌 그의 소행이 여간만 괘씸하지 않았다. 원체 정시명은 그를 사업에 인입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저울질해왔다. 큰 체통에다 이목구비가 번듯한게 호인같은 인상을 주는데 사귀여보면 사람이 개차반이였다. 언행에 그늘진게 많고 안팎이 다르고 우물우물거리며 엉큼한게 도무지 믿음이 안가고 정이 들지 않았다. 예전에 김송일이 뭘 보고 천거했는지 딱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언젠가 리창순이 언듯 하는 말이 처가켠의 밭은 친척이라고 했다.

《자네에게 여러번 타일렀는데 오늘은 경찰들까지 꼬리에 달고다니니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우린 자네의 생활에 대하여 더는 간섭을 하지 않겠네. 하지만 자네 역시 일행을 위해 자중

하거나 물러나야 하겠네. 둘중의 하나를 택하게.》
정시명은 그의 행동이 뒤날에 기회주의적인간으로 전락될수 있다는것을 벌써 예감해왔던지라 이 기회에 아예 일행 가까이에서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재간있는 원예사는 병든 나무를 살려내는 재간도 있어야지만 쓸모가 없는 가지는 제때에 잘라던지는 재간도 있어야 한다.
리창순은 정시명의 싸늘한 어조에서 그의 의도를 판단하였던지 《죄송합니다.》 하고는 방안으로 쑥 들어가버렸다.
며칠후 리창순은 왕십리쪽에 세방을 얻었다면서 손달구지를 끌고와서 얼마 안되는 가장집물을 싣고 나가버렸다. 그런데 얼마후에는 리창순이 끝내 체포되여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말이 전해져왔다. 쏘련대표부근처에서 체포되였다는것을 보니 또 그곳에 들락날락한 모양이다.
뜻밖의 봉변에서 정시명은 여러가지 교훈을 찾았다. 앞으로도 이처럼 허무맹랑한 사고를 저지를수도 있다. 한사람의 부주의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수 있는것이다. 자신과 동지들의 위장을 더욱 빈틈없이 해야 되겠다고 재삼 마음다지였다. 《림정》이라는 큰 그늘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진의 눈초리를 멀게 하자면 사소한 언질도 주지 않도록 각자가 직업과 거주, 자금출처 등 모든 사업과 생활이 정정당당한 근거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누구에게나 알려져있어야 하며 사회의 합법적인 인정을 받을수 있는 직업부터 가져야 한다. 정시명은 애국적인 조직을 국내각지에 뻗어가게 하기 위하여 피복상사를 시급히 조직하며 동시에 서울시안에서의 활동보장을 위해 남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는 리발관이나 녀자들이 무시로 찾아드는 미용원 그리고 책방이나 식당 같은것을 여러개 내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교훈은 이것뿐이 아니였다. 이 혼란된 정세속에서 놈들의 수사망이 좁지 않고있다는것이다. 미제는 일제의 통치체계를 청산하면서도 경찰만은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계속 유지하였다.
놈들은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설치하고 일제시기의 경찰력량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보존하면서 그것을 골간으로 폭압력량을 확대

시켜 와해상태에 처하였던 사찰, 폭압기관들을 짧은 시일안에 부활시켰다. 당시 경찰력량만 하여도 3만 5천명이였다. 10월인민항쟁후 좌익력량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한 미제와 반동들은 이미 남조선민애청과 남조선로동당을 비법화하였으며 남조선전역에 걸치는 폭압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적들의 수사폭압망에 붉은 보루를 쌓아야 할것이며 그를 통하여 적의 수사기도를 손금보듯 장악하고 사전에 적발, 분쇄해야 할것이다.

정시명은 자신과 전우들의 일거일동이 높은 대적관념의 견지에서 보다 치밀하게 진행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깊이 하였다.

리창순이처럼 벌써 오래전부터 자기를 미행하고있는것도 모르고 움직인다면 놈들과의 대결에서 첫걸음부터 수세에 빠지고말것이다.

정시명은 실천에 달라붙었다. 고무공장을 경영하는 김증원에게서 자금을 구해가지고 림인석에게는 리발소를 맡기고 그의 처에게는 미용원을 꾸리도록 하였다.

림인석의 처는 중국에서 녀자사범학교까지 졸업한 녀성으로서 학식도 있고 활동력도 있어서 정시명이 몇번 사업에 인입했던 일도 있었다.

마동열에게는 지방특산물을 받아 운영하는 자그마한 식당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련락사업을 담당했으니 마땅한 직업일수 있었다.

피복상회는 정시명이 꾸리기로 하였다. 마침 김증원으로부터 서울시안의 천공급을 맡아보던 천도매소가 자금난으로 파산직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 천도매소는 남조선의 여러 도시들과 련계를 맺고 서울시안의 여러 상점들에 공급하는 고급천의 절대다수량을 다루고있는 큰 상사였다. 이 천도매소를 접수하여 옳게 움직인다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것 같았다.

정시명은 림인석으로 하여금 천도매소의 주인을 만나 넘겨받기 위한 실무적인 거래를 하게 하고 부족되는 자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송호정을 찾아갔다. 마침 그자리에 류동명이도 와있다가 정시명이 들어서자 반색을 하였다.

장사를 하겠다는 정시명의 말에 두사람은 깜짝 놀랐다.

《정향선생이 장사치가 되겠다니 이게 실성한 소리가 아니요?!》

류동명이 하는 소리였다. 은근히 노엽이 생겼던것이다. 통위부의 고문으로 돼서 이끌어달라고 부탁한것이 며칠전의 일이다.

그런데 돌아앉아서 장사노릇할 생각이나 하다니…

《가당치 않은 소리! 송장내가 나는 리승만이 정사를 틀어쥐겠노라 오금에 바람을 일구며 바재이는데 정향형이 그래 항간에 주저앉아버리겠다니 이거야말로 공산당의 말투로 하면 정치전향이요, 타락이 아닌가, 엉?》

송호정이 내지르는 소리였다.

《너무 그렇게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오. 그래 뭐 나에게 대통령감투라도 씌워주려나. 허허…》

정시명이 껄껄 웃었다.

《여보게 이사람, 다시 생각해보게. 정향같은 인재가 정계에서 사라진다는것은 국력의 랑비라는걸 알아주게. 안될 말이요.》

류동명이 여전히 혀를 차며 달래듯 말하였다.

《자네가 대통령감투를 쓰지 못할 리유가 뭔가. 지금의 혼미한 시국이야말로 자네를 부르고있네. 안돼. 장사치가 될것 같으면 난 한푼도 내줄수 없어!》

송호정이 화가 나서 피대를 돋구었다.

정시명은 여느때같으면 그들의 호의가 반가왔겠지만 지금은 거기에 마음을 쓸 계제가 아니였다.

《사람이 나서 제 분수에 어울리게 지내야지 어찌 팔자에 없는 부귀영화를 바라거나 명성을 원하겠소. 내 이제까지 남들의 손에 얹혀 밥을 먹어왔는데 여생이나마 식객노릇을 덜가 하니 그리 아시고 도와주오.》

류동명과 송호정은 다같이 혀를 끌끌 차면서도 정시명의 요구가 끈질겨 성의껏 돈을 모아주었다.

며칠후에 동대문네거리에 《흥국상회》라는 간판을 크게 써붙인 고급천도매상사가 나오고 시청에 그 주인이름이 정향으로 정식 등록되였다. 종로구와 마포구에 련이어 명월이라는 림인석의 처의 이

름을 단 미용원과 다방이 생겨나고 서울운동장 남쪽모서리에는 고급리발소인 문화리발관이 개업을 하였다. 이것은 정시명이 서울에 창설한 첫 사업거점들이였다.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 정시명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람들속에서 정향이 이젠 정치와는 담을 쌓고 조용히 돈을 벌며 살아가려 한다는 소문이 퍼져갔다. 평양정권에 큰 자리를 선통해보았는데 랭대를 당했다는 터무니없는 랑설도 돌아갔다. 그 화풀이로 고향에도 가지 않고 서울에 들어와 장사를 시작했다는것이다.

정시명의 인품과 영향력에는 크게 그늘이 지게 하는 소문이였지만 터전을 다지는데는 더없이 고마운것이였다.

3

평양에 갔던 마동열은 동지달도 다 지나가는 세밑에야 서울에 나타났다. 마동열은 정시명을 만나자 둘러멘 괴나리보짐도 풀지 않고 《선생님! **김일성**장군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고 감격에 넘쳐 부르짖었다.

이날로 그들은 자리를 떴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정시명은 림인석을 불러 고향에 가서 가족도 데려오고 흥국상회의 적자를 메울 자금도 융통하기 위해 자리를 뜬다고 일러두었다. 사실 흥국상회나 다른 위장거점들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기업초기부터 적자를 내고있었다.

개성에서 렬차에서 내린 두사람은 산발을 탔다. 다리가 성큼한 마동열이도 걸음이 빠르지만 정시명이도 걸음발이 빨랐다.

오랜 나날 적후를 무시로 넘나든 그는 아직도 하루밤에 100리는 쉽게 내대군 한다.

그날중으로 38°선을 넘은 그들은 평산군 읍소재지를 통과하다가 보안서원들에게 단속되였다.

정시명과 마동열을 만나 잠시 취조를 하고난 보안서장은 보안서

창고에 가두라고 하였다. 보온장치가 없는 창고안은 꽁꽁 얼어있었다.

마동열은 군보안서장에게 이분은 중대한 임무를 받은 동지이니 도에다가 정향동지의 도착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장사거래로 들어오는 장사치들과 그들속에 끼여오는 테로분자들을 많이 대상하여온 보안서장은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창고안에서 언밥을 받아먹으며 이틀을 보낸 마동열은 정시명의 안전을 책임진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자기의 실책으로 귀중한 걸음을 지체시키고있는것이였다. 그렇다고 자초지종을 알려줄수도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하기만 했다.

마침내 마동열은 보초가 아침밥을 창고안에 들여오는 기회에 그를 강다짐으로 창고안에 붙잡아놓고 분통을 터뜨리였다.

《동무, 지금 동무들이 무슨 죄를 짓고있는지 아는가?》

보초병이 마동열의 드센 손아귀에 덜미를 잡힌채 버둥거렸다.

정시명이 엄하게 나무랐다.

《무슨짓이요? 당장 내보내시오.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빨리!… 동무, 안되였소.》

《안됩니다. 선생님의 신변은 제가 책임지고있습니다.》

마동열이 시커먼 눈섭을 우로 쳐들고 그 큰 눈을 데룩거리자 보초병도 오금이 저린듯 정시명이만 쳐다보았다. 그는 보안서에서 보초병이 없어졌다고 소동을 부릴 때까지 보초병을 묶어둘 심산으로 창고문까지 닫아버렸다.

《마동무, 언제부터 이렇게 거칠어졌소. 조국의 품에 안겼는데 조국의 법을 따라야지.》

《글쎄 안됩니다. 저도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정시명의 지시를 아무리 쓰더라도 무겁게 받아들이던 마동열이 이번에는 그의 말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동열이, 그러지 말아, 그러지 말라구. 내나 동무나 이국살이가 몸에 밴 사람들이지. 쫓겨다니며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우리가 아니요. 수모를 받아도 어데다 고소 한번 해볼데가 없던 우리들이지. 그런데… 이보라구. 난 지금 오히려 가슴안이 훈훈해. 내 조국에도 이런 엄한 법이 있구나, 나라의 존엄을 해치는 놈들을 징벌하는 법도가 내 조국에도 서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장한 일이요. 우리 조국에도 인민의 법, 나라의 엄한 법이 있단 말이요. 내보내라구. 난 얼지 않아.》

나직하게 마동열의 성을 가라앉혀주듯 달래이는 정시명의 목소리는 의외로 갈려있었다. 마동열이도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왔다.

그제야 속이 다소 풀려 보초병을 슬그머니 내보냈다.

보초병이 나간지 얼마 안되여 보안서장이 나타났다.

《내 방으로 갑시다.》

말투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눈초리도 달라졌다. 보초병이 방금 창고안에서 겪은 일을 다 보고하였던것이다.

보안서장은 난로우에서 펄펄 끓고있는 주전자물을 고뿌에 따라 그들에게 권하며 물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이라니, 내 말하지 않았소. 도보안서에는 보고했소?》

마동열이 다시 격해서 왕붓눈섭을 무섭게 꿈틀거리며 소리를 쳤다.

《보고했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서장동무, 도보안서장을 다시 찾아주오. 그리고 정시명이 왔다고 하시오.》

정시명이 말했다.

정시명이라는 소리에 마동열의 눈이 둥그래졌다.

정시명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담으며 마동열에게 더 말을 꺼내지 말라는듯 손을 가벼이 저었다.

잠시후 전화가 나왔다. 서장이 마동열에게 전화를 바꾸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시명동지가 거기에 계십니까?》

《예. 2일동안 창고안에 갇혀있다가 방금 풀려나왔습니다.》

마동열이 아직도 분이 내려가지 않아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뭐라구요? 창고에 계셨단 말입니까? 서장을 바꿔주시오.》

도보안서장이 마동열의 이야기에 대번에 성이 독같이 올라서 전화를 빨리 바꿔달라고 독촉하였다.

정시명은 서장이 받으려는 전화를 받아들고 조용한 어조로 전화를 받았다.

《정시명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곳 서장동무를 나무라지 마시오. 그 동무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였을뿐입니다. 페를 끼쳐 미안합니다.》

도보안서장은 량해를 구하고는 인차 승용차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서장이 아침식사를 차려오겠다고 부산을 떨며 자리를 뜨자 마동열이 물었다.

《정시명이란 또 뭡니까?》

《내 진짜이름이 정시명이라오.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를 그렇게 알고계실거요.》

마동열이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는지 머리를 기웃거렸다.

벌써 몇년세월 혈불이처럼 가까이 지내왔어도 정향으로 알고 있었던것이다. 때에 따라 륜파나 박계동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정시명이란 금시초문이다.

마동열이 다시 고지식한 천성그대로 선한 웃음을 지으며 《에, 모를 일이군. …》 하자 정시명은 마동열의 주먹코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고는 빙그레 웃었다.

…승용차가 평산읍에서 벗어나 어느 오붓한 산골마을에 잡아들 때였다.

정시명이 승용차를 세우게 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두팔을 가슴우에 올리고 감개가 어린 눈으로 추녀낮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과 동네를 오붓이 감싸고있는 뒤산을 점도록 둘러보았다. 그는 신작로에서 벗어나 우측 산기슭에로 걸음을 옮겼다. 자그마한 옹달샘앞에 이르러 마동열을 불렀다.

《동열이, 이리 오라구.》

새하얀 조가비가 샘터바닥과 둘레에 촘촘히 박혀있고 정갈한 샘

물우에 자그마한 조롱박이 동동 떠있는데 길손들을 생각하는 다심한 손길이 한눈에 안겨왔다.

정시명은 이슥토록 옹달샘을 내려다보다가 조롱박에 물을 떠서 기갈증을 만난 사람처럼 단숨에 쭉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소리내여 웃으며 마동열의 앞으로 조롱박을 내밀었다.

《정말 청산의 정화수요. 아, 가슴이 쩡 열리누만. 동열이도 마셔보라구.》

마동열은 감개무량한 빛이 어린 정시명의 류달리 밝은 얼굴을 새삼스럽게 쳐다보면서도 자기가 지금 그의 고향마을, 정시명이 어린시절 즐겨 땀을 들이던 고향의 잊지 못할 옹달샘에 서있다는것을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다.

《에, 차다. 이발이 부러지겠군.》

마동열은 한모금 마시다가 이발을 떡떡 쪼으며 엄살을 부렸다.

그러나 마동열의 말은 듣는둥마는둥 정시명은 여전히 하염없는 눈으로 고향마을을 둘러보았다.

(고향아, 너는 변함이 없구나. 너를 다시 찾으려고 내 수십만리 혈전장을 헤쳐 이제야 네 품에 안겼구나.

고향아, 나의 사랑아, 내가 왔다. 아들이 돌아왔다.)

정시명은 가슴가득히 차드는 환희와 격정을 지그시 누르며 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였다.

어떤 농가에서는 늦아침을 하는지 이제야 희고 살진 연기가 모락모락 피여오른다. 마을앞의 방뚝에 높이 솟아있는 미루나무웃초리에는 예나 다름없이 까치둥지가 있는데 가지마다 까치들이 달리여 맑은 청으로 깍깍 우짖는다. 뒤산의 솔숲도 여전히 푸르고 싱싱하다. 어느 부지런한 이웃이 벌써 황소에 연장을 메워 밭으로 나서는지 몇집 건너 앞길에서 소방울소리가 딸랑딸랑거리고 이어 소영각소리가 흐뭇하게 들려왔다. 소방울소리, 소방울소리. 참으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여무진 소방울소리다.

정시명의 얼굴에 미소가 함뿍 어리였다. 고향의 정다운 향취가 물씬 풍겨온다. 느닷없이 멀리 흘러가버린 시절이 떠오른다.

방울소리 딸랑거리며 꼴짐 한단 베가지고 소등때기에 장수처

럼 틀스럽게 앉아 동구길에 들어서던 그 시절이 어제였던가싶다.

(그 시절의 친구들도 이제는 다들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되겠구나. 세월이란 참…)

《정향선생님!》

마동열이 저먼저 승용차로 향하며 불렀다.

그제야 고향의 정다운 풍경에 넋이 빠진 정시명이 애틋한 추억에서 벗어나 마동열을 따라섰다.

승용차는 다시 속도를 높여 마을 한복판을 질러간 신작로를 따라 해주로 향하였다.

마을의 조무래기들이 《발바리차》를 구경하느라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애들이 다치겠소. 천천히…》

나직이 부탁하는 정시명의 어조에도 형언할수 없는 감회와 애무가 어려있었다. 해주에서는 목이 밭고 몸통이 실하게 생긴 도보안서장 리진수가 다시금 정중하게 사과하였다.

그는 며칠전에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으로부터 서울에서 정시명이라는 동지가 찾아올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방금전에 도착보고를 올리였다고 하였다.

평산보안서에서 그들이 겪은 일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귀한 손님을 문전박대해서 미안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해주에 도착하면 우선 푹 쉬우라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정시명은 한시바삐 평양으로 가고싶었으나 장군님의 지시라고 리진수가 한사코 팔소매를 잡아끄는 바람에 해주려관에 갔다.

그들은 며칠동안 언창고에서 밤을 설치여온지라 푹신한 명주이불을 덮고 눕자 이내 녹초가 되여 잠에 곯아떨어졌다. 점심무렵에 리진수가 점심식사를 차려놓고 찾아와서야 깨여났다. 식사를 마치고 리진수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싶어하자 마동열은 시내구경을 잠간 하고 오겠노라고 자리를 떴다.

그들이 려관앞마당에 있는 나무걸상에 자리를 잡는데 아까 려관식당에 들어설때부터 정시명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기웃거리던 백발의 로인이 그들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여보게, 내 한가지 임자한테 물어볼게 있는데…》
보안서장이 정시명의 앞을 막아서며 《로인장,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 거 난 어르신에게 묻는게 아니웨다. …자네 혹 주상고을 정씨집안의 둘째가 아닌가?》
그 소리에 정시명이 와뜰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아버님! 옳습니다. 제가 시명이올시다.》
정시명이 로인앞으로 나서며 나직이 부르짖었다. 틀림없는 고향마을의 로인이였다. 아버지를 동갑이라 부르며 자주 마실을 오던 일이 생각났다. 고향마을의 늙은이를 보니 일시에 그리운 모습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느 한시도 잊은적 없던 그리운 얼굴들이였다.
《옳거니!… 자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로인이 정시명의 두손을 감아쥐고는 그의 얼굴을 세세 뜯어보며 장탄식을 했다.
《허허, 이렇게 눈이 시퍼래있는데… 보름전에 자네 상을 크게 치렀지. … 원 꿈같다구야. 자네가 살아오다니. 세상에 참 이런 희한한 일도 있구나.》
《저의 상이라뇨?》
《이런 참, 산 사람을 놓고 해마다 꼬바기 제사를 지내오다니. …자네 정말 둘째가 맞기는 맞는가?》
로인이 탄식을 할만도 하였다. 정시명의 집에서는 그때까지 정시명을 저세상사람으로 치부하고있었다. 왜놈들이 6.10만세사건이후 정시명을 체포하지 못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서 아들이 압록강을 건느다가 잡혔는데 평양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해 동지달 보름날에 옥사했다고 거짓통보를 했던것이다.
정시명을 잡지 못한 앙갚음을 이렇게 비렬한 방법으로 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정시명의 어머니는 그자리에서 정신을 잃은채 다시 깨여나지 못하고 집에서는 해마다 동지달 보름이면 정시명의 제사를 지내군 하였다.
로인은 정시명이 고향에 아직 가지 못했다고 하자 자기도 이

제 해주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니 함께 가겠노라고 했다.
정시명이 난처해하는것을 눈치차린 리진수가 대신 나서서 이분이 지금 평양에 긴한 일이 있어 들렸다오니 그리 알아달라고 량해를 구했다. 그 소리에 로인이 기가 차다는듯 혀를 끌끌 차며 정시명을 새된소리로 꾸짖었다.
《자네 거 무슨 소리인고. 아무리 긴한 일이 있기로서니 인륜보다 더 귀한게 어데 있단 말인고. 그러면 못써!》
《로인님! 로인님!》
로인이 기가 나서 려관앞마당이 떠들썩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리진수는 제가 바빠맞아서 로인의 말허리를 끊고 진정시키느라 했다.
《허어… 랑패일세, 랑패일세.》
로인이 연해연방 채수염을 흔들다가 고개를 돌리고 우두커니 서있는 정시명을 흘겨보고는 팔을 활활 내저으며 려관마당을 나섰다.
정시명이 급히 따라나가서 로인의 두손목을 따뜻이 잡고 부탁했다.
《로인님, 죄송합니다. 저의 아버님께 인차 둘째가 돌아온다고 여쭈어주십시오.》
로인은 물기가 핑하니 돌고있는 정시명의 눈굽을 잠시토록 여겨보다가 말없이 고개만 주억거리고는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불효로다, 불효로다. 손끝으로 키워 대처에 내놓고 오만시름에 백발이 됐은즉 아래웃턱을 모르는 불효가 돼서 왔구나.》
정시명은 로인이 저 멀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자리에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로인이 가늘게 내던 혼자소리가 그 무슨 갈퀴가 돼서 가슴을 빡빡 훑어내리는것만 같았다.
(불효라. …)
그는 속으로 나직이 받아외웠다. 그 말이 시퍼런 도끼날이 되여 면상에 곧바로 날아드는것 같았다. 거기에 대꾸할 말이 없다.
무슨 변명을 한단 말이냐. 그런데 이제 난 또 저 로인장의 말대로 오만시름에 백발이 된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고 다

시 슬하를 멀리 떠나게 된다.

(불효라.)

정시명은 너무도 억이 막혀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로인이 스스럼없이 뱉고간 말이 마음의 마지막버팀줄을 썩뚝 잘라버린것이다. 쓰라린 충격에 눈앞이 어찔해와서 정시명은 고개를 푹 꺾었다.

리진수가 실없는 말을 푼수없이 남기고 떠난 로인을 마뜩잖은 눈찌로 쏘아보다가 정시명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얼른 다가와서 그의 허리를 붙잡았다.

《너무, 너무 괴로와하지 마십시오. 촌늙은이의 주책머리없는 소리인데…》

《아, 일없습니다. 일없습니다. 로인님의 말이 주책머리없는게 아닙니다.》

《저 로인을 정말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부친의 친구되는분입니다.》

리진수는 정시명에게서 평산군 주상리가 고향이라는것을 확인하자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집에 잠간이라도 들려오실걸… 로인님이 화낼만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

그는 얼른 운전사를 불러 로인을 평산군 주상리까지 모셔다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라도 정시명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싶었던것이다.

운전사가 이내 승용차를 몰고 로인을 따라갔다. 생각지 않던 호강을 하게 된 로인이 좀 너누룩해져가지고 운전사에게 물었다.

《거 자네 주인장같은분은 누구신데?》

《예, 도보안서장동지입니다.》

《도보안서장? 저런! 그럼 우리 주상고을 둘째는?》

로인은 무엇인가 비범한 일에 맞다든것 같은 생각에 저도모르게 정씨집 둘째를 주상고을 둘째라고 자랑스럽게 불렀다.

《글쎄요. 아마도 큰일을 하시는분인가봅니다. 우리 서장동지 웃분같습니다.》

《옳거니!…》

그제야 로인이 무릎을 치며 안색이 바뀌여졌다.

《그 둘째가 워낙 어릴적부터 고을의 신동이였다네. 어, 이 내 무슨 로망이람.》

로인은 연신 탄식을 하며 승용차운전사에게 차를 더 세괃게 몰아달라고 하였다.

4

정오가 지나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승용차가 왔다.

그런데 정시명을 안내하러온 사람은 다름아닌 반년전에 헤여졌던 은송이였다.

《정향선생! 이게 얼마만이요?!》

《은송선생!》

그들은 너무도 뜻밖의 상봉에 감개무량하여 서로서로 끌어안고 볼을 맞비비였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장군님의 하해같은 사랑을 받으며 꿈같이 살고있지요. 아 참,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 반가운 상봉을 마련해주시느라고 마음을 다심히 쓰시였군요. 두시간전에 저를 집무실에 불러주십디다.

해주에 가면 도보안서장이 기다리고있는데 거기서 귀한 손님을 모셔오라십디다. 그런데 그 귀한 손님이 이렇게 정향선생이실줄이야…》

은송은 그의 팔을 부여잡은채 연신 눈을 슴벅거렸다. 그러나 그는 리진수의 앞에서도, 또 승용차를 타고가면서도 정시명의 생활과 사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만 줄곧 이야기를 하였다. 정향의 사업상특성을 고려하는 다심한 마음에서였다. 장군님의 품에서 받아안은 뜨거운 은정이며 인생의 봄맞이를 한 감격에 대하여 들려주는 은송의 이야기는 어떤 때는 그

도 주체할수 없는 격정으로 간간이 토막나기도 하면서 평양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였다.

그들을 태운 승용차는 해방산기슭에 있는 당중앙청사앞에 멎었다.

정시명은 은송의 안내를 받으며 청사의 홀에 들어섰다.

순간 정시명은 우뚝 굳어졌다. 오매불망으로 그리워지던 젊으신 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마주 걸어나오시였던것이다.

《아 정시명동지, 원로에 수고로이 오셨습니다.》

《장군님!》

정시명이 장군님앞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태양과도 같이 밝고 빛나는 모습앞에 서니 가슴속에 고이 묻어왔던 인사의 말은 어데로 잦아버리고 눈앞이 뿌잇해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넓으신 품에 그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말씀하시였다.

《정시명동지, 나는 오래전부터 동지를 보고싶었습니다. 이렇게 혈전만리를 헤치고왔으니 이제는 시름이 놓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나직하고도 잘 울리는 음성에 따뜻한 은정과 사랑을 담으시였다. 그 마디마디가 정시명의 페부에 단비마냥 흘러들어 온몸을 포근하게 해주었다.

정시명은 마치 백년지기라도 만난듯 그렇게도 다감하고 허물없이 맞아주시는 장군님앞에서 가슴속이 깨끗이 정화되고 어려움도 가뭇없이 가시여졌다. 정시명은 뒤로 한발자국 물러서서 삼가 옷깃을 여미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장군님, 백두산에서 풍찬로숙하시며 왜놈들과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였습니까? 칠성판에 올랐던 겨레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장군님께 늦게나마 삼가 인사를 드리옵니다.》

정시명이 허리를 굽히는데 어느새 장군님의 애무어린 손길이 그의 허리를 안아주시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광복위업은 정시명동지와 같은 열혈애국충신들이 사생결단으로 싸웠기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의

참된 애국자답게 잘 싸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정시명동지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 중국동지들의 감사전문을 받았습니다. 난 우리 인민의 자랑인 정시명동지를 이렇게 해방된 조국에서 만나 손잡고 일하게 된것이 정말 기쁩니다. 조선혁명가들의 존엄과 기개를 떨치고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장군님, 겨레를 위해 바친것없이 장군님의 치하를 이렇게 받으니 황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제 이제부터라도 장군님의 령을 받들어 내 나라의 애국충신이 되고저 합니다.》

《정시명동지, 우리 함께 사랑하는 내 나라 조선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합쳐나갑시다.》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정시명을 포옹하시며 그의 진정이 넘치는 맹세를 반갑게 받아주시였다.

《자, 어서 방으로 올라갑시다. 오늘은 정시명동지에게 전적으로 나의 시간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헌헌히 웃으시며 정시명의 팔을 잡으시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시였다.

집무실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는 정시명에게 자리를 권하신 다음 응접탁을 사이에 놓고 마주앉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자리에서 남조선인민당 당수 려운형을 만나시고 서울에서 찾아온 수많은 인사들을 만났지만 정시명동지처럼 주의주장이 일맥상통하는 혁명동지를 만나기는 처음이라시며 먼저 남조선정세와 관련한 정시명동지의 고견부터 듣고싶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시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을 저어 만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담배를 무척 즐긴다는데 담배를 태우면서 격식없이 이야기를 나누어보자고 소탈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한없이 인자하시고 다심하신 그이의 인정미에 어쩔새없이 끌려든 정시명은 그이께서 내미는 담배를 받아들고 주춤거리다가 그이께서 켜주시는 성냥불까지 받아들고말았다.

장군님께서는 담배를 한모금 깊이 들이빠는 정시명의 모습에서 마음이 놓이시는듯 정다운 미소를 머금으시였다.

정시명은 이미 나름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온 남조선정세를 개괄하고 지금까지 생각해온바를 서두름없이 차근차근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폭이 넓으면서도 주장이 뚜렷하고 론리정연한 그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계속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심중한 안색으로 들어주시였다.

때로는 수첩에 적어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시명의 이야기를 긍정하시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였다.

정시명이 이야기를 끝내자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손수건으로 이마에 송글송글 내돋은 땀발을 자근자근 눌러지우는 정시명에게 손수 유리고뿌에 물을 부어 권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탁우에 놓여있는 커다란 지구의에로 다가가시여 세계를 한눈에 굽어보시듯 천천히 돌리시였다. 그이의 눈앞에서 온 세계가 자기를 드러내며 한바퀴 돌아갔다.

《정시명동지, 난 남조선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미국놈들에게 환상을 가지지 말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겨나면서부터 우리 나라에 대포를 몰고 달려들어왔다고 말해줍니다.

지금 미국놈들이 겉으로는 이 나라에 좋은 일을 해줄듯이 떠들고있지만 우리 나라를 타고앉으려는 야심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놈들의 량면술책은 벌써 쏘미협상에서 드러났습니다.》

쏘미회담문제가 나오자 정시명은 저으기 긴장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서울정계에서는 여론이 죽가마 끓듯 소란스럽다.

좌익권이나 우익권이나 이 문제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각양각색이다. 쏘미협상이 결렬되자 회담쌍방도 결렬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넘겨씌우고 거기에 따라 언론도 량쪽으로 갈라져 론전을 벌리고있다. 북쪽의 언론은 쏘미협상재개에 입을 모으고있다. 그러니 쏘미협상에 기대를 걸어도 되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서울에 들어가서 여기에 모든것을 집중시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시명은 아무리 따져봐야 쏘미협상에서 큰것을 기대하는것은 부질없는 일같았다.

어느새 장군님께서도 정시명의 심중을 헤아리신듯 말씀을 멈추시였다.

《말씀하십시오. 정시명동지.》

《다른게 아니고…》

정시명은 인자하신 그이의 인품에 저도모르게 흠뻑 취해들어 무랍없이 심중을 헤쳐보이였다.

《지금 남조선의 좌익권에서도 쏘미협상과 관련하여 엇갈린 주장들이 무성합니다.》

《예, 리해됩니다.… 구태여 나의 립장을 밝힌다면… 원체 난 우리 문제를 놓고 대국들이 모여앉아 공론을 펴는것이 우리의 민족적자존심의 견지에서 기분이 나쁩니다. 고금동서로 세계의 정치사를 훑어보면 그 어느 시기, 어느 나라도 저들의 리해관계를 떠나 남을 도와준 전례가 없습니다. 난 쏘미협상에서도 전적으로 우리의 민족적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결정이 나오리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미국놈들이 끼여들고있는 회담에 그러한 기대를 거는것은 승냥이더러 삼켰던 먹이감을 도로 내놓을것을 바라는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쏘미회담문제에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쏘미회담을 열어놓고 미국놈들의 흉계를 들어내야 하며 이걸 기화로 못된짓을 하지 않도록 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미국놈들이 조만간에 협상탁에 다시 끌려나올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장군님의 고견에 접하니 명백해집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각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정시명은 서울정계에서 복잡하게 뒤엉켜돌아가는 문제를 민족적존엄과 력사의 교훈으로 간명하게 풀어주시는 그이의 명철한 론리와 지성앞에서 가슴뿌듯한것을 느끼며 말씀을 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함뿍 미소를 담으시고 감사의 정이 력력한 정시명의 모습을 일별하시다가 다시금 지구의를 천천히 돌리시였다. 밤색으로 표시한 미국이 나타나자 세우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생각깊으신 눈으로 그 자그마한 지도를 통해 워싱

톤의 검은 속심을 투시하시듯 묵묵히 들여다보시였다.
정시명도 그이의 눈길을 따라섰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러면 미국놈들이 백년토록 굳혀온 제놈들의 정치적야망을 어떻게 실현하려 하겠는가.
첫 단계의 목표는 분명코 제놈들의 괴뢰들을 내세워 친미적인 정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을 타고앉으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8.15후 지금까지의 변혁과정은 미국놈들에게 그러한 기도가 망상이라는것을 깨우쳐주었습니다.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는 이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결심과 힘을 비로소 리해하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국놈들이 민주주의가 고착되고 총선거에 의한 정부가 선다면 스스로 물러가겠는가? 천만엡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명확히 규정하자면 미국의 대외정책의 총적방향부터 고찰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극도로 쇠약해진 서유럽을 〈마샬안〉이라는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재빨리 거머쥐였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뛰르끼예와 그리스를 장악하기 위한 〈트루맨주의〉가 공포될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라시아대륙의 서남쪽을 타고앉는셈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다시 지구의를 천천히 돌리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두통거리는 여기 아시아입니다.》라고 하시며 아시아지역을 짚으시였다.
《벌써 미국은 남북전쟁을 종결하자마자 저들을 태평양국가라고 하면서 태평양연안을 제놈들의 지배속에 끌어넣기 위한 침략적인 교리로서 〈태평양주의〉라는것을 내놓았습니다. 미국놈들이 태평양을 제놈들의 호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도적궤변이 바로 이러한 교리로부터 흘러나온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놈들에게는 〈태평양주의〉 꿈을 현실화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되였습니다. 이미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타고앉았고 남아시아지

역에서는 필리핀을 타고앉았습니다. 여기 동남아시아에서도 자기의 진지를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이 전략에 따라 며칠전에 프랑스가 신생웰남의 수도에 대한 전면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조만간에 미국놈들이 여기에 슬그머니 끼여들어 자기의 세력권을 확대하게 될것입니다.

다음은 여기 동북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대륙을 병탄하기 위한 정치, 군사적지탱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미국놈들이 100년전부터 눈독을 들이고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조선반도입니다. 조선땅에서 총한방 쏘지 않고 정복자의 행세를 한다는 세계적인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도 남조선에 대군을 풀어놓은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놈들이 100년숙원이 드디여 실현되게 된 지금에 와서 이미 타고앉은 진지를 내놓을수 있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천리혜안의 통찰력으로 세기를 이어온 미제의 오만한 세계전략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대조선정책의 정수를 투철하게 꿰뚫어보시고 흰종이에 선을 그어가시듯 명백하게 펼쳐주시였다. 그 빛나는 예지와 심오한 분석과 력사우에 흩날리는 파편과도 같은 개개 현상들을 하나의 끈으로 꿰들고 폭넓은 식견과 명철한 판단력으로 움직일수 없는 결론을 도출해내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에 정시명은 커다란 환희와도 같은 감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이의 말씀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다단한 정치의 탁류를 걷어 안고 넓은 폭과 심도를 가지고 도도히 굽이치기도 하고 하나의 작은 세부에서 열백을 펼쳐보이는가 하면 열백의 서리서리 엉킨 정치의 삼검불을 하나의 명백하고 간결한 결론으로 풀어내기도 하신다.

말씀을 끊으시고 방안을 천천히 거니시던 장군님께서는 방 한쪽면을 가득채운 조선지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산천, 그 강토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민모두를 한품에 안아보시듯 그윽한 눈길로 지도를 들여다보시였다.

《민족의 분렬이라!…》

이윽고 그이의 크나큰 심려가 응축된 나직한 부르짖음이 방안의 숙연한 정적을 무겁게 흔들었다.

정시명이 남조선정세가 민족분렬에로 기울어지고있는데 대하여 분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이께서는 이미 통감하고계시는 문제였지만 다시한번 커다란 비분을 느끼신것이였다.

《바로 이것이 미국놈들의 두번째 선택입니다. 이제 미국놈들이 갈길은 달리 될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정시명에게로 돌아서시였다. 방금전까지도 자애에 넘쳐 아침해살을 받은 맑은 호수처럼 은은한 빛을 담고있던 그이의 안광에 추연한 빛이 서리였다.

《민족의 분렬!》

그이께서는 다시 격하신 어조로 되뇌이시였다.

《옳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장장 20년세월 험난한 불바다를 헤치면서도 꿈에도 생각해본적이 없던 너무도 절통한 민족적비극이 현실화되여가고있습니다. 정시명동지가 이 비극을 막기 위한 민족사적과제를 자기 몫으로 맡아안고저 한것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로서, 애국자로서 너무도 응당하면서도 훌륭하고 의로운 립장입니다. 강토의 분렬을 허용한다면… 아니,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방임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리유불문하고 천추만대에 력사의 죄인으로 전해질것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면 가슴이 떨립니다.》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숭엄한 눈길을 드시여 조국의 지도를 더듬으시였다. 그 눈길에 한없이 절절한 빛이 어렸다.

정시명도 그이를 우러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앞으로 다가갔다. 조국의 지도우에 점과 선과 색조로 표시된 무수한 산발들과 강과 바다와 마을들이 그이의 품속에 고즈넉이 안겨 숨쉬고 움직이는것만 같다.

《지금 미국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쏘미협상을 결렬에로 몰아가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습니다. 무엇때문이겠습니까. 일본놈들을 대신하여 남조선을 깔고앉자는것입니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공공연하게 38°선을 압록강으로 끌어올려 대쏘방파제를 두만강과 압록강에 쌓아야 한다고 줴치고있습니다. 벌써 남조선에서도 심상치 않은 론조가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얼마전 리범석이 반공광신

자들의 회합에 나타나 뭐라고 했는가 하니 민족주의힘을 키워서 공산주의를 타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조국광복을 자기의 피와 희생으로 안아온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을 미국의 방파제로 만들도록 내버려둘수 있으며 조국광복위업에 품한자루 들인게 없는 리범석따위에게 순순히 자기의 진지를 양보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데까지 치달아갈것 같습니까?》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정시명에게로 묻는듯한 눈길을 보내시였다. 그이의 안광에 순간 푸릿한 섬광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전쟁! 전쟁입니다.》

그이의 격노하신 음성이 방안을 쩌렁 울렸다.

장군님의 명석한 분석과 정연한 론리, 불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반석같은 담력에 접하는 순간 정시명의 뇌리에는 리범석의 안경을 쓴 길다란 상판이 피끗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조태준이 바로 《족청》의 실태를 보고할 때 리범석의 그 궤변을 이야기한적이 있었다. 그때 정시명은 그것을 남조선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리범석의 터발가꾸기정도로 평가하였다.

장군님처럼 민족의 사활과 결부시키지는 못하였던것이다.

천리혜안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말씀을 듣고보니 리범석의 그 야심적인 망언이 얼마나 막중한 민족적재난을 예고하고있는가.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울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고대로마의 철학자 쎄네가는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전쟁을 한다고, 그 어느 짐승도 전쟁은 하지 않는다고 인류의 량심에 피맺힌 절규를 남겼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쟁 일반을 반대하지 않으며 전쟁에도 준비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나라, 내 겨레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부모처자형제가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 류혈참극을 벌리고 선조의 유골이 묻혀있는 내 나라 산천에 불먼지가 날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정시명동지는 골육상쟁을 대범죄라고 했는데 그것은 민족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천추에 씻지 못할 시대의 치욕입니다. 자고로 골육상쟁을 사촉하는것은 외세요,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한줌도 못되는

민족반역의 집단입니다. 재생의 기쁨을 누려야 할 우리 인민과 강토를 외세와 권력에 환장한 민족반역자들의 롱락물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외세가 없고 평화롭고 자주적인 인민의 완전독립국가를 세워 삼천리강토우에 인민의 락원을 세우자! 이것이 우리의 구호입니다. 이것이 현단계에서 나라의 전도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구호가 되여야 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과제를 놓고 모든 전술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풀려나가야 합니다.》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계속될수록 정시명의 온넋은 애국애족으로 불타는 그이의 세계에 완전히 심취되여버렸다. 비범한 정치적안목으로 남조선의 제반 문제들을 통찰하시고 천리혜안의 예지로 명확한 투쟁대강과 신묘한 전법을 밝히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정시명은 마치도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가슴에 차곡차곡 포개넣었다.

장군님께서는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문제들에로 화제를 끌고나가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완전독립국가건설에 역행하는 반동세력과 미제를 고립약화시키고 애국적인 세력들을 하나로 결집하여 외군을 몰아내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정시명동지가 적구에서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저애하는 모든 력사의 반동들을 총포성이 없는 책략과 전술로 무자비하게 타격하겠다고 하는데 조직의 성격이 옳게 규정된것 같습니다. 전투적이며 탄력성이 있고 깊이 은페되여있으면서도 활동성이 강한 조직을 적소굴에 창설하여 그 개개 조직들이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사활을 지켜나선 멸적의 표대가 되게 하겠다는 정시명동지의 결심도 훌륭합니다.

나는 지금도 종종 우리가 백두산에서 벌려온 그 험난한 싸움을 돌이켜보군 합니다. 일본놈들이 〈창해일속〉이라고 떠들던 우리 혁명군이 어떻게 국가적지원도, 공고한 후방도 없는 역경에서도 일제 백만대군을 쥐고흔들며 마침내 조국광복을 안아올수 있었겠는가? 그 대답은 여러가지로 도출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 대오가 조국광복성전에 피와 생명을 바치려는 민족의 우

수한 아들딸들로 꾸려지고 하나의 사상과 의지와 규률로 뭉쳐진데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앞으로 정시명동지가 벌리게 될 투쟁에 대하여 찍고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정세란 언제나 류동적이고 따라서 싸움도 림기응변이 되여야 합니다. 투쟁대상과 목표물도 정시명동지가 찾아내여 결심을 내릴것이고 투쟁전술과 방도도 정시명동지가 선택하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이제 쏘미회담을 가지고 쏠라닥거릴것이며 회담을 걷어치운 다음에는 〈단선단정〉에로 나갈것이고 나라의 분렬을 위한 국제적공인을 조작하여 점차 힘의 방법으로 이 땅 전체를 타고앉으려고 할것이라는것입니다.》
《장군님, 모든것이 석연해집니다. 저는 서울 한복판에 떡 틀고앉아 미국놈들의 그러한 책동에 대처하여 배후에서 강력한 타격전을 벌리겠습니다. 이것을 총적과제로 내세우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민족이 저에게 부여한 지상의 과제로 접수합니다.》
정시명은 힘과 열정에 넘치신 장군님의 말씀에 자리를 차고일어나 허리를 쭉 펴고 흥분어린 어조로 화답하였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난 오랜 세월 이역에서 고생한 동지가 또다시 보다 어려운 적구에서 고생할걸 생각하면 가슴이 뻐근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야 민족의 중임을 스스로 안고 목숨도 바치고저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는 숯불처럼 이글거리는 정시명의 눈을 마주보시다가 가까이 다가가시여 그의 두손을 덥석 잡으시였다. 그이의 목소리가 퍽 갈리시였다.
장군님의 따스한 온기가 정시명의 온몸에 뜨거운 격류가 되여 퍼져갔다. 정시명은 마냥 가슴이 후덥게 달아올랐다. 심장이 터질듯 쾅쾅 소리내여 뛰는것 같았다.
그는 가까스로 벅차오르는 숨결을 누르고 말씀을 드리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주십시오. 제 일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한들 나라의 대소사를 맡아안으신 장군님의 로고

에 비기겠습니까. 저는 벌써 장군님의 전사로 살것을 굳이 희망하여왔는데 이젠 그 소원을 풀게 됐으니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정시명동지, 나는 동지에게 아무것도 드릴것이 없습니다. 하기야 우리야 모두 타향에서 빈 배낭만 하나씩 둘러메고 왔지요. 그래도 빈손으로 어려운 싸움길로 돌려보내자니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장군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거창한 바다를 안고나가는 심정입니다. 인간이 커진다는 말이 비로소 실감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장군님, 제가 한가지 소청을 드릴게 있습니다.》

정시명이 장군님의 소탈하신 인품에 끌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얼굴을 붉혔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저… 이제 서울에 나가면 아무래도 려운형도 만나고 홍명희도 만나고 큰 인물들과 사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즉 장군님의 파견장이라도 받아안았으면 합니다.》

《파견장말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정시명의 무랍없는 청을 반갑게 받으시며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담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래, 려운형선생도 만나야지요. … 그리워집니다. 두달가까이 지내봤는데 참 정이 가는분이였습니다. 사람이 강하면서도 솔직하고 주의주장이 분명하고… 요즈음 놈들의 테로도 여러번 당하고있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홍명희선생도 만나야지요. 그런데 파견장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정시명동지가 서울에서 전투좌지를 차지한건 공산주의자로서, 애국자로서 자신이 선택한것인데 그 진정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같아서는 나도 정시명동지를 여기 평양에 붙잡아두고 함께 지내고싶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애국애족위업에 몸을 바치고저 하는 정시명동지의 애국적결단을 막을수야 없지요. 정시명동지에게

내가 줄수 있는것은 동지적인 신임입니다.》 하시며 장군님께서는 정시명의 두손을 여전히 꼭 잡으신채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난 오늘 정시명동지와 처음으로 상봉하였지만 구면지기처럼 사상도 의지도 하나로 되여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기쁘고 소중합니다.》

《장군님!》

정시명은 너무도 뜻밖의 다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나직이 부르짖었다. 순식간에 흉중을 꽉 메운 감격과 고마움을 터쳐올려야 되겠는데 그 심정을 집약할수 있는 적중한 말이 인차 떠오르지 않았다.

참으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신임은 이 땅에서 장군님의 사상을 력사의 진리로 받들어 싸우는 혁명전사로서 세상에 다시없을 정치적믿음이고 영광이였으며 가장 존엄있는 표창이기도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정시명의 두손을 포근히 감싸잡으신 손에 힘을 주시였다. 그이의 따뜻한 온기가 주먹을 통하여 온몸에 포근히 흘러들었다.

《장군님!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내 한몸 다 바치겠습니다.》

《정시명동지!》

장군님께서는 정시명의 속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을 들으며 정깊은 미소를 담으신채 영채가 빛나는 안광으로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였다.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눈물짓는 정시명의 사람됨이 새삼스럽게 더 사랑이 가고 믿음이 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시명의 팔을 끼고 다시 쏘파에로 향하시였다.

마주앉아 시간을 보낼수록 더욱 아름답게 비쳐오고 정이 들게 한다. 그럴수록 정시명과 보내는 시간이 더없이 즐거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시명을 옆자리에 앉히시고 한결 밝고 유쾌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정시명동지, 내가 어떻게 되여 만나자바람으로 우리의 훌륭한 동지로, 전우로 믿게 되였는지 고백할가요?》

《네?…》

정시명은 코마루가 찌르르해왔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정화시켜주시는 그이의 모습이 어찌도 인자하고 정에 겨운지 그저 목이 꺽 메여온다.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아름다운 노래처럼, 정들은 어머니의 일깨움처럼 다정하게 울리였다.

《난 사실 조국에 돌아온 은송선생에게서 정시명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때부터 무척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내외에서 들어오고있는데 개중에는 독립운동경력을 그 무슨 출세와 공명의 간판으로 내드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민은 어려운 시절에 나라위해 바친 선각자들의 공로를 매우 공정하게 평가하고 새 사회건설의 지도적위치에서 사업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있습니다.

사실상 해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그들이 해방된 조국에 와서 행복을 누리고 국가건설의 중임을 담당하는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동무들중에도 우리 가까이에서 일하는 동무들이 여럿이 되는데 일을 잘합니다. 은송선생도 지금 통일전선사업에서 중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정시명동지는 자기에게 차례질 이 모든것을 다 버리고 우리 민족앞에 놓여진 새롭고도 복잡한 투쟁과제를 스스로 맡아안았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누구나 할수 있는 범상한 선택입니까. 서울에서의 투쟁은 정시명동지도 예상하고있지만 그 강도나 폭에 있어서 더욱 거창하고 준엄합니다. 사실 지금 북조선에서 민주기지를 창설하는것도 중요하고 절박하지만 우리 혁명의 전략적견지에서 볼 때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지반을 닦는 사업은 한시도 늦춰서는 안될 초미의 과제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서울소식이 하도 답답해서 내가 직접 서울에 나가 일하고싶은 생각이 들군 합니다.

분명 남조선사업은 보다 어렵고 복잡한 성격을 띠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투쟁속에서 세련되고 준비된 정시명동지가 8.15가 가져온 복과 영광을 흔연히 마다하고 기꺼이 그쪽으로

간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뜻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 난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래 은송선생을 만나고나서 김책동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 봐라, 우리 나라에 이런 훌륭한 애국자도 있다, 우리에게 또 한명의 전우가 생겨났다, 이게 진짜 조선의 혁명가다. …

김책동무도 얼마나 감동이 컸던지 눈물이 글썽해서 한마디 하는 소리가 걸작이였지요. 〈하, 안중근이, 리준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라 위해 제 몸을 던졌는데 그 량반은 고생살이를 만들어가지고 투신각오를 했습니다. 정말 헐치 않은 동지입니다.〉

우리는 만나기도 전에 벌써 뜻도 마음도 하나가 되였지요.

그러니 정시명동지, 동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우연이겠습니까.》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선택이 쉽게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고민도 컸고 동요도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저의 마땅한 선택을 이렇게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따르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만면에 그윽한 미소를 담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정시명의 두볼에서는 저도 의식할 겨를이 없이 더운 눈물이 이랑을 짓고있었다.

5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있었다. 밝은 불빛을 받은 눈송이들이 마치도 축복의 붉은 꽃보라처럼 마당앞에 서있는 전나무들에 소복이 쌓인다.

《눈이 내립니다. 참 송이들이 소담도 하군요.》

김정숙어머님께서 창밖에 시선을 보내시다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올해의 첫 눈입니다. 평양의 설경을 보게 되였습니다.》
정시명이 감개무량해서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을 받았다. 지금 정시명과 마동열은 김정숙어머님께서 손수 차리신 저녁상을 두분을 모시고 치르고나서 행복의 무아경에 심취되여 즐겁고도 인상깊은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정시명의 련락원이 함께 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친히 려관에 승용차를 보내시여 마동열이까지 저녁식사에 불러주시였던것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시명의 옆자리에 앉으시여 그가 편한 마음으로 한가지의 음식이라도 더 들도록 다심하게 정을 기울여주시였다.
저녁상을 물리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시명일행을 응접실로 안내하시였다.
시간은 흐르고 오가는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정시명의 가족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상히 물어주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정선생님, 이번 서울로 나가는 길에는 꼭 부인님을 데리고 가시지요.》
어머님의 다정하신 권고에 정시명은 어줍은 미소를 입가에 담은채 목덜미를 슬슬 어루만지였다.
《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정시명이 이렇게 말끝을 여물구지 못한채 씨원스런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데 어머님께서 걱정스러운 어조로 다시금 물으시였다.
《선생님, 그럼 부인님을 또 고향에 남겨두고 홀로 떠나시렵니까?》
《글쎄말입니다. 데려갔으면 피차에 좋을듯도싶은데 이번에 서울에 가보니 촌아낙네들이 거접을 할 곳이 못됩니다. 그 사람이야 산골에서 여태 농사군으로 붙박혀 살아왔는데 막상 데려갈 생각을 하니 저희들 싸움에 짐이 되지 않을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거 뭐 큰일도 아닌데…》
정시명은 안해의 어진 얼굴을 눈앞에 그리며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마주서면 귀밑부터 발개져서 말 한마디 변

변히 넘기지 못하던 사람이라 아무리 속이 크게 생각을 굴려봐야 도리질부터 하게 됨을 어찌할수 없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봄날처럼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눈가에 미소를 담으시고 잠시 정시명의 딱해하는 표정을 살피시였다.

《전 그게 작은 일이 아닌것만 같습니다. 장군님,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며 장군님께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아, 이야기하오. 이런 일에서야 우리 남자들보다 정숙동무가 발언권이 있지. 어서 이야기를 하오.》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느긋한 미소를 거두지 않으신채 흔쾌한 어조로 말씀을 받으시였다.

《정선생님, 선생님의 깊은 심중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부인님을 앞세우고 서울로 가시였으면 합니다. 바깥에 나간 남정네들은 하루를 십년으로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녀인들의 애절한 심정을 다는 모릅니다. 하물며 스무해가 어디 가볍게 입에 담을 세월입니까. 시집문턱을 넘어서면 울고싶어도 울어볼 곳이 없어 이불깃을 적시는게 녀인들의 가엾은 정상이지요. 예로부터 남편없는 아낙네는 불꺼진 화로란 말도 전해오지만 스무세월을 시집을 지켜 송죽같이 살아온 부인님께 더는 설음에 겨운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이 더없이 살뜰하면서도 부드러운 안개처럼 온몸에 젖어들었다.

정시명은 목이 뜨끈뜨끈한것으로 그들먹해져서 쉬이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유정한 목소리에 진정을 담아 말씀을 이으시였다.

《부부간의 사랑이 어려울 때 어이 짐으로만 되겠습니까.

저는 여적 이 나라의 녀인들이 남편을 배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치욕을 덜길 없어 우물에 몸을 던지고 새끼줄에 목을 매여 남정네들의 사랑을 고이 지키고간 녀인들의 이야기가 좀 많습니까. 정선생님을 그리며 스무세월 간직해온 부인님의 사랑은 어려운 싸움에서 오히려 힘이 되고 의지가 아니되

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해방이 된지 한해하고도 반년이 되여 오는데 부인님도 많이 달라졌을것입니다.

정선생님, 부디 저의 부탁으로 받아주시여 부인을 데리고가주십시오.》

마치도 오래간만에 마주앉은 친누이의 살뜰한 타이름처럼 애틋한 정이 함뿍 어린 김정숙어머님의 간곡한 말씀이 어느 한마디도 흘림이 없이 정시명의 가슴에 푹푹 흘러들어 맥박을 빠르게 하고 가슴을 한껏 덥혀주었다. 정시명은 그만에야 고개를 푹 꺾었다. 불시에 두눈에 눈물이 핑하니 돌았다.

아, 어느 세월, 어느 누가 이처럼 가슴에 맺혀있던 설음겨운 옹이를 헤아려 사랑으로 더듬어주고 진정을 고여 삭여준이 있었던가.

그는 목이 꽉 잠기였다. 잠시후에야 그는 감사의 정이 력력한 얼굴을 들고 축축히 젖어든 쉰목소리로 떠듬떠듬 대답을 드리였다.

《고맙습니다, 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녀사님의 그 높은 뜻이 담긴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안타까움에 젖어있던 김정숙어머님의 그 아름다운 눈가에 기쁨의 미소가 다시 고요히 흐르기 시작하였다.

《하하, 정숙동무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나도 정숙동무의 의견에 전적인 찬성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김정숙어머님께 신뢰의 정이 어린 눈길을 보내시며 방안의 분위기를 밝게 하시려는듯 유쾌하게 웃으시였다.

장군님께서와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시명이 걸어온 다난한 혁명의 나날들에 겪은 일들에 대해서도 들어주시고 마동열의 모험담도 즐겨 들어주시면서 크게 소리내여 웃으시기도 하시였다.

정시명은 김정숙어머님께 지하투쟁경험에 대하여 들려달라고 무람없이 청을 드리기도 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제게 무슨 경험이 될만한 이야기가 있겠다고요.》 하며 사양하시다가 마동열이가 나서서 졸라서야 백두산시절의 감회깊은 추억의 세계를 방불하게 펼쳐주시였다.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이며 회령 오산덕의 단칸짜리 세방살이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기도 들었다.

항일의 전설적인 영웅들을 모신 이밤은 정시명의 일생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여준 행복의 밤이였다.

벽에 걸려있는 괘종이 열두점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서야 정시명은 덴겁을 하듯 속으로 《아뿔싸!》 하고 시간을 잊고 앉아있는 자신을 때늦게 질책하며 황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님! 제가 장군님의 귀한 시간을 너무 렴치없이…》

장군님께서는 송구스러움에 몸둘바를 몰라하는 정시명의 손목을 꼭 잡으시며 《아니, 일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동지를 이렇게 깊이 사귀게 되였는데 열밤을 패운들 어떻습니까?》 하고 만면에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정시명은 장군님의 그 말씀에 용기를 얻은듯 《저ㅡ》 하고 아직 흉중에 걸려있는 문제를 꺼내다가 또 너무 시간을 지체시킬것 같아 뒤말을 삼키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어서! 오늘 우리에게 차례진 이밤은 정시명동지를 위한 밤이기도 하지만 보다는 해방의 덕을 보지 못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밤이기도 합니다. 겨레의 운명을 떠맡은 우리들이 이 책임적인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데 대하여 후대들이 평가할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시명동지.》

장군님께서는 그의 속내를 헤아리시고 정시명의 손목을 끌어 각근히 자리에 도로 앉히시고는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마디마디가 겨레의 어버이로서의 충직한 사명감에 젖어있는 그이의 말씀에 정시명은 어쩔수없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적지 않은 사업대상들이 우리의 계급로선에서는 타협이 잘되지 않는 인물들이라는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업할 때도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자신의 립장에 대하여 이따금 회의를 느끼군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장군님의 안광에 부드러운 빛이 감돌았다. 정시명이 선뜻 꺼내놓기 주저한 심리적고충과 모대김에 대번에 공감이 되였던것이다.

정시명이 가슴속에 오랜 세월 덮어두어왔던 생각마저 허물없이 툭툭 털어놓은 그 심정이 더없이 미덥기도 고맙기도 하시였다.

《정시명동지, 두려워할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린에서 활동할 때

장위화(장울화)라는 막역한 중국동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병 수십명까지 거느린 대부호의 아들이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민생단〉 놀음이 한창 고조되고있을 때 이 문제를 헤집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장위화는 우리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 왜놈들앞에서 자결하였습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인간이란 그 출신이나 토대에 관계없이 력사의 진리를 자기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답게 살려는 아름다운 지향을 간직하게 될 때 그처럼 고결해지는것이며 자기의 힘과 능력의 한계점을 뛰여넘는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 대하여 의문부호를 붙인다면 그건 일종의 인간에 대한 모독이고 범죄입니다. 그러니 꺼려할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세계를 개조해야 할 혁명가들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강한 배심과 억척의 힘이 어린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정시명의 심중에 옥맺혀있던 매듭을 대번에 시원스럽게 풀어주시였다.

《더구나 정시명동지는 활동의 특성으로부터 이 문제를 대담하게 진취적으로 대하여야 할것입니다. 벗과 원쑤를 가르는 시금석은 그 어떤 주의주장도 아니요, 재산의 유무도 출신성분도 어제날의 행적도 아닌 내 나라, 내 겨레에 대한 그 인간의 오늘의 립장과 관점입니다. 나는 원래 참으로 진보적이고 고귀한 사상의 근본은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겨레, 내 나라를 위한 사랑을 떠난 주의주장은 공리공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구태여 자기의 리념으로 받아들인것이 무엇때문이였습니까.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기 위한 사조를 연구하던 끝에 공산주의야말로 우리 시대의 참애국을 담보하는 유일한 학설이라고 인정하였기때문이였지요. 그러므로 혹자들이 공산주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애국의 대오에서 배척한다면 그것은 내 나라에 바쳐진 수백수천의 유명무명의 애국선렬들을 무시하는 일종의 좌익소아병에 빠진것입니다. 우리가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었던 전봉준의 동학군이나 〈일사보국〉의 창검을 비껴들었던 홍범도의 의병대를 사랑하는것은 그들이 애국애민의 선각자들이였기때문입니다.

정시명동지,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라의 해방이 애국과 매

국이라는 큰 선에서 새로운 구조적변화를 가져오고있습니다. 그래, 계급로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제껴놓으면 해방된 이 나라를 두고 그네들이 발붙일 곳이 어디겠습니까. 인민에게 봉사하고 나라위해 손을 내민다면 김구라도 마다할 리유가 없습니다.》

김구라는 그이의 말씀에 정시명은 다시한번 크게 놀랐다. 김구는 지금 혁명세력의 첫째가는 과녁으로 되고있다. 그는 8.15전에도 공산주의와는 담벽을 두텁게 쌓아놓고 살아왔지만 8.15후에도 의연히 공산주의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달고 달려들고있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김구의 수표가 있는 증명서를 갖춘 자객들이 북반부의 여기저기에 출몰하면서 못된짓을 벌리고있다. 때문에 좌익계의 언론들은 공개적으로 《김구, 리승만을 타도하자.》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분명 장군님께서는 김구의 이름을 명백히 찍으시였으니 내가 헛갈려들은것이나 아닌가. 정시명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듯이 복잡한 심경이 어린 눈길로 장군님의 안광을 우러렀다.

장군님께서도 어느새 그의 얼굴에 떠오른 심리적충격을 헤아리시고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흔연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정시명동지, 나도 김구가 해방된 오늘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적의를 버리지 못하고 못난짓을 마구 벌려놓는것을 접할 때마다 분노도 가지만 그보다 앞서 가슴도 아픕니다. 김구라는 인간의 한생을 훑어보면 어쨌든 그는 일본놈들을 반대하여 살도 날리고 폭탄도 던지고 죽을 고비도 여러번 겪은 이 나라의 애국지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이 허물, 저 허물 다 헤집어 이사람, 저사람 다 떼버리면 우리가 건국위업을 어떻게 떠메고나가겠습니까. 난 불원한 장래에 북남정치인들을 평양에 다 청해놓고 건국정사를 의논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김구 같은이들도 꼭 참가시키고싶습니다.

정시명동지, 내 나라를 위해 흘린 지사들의 한방울의 피와 땀이라도 귀하게 여겨줍시다. 설사 그길에서 어제날 우리에게 칼을 날렸다 해도 애국의 뜻만 접수한다면 대의를 위해 새 조국건설에 동참시킵시다.

세계를 창조하겠다고 나선 우리 혁명투사들의 배포는 바다처럼 커야 합니다.

정시명동지! 우리는 시내가 되지 말고 대하가 됩시다! 바다가 됩시다!》

《장군님!》

정시명은 이렇게 열차게 부르짖으며 그이를 우러러 고개를 높이 들었다. 유난히도 이글거리는 그이의 안광이 정시명의 격동된 모습을 굽어보았다. 저 빛나는 눈길에 한없는 정감을 담으시고 겨레와 강토를 보살피신다. 저 아름답고 예지에 충만된 눈길로 이 땅에 태여난 모두를 헤아리시며 그들모두에게 락을 주시고저 대해같은 도량과 해와 같은 자애를 부어주신다.

(삼천만을 한품에 안고계시는 장군!)

부지중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부르짖음이 쩌릿이 울렸다.

(아, 이분이시야말로 조선사람모두가 너나없이 운명을 선뜻 맡길수 있는 겨레의 어버이이시구나. 이분의 마음속엔 그저 겨레의 오늘과 래일만이 꽉 들어차있구나. 삼천만인민, 삼천리강토를 안고계시는 태양과도 같은 품속에서 내 기꺼이 그 광휘를 받아 빛나는 하나의 별이 되리라.)

정시명은 서슴없이, 하지만 첫사랑을 고백하는 젊은이들처럼 숫저운 마음으로 나직이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 한생을 장군님의 애국충신으로 변치 않고 살아가렵니다.》

그것은 장군님께 다지는 정시명의 서약이였다.

너무도 큰 행복과 목메여오르는 작별의 서러움을 가까스로 묵새기는 정시명의 떨리는 아뢰임에 장군님께서도 가슴이 확확 달아오르시는듯 격앙된 어조로 답례를 하시였다.

《정시명동지, 나는 정시명동지를 믿습니다. 이밤을 우리 서로 잊지 맙시다. 우리 겨레앞에서 애국충신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시다.》

장군님께서는 정시명의 손목을 꽉 잡으시였다. 수령과 전사의 불덩이같은 주먹들이 한동안 하나로 합쳐져 풀리지 않았다.

잠시후 장군님께서는 정시명이 담배를 즐겨하기에 물부리를 마련했는데 자신께서 쓰시던 회중시계도 상봉의 기념으로 받아달라고 하시면서 김정숙어머님께서 들고계시던 자그마한 자개함을 정시명의 손에 들려주시였다. (함에는 상아물부리와 회중시계가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마동열의 하직인사를 받으시며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마동열동무, 내 동무에게 특별부탁을 하겠소.》

마동열이 6척장골을 쭉 펴고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동무는 첫째도 둘째도 정시명동지의 신변을 책임지는것이 자기의 임무라는것을 명심해야겠소. 이건 우리 혁명의 요구이고 나의 부탁이요. 난 일전에도 마동무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지.》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마동열이 기운차게 대답을 드리였다. 장군님의 그 특별부탁을 접하는 정시명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졌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으나 목이 꽉 잠겨들어 고개만 깊이 숙이였다.

정시명과 마동열은 두분의 뜨거운 바래움속에 저택을 나섰다.

삼경이 지나서야 려관에 들어온 정시명은 담배를 연신 갈아대며 창가에 앉아서 밤을 새웠다.

마동열도 장군님께서 정시명에게 낮에 들려주신 가르치심을 들려달라고 부탁하고는 말떼기를 기다리며 날 샐녘까지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동열이, 자네 지금 몇이던가?》

이제나저제나 기다려지던 이야기가 뚱딴지같아 마동열이 흥심없이 대답했다.

《스물일곱입니다. 그건 어째서 묻습니까. 뭐 장가라도 들여주시겠습니까?》

《아 그래, 동열이 아직 총각이지. … 스물일곱이라…》

마동열의 응석기어린 대답에 여느때라면 맞장구치며 웃었을 정시명이 이렇게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담배 한대를 꺼내 물었다. 그가 다음말을 끝내 꺼내지 않자 기다리기에 지친 마동열은

그만 실망하여 잠자리에 들고말았다.

정시명은 네활개를 펴고 코나발을 불기 시작하는 마동열의 사내다운 모습을 이윽토록 지켜보다가 사뭇 부러워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아, 자넨 나보다 스무해는 장군님을 모시고 더 살아갈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가. … 참으로 내 인생도 허무하구나. 어찌하여 대륙의 광야에 한생을 바람같이 날려보내면서도 내 그렇듯 위대한분을 이제야 가까이 모시게 되였는가.》

다음날 마동열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다 들려달라고 졸랐다.

《동열이도 함께 참가하지 않았나.》

《아니, 낮에 하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알고싶어 그럽니다.》

《차차 이야기하지. 동열이가 장군님 만나뵈온 소감을 먼저 들려주지.》

《소감을요?… 글쎄요. 뭐 생각되는건 많은데… 난 이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우리의 장군님은 참으로 젊으셨구나. 그리고 위대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그것으로는 저의 심정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시명이 마동열의 붉게 상기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지식과 수양으로는 장군님의 인간상을 다 그려낼수 없어. 장군님은 지인용을 다 갖춘 영웅이시지. 그렇지. … 력사의 변두리에서 짓눌려온 백의민족이 마침내 세기의 마루에 우뚝 솟아오른 희세의 영걸을 맞이했어.》

《그리고 전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선양에서 선생님을 괴롭혔던 그 아침을 생각했습니다.》

《선양의 아침?》

뜻밖의 소리에 정시명은 감회가 깊어졌다. 마동열에게가 아니라 실은 자기의 약해지는 마음을 분연히 꾸짖던 그 아침이 방불히 떠올랐다. 괴롭던 아침이였다. 추억에 아프게 새겨진 아침이였다.

《제가 그때 선생님의 뜻을 거역하였더라면 오늘의 영광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전 장군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마트면 큰 행복

을 놓칠번 했다는 생각을 곱씹군 했습니다.》
《큰 행복이라… 허허… 좋은 말이야. 큰 행복이구말구. 나도 그런 생각을 했소. 민족의 단합을 위한 사업에 자신을 바치기로 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천만다행이였는가 하고 말이요. 사람이 제 생각에만 옴해서 살아서야 어떻게 행복이라 할수 있겠나. 사람이라 이름 가지면 누구나 나라걱정하며 살아야 되는건데 실은 이게 가벼운게 아니거든.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행복자라고 자랑할만한 사람들은 못돼. 장군님의 뜻을 받든다는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 난 어깨가 더 무거워지오. 우리가 과연 그런 큰 행복을 안고 살만한 인간으로 되겠는가. 장군님은 나에게 삶의 의미와 목표를 비길데없이 커다란것으로 세워주시였소. 겨레앞에 우리들을 거인으로 내세워주시려 마음을 쓰신단 말이요. 그러니 주시는 믿음에 실망을 얹어드리지 말아야겠는데…》
정시명은 다시 입을 꾹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동열은 정시명이 더 입을 열것 같지 않자 잠시 자리에서 궁싯거리다가 방안을 나섰다.
정시명은 눈송이가 소담히도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두어깨에 산같은 무게가 덧실린듯싶다. 지금 그의 눈앞에 비껴드는것은 이제 서울에 나가 부닥칠 복잡다단한 상황이나 벌려나갈 투쟁에 대한 구상이 아니였다. 겨레앞에 애국충신으로 살자고 하시며 굳게 포옹해주시던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만이 꽉 차있을뿐이였다. 서울길에 오른 선택을 그렇게도 고마웁게 받아주시며 은정을 베푸시던 장군님의 말씀이 구절구절 되새겨졌다.
《애국충신!》
그는 입속으로 가만히 불러보았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이 세상의 모든것을 합쳐도 그 소중한 칭호는 살수 없다. 바란다고 차례지는것도 아니고 주고싶다고 함부로 안겨주는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인생에 겨레를 떠난 다른 생활이 끼여들수가 없다.

살아도 죽어도 장군님께 다진 약속을 지켜가는것이 곧 내 삶이요, 내 한생토록 세워두고 지켜가야 할 표대이다. 아니, 마음의 거울이 돼야 한다. 걸음걸음이 나라에 유익한 행보가 되고있는가를 평가받자면 그 거울에 자신을 비쳐보면 된다.

정시명은 품속에서 장군님께서 선물로 주신 상아물부리를 꺼냈다. 백옥같이 하얗고 정교한 세공장식을 한 물부리를 들여다보다가 담배를 꽂고 불을 달았다. 한모금 달게 들이켰다. 구수한 담배연기가 상아물부리를 거쳐 입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담배연기를 달게 삼켰다. 폐장으로 구수한 연기가 적셔들었다. 정시명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피여올랐다.

며칠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정시명의 숙소에 고급양복천과 비단옷감, 식료품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보내오시였다. 정시명이 20여년만에 부모처자를 빈손으로 찾아가는것이 념려되시여 손수 마련하여주신것이였다.

6

평양일경이 다시금 부근부근한 함박눈에 포근히 묻힌 어느 이른 새벽이였다.

정시명이 출발준비를 하다가 일손을 멈추고 마동열이더러 먼저 떠나라고 이야기하였다.

마동열이 의아쩍어하자 정시명은 《난 장군님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게 많네.》 하고 간단히 설명했다.

그의 머리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속에 광범히 선전해야겠다는것과 그러자면 평양체류일을 연기해서라도 자료작업도 하고 연구도 해가지고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정시명은 마동열이 서울에 도착하여 해야 할 일을 일러두었다. 무엇보다도 이미 련계가 이루어진 동무들을 속히 모일수 있도록 대

기시키는것이 필요하였다.

마동열이 길에 나섰을 때 정시명은 《마동무, 나가다가 우리 고향에 들려주오.》 하고 부탁하였다.

마동열이 정확한 지명을 묻자 정시명은 대수롭지 않게 알려주었다.

《우리가 들어올 때 평산읍을 지나 잠시 휴식하면서 샘물을 마시던 일이 생각나나?》

《네.》

《허허… 그 마을이 내 고향마을이야. 그 옹달샘에서 제일 가까운 초가집이 우리 집이요. 아마 기다리고있을거요.》

《그러면?… 선생님은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마동열이 순간 두눈에 물기가 핑해져서 원망조로 부르짖었다.

《이러지 마오. 날 매정하다 욕하지 말아주오. 장군님 뵈오러온 길이 아니요. 집에 가면 기별을 전하고 인차 뒤따라온다고 하오.》

마동열은 커다란 주먹으로 눈굽을 닦으며 길을 떠났다.

마동열이 주상마을에 들어선것은 해질무렵이였다.

마동열은 하루 묵어갈셈으로 타고온 자동차를 돌려보내고 정씨집을 찾았다.

초가삼간짜리 수수한 농가였다. 수북이 쌓인 눈을 뒤집어쓴 추녀낮은 집이 수수대를 엮은 울바자에 에워싸여있는데 곁에는 헛간인지 사랑방인지 자그마한 별채가 붙어있다.

삽짝문옆으로 두그루의 들메나무가 보초병처럼 서있었다.

나무가지들에는 여러마리의 참새들이 앉아 재잘거리며 팥알같은 눈알을 대룩대룩 굴려 낯선 손님을 반기는듯싶었다.

마동열은 자기의 고향집에 들어서는듯 무량한 감회가 어린 눈으로 초가집과 그 주위를 둘러보다가 삽짝문을 열고 큰소리로 기척을 냈다.

《주인님 계십니까?》

그러자 기다리기라도 한듯 본채와 별채의 방문이 동시에 열리였다. 머리가 더부룩한 젊은이들이 내다본다. 아마 정시명의 아들이

아니면 조카들인 모양이다.
《누굴 찾으시나요?》
《난 정시명선생님을 모시고있는 사람이요.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한발 먼저 왔소.》
《그래요!》
두 젊은이가 약속이나 한듯 크게 탄성을 올리며 고무신을 끌고 달려나왔다.
《누구시라구요?!》
한 젊은이가 마동열이 들고있는 자그마한 보따리를 받아들며 다시 물었다.
《정시명선생님과 같이 온 사람이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일시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마동열에게서 돌아서더니 마당이 떠나갈듯 소리질렀다.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오신대유! 아버지가 정말 오셨대유!》
그러자 또다시 본채와 별채의 크고작은 문들이 우당탕탕 열렸다.
늙은이가 버선발로 뛰여나오고 녀인들과 남정네들이 올망졸망한 조무래기들과 함께 마동열에게 달려들었다.
《우리 둘째가 정말 살아돌아왔단 말이시유?》
늙은이가 마동열의 앞에 와서 우뚝 굳어지더니 이렇게 벌써 한가슴이 눈물에 차서 묻는다.
《예. 이제 인차 돌아오실겁니다. 지금 평양에 계십니다.》
《옳거니!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로인은 두팔을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마당에 그대로 폴싹 주저앉는데 손주들이 모여들어 부축하여주었다.
삽시에 마당복판에서 울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아이들이 녀인들의 치마자락을 탈아쥐고 울고 녀인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소리내여 울었다. 며칠전에 마을로인이 정시명을 해주에서 만나 《발바리차》까지 얻어타고왔다는 소리를 들려주었지만 실성한 소리를 한다고 반신반의해왔던 그들이였다. 그저 믿기에는 너무도 꿈과 같은 소식이였던것이다. 그래도 식솔들은 누구나 기연가미연가 하며

여태껏 울바자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왔다.
잠시후 온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정씨집안에 몰려들었다.
닭모가지를 비틀어쥐고오는 사내들도 있고 찹쌀 몇되박 들고오는 아낙네도 있었다. 동네의 대소사를 한집안일로 여기며 화목하게 살아오는 오붓한 마을이였다. 온 마을이 울며웃으며 정씨집안의 경사로 꽃을 피웠다.

정시명의 아버지는 둘째가 들어서자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쓰고앉아서 스무해전에 슬하를 떠나 무수한 사선의 고비를 넘어 이제야 고향집문턱을 넘어선 아들을 엄엄하고도 정중하게 맞았다.
정시명이 마당에 정히 깔아놓은 돗자리에 나서서 토방마루에 엄숙히 앉아있는 로인에게 세번 절을 올렸다. 땅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설 때마다 온몸이 후들후들거린다. 세번째로 절을 하고는 《아버님!… 그간 불효자식이 끼친 심뇌가 과히 이를바없으니…》 하고 가까스로 인사말을 이어가다가 종시 말끝을 여물구지 못한다. 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떨군채 하회를 기다렸다.
로인은 입을 꾹 다물고 한동안 얼이 나간듯 초점을 잃은 눈으로 아들의 모습을 망연히 굽어보고있었다. 그는 지금 꿈을 꾸고있는것만 같았다. 슬하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던 일이 까마득하다.
배재학교를 마친 뒤에도 내내 서울에 눌러앉아 편지 한장 없다가 압록강을 넘으며 소식을 보내온것이 꼭 스무해전이다. 둘째가 나라지경을 벗어나기 전에 보내왔던 편지를 로인은 글자 한자 빼놓지 않고 여적까지 기억하고있다.
《아버님, 의논없이 떠나는 불효자식 용서하십시오. 조국이 광복되기 전에는 둘째가 없었다는것으로 생각하시고 기다리지 말아주십시오.
광복년에 아버님을 뵈오려 하오니 그날까지 부디 몸성히 계시옵소서.》
그렇게 사라져버린 아들이다. 이제는 저세상에 간것으로 생각해왔던 아들이였다. 하건만 그 어느 한시인들 망막에 새겨져있는 그 모습을 지워버린적이 있었더냐.

로인은 정시명이 그대로 땅에 얼어붙은듯 일어나지 못하자 토방마루를 내려 아들을 끌어안고싶은 충동을 꾹 누르고 촉촉히 젖어드는 두눈을 스르르 감았다. 그러자 허구한 세월에 겪었던 가지가지 뼈저리던 경난이 일시에 덮쳐들었다. 간특한 왜놈들의 모함으로 정시명이 옥사했다는 날벼락같은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애통함을 못이겨 마누라가 절명을 하던 날이 떠올라 그만에야 로인의 닫아붙인 눈시울로 쭈르르 더운 눈물이 새여나와 볼을 적시고 수염발에 구슬처럼 맺혔다가는 후둑후둑 떨어졌다.

어느새 맏며느리가 흰 무명수건을 들고와서 《아버님…》 하고 오열에 떨며 부른다. 그제야 로인은 눈을 떴다. 얼른 수건을 받아 얼굴을 문질렀다.

아직도 정시명은 땅바닥에 머리를 떨군채 일어날념을 모른다.

로인의 눈이 쓰다듬듯 둘째의 몸을 이리저리 훑어가다가 반백이 서린 머리칼에서 굳어졌다. 홍안으로 떠나갔는데… 반백의 머리를 떠이고 나타났구나. …

아들의 머리우에 때일찍 내린 서리를 보는 순간 무정히도 흘러간 세월에 아들이 겪었을 부지기수의 고행이 짐작가서 또한번 메마른 가슴에 더운것이 뭉클 치밀어오른다. 여적까지도 로인의 뇌리에 떠오르는 둘째의 모습은 새까만 학생복을 차려입고 노상 책에 묻혀있던 홍안의 모습이였다. 올해 스물을 넘기는 막내손자가 아버지를 삐여나게 닮았다고 이르며 어떤 때는 둘째가 여적 살아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가 하는 애모쁜 생각을 하면서도 달리는 그려낼수 없었던 그런 얼굴이였다. 헌데 스무해만에 나타난 둘째는 저렇게 벌써 눈귀에 주름이 잡히고 서리불린 머리를 떠이고 엎드려있다.

아, 세월도 무정쿠나, 네가 벌써 그렇게 되였구나. …

《음—》

드디여 로인의 입귀가 실룩거리더니 피를 토하는듯한 한숨이 나왔다.

《정씨가문에 자고로 쉰전에 반백이 된이 없었건만…》

로인은 혼자말처럼 나직이 외우는데 다시 눈언저리가 불그레

해졌다.

《아버님, 이 기쁜 날에… 아우님이 큰어른이 되여 돌아오셨는데…》

맏며느리가 로인의 처량한 모습에 마음을 쓰며 토방에서 내려서지 못하고 옷고름으로 눈굽을 닦아내다가 여쭈었다. 그제야 로인은 정신을 차린듯 했다. 그의 안색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스무해 넘는 세월 지지리도 애간장을 태워온 둘째가 그 칠흑같은 세월을 넘어 얼마나 영광 큰 소식을 안고 들어섰느냐. 로인은 눈물에 함뿍 젖어 마당에 주런이 서있는 일가식솔을 둘러보다가 불꺼진 장죽을 입에 가져갔다. 어느 손주녀석이 날쌔게 부엌에 가서 류황을 묻힌 불가치에 불을 달아가지고왔다.

로인은 한모금 달게 빨고는 석쉼한 목소리로 물었다.

《장군님을 뵈왔다면서?!》

《네.》

《경사로다! 정씨집안에 과시 인물이 났도다! 장군님 뵈온 나라의 신하가 주상고을에 나왔은즉 경사로다! 어험—》

로인은 아들이 자랑스러워 연신 토방마루를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전일에 제가 고향을 지나갔습니다. 용서하여주십시오.》

《객적은 소리! 장군님 뵈오러 가는 길인데 용서구 뭐구 할게 있느냐. 예로부터 충신은 집안일은 돌보지 아니한다 했거늘 집안일 앞세우는 놈 큰일 치는걸 못보았니라.

어찌 나라 어른 뵙기 전에 제애비 찾아보는 망녕된짓을 할고. 대처에 돌아다니더니 신하된 도리는 참말로 잘 배웠구나.

자, 뭣들 하느냐. 다들 눈물을 거두구 만나봐라.》

로인이 그제야 담배연기가 가느다랗게 오르는 장죽을 입에 가져가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정시명이 무릎을 꿇고있는 돗자리 좌우에 주런이 서서 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던 일가식솔들이 제마끔 일시에 부르며 정시명에게 달려들었다.

《아버지!》

《삼촌!》

《아우님!》

어느새 소식이 전해졌는지 이웃에서도 아이어른할것없이 달려왔다. 삽시에 마당은 눈물의 바다가 되였다.

정시명의 처 민순임은 엄한 시아버지와 사람들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까부터 마당구석에 서서 치마말기로 눈굽만 찍어내고있었다. 그 녀자는 맏동서의 손에 이끌려 남편의 앞에 나서기는 하였으나 작은 입을 오물거리다가 끝내 한마디도 못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짓씹으며 부엌으로 달려갔다. 이어 부엌에서는 녀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자기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들릴가 저어하듯 재게 두드리는 칼도마소리만이 들려왔다. 정시명과 가족들은 서로 말문이 막혀 가슴들을 부둥켜안을뿐이였다. 모두가 변하였다. 아버지는 퍼그나 여위여 졸아든듯싶고 걸음마를 타던 자식들이 20대의 끌끌한 장정들로 자라났다.

정시명이 트렁크에서 갖가지 옷감들과 식료품을 꺼내 김정숙녀사께서 손수 마련해주신 선물이라고 하자 아이어른할것없이 너도나도 한가지씩 받아들고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시간이 흘러 이웃들도 물러가자 아버지가 범상치 않은 둘째의 모습을 대견스럽게 지켜보다가 《그래 둘째야, 이젠 어떻게 할셈이냐?》 하고 신중히 물었다.

《장군님슬하에서 그분을 보좌하렵니다.》

《그래야지. 암 그래야 하구말구.》

로인이 채수염을 내리쓸며 흡족해마지않았다.

《오마님이 계시여 이렇게 장하게 돌아오신 아드님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그 쪽발이놈들…》

어느새에 제상을 다 차려놓은 형수가 이렇게 말하며 또 열탕같이 더운 눈물을 쏟아놓는다.

모두가 눈물이 그렁해서 돌아앉는데 《다들 그쳐라. 비명에 죽은 네 어미도 이 소식을 듣고있을거다.》 하며 로인이 속이 웅근 소리를 하고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나 토방에 나선다.

《아우님, 오마님께 문안올려요.》

형수가 치마말기로 눈굽을 찍어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정시명은 웃방에 차려놓은 제상을 보자 문턱을 넘다말고 《형수님, 이왕이면 어머님을 찾아뵙고…》 하였다.

《오시느라 곤하시겠는데… 뒤산을 넘어야 한다우. 래일아침에 가시는게 어떨가요?》

형수는 해가 떨어질 때가 되여 념려스러운 모양이였다.

《아니요, 이제 갔다오렵니다.》

정시명이 그렇게 말하자 형수는 더는 만류하지 않고 상에 차렸던 제물을 거두어 커다란 싸리바구니에 주섬주섬 담았다.

그들은 곧 집을 나섰다. 정시명의 둘째아들이 따라섰다.

맏이는 큰아버지와 같이 마동열이 집에 들려 소식을 전하기 하루전에 비료구입차로 흥남에 갔다고 한다.

다복솔이 깔려있는 뒤산은 예나제나 크게 달라진게 없었다. 산기슭에는 사이사이에 크고작은 묘지들이 더 생겨났을뿐이다.

뒤산을 지나자 형수가 밋밋한 등성이를 손으로 가리켰다.

《오마님의 묘를 저기에 썼다우. 원래는 재등너머있는 공동묘지에 쓰자는걸 형님이 우겨서 집가까이에 오마님을 모셨지요.》

멀리로 등성이에 덩실하게 솟아있는 봉분이 보였다. 서켠 련봉에 맥이 진한듯 걸터앉은 해가 마지막빛살로 포근히 감싸주고있어 봉분은 누런빛으로 물들어있다. 가까이 다가서니 금잔디가 알뜰하게 다듬어져있는데 앞에는 상돌이 있고 묘비가 없는 대신 상돌좌우에 두그루의 노가지나무가 바늘같은 잎새를 총총히 떠이고 서있었다. 해방된 그해 가을에 큰아버지가 떠다 심었다고 둘째가 말했다.

어머니의 봉분뒤에는 또하나의 봉분이 있다.

정시명의 눈길이 그리로 돌아가는데 둘째가 볼이 부어서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저건 어떻게 한다?… 참, 내 당장 파헤쳐버려야지.》

그 소리를 언제 가려들었는지 상돌우에 제물을 차려놓던 형수가 《조카—》 하고 새되게 부르며 눈을 흘긴다.

잠간사이에 상돌우에는 밑굽이 달린 나무종바리에 정하게 담

아놓은 제물이 꽉 찼다. 봉분가까이에는 커다란 닭 한마리가 대가리를 북쪽으로 쳐들고 당그라니 앉아있고 그 좌우켠으로 말리운 고등어와 마른 낙지, 산골물에서 방금전에 건진것 같은 산천어가 통채로 눕혀져있다. 그 앞줄에는 사과와 배, 감, 밤이 한그릇씩 자름자름하게 올라있다. 맨 앞줄에는 숟가락을 꽂은 쌀밥 한그릇을 중심으로 찰떡과 송편, 시루떡이 한종바리씩 정하게 쌓여져 있었다.

형수가 허리를 펴고 그때까지도 우두커니 서서 봉분을 내려다보는 정시명에게 두홉들이 대두병을 내민다.

정시명은 술잔을 상돌우에 놓고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오마님, 아우님이 오셨어요. 오마님이 그렇게도 생전에 보고싶어하던 아우님이 큰어른이 되여오셨어요. 애고… 오마님!… 애고 오마님!…》

형수가 목을 놓아 곡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 녀자는 봉분앞에 주저앉아 노랗게 색이 바랜 잔디를 박박 쥐여뜯으며 애통하게 설분을 토하였다.

《오마니, 어서 눈을 뜨고 일어나세요. 아우님을 보세요. 아우님이 이렇게 긁힌 자리 하나 없이 성성한 몸으로 오마님 뵈러 왔어요. 세상에 어찌 그렇게 돌아가신단 말인가요. 오마니!》

정시명은 여전히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봉분만 내려다본다.

어찌된 영문인지 옆에서 형수가 태질을 하며 울며불며 곡을 하는데 눈물이 쇠통 나오지 않는다. 그저 눈앞이 뿌예질뿐이다. 그 뿌예진 눈앞에 마치도 운무를 헤치고나온 달덩이같이 어머니의 둥실한 얼굴만 령롱하게 비껴있을뿐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바래움을 받은것이 저 둘째가 태여난 그해였지. 방금 해산한 안해를 대신하여 어머니가 평산읍내까지 엿덩이를 한보퉁이 해이고 나왔었다.

《이걸 동무들과 나눠먹어라. 그리고 둘째야, 제발 좀 편지를 보내주려마. 식자를 깨쳤으면 뭘 하노. 잘 있다, 잘 있어라 그 한마디 써보내는게 그리두 힘들다더냐. 서울에 가기만 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알길 없으니 기다리는 사람 속태우는게 그리두 재

미냐.》

《하하, 참 어머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 않나요. 내 이번에는 정말 매일 한장씩 소식 보내지요.》

이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이야기였다. 어머니는 그때 씩 웃었다. 그렇게 웃음속에 헤여진 어머니, 지금도 웃는 그 모양대로 나타나있다. 금시 어깨를 두드려줄것 같은 그 모습, 《왔구나!》하고 반가움에 겨워 책만 가득찬 배낭을 풀어헤치다가 《에그, 아이들에게 줄 사탕 몇봉지 사넣는다면 못쓴다더냐.》 하며 웃음속에 푸념을 하시는 모습이다.

형수가 울음을 시작하던 때처럼 뚝 그쳤다. 그 녀자는 그때까지도 봉분앞에 굳어진듯 서있는 시동생을 이상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다가 《아우님, 소리를 내세요.》 하고 핀잔조로 일깨워준다.

울라는것이다. 소리를 내여 울라고, 울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정시명은 어찌된 영문인지 울음이 터져나오지 않는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만이 그냥 눈앞에 가득차있고 그 정찬 눈길이 자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사실 오마니는 아우님이…》

다시 소리내여 울던 형수가 흐느낌을 씹으며 이렇게 말하다가 정시명의 눈길과 마주치자 얼른 뒤말을 삼켜버린다.

정시명은 물기가 번들거리는 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녀자의 뒤말이 더듬어지자 그만 세찬 충격에 금시 심장이 뚝 멎는것 같다.

(어머니가 나때문에… 나때문에 비명에 돌아가셨다!)

심장의 벽을 들때리는 그 비통한 울부짖음이 머리까지 윙— 하고 울렸다. 순간에 가슴 한밑에서 소리없는 통곡이 욱 치밀어올랐다.

(정말, 어머닌 나때문에 돌아가셨다. 나를 그리워하다가 그 그리움속에 돌아가시고말았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아들의 비보가 얼마나 절통하시였으면 그자리에서 절명하시였으랴. 아,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다더냐. 어머닌 그예 나때문에 이 외로운 등성이에서 오가는 바람 다 맞으며 누워계신다. 아—)

정시명은 급기야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봉분우에 쓰러졌다.

《어머니!—》

그는 잔디에 이마를 박은채 이렇게 목멘 음성으로 불렀다. 지심깊이에서 솟구쳐오른 지진마냥 배창밑에서 훑어오른 거센 호곡이 터져올랐다. …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둘째가 제 큰어머니보고 뭐라고 쑥덕거린다. 형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둘째가 성깔사납게 대답질을 한다.

《큰어머니, 난 오늘밤중으로 헤쳐놓고말겠어요. 왜놈쪽발이들에게 속아서 스무세월 뼈를 깎으며 살아온것만 해도 분한데 저걸 하루라도 그냥 둬둬요?! 난 오늘밤중으로 파헤쳐버리겠어요.》

《조카, 조용조용…》

《일없어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뭐라나요, 까짓거!》

둘째가 그냥 곧은목을 내두르는 바람에 난처해진 형수가 정시명에게로 고개를 돌려 게면쩍게 웃어보이고는 《아우님, 이왕 이렇게 됐으니 세상에 기가 찬 일이지만 말합세다.》 하며 발을 세운다.

《사실은 저 오마님뒤쪽에 있는 산이 아우님거라우.》

《아우거라니요?… 나말인가요?》

정시명이 무슨 당찮은 소리라는듯 허거프게 웃기부터 한다.

《그렇지요. 아우님이 옥사했다고 그 쪽발이들이 아우님의 중절모와 두루마기를 덜렁 들고와서 전해줬다우.》

형수가 그날의 기막히던 광경을 떠올리며 또 속눈섭에 팔알같은 눈물을 달고 흐느낀다.

정시명이 그제야 형수가 이야기하는바가 짐작되였다. 정시명이 압록강을 넘기 전에 아버님께 하직인사를 올리느라고 편지와 함께 변장하느라고 쓰고다니던 중절모와 두루마기를 소포로 집에 붙이였는데 왜놈들이 그걸 중도에서 가로채서 그따위 간악한 모함을 했던 모양이다. 해주에서 들었던 로인의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다.

《그걸 받아들자 오마닌 그자리에서 그만 숨이 지고… 오마니장

례를 치른 다음에 아우님 찾으려 아버님과 형이 평양감옥에 부지기수로 북나들듯 했다오. 한번은 나도 따라가서 울며불며 야단을 쳤지요. 그런데 그놈들 바른소리 해주는가요. 하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급살을 맞을 거짓부리 늘어놨으니 갈적마다 애간장을 말리우느라 새라새로운 거짓말이지요. 시신을 여기다 묻었다, 저기다 묻었다 해서 가보면 다 헛수작이였지요. 그래 다음해 동리어른들이 의논을 하고 몰려와서 어머님뒤에 저렇게 묘지를 만들어줬지요. 아우님 보내주신 중절모와 두루마기와 중학시절에 입고다니던 학생옷을 저기에 묻었다우. 윽… 흐윽…

그런데 상돌은 왜 없는구 하니 아버님이 그냥 반대시지요. 〈왜놈모가지 하나 비틀어놓지 못하고 애비앞서갔으니 불효자식에게 상돌 괴여서는 뭘 하느냐, 정 해놓고싶으면 내 죽은 다음에 해놔라.〉고 하시는데 아버님고집 누가 꺾는단 말이요.

그래 동서가 더 속 썩였지요. 해마다 어머님제사를 지내고는 동서가 가만히 홀로 와서 창호지를 깔고 제상을 차려놓고는 울다가 가군 했는데 마디마디에 피눈물을 고이며 스무세월 보내왔다우. …》

형수가 연해연송 옷고름으로 샘솟듯 하는 눈물을 찍어내며 울음절반 말 절반 가까스로 이어가는데 그 울지도 못할 희비극을 그려보느라니 집안사람들의 가긍하고 처절한 정상들이 방불해져서 코마루가 찌릇찌릇해나고 두눈에 열기가 번들거렸다.

…민순임은 종일 부엌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음식시중을 들다가 잠자리에 들어서야 남편의 얼굴을 똑똑히 볼수 있었다. 저보다 세살아래인 남편을 만나 내외간의 정이라는것을 알만 해서 인차 헤여져 살아온지라 어쩐지 서먹서먹한감이 앞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더구나 남편이 만사람이 우러러 받드는 **김일성**장군님을 가까이에서 받드는 인물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은근히 두려워지기도 하고 함부로 범접도 할수 없게 어렵게만 생각되였다.

정시명은 눈물이 앞서 자꾸만 끊어지군 하는 민순임의 과거지사를 다 듣고나서 인츰 서울에 나가야 되겠다는 말을 넌지시 비쳤다.

이 말을 들은 녀인은 잘 리해가 가지 않아 두눈이 올롱해져서 남

편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김장군님을 받든다고 하시더니…》
녀인의 도톰한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과 함께 나지막한 혼자소리가 새여나왔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요.》
정시명이 짤막히 설명하자 민순임은 《그러면야 뭐…》 하고 남편의 뜻을 선뜻 받아안았다.
정시명은 그에게 부부간의 정을 귀하게 여겨주시던 김정숙어머님의 간곡한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려주었다.
민순임이 그 고매한 뜻과 정에 감심이 되여 인차 눈언저리가 불깃해지고 두볼에 더운 눈물이 이랑을 지어내렸다.
정시명은 안해에게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초보적인 교육을 주기로 결심하고 며칠간 집에 더 머물렀다. 막상 지내보니 안해가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저 어질기만 하던 옛적의 녀인이 아니였다.
하기는 모진 세상에서 살뜰한 정도 나눌새없이 훌쩍 곁을 떠난 남편을 그리며 인생의 온갖 고초를 헤쳐 이를 악물고 스무해세월을 넘겨온 녀인이다. 어찌 용해빠져서야 이날이때까지 견디여낼수 있었으랴.
해방이 되여 녀인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소녀시절에 이름석자도 모르고지내다가 정시명이 언젠가 제 손으로 편지 한장 쓸줄 모르면 인연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 녀자가 지금은 리녀맹부위원장까지 되여 보고문도 제 손으로 척척 써낸다고 한다. 실지 적구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날 이야기를 해주니 쉰줄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뜬금으로 받아외운다.
며칠이 지나 정시명은 식구들과 마을사람들에게 먼저 안해만 데리고 평양에 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가족을 이사시키겠다는 소문을 돌려놓고는 민순임과 함께 38°선을 넘어섰다.
이날저녁은 싸락눈이 내리였다. 송악산마루를 넘어 산중턱에 내려서니 동녘이 희붐해지기 시작했다.
《여기가 남조선이예요?》

이제까지 말 한마디없이 남편을 따라 수굿이 걸음만 옮기던 민순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 음성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정시명은 걸음을 멈추었다. 민순임의 이마에 좁쌀같은 땀방울이 송송 맺히고 귀밑에선 흰김이 피여오른다.

정시명은 가까이 다가온 안해의 손목을 꽉 잡아주었다. 녀인은 떨리던 가슴이 진정된듯 빙그레 웃는다. 남편의 억센 주먹에서 툭툭 거세게 뛰는 심장의 박동이 그대로 녀인의 가슴에 전해졌던것이다.

《그렇소. 여기가 남녘이요. 무서워하지 마오. 여기도 내 나라요.》

정시명이 새삼스럽게 부르짖으며 시야에 펼쳐진 남녘의 산과 들을 바라본다. 저 산과 들에 해방은 맞았으나 여전히 강탈자의 억압의 대상으로 된 내 동포, 내 형제가 살고있다. 인민의 새 생활이 꽃펴야 할 강산에 새로운 민족의 비극이 드리워있다. 반만년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이 땅에 어찌 나라가 동강이 나고 민족이 갈라지는 비극을 펼쳐놓을수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부산으로, 신의주로 달리던 렬차의 기적소리가 여기서 끊어지고 내 나라 땅인 이 송악산눈길을 가슴 조이며 걸어야 하는가.

《안된다, 안돼!》

가슴속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회중시계의 초침소리가 엄숙하게 흉벽을 두드린다.

민순임이 목도리를 풀어 눈우에 깔아놓고 자리를 권하였다.

그리고 집에서 맏동서가 도중식사로 밤새워 정히 빚어준 송편을 두개 꺼내여 한개는 남편의 손에 쥐여주고 자기도 입가에 가져가다가 정시명의 눈길과 마주치자 수집게 웃으며 고개를 돌린다.

정시명이 한입 큼직하게 물어떼니 아직도 따끈따끈한게 방금 가마에서 꺼내놓은듯 하다. 의아해서 여겨보니 보퉁이에서 꺼내는것이 아니라 품속에서 또 한개를 꺼내 내민다. 도중식사가 얼세라 념려되여 자기 몸으로 덥혀온것이다.

《원, 당신도.》

정시명이 코마루가 찡해져 나무랐다. 녀인은 긴 속눈섭을 차분히 내리깔며 고개를 수그릴뿐이다.

(이것이 내외간의 정이라는건가.)

새삼스러운 생각에 어쩐지 가슴이 훈훈해왔다.

그러나 죄스러운 생각도 덜길 없다. 도대체 저 사람의 팔자는 어떻게 돼먹었길래 날 따라와 이다지도 고생살이만 하게 되는가.

스무해세월 지지리도 속을 태우며 오가는 고생 다 겪어오다가 이제야 남편이라고 맞아들이고보니 또 새라새로운 고생살이를 짊어지게 된다. 나야 한생을 나라에 바치겠노라 나선 몸이지만 저 사람은 아무튼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의 전부로 알고 있는 연약한 녀인이 아닌가. 그런데 행복은 고사하고 한 녀성으로서 누려야 할 너무도 보잘것 없는 만족도 모르고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또 시련속에 녀성으로서의 황혼을 보내게 되였은즉 그 책임의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정시명이 중국에 있을 때도 해보지 않은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눈깔린 산기슭에 호젓이 마주앉고보니 더욱 가슴에 에여든다. 그래도 자기의 체온으로 덥힌 송편을 대접하는것만으로도 이 녀자는 행복에 겨워한다. 자기를 깡그리 태워서라도 사랑하는 이들을 기쁘게 해주는게 녀자인가. 그래서 녀인들이 남편을 가리켜 주인이라 부르며 하늘처럼, 땅처럼 믿고 의지하고 위해주는걸가.

생각이 깊어질수록 안해가 지난 세월에 겪었을 무수한 고생거리들이 일시에 떠올라 가슴에 더운 눈물이 차게 한다.

(아, 아… 녀성의 인격을 그렇게 생각하는건 옳지 않다. 저 사람도 해방조선의 주인이다. 아녀자라고 해서 어찌 가정에 묻혀 나라밖에서 살게 할수 있는가. 저 사람도 나라앞에서 몫을 안고살아야 할게 아닌가. …저 사람이 그렇게 될수 있을가?…)

정시명이 이렇게 민순임을 앉혀놓고 매듭없는 생각을 굴리는데 당사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품에서 또 송편을 하나 꺼내서 수집게 내밀며 방긋이 웃는다. …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류동명이 새로 마련해준 세칸짜리 단층집

에서 스무해만에 가정생활을 시작하였다.

결혼한 후에 한해치고 몇주일 같이 지내본적이 없이 얼굴이나 기억해둘 정도로 서너해 살다가 헤여진지라 참말로 신접살림을 하는 심정이였다.

류동명과 송호정은 자기의 처들을 데리고와서 이들의 새살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세간살이 꾸리는것을 성의껏 돌보아주었다. 이웃사람들은 그들의 새살림을 리도령과 춘향의 해후에 비기며 전설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하기는 춘향의 절개 아무리 굳다한들 어찌 20년세월 남긴 정없이 떠나간 랑군을 못잊어 꿋꿋이 가정을 지켜온 민순임의 그 비단같은 마음에 비하며 사랑의 전설치고 어디에 20년 해마다 제상까지 차려오다가 나라의 큰 재목이 되여 나타난 주인을 만나 또다시 어려운 애국의 길에 함께 나선 이야기가 담겨져있으랴.

모진 고생속에서도 20대의 꽃나이로부터 이날이때까지 조선녀성의 송죽같은 절개를 지켜온 민순임에 대한 이웃녀인들의 칭찬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어느 하루는 민순임의 미거가 한입 건너, 두입 건너 녀성잡지사 편집부에까지 전해졌다. 한 녀성기자가 찾아와 생글거리며 취재를 하겠다고 해서 점심 한끼 대접하여 겨우 돌려보내기까지 하였다.

순박하고 어진 마음씨는 곧 이웃들과도 인차 친숙해지게 했다.

정시명의 주위에 있는 전우들에게도 매우 좋은 인상을 주고 그들을 동지적으로, 인간적으로 단합시키는데 소리없이 큰 도움이 되였다. 민순임이는 례영이와도 만난 첫날부터 매우 다정하게 지냈다.

녀인의 어질고 착한 마음씨와 다심하고 근면한 살림살이솜씨는 정시명의 생활에 부드럽게 비껴든 후광이기도 하였다.

제 5 장
진을 꾸리다

1

조선호텔에서 영국의 실업가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하지는 방금 부관이 가져온 브라운의 사업보고서를 읽기 시작하였다.

서울에 들어온 브라운은 얼마전까지 실태료해라는 구실을 붙여 가지고 강원도와 경기도에 널려있는 6사단의 관하대대들을 싸다니기만 하였다. 38°선에까지 나가 논발에 달구지로 거름을 내는 북쪽 농민들이며 줄을 지어 노래하며 학교에 가는 학생들을 흥미있게 보았다고 한다.

하지는 그가 서울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주위에서 설치고 돌아가자 골이 났다.

(이자가 맥아더의 훈계에 놀라 골치 쑤시는 군정치닥거리에서 아예 몸을 사릴 작정인가?)

마침 미국무성에서 지시문이 떨어졌다. 제2차 미쏘협상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라는 지령이였다.

그래서 하지는 즉시 그를 불러들이였다. 그에게 국무성의 지시문부터 보여주었다.

《이제부터 일체 군무에서 손을 떼고 준비작업에 달라붙으시오. 국무성은 미쏘협상재개를 원하지 않소. 그런만큼 현지 정객들과의 사업부터 해야겠소. 서둘러야 하오. 우리에겐 어정거릴 시간이 없소.》

하지는 오금을 박았다.

하지는 이렇게 제꺽 정치인들과의 치닥거리를 그에게 밀어붙인것이다.

하지에게 보고된 브라운의 동향자료에 의하면 열흘동안 노불을 비롯한 하지보좌관들을 련쇄적으로 만나고 닷새전부터는 김규식, 려운형, 김구, 리승만순서로 의례방문하여 오찬과 만찬에도 초대되였다고 한다.

오늘 브라운은 그 정형을 묶어 제출해온것이다.

하지는 브라운의 보고서를 주의깊이 읽었다. 이미 파악이 있는 정계인물들의 동향이 아니라 그 인물들에 대한 브라운의 견해가 궁금하였다.

그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은 앞으로 하지가 브라운이라는 인간을 평가하는데서 중요한 인자로 될것이였다. 브라운은 이미 국무성과 맥아더측의 견해를 알고있다. 자기도 립장을 이미 명백히 해두었다. 브라운이 어느측의 립장을 옹호하겠는가.

《려운형과 김규식에 대한 중장각하의 평가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려운형은 미국에 있어서 더는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는 우리의 대조선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평가하고싶습니다. 그는 내가 제기한 모든 문제에 부정적반응을 보였으며 오히려 미군철거, 38°선 철폐, 친일파의 숙청, 인민위원회 복구와 자치권이양 등 현단계에서 재론할 여지가 없는 문제들만 제기하였습니다.

김규식은 현재의 지위와 역할에 한정시켜야 할 인물입니다.

그는 민족의 자주와 독립국가로서의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긍정적인 대답을 주었고 김규식은 나의 대답에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나는 김규식 인물평가에서 강직하다는 중장각하의 평가에 타협적인 인물이라는 의견을 보충하고싶습니다.

김구와 리승만은 역시 문제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정치적야심과 무게에 대한 각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구와 리승만을 하나의 동아리에 묶어내기 어렵다는 당신의 견해에 리해가 갑니다.

간단히 례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김구가 차린 오찬과 리승만이 차린 만찬에 참가하였습니다.

김구는 오찬에 앞서 상을 둘러보다가 자기의 맏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그 녀자는 조선사람들속에서 민족적영웅으로 받들리는 한 애국지사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김구가 하는 말이 〈어째 밥상에 김치와 토장국을 내오지 않

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오찬에 통역 삼아 동석했던 그의 둘째아들이 자기의 형수를 대신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아버님, 토장국과 김치는 서양사람들이 냄새를 맡기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께…〉

〈시러베자식! 여긴 서울이다. 내 나라땅에서 날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내 나라의 음식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조선사람이 차린 음식상이라 하겠느냐. 아가야, 어서 내오너라.〉

인차 콩알이 둥둥 떠있는 누런 토장국이 들어오고 새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김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김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싶지 않아 안면근육에 힘을 주어 가까스로 웃으며 김치를 먹고 토장국을 마셨습니다.》

하지는 자기도모르게 히죽이 웃었다. 구미가 돌지 않는 음식을 드느라고 곤욕을 치르는 브라운의 모습이 선하였던것이다.

(역시 외교관이 다르군.)

자기가 김구의 초대를 받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도 김구는 그에게 김치와 토장국세례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자기는 브라운처럼 김치를 먹지도 않고 일부러 웃음을 지어내느라고 왼심을 쓰지 않았다.

그때 하던 김구의 의미심장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사령관각하, 조선에서 조선의 물과 공기를 마시면서 군정을 펴나가려면 싫든좋든 이 김치에도 맛을 들여야 합니다.》

그때 하지는 속으로 이렇게 응수하였다.

(엉큼한 두상, 누가 누구를 길들이는가 어디 두고보자.)

그런데 브라운은 벌써 그 맛을 본것이다. 지어냈지만 웃음까지 보이면서.

(그래, 브라운은 애교가 있는 인간이야. 앵글로색손족이라… 흥.)

다시 중얼거리던 하지는 고소를 금치 못하며 계속 읽어갔다.

《나는 김치를 들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리승만을 만나지 않았다. 내가 리승만을 의례방문에서 뒤전으로 밀어버린것은 그가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하지중장의 의사와 배치되는 견해를 당리당략의 견지에서 함부로 람발하며 중장각하와 척을 지고있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리승만은 우리와 합작하려고 애쓰면서 될수록 미국의 정책적지향에 걸음을 맞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한다.

그런데 김구선생, 당신의 정치로선은 우리와 매우 근사하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자결에 대한 당신의 립장은 곧 미국의 립장이기도 하다. 민족자결론이 미국의 대통령이였던 윌슨이 내놓은것이라는것을 당신도 알고있을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지지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만일 당신이 미국과의 합작에 성의를 보인다면 미국이 당신에게 통수권을 쥐여주리라는것은 의심할나위가 없다. 미국은 지금 당신들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북조선의 공산세력과 겨룰수 있는 단일세력권으로 뭉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가지고있다.〉

이에 대해 김구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뭉치지 않았다는 무슨 자료라도 가지고있는가?〉

〈당신이 리승만과 합작하지 않고있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건 당신이 리승만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리승만이 어떻게 되여 민족주의대렬에 끼여들수 있는가. 그를 배척하는건 필연적이다. 그와는 절대로 합작하지 않을것이다. 리승만의 역스러운 작태를 나는 서른해가 넘게 보아왔다.

당신은 우리 〈림정〉이 벌써 25년전에 리승만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낸걸 아는가? 내 생각에는 미국이 리승만을 자기네 빵부스레기로 살지게 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있는것 같은데 사귀는 친구보면 그 사람의 됨됨을 안다는 우리 나라 속담을 말해둔다.〉

〈흥미있는 유모아다.〉

김구와의 이야기는 더는 전진이 없었습니다.

리승만이 차린 만찬회는 판이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라이락꽃이 만발하고 프랑스의 샹데리아표향수내가 진하게 풍기는 방에서 우리는 마주앉았습니다. 상우에는 드라이 쏘세지(서양식순대)며 브레드(서양빵), 철갑상어알 등 서양식품과 소포트크림(크림상태로 만든 얼음보숭이 일종), 웨이퍼(얇게 구운 과자) 등의 과자류며 와인과 스코트브란디 등 주류들이 전통적인 영국것들로 차려져있었습니다.

〈나는 소장각하가 앵글로색손족의 훌륭한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알고있다.〉

리승만은 이렇게 말하며 스코트브란디를 부은 잔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차려놓은 두개의 서로 다른 식탁이 결국 두 인간의 모든것이 집약화된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김치는 쓰거운대로 먹었지만 스프는 달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 인간들에 대한 미국의 립장이 아니겠는지?

중장각하, 솔직히 상황보고를 하는 저를 리해하여주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김치는 우리에게 습관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습관되지 않을것입니다. 입에 가져갈 선택을 한다면 입에 맞고 습관이 된 스프가 낫지 않을가요?…》

재담처럼 엮어가는 브라운의 보고에 실소를 지은채 심취되여있던 하지는 좁은 이마를 찡그리였다.

리승만을 멀리하여온 자기에게 야릇하게 도전해오는것이다.

(음, 너도 워싱톤에서 단단히 침을 맞고 왔구나.)

하지는 이마에 굵게 질러간 주름살을 풀지 않고 다시 보고서에 눈길을 보냈다.

《리승만도 김구에 대한 립장에서는 적대적이고 비타협적이였습니다. 그는 김구세력이 없이도 능히 정권을 창출해낼수 있으니 미국의 지원만 있으면 구태여 딴눈을 팔지 않을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 길에서 자그마하지만 전망성이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것은 미쏘협상재개에 대한 그들의 분명한 반대의사를 유도해낸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미쏘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하여 시사하면서 2차협상이 재개되면 이미 쏘미영 3상회담에서 합의된 신탁통치

에 대한 실무적조치가 합의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리승만은 그 기한이 50년정도가 되리라는 말에 실망을 표시했고 김구는 극히 랭소적이였습니다.

김구는 〈난 결사반대요. 조선사람이 뭐가 모자라 50년간 남들의 턱밑에서 산단 말이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다시금 광복전의 포성이 울리게 될거요.〉하고 우직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의 거부적 자세는 미쏘회담의 완전결렬을 유도하는데서 희망적인 한걸음이며 두 세력의 접근을 바랄만한 공통분모라고 생각됩니다.》

《희망적인 한걸음이라…》

하지는 입이 쓰거운듯 이렇게 중얼거리며 브라운의 보고서를 앞탁우에 던져버렸다. 그건 이미 기정사실화된 립장들이다. 김구를 그 정도에 이르게 하기 위해 정보고문 노불이 제일 분주스레 뛰여다녔다. 그런데 오히려 브라운이 으시대는것이다.

《역시 정치군인이란 성실성이 부족하거든.》

하지는 머리를 절레절레 내젓고는 초인종을 눌렀다.

부관이 기다린듯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손에 여러장의 신문들이 쥐여져있었다. 부관은 그중에서 한장의 신문을 하지에게 내밀고 나머지는 앞탁에 조심히 놓았다.

《뭐요?》

하지는 때없이 신문을 들고 나타난 그에게 불쾌한 어조로 물었다. 부관은 죄송스럽다는듯 고개부터 떨구었다.

《브라운소장의 면담소식이 오늘 서울 일간신문들에 실렸습니다. 그아래에 방금 서기실에서 번역해온 기사전문이 있습니다.》

지난해 웨스트포인트보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부관은 충견처럼 주인의 기분을 민감히 냄새맡아가지고 알맞게 움직일줄 아는 군인이였다.

하지는 부관의 낯빛을 보자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이따금 폭탄선언같은 문제거리들을 들고나타날 때면 부관은 지금처럼 제가 만들어놓은 우환거리인양 저렇게 침울하고도 처진 상을 해가지고 송구스럽게 서있군 했다.

그래서 하지는 부관의 얼굴부터 살핀 다음에 일감을 접수하는 습

관이 생겨났다.
《읽으라!》
하지는 신문을 도로 내주고 명령했다.
부관이 마치도 녀선생앞에 작문을 읽어드리는 소학생처럼 류창한 어조로 높지도 낮지도 않는 잘 들리는 음계를 잡아 마디마디 강약을 넣어 읽기 시작했다.
《경교장을 찾은 미쏘회담 수석대표 브라운의 엄숙한 선언》
《그건 뭐야?》
하지가 자못 요란스러운 제목에 껑충 놀라 앉음새를 흐트러뜨리며 소리쳤다.
《브라운은 김구와의 회담에서 단 하나의 독특한 선물을 전해주었다.
브라운은 김구에게 미국파의 합작에 적극 나선다면 미국이 이 나라의 통수권자리에로 밀어줄것을 확약하였다.
서울정계에 또하나의 돌풍이 번져지게 되였다.》
《뭐라구?!》
하지는 부관으로부터 신문을 빼아가지고 단숨에 읽었다. 김구의 측근들이 정권인수를 위한 세부준비에 돌입했다는것이다.
하지의 얼굴이 생콩을 씹은듯 이그러졌다.
브라운이 제정신 가지고 줴친 망발이냐. 이건 망발치고도 이만저만한 정도가 아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이런 수작질이 언급되지 않았는가? 아니… 어느 대목에서 보았던것 같다.
하지는 탁상우에 아무렇게나 던져져있는 브라운의 보고서를 성급히 다시 훑었다.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다. 그러니 나도 그런 소리를 스쳤구나.
여론이 돌풍을 예고한 대목을 내가 놓쳐버리다니… 이것이 바로 애치슨이 말하던것처럼 정치적감각이 둔해졌다는구나. 분명 또다시 이 길지 않는 문장을 걸고 진폭이 큰 충격파가 불어닥칠것이다.
(빌어먹을 자식, 두달이나 준비기간을 주었는데 이꼴로 일해.)
하지는 두덜거리다가 여느때없이 일찌기 잠자리에 드러누워버렸다.

그런데 온밤 그 무슨 괴물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꾸느라고 자리를 땀으로 흠뻑 적셔놓았다.

아침시간에 하지는 수하의 모사군들을 불러들여 대책을 협의하였다.

일은 터지기 시작했다. 꿈에 봤던 괴물들이 오후 첫 시간부터 나타났다.

노불이 리승만을 꼬리에 달고 처음으로 응접실에 나타났다.

하지가 부관의 보고를 듣고 응접실에 들어서니 노불이 리승만의 옆에 앉아서 뭐라고 쑥덕질을 하다가 용수철에서 튕겨나듯 벌떡 일어났다.

헌데 리승만은 늙고 쇄락한 몸을 이기지 못하겠다는듯 엉뎅이를 약간 들썩거렸을뿐 그 문제거리의 신문부터 내민다.

《각하, 난 브라운소장의 발언에 대한 각하의 공식적인 해명을 기대합니다.》

몸집은 큰데 울려나오는 목소리는 모기소리처럼 앵앵거리는 기분잡치게 하는 소리다. 리승만은 하지의 대답을 듣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양으로 뒤통수를 쏘파에 붙이고 부어오른 눈시울을 꾹 붙여버렸다.

원래 리승만은 브라운이 자기 집에 나타났을 때부터 기분이 나빴다. 그래도 이 나라를 다스리러 왔다면 누구보다도 자기, 리승만부터 찾아 알현해야 순리가 아니겠느냐.

브라운이 맨 마지막으로 제 집문턱을 넘어선것이 우연치 않다는 짐작이 갔다. 그런데 어제신문을 보니 브라운이 김구와 로골적인 흥정을 벌리고 나타난것이다. 이럴수 있느냐. 리승만은 미국의 배척을 받은 모멸감과 억울함을 억누를수 없었다. 그렇게 되여 달려온 길이니 구태여 인사 차릴것도 없다는게 리승만의 배심이였다.

하지는 언제나 자기앞에서 방자한 태도를 일부러 짓군 하는 리승만의 자세에 분격이 굴뚝같이 치밀었다. 그래서 신문을 신경질적으로 뒤적거리다가 아침시간 수습모의에서 도출된 합의를 뒤집어엎고 대바람에 총알처럼 쏘아붙였다.

《나는 당신이 왜 브라운의 이야기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

이는지 리해되지 않습니다.》

수습모의에서는 그것은 브라운개인의 립장이지 미국의 립장도, 자기의 립장도 아니라고 간단히 답변을 주도록 합의를 보았었다.

그러나 하지는 리승만앞에 나서자 신경질부터 앞섰던것이다.

하지는 리승만의 속통을 더 죄여 비틀어놓고싶었다. 그런데 그 이상 죄여놓을 트집거리가 언뜻 떠오르지 않았다.

《어험!》

리승만이 하지의 고압적인 대답을 듣자 눈을 번쩍 떴다. 꿩본 매눈처럼 번뜩거리는 하지의 눈총에 단번에 오금이 저리고 등골에 식은땀이 돋았으나 인차 자신을 수습하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할소리는 할줄 아는 두상이였다.

《난 그것이 미국의 공론으로 굳어진것이라면 우리의 〈독촉〉(리승만이 조직한 독립촉성회)과 〈독촉〉이 제휴하는 련합단체들의 련환비상총회를 금일저녁에 소집하겠다는것을 당신에게 통고하는바입니다.》

리승만이 이미 준비하여온 말을 양철 긁는듯한 새된소리로 외워놓고는 몸을 일으켰다.

노불이 그를 만류하였다.

《사령관각하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리승만이 못이기는척 다시 쏘파에 들어붙었다.

하지는 노불에게로 찔 눈길을 빨았다. 노불의 말은 하지에게 이미 눌러진 수습방안대로 움직이라는 신호였다. 별수가 있느냐 하는것이다.

(네놈도 리승만과 한통속이겠다.)

하지는 지금 노불이 리승만을 적극 비호해주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세월을 이어온 그들의 긴 유착관계를 알고있다.

하지는 생각같아서는 리승만더러 마음껏 용을 써보라고 박아주고싶었으나 은근히 그 후과가 두려웠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리승만이 광기를 부리면 국무성도 따라서 소란을 피우면서 몸살이 나게 한다.

(하는수 없다.)

하지는 뒤로 물러서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건 뭐 당신마음대로… 그러나 한가지만 말해두오. 브라운의 발언은 나도 미국도 대표하지 않소.》

하지는 씹어뱉듯이 대답을 주고 일어섰다.

《그런데 각하!…》

리승만이 또다시 두툼한 입술을 내민다. 그것으로써는 만족할수 없다는것이다. 하지는 그의 눈빛에서 이것을 읽었다.

네가 나서서 브라운의 말을 공식적으로 취소시켜 달라는것이다.

령감이 보통 찔통이 아니다. 제안속 다 챙기기 전에는 벽도 문이라고 골받이하며 늘어지는 진절머리나는 두상이다.

《노불! 당신이 나의 명의로 서울신문과 기자회견을 가지시오. 만족합니까. 리승만선생?… 안녕.》

하지는 리승만을 돌아보지 않고 짤막히 인사를 던지고는 응접실에서 제먼저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리승만이 늙은이답지 않게 잰걸음으로 문가까이로 따라가다가 하지가 사라진쪽에 대고 《고맙습니다. 중장각하!》하며 허리를 세번 굽신거렸다. 그리고는 제 생각에도 노불앞에서 체신머리없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허허, 노불씨, 난 저 사람이 좋아. 씨원씨원한게 파시 무관이거든.》 하고 쇠비린내나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허파에 바람든 사람처럼 웃었다.

노불이 리승만을 흘끔 돌아보고는 골살을 찌프리였다. 늙은이의 변덕에 오래전부터 습관되여온 노불이였지만 이처럼 아침저녁으로 달라지는 그의 변신에는 매번 아연해지군 한다. 곁에서 관찰해보면 리승만의 정치술수라는게 별게 아닌것 같다. 자기 욕심이 다 챙겨질 때까지는 상대를 가림없이 맞붙어 고집을 쓰고 야단을 부리다가도 정황에 따라서는 제때에 변신하는것이 전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의 이런 어리석고도 늘어붙는 재주에 상대방이 쉽게 넘어가는것이다.

2

브라운이 만들어낸 돌개바람은 이것으로 잦아들지는 않았다.

《서울신문》이 다시 노불의 기자회견내용을 전하자 김구의 당인 《한독당》이 쑤신 벌둥지가 되여 덤벼든것이다. 일은 《한독당》 중진인물들이 김구에게로 신문 한부씩 걷어쥐고 달려간 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경교장에서는 부랴부랴 이 당중앙정치위원회가 소집되여 결정이 채택되였다.

《첫째, 무책임한 정치적언사로 정계의 혼란을 자초시킨 브라운을 소환할것.

둘째, 남북총선거를 즉각 실시하며 통일정부를 수립할것.

셋째, 남북조선에 있는 현무장세력들을 조속히 해산, 제거할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하지는 안절부절하였다.

가뜩이나 죽가마처럼 끓고있는 소란스런 서울정계를 협상의 명수라 하던 브라운이 설치고 돌아가더니 설상가상으로 만들어버린것이다.

하지는 브라운을 불러다가 앞상끝에 멀찌감치 세워놓고 한시간이나 호통을 쳤다. 그러지 않아도 까닭없이 첫눈에 곱게 보이지 않던 인물이였는데 그의 기를 대번에 문질러버릴 기회가 찾아든것이다. 부하들이란 한번씩 되게 다불러놓아야 상관모시는 법을 배운다는것이 하지의 오랜 근무생활의 지론이다. 그는 브라운을 붙여주면서 《정치력이 약한 너, 하지에게 큰 혜택을 주노라.》는 식이던 맥아더나 마샬의 따귀를 후려치는 통쾌한 심정으로 닦아세웠다.

《도대체 당신이 정치는 알고 덤비는 사람인가. 조선사람이 바지저고리가 아니라고, 쪽발이같은 족속이 아니라고 강조하기까

지 했는데 그렇게 선불질을 하면 어쩔셈이요? 이제는 당신이 그들의 손끝에서 놀아대게 됐으니 꼴좋게 되였소. 당신이 저지른 불이니 당신 수완껏 꺼버리시오.》

브라운은 그의 채찍같은 욕설을 들으며 강심을 벼리고있었다.

(중장, 이건 사실상 당신이 지른 불이다. 좋다. 이 브라운이 그 불을 끄고야말테다.)

브라운은 그 실책에서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나라의 정치계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무게가 하루새에 공인된것이 다행스러웠다.

…정치가란 무엇보다도 사회일각에서 권위와 발언권을 인정받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어떤 방법과 결과로 이루어지던지 일단 성사가 되면 어제날의 실책도 뒤날의 밝은 영상에 그늘을 던져주지는 못한다.… 브라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였다.

브라운은 그날저녁에 자기 부관을 김구의 집으로 보냈다.

남조선정치가에 대한 처음으로 되는 초대이니 사양을 말아달라고 정중히 전하게 하였다.

김구는 자기의 비서인 안우생만 데리고 부관이 가지고온 승용차를 타고갔다.

안우생은 안지생의 손우의 형이고 안중근의 조카였다. 그들은 김구의 맏며느리인 안미생과 사촌지간으로서 김구가 가장 믿는 측근인물들이였다. 안우생은 오래전에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포드대학을 졸업한 어학자로서 벌써 상하이시절부터 정시명의 지도밑에 《림정》계의 반동화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기도 했다.

브라운은 그들을 저녁식탁으로 안내하였다.

식탁에는 토장국과 김치가 특별히 올라있었다. 김구가 그것을 보고 씩－하고 웃자 그의 눈치를 따르던 브라운도 소리내여 웃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는 외교관답게 례의바르게 김구를 다루던 브라운이 일단 응접실로 자리를 옮기자 거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식외교에서 기본으로 되는 강, 온을 적절하게 타산한

브라운의 의도적인 공세였다.

《김구선생, 난 당신이 신의를 지키는 고명한 정치인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봉이 며칠전이였는데 그렇게 쉽게 합의를 깰수가 있습니까?》

브라운은 응접탁우에 있는 신문을 흔들며 소리를 높였다. 그 신문에는 《한독당》의 결정이 소개되여있었다.

《신의를 지키지 않는건 당신들 미군정측이요. 내가 구태여 노불의 기자회견내용을 꺼내야 되겠소?

그래 당신은 또 이자리에서 노불의 립장이 미국의 립장이 아니라고 둘러메칠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사이에는 합의가 없었소.》

김구는 심술스럽게 브라운의 거친 반응을 일축하여버리였다.

브라운은 김구의 역공격에 대항할만한 여지가 없었다. 제가 쒀놓은 죽에 코를 박게 된것이다.

그러나 브라운은 이런 궁한 처지에서도 자기를 지켜낼줄 아는 외교관이였다. 말문이 막히자 얼른 화제를 돌렸다.

《내가 서울에 와있는것이 미국의 리익보다도 조선을 위한것임을 당신은 잘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브라운은 얼굴에 웃음을 담으며 곧 유순한 눈길로 김구를 지켜보았다.

《글쎄… 리해는 될듯 한데…》

김구는 브라운의 엉뚱한 이야기에 입이 쓰거웠으나 웃는 낯에 침 뱉을수 없어 뒤말을 중둥무이하였다. 생각같아서는 회담이고 군정이고 다 걷어안고 어서바삐 대양을 건너가라고 소리라도 지르고싶다.

《그런데 당신들의 결정에는 미군의 조선주둔에 대한 로골적인 적의가 엿보이고있습니다.》

《뭘보고 그렇게 말하시오?》

김구는 딴전을 부리는 브라운의 이야기에 끌내 말려들고말았다.

《당신들은 남북에 있는 무장집단을 조속히 해산, 제거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미군도 속하지 않는가요?》

브라운이 슬쩍 다시 역습을 가해오자 김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네놈도 양놈이기는 매한가지로다.)

첫 대면때 브라운은 하지나 아놀드와 썩 차이가 있다고 좋게 보아왔는데 이놈도 그놈이다.

김구도 이제는 미국놈들을 다루는 방법을 안다.

요사스런 놈은 우직하게 다스리고 우직한 놈은 례의로 다스려야 하는데 미국놈과는 언제나 우직하게 대응하는것이 제일가는 비방인것 같다.

《당신은 날 불러 대접을 잘해주더니 그걸 따지자고 했구려. 그건 보는이마다 생각하기나름이요. 헌데 당신들은 페일언하고 감히 귀맛좋은 요설로 이 나라 정객들을 우롱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될것이 아닌가. … 난 더 할 말이 없고 밤도 깊어가니 이만 실례하겠소.》

김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안우생이 브라운의 속통을 더 헤쳐보고싶어 만류했으나 김구는 한사코 뿌리쳤다.

브라운은 앞뒤로 곤경에 빠져들게 되였다. 김구의 환심을 사보고 그의 정치력을 가지고 리승만이까지 끌어당기려고 한번 슬쩍 내비친 말이 이렇게 정계를 휩쓸고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흔들어놓을줄은 상상도 못했다. 확실히 이 나라 국민은 개명하고 정치기상도가 높은 민족이다.

국방성의 인정을 받아온 자기의 몸값이 정복지에서 눅거리로 흥정되고있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다소간의 실적으로 첫발자국을 값지게 장식하자고 했는데 하지조차도 실망하게 만들고말았다. 무엇보다도 그게 명치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브라운은 또다시 정치인들에 대한 행각을 하자고 했던 당초의 계획을 거두고 하지에게로 찾아갔다. 자기의 경솔한 발언과 정치적미숙성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러나 집무실에서 그를 맞아준 하지는 김구와의 2차상면을 이야기하며 면목이 없다는 말을 꺼내놓자 손을 홱 내저었다.

《됐소, 됐소. 뭘!… 그쯤한 망신꼴은 이 서울에서는 큰게 아니요. 교훈으로 삼으시오. 내가 래일부터 적당히 만나주겠소.》
《예, 정말 면목이…》
《아, 아, 됐소. 우린 참회나 할 시간이 없소. 자, 앉으시오. 여기 국무성에서 또 당신한테 전보가 날아왔소.》
하지가 한장의 전보문을 들고 휘두르는 바람에 브라운은 다행으로 거북살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났다.
하지는 자기가 큰소리로 읽었다. 자기의 명령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하는 의미였다.
《들으시오. 극비. 미쏘협상과 관련한 현지인들의 대중적소요가 준비된다는 정보에 류의하면서 될수록 속한 시일안으로 제2차 미쏘협상을 대조선정책방향에 따라 처리할 방안을 작성하여 보고할것. 마샬》
다음날 하지는 브라운이 쑤셔놓은 벌둥지를 더는 소란스럽지 않도록 하느라고 하루종일 차를 타고 서울시내를 싸다니였다.
그는 정책보좌팀에서 작성한 대안에 따라 개개 대상들에게 적당한 담보를 주었다. 김구에게는 자기 명의로 된 노불의 발언에 너무 신경쓸건 없다, 아직 미국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자기의 립장을 정리해놓은게 없다고 어벌쩡하게 위로해주었다.
리승만에게는 《기다리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라.》 하고 간단히 말해주고 악수를 하고 이내 돌아섰다. 김규식에게는 앞으로 있을 유엔총회에 대표로 갈 준비를 하라고 전하면서 뉴욕에 가면 워싱톤에 들려오라고 은근한 추파를 던져주었다. 려운형도 만났다. 당신들 중도세력의 립장에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고있다, 좌우익을 조정하는 이 나라 정치권의 구심점은 중도세력만이 차지할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두었다.
하지는 련쇄방문이 성공적이라고 믿었다. 당분간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정치의 각 세력들을 필요할 때까지 잠재워두는것이 현명한 지책이라고 정책보좌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던것이다.

3

정시명이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안지생이 찾아왔다.

그는 정시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면서 최근 아놀드를 대신하여 부임한 브라운과 하지가 제가끔 정계의 거물급인물들을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련일 만나 모의를 벌리고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브라운의 랑설과 그 후일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대체로 론의점은 우익과 중간파인물들을 절충하는것이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였다.

정시명이 미국놈들이 동분서주하는 까닭이 무엇일가고 넌지시 물으니 안지생은 별생각없이 명확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제놈들의 진을 짜보는거지요.》

그 말에 정시명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래?!… 그래. 우리도 어서 진을 짜야지. 서둘러야겠소. 시간을 잃으면 력사를 잃지. …》

정시명은 곧 일에 몸을 잠그었다.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애국의 대강까지 받고보니 이제는 모든것이 확연하고 자신만만하였다. 벌써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머리에는 남쪽에 애국의 성새를 다져나갈 안이 주도면밀하게 작성되여있었다.

핵심을 꾸리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사업을 폭넓고 심도있게 벌려나가자면 핵심들을 애국에 투철하고 품성이 바르며 조직적수완이 겸비된 일군들로 꾸려야 할것이다.

개개가 하나의 전선씩 떠맡아야 할 지도부성원들이 구실을 할수없는 사람들로 무어지면 제아무리 방략이 훌륭하고 전술이 기묘해도 어려운 적후활동을 보장할수 없다. 정시명은 렬차가 사고없이 달리자면 기관차가 든든해야 하듯이 반동의 소굴을 들부셔야 할 혁명조직을 힘차게 몰고가자면 지도부를 강철의 심장을 지닌 사람

들, 내 나라, 내 겨레를 위해 단두대에도 웃으며 나설 인간들, 자기 초소를 능히 감당할수 있는 쇠소리나는 사람들로 꾸려야 한다고 여러번 마음속깊이 다지군 하였다.

정시명이 서울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료해하는 과정에 주목하게 된 사람은 전라도일대의 혁명사업을 지도하던 김명호와 경기도의 혁명조직들을 맡아보던 길철이였다. 경력에 곡절있는 사람들이였다. 어린시절부터 남조선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국내공작원들의 지도밑에 광복성전에 나선 오랜 혁명가들이다.

8.15해방후 지하에서 나온 이들은 남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기여든 박헌영패거리와 정면충돌하게 되였다고 한다.

이들은 그자들의 종파분렬주의적행동이 궁극에 가서 노리는것은 혁명운동의 내부분렬과 와해이며 이 움직임의 리면에는 배후세력이 있다는것을 간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행을 단죄하면서 은밀히 그 배후관계를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사업을 벌려놓자마자 박헌영에게 알려졌다. 제놈들의 정체가 불원간에 드러날수 있다는것을 눈치챈 그자들은 곧 이들을 당에서 내쫓고 테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들은 다시 지하에 들어갔다. 새로운 투쟁의 길, 건전한 조직선을 찾아 암중모색하였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정시명에게 보고한것은 김중원이였다. 《한민당》의 실권자인 김성수가 어디서 이 소식을 얻어듣고 그들의 인간의 무게가 탐나서 자기밑에 끌어들이려 한다, 김성수는 그들에게 각각 《한민당》 부장직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는것이다. 김중원은 자기가 김성수의 위임을 받고 몇번 만나봤는데 지조가 있고 품성도 좋고 수준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 당시 남조선혁명가들속에서 박헌영에 대한 환상이 컸던 형편에서 제때에 놈의 반혁명적죄행을 가려보고 정면도전해나섰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 놓고도 이들의 정치적예리성과 성숙정도를 가늠할수가 있었다.

정시명은 그들과 여러날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고된 자료와 평가된 문제들을 확인하고 엄밀히 관찰하였다.

두사람이 다 첫눈에 들었다. 그러나 대조가 뚜렷하였다.

마흔살을 갓 넘긴 김명호는 몸이 실하고 얼굴생김이 넙적하고 두눈이 검실검실한게 사람이 매우 침착하고 진실해보였다. 말투도 느릿느릿하다. 한마디의 군소리도 없이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군 하였다. 엄격한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다섯살에 천자문을 뗐다고 한다. 도수높은 안경까지 끼고 큰 웃음판에서도 조용히 미소를 짓는 모습은 선비처럼 담담하면서도 믿음직스럽다.

그와는 대조되게 길철은 날파람있어 보인다. 매우 리지적이고 활동력이 있어보였다. 김명호보다 몸무게가 스무키로는 떨어지지만 팔씨름을 하면 어림도 없다고 한다.

그는 자기의 경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이사이 유모아를 섞어가면서 상대방을 따분하지 않게 웃기기도 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결혼문제에서도 판판 다른 견해와 처지에 있다. 김명호가 자기보다 다섯살우인 녀인에게 장가들라는 할아버지의 말을 곰상스럽게 받아들였다면 길철은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마음에 차는 처녀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장가들지 않겠노라 고집을 부려 서른네살되는 이때까지도 총각이라고 한다.

어느날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정시명이 그 소리는 미타하다고 고개를 기웃거리자 《아, 정말입니다. 정동지, 저 하늘에 대고 맹세하건데 아직 처녀손목 한번 잡아본 일 없는 진짜배기 숫총각이올시다.》 하며 능청을 부렸다.

《이거참, 야단은 야단이다. 내결에 팔리지 못하는 로총각이 둘씩이나 되니.》

정시명도 우스개소리로 길철의 이야기를 받자 그의 대답이 걸작이였다.

《아, 제 걱정은 아예 마십시오. 벌써 전 주인집따님한테 선을 보인 절름발이총각입니다.》

《주인집따님?…》

정시명이 눈이 휘둥그래졌다.

때마침 방문이 빼써 열리더니 강습소에서 돌아온 례영이가 민순

임이 방금 닦아준 군밤을 자그마한 싸리바구니에 담아들고 방안에 소리없이 들어섰다.

《옳지, 그렇댔구만!》

정시명이 그제야 길철의 말귀를 알아듣고 몸을 들썩거리며 웃었다.

함께 앉아있던 마동열과 림인석이며 김명호도 어처구니들 없기도 해서 크게 웃음판을 벌려놓았다.

례영이 조심스럽게 정시명의 앞으로 걸어와 싸리바구니를 사붓이 놓다가 사내들의 큰 웃음소리와 자기에게로 쏠리는 그들의 눈길에 괜스레 귀밑이 새빨개져서 얼른 방에서 나가버렸다.

그때 김명호가 《에끼, 고약한 사람. 언제 벌써 감히 주인집 따님을… 하지만 길동문 지각생이요.》 하고 꾹 눌러놓았다.

《네? 지각생이라니요?》

《내 저 림인석동무한테서 들어둔 얘기기는 헌데… 저사람은 어떻게 하고…》

김명호의 능청스러운 눈길이 마동열에게로 돌아가자 전우들의 눈길이 그를 따라섰다. 그러자 마동열이 그 큰 손을 건사할데가 없는듯 허공에서 흔들다가 《아, 그건… 저 그건…》 하며 그도 두볼이 벌그레하게 타들었다. 덩지가 커다란 사내의 숫진 그 모습에 좌중에는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그게 정말이요?》

정시명이 모를 일이라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며 림인석에게 물었다.

《물론입지요. 저들은 천상배필이 될겁니다.》

림인석이 자신있게 선포했다.

《모를 일인데…》

정시명이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집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저사람들이 알고있는걸 내가 왜 몰랐을가?》

하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례영이를 보는 마동열의 눈길이 례사롭지 않은것 같다. 요즈음은 례영이 강습소에서 늦게 올 때면 명

동골깡패들이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발걸음이 가볍게 마중가군 한다. 마동열이 윈심을 쓰고있는것은 확연한데 례영이 당자는 눈치를 차린듯 못차린듯 여전히 무랍없이 오빠라 부르며 태없이 따른다. 그리고 마동열의 눈치가 수상한것 같으면 아닌보살을 하고 곁을 주지 않는것 같다.

《그래. 그렇군!》

정시명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마동열의 벌그레하게 타든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정시명은 어쩐지 가슴속이 그 무엇인가 희망차고 환희로운것으로 그들먹해지는것을 느끼며 부지중 입속으로 중얼거리였다.

(사랑이라… 혁명과 사랑, 얼마나 좋은 일이냐. … 시대가 달라졌으니 사는 법도 달라지고 사랑하는 법도 달라져야지.)

마침내 정시명의 집에서는 지도부를 결성하는 모임이 열렸다.

김명호, 길철, 마동열, 림인석이 참가하였다.

정시명이 먼저 선서부터 하였다.

《나 정향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애국충신으로 살며 싸울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하며 주먹을 불끈 쳐들었다.

모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국의 믿음에 끝까지 충실하리라!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애국의 길에서 변치 않으리라. … 맹세를 다지였다.

모두가 흥분되여있었다. 더구나 조직선을 잃고 정신적방황에 시달려온 김명호와 길철의 정치적소생의 기쁨은 비할바 없었다.

맹세를 다지는 그들의 음성은 떨리였다.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 초불에 얼찐얼찐 빛을 뿌렸다.

정시명이 책임자로, 김명호와 길철이 부책임자로 선출되였다.

조직의 이름은 《흥국상회》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여러모로 편리한 이름이였다. 정시명이 사장이 되고 부책임자들은 리사로, 성원들은 흥국상회의 적당한 직위를 가지기로 하였다.

정시명은 그자리에서 이미 준비해두었던 흥국상회의 명함장들을 나누어주었다.

모임에서는 내부질서와 사업체계가 협의되였다.

사업분담은 개별적으로 받기로 하였다.

모두들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안고 정시명의 곁을 떠나갔다.

정시명은 지도부를 꾸려놓으니 한결 마음이 놓였으나 임무는 벅차졌다.

기관차는 기적을 울렸다.

정시명은 래일이면 또다시 만날 그들이지만 대문에서 떠나는 그들의 손목을 굳게 잡아주었다.

마동열이 지도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제기했다.

정시명이 지금 거처하고있는 집은 여러모로 적당치 않다는것이였다. 우선 《림정》패들이 다 알고있으므로 로출된것이나 다름없다. 지대적조건도 좋지 못하다. 가까이에 있는 3층집에서 빤히 내려다볼수 있다. 방도 작다.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 적들의 마수가 이쪽으로 쏠릴수 있다.

정시명은 그에 응하였다. 사실 그자신도 벌써부터 조직의 안전을 보장하며 일상적으로 협의하는데 편리하고 믿음직한 거점을 꾸리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왔다.

정시명은 서울에서 오래 살아온 길철을 만나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데 대하여 의논하였다.

《좋기는 놈들이 신임하는 사람의 그늘밑에 은폐되는것이 좋겠는데… 전일에 우리 일행이 모여살 때 경찰들이 달려든적이 있었소. 헌데 류동명통위부장의 이름을 대니 도망치더구만. …》

길철은 정시명의 말을 듣더니 즉시에 대답하였다.

《제가 아지트삼아 리용하고있는 누이네 집이 좋을듯 합니다. 주인은 학식도 있고 반일운동에도 참여했던 사람인데 사람도 좋고 집도 좋고… 그런데는… 딱 한가지…》

《믿을수 있는 사람이요?》

《예. 애국심이라고 할가, 여하튼 좋은 사람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는… 부자입니다. 사람은 진국인데 부자입니다.

큰 부자입지요. 이름은 박정인이라고 하는데 옛적에는 독립운동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진국인데 부자라. 허허허…》

정시명은 미심쩍은듯 아퀴를 짓지 못하는 길철의 딱한 표정을 보며 껄껄 웃었다. 길철의 그 딱한 표정이 인차 리해가 되였다.

자기는 아지트로 믿고 사용하나 정시명의 거처로는 불미스럽다는것이였다.

《길철동무.》

정시명이 정색해서 말했다.

《겨레를 위한 싸움에서 벗과 원쑤를 가르는 시금석은 내 나라, 내 겨레에 대한 오늘의 립장이요. 애국애민의 뜻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것을 우리 흥국상회의 힘을 키우는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웁시다.》

며칠후 정시명은 모임에서 길철이 대상에 대해 자료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했다. 진을 꾸리는 사업에서 지도부일군들의 눈을 틔워주고 견해일치를 보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길철의 이야기가 끝나자 성원들은 서로 각이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김명호는 우리가 적진에서 사업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피할수 없다고 말했으나 문제에 대한 책임적인 언급은 피하였다.

아마도 지난날 무익한 정쟁에서 정력을 소모하다가 종당에는 조직에서 쫓겨난 쓰라린 교훈이 그를 매사에 조심하게 하는듯싶었다.

(안되겠다. 심장이 바위같은 저사람이 저런데 버릇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정시명은 이렇게 생각했다.

마동열은 장군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은 당자이므로 확고한 신조를 가지고 포섭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림인석은 계급선에서의 탈선이라고, 지도부의 거처를 부호집에 두는것은 모험이라고 단호하게 부정해나섰다.

론쟁이 벌어졌다. 모두가 자기의 주장을 옹호하여 열정적으로 변론을 하였다. 론쟁을 붙여놓으니 누구나 리론가들이고 웅변가들이다.

정시명은 그들의 론쟁에 끼여들지 않고 충분히 론의되도록 묵묵

히 듣기만 하였다. 정시명이 휴식하고 모임을 계속하자고 하였으나 그들은 례영이 끓여온 차를 마시면서도 여전히 열을 내서 자기 주장을 전개하였다.

모임은 갑론을박하며 여러 시간 계속되였다.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채 정시명에게로 시선이 모아졌다.

그는 결속하는 의미에서 말하였다.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차피 복잡한 계층과 마주쳐야 하오. 지금 정계와 군부에 복무하는 사람들중에는 해방된 조국에서 겨레를 위해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놓겠노라 뛰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소. 우린 그런 사람들을 모래무지에서 금알갱이를 골라내듯이 선발하여 동지로, 동정자로 포섭해야 합니다.》

정시명의 말이 계속되자 방안은 숨소리도 없이 조용해졌다.

정시명은 잠시 말을 끊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이 문제에서 다시 론의가 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게 해답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느때없이 길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물론 우리 대오를 로동자, 농민들을 기본으로 꾸려야 하오. 그러나 우리의 임무와 처한 형편을 무시해서는 안되오.

지금 이남정계와 군부의 중견인물들을 관찰해보면 누구나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움직이면서도 해방바람을 타고 민족주의적바탕에 지반을 닦으려고 하고있소. 그들속에서 잠자는 민족의식을 찾아내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참답게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하오.

문제는 사람을 봐야 한다는것이요. 보되 사람별로, 건별로 봐야 한다는거요. 세상에 똑같이 생긴 모래알이 없소. 절대로 사람들을 몇개의 부류로 나누어놓고 이편저편에 사사오취하는 방법으로 몰아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필요하다면 각양각색의 인간들을 다 개별화하여 연구하고 동지들을 찾아야 하오. 일단 동지를 사귀려거든 그사람의 마음속의 아름다운것을 찾아내야 하오. 결함부터 꼬집어드는것은 사람을 사귀는 방식이 아니요.》

정시명의 진지한 이야기는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주었다.

모임이 끝나 다들 돌아가고 길철이만이 떨어졌다.

그는 박정인의 집략도를 큰 종이에 그려놓고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설명을 시작하였다.

《우리 누이가 행랑살이를 하고있는 집은 통인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본채가 있고 그 좌우켠에는 마루를 깐 응접실과 여러칸의 온돌방이 달린 사랑채가 있습니다. 본채와 통하는 문만 막으면 완전히 딴집으로 쓸수 있습니다. 대문만 하여도 바깥으로부터 세개나 됩니다. 이 집은 서울장안에서 호화주택으로 속하는 집으로서 주인인 박정인은 사회적으로는 인격자로, 돈많은 재산가로 알려져있습니다. 바스락별을 단 경찰들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지요.

바깥대문옆에 있는 행랑채에는 저의 누이가 살면서 저의 시중을 들고있는데 수위임무도 수행할수 있을것입니다.》

박정인의 집에 대하여 신명나서 설명하고난 길철은 집주인의 경력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박정인은 원래 안주의 천교리에서 가난한 소작인의 집에서 태여났다. 고향에서 농업학교를 다니다가 반일운동에 참가했다 하여 퇴학당하였고 3.1운동때에는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고문도 받고 옥살이도 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박정인은 반일의 뜻을 안고 지엔다오로 들어가 독립군에서 싸우다가 일제의 평티엔령사관에 잡혀들어가 또다시 5년동안 감옥살이를 하였다.

출옥후에는 선양시가에서 품팔이를 하면서 독립운동에 다시 나설 기회를 은근히 노리고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나 정분을 나누게 된 녀인이 바로 지금 같이 사는 어느 호부자의 미망인인 주씨였다. 관계가 깊어져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주씨는 오성공사라는 규모가 큰 무역상사를 경영하고있었다.

경영권이 자연적으로 박정인에게 넘어왔다. 이때로부터 박정인은 무역상사와 안락한 가정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가정에 박히고 말았다. 그래도 애국의 열의만은 변치 않아 독립군에 자금도 열성스레 바치고 선양에서 조선아이들을 위한 중학교, 간이학교를 세웠다.

그러다가 일본놈의 감옥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급

격히 악화되여 조상의 땅에서 눈을 감겠노라 주씨부인과 작별하고는 중환의 몸으로 혼자 서울로 나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서울에 그냥 떨어졌다.

주씨부인도 남편의 뜻을 받들어 인차 재산을 정리하여가지고 뒤따라왔다.

주씨부인의 지극한 간호로 건강이 예상밖에 호전되자 박정인은 다시 실업계에 나섰다. …

길철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있던 정시명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다.

《길선생은 어떻게 아시게 되였소?》

《제가 그를 알게 된것이 저의 누이가 그 집에 행랑살이를 들어간 뒤였습니다. 누이는 서울서대문감옥에 갇혀있는 매부의 옥바라지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박정인의 집에 들어갔던겁니다.

매부가 옥사한 뒤로 아예 그 집에 눌러앉고말았지요.

박정인은 저의 매부가 반일운동가로서 옥사했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일처럼 여기고 누님의 뒤를 각근히 돌봐주었습니다. 마침 그무렵에 저도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습니다. 재판소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공작원들과 련결되여있던 나에게 종신징역이라는 중형을 덜컥 선고합디다. 초심에서는 뭐 사형이라나요. 누이가 하나밖에 없는 혈붙이를 구원해달라고 박정인에게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는데 내가 사상범이라는 소리에 두말없이 응해나서더랍니다.

그때 박정인이 거액의 돈을 날린 덕에 전 형무소에 넘어가기 전에 집행유예로 출옥하였습니다. 그후로부터 박정인과 저와의 사이에도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귀고보니 사람이 참 진국이더군요.》

길철은 이렇게 말끝을 여물구고는 이야기를 마치였다.

정시명은 길철의 말을 다시 음미하듯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곰방대에 담배를 다져넣으면서 길철에게도 권하였다.

정시명은 담배연기를 한모금 길게 뿜어올리며 물었다.

《그사람의 고향이 안주라고 했지요?》

《네ㅡ》
《그런데 해방이 됐는데 왜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오? 남북을 살펴보면 어느곳이 살맛 좋은가 알았을게 아닌가?》
《네, 그럴만한 곡절이 있습니다.》
길철이도 써레기담배를 말아물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8.15후 박정인은 고향땅에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지요. 그해 봄에 고향에 갔던 박정인이 늙은 부모에게 땅을 사주고 왔는데 이게 큰 화단거리로 되였단 말입니다. 한해농사를 지어보고는 토지개혁으로 몰수당했다는것입니다. 결국 나라의 버림을 받게 된것이지요. 박정인은 애국의 뜻을 돈과 바꾸어버린 자신에 대하여 처음으로 돌이켜보았답니다. 나라와 겨레앞에 지은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되였던것입니다.
저더러 이젠 그 죄를 씻어버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것 같다고 비통해하더군요. 사람이 싹 달라집디다. 만사를 귀찮아하고 돈 모으는 재미도 없어진것 같습니다. 기업일은 대리인에게 맡겨버리고 친구들을 불러들여 술추렴이나 하고 마작놀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그 정상을 보기가 하도 딱해서 한번은 제가 따끔하게 입침을 놓았지요. 로형께서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어쩌느냐고. 하지만 그의 속에 얼어붙은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습디다. …》
길철의 이야기가 이 대목에 이르자 정시명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박정인이 아버지의 토지를 몰수한 북조선정권의 처사에 엇서는게 아니라 자기를 돌이켜보며 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이 례사롭지 않았다.
지금 월남자들속에는 토지개혁에 반기를 들고 남으로 줄행랑을 놓은자들이 많다. 그들은 새 정권의 인민적시책에 대해 리성적으로 판단하고 기꺼이 접수하며 그에 순응하여나가야 되겠지만 오히려 분별을 잃고 앙심을 먹으면서 북조선에 뿌리내린 새 제도와 인민의 원쑤로 굴러떨어진것이다.
그런데 북조선정권의 시책을 량심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서 죄

뭈을 찾아내여 참회하고있는 그 인간의 뜻에는 뭇사람들과는 다른 진보적이고 고결한것이 있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사람이 고고성을 터뜨렸다가 한줌의 흙으로 사라질 때까지 하나같이 비단결같이 살았으면 좋으련만 언제나 심지 바르게만 사는건 아니다. 본의든아니든 허물이 없이 세상을 하직한 인생이란 극히 드물다. 문제는 자기에게 생긴 허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것이 인생의 질을 평가하는데서 중요한 좌표로 된다.

량심이라는 보석같은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쉬이 허물을 찾아내여 지워버리지만 그게 먹물처럼 시꺼먼 사람이면 허물됨에 판단을 내리지 못한채 겹치는 허물에 깔려 종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 버림을 받는다.

그런데 박정인은 자기 인생의 허물을 제때에 찾아내서 타매하는 능력이 있는것 같다. 사람이 사람다운 구실을 하도록 하는 량심의 대가 서있다는것이 반갑고 믿음이 간다. 그리고 어서바삐 그 인간을 찾아서 옭맺힌 고민거리도 함께 의논해주고 사라져간 생활의 활기와 웃음도 되찾아주고 굴곡이 진 인생길을 곧바로 펴고싶어하는 그 인간을 도와주고싶었다.

정시명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길철은 자기가 모임에 앞서 박정인을 찾았던 이야기를 하였다.

《정동지한테 말꼭지는 떼놓았지만 아무래도 미타해서 사실은 선통을 해봤습니다. 국토분렬을 막기 위해 몸바쳐 나선분이 선생을 만나보겠다고 하는데 의향이 어떠신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인이 꿈같은 소식에 감격스러워하면서도 반신반의합디다. 하, 그런분이 어찌하여 나라위한 넋을 돈에 전당잡힌 나같은 수전노를 찾아주느냐는것입니다. 두번세번 이야기해주어서야 박정인이 너무 좋아 〈길선생! 어서 모셔오시우. 원, 내같은 돈벌레를 알아주시다니 어서 모셔와주오.〉 하고 서두르는데 내가 입밖에 내놓은 그 희한한 소식을 거두지나 않을가 념려되는듯 두번세번 곡진하게 부탁합디다. 사람은 진짜배기랍니다.》

길철이 말끝에 머리를 쓸어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시명은 재삼 박정인의 인간됨을 후하게 평하고싶어하는 길

철의 진속을 그 미소에서 찾아보며 자기도 입가에 웃음을 담았다.
이야기에 그려진 박정인의 모습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옹호해나서는 길철의 자세가 더 마음에 들었다.
정시명은 곧 길철을 앞세우고 박정인의 집으로 향하였다.

4

과연 단청이 울긋불긋한 궁궐같은 집인데 대문 열리는 소리도 사뭇 야단스럽다. 당장 《여봐라!》 하는 호령소리와 륙모방망이를 든 하인배들이 쓸어나올것처럼 으스스하다. 웬만한 경찰나부랭이들이라면 파시 대문가에서 벌써 반정신이 나갈것 같다.

길철은 사랑채에 정시명을 안내하고는 박정인이 거처하는 안채로 들어갔다. 박정인의 생각을 다시 알아보아 랑패가 없도록 이말저말 빙글빙글 굴려가며 엮어가다가 일전에 말씀드린분이 사랑채에 거접했으면 하는데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 소리에 박정인이 크게 기뻐하면서 《내 그런 일이 나라 받드는 일이라면 여생을 바쳐서라도 지켜드리겠네.》 하며 오늘중으로 당장 모셔오라고 서둘렀다. 그리고는 왜 하필이면 사랑채에 모시겠는가, 안채에 방들이 많은데 필요한 방을 다 쓰게 하라고 하였다.

길철이 박정인의 처의 의견이 어쩐지 념려스러워하자 박정인은 《여보게, 그사람이 나하고 산지 스무해도 넘었네. 실은 내 길선생이 이 이야기를 절대로 입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마누라에게만은 얘기해두었네. 내 마음이자 그사람 마음인즉 두말하면 잔소리지.》 하고 선선히 대답했다.

길철이 그제야 사실은 그분이 지금 사랑채에 와계신다고 실토하였다. 박정인의 낯빛이 달라졌다.

《이런 무례한 일이 있소. 나를 찾아준 귀인을 문가에서 기다리게 하시다니. 선생이 나를 안지 이젠 몇해가 잘되는데 어찌 이

렇게도 례의에 소홀하단 말이요.》
박정인은 자못 랑패스러운듯 자리에서 황황히 일어서며 저으기 노여워하였다.
원체 기골이 름름하고 얼굴생김이 수더분한 풍류객이다. 말소리도 서글서글하고 손님대접도 귀천의 차별없이 륭숭하게 해서 너나없이 쉬이 끌려들게 되는 선한 사람이지만 자기앞에서 요사를 떨거나 변덕을 부리는것을 제일 미워하고 한번 속으면 두번 상종을 하지 않는 곧은 성미였다.
박정인은 부인을 큰소리로 찾았다.
이내 50대의 뚱뚱한 녀인이 나타났다.
《이보우 마누라, 그분이 오셨다는구만, 당신도 어서 단장하고 사랑채에 그분 맞으러 나갑시다. 그리고 내게도 얼른…》
박정인이 이렇게 열에 떠서 부르짖으며 서둘렀다.
이윽고 박정인은 정중한 초대를 받고 갈 때처럼 바지저고리에 흰 당목보선을 받쳐신고 모시두루마기를 떨쳐입고는 주씨부인과 나란히 사랑채로 나갔다.
《박선생님, 이렇게 내외분이 우리들을 받아주시니 감사의 마음이를데 없습니다.》
정시명은 그들에게 허리를 굽혀 정중히 례를 표시하며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하였다.
박정인내외는 정중하면서도 호방하고 인정미 흐르는 정시명의 인품과 인사말에 첫순간부터 흠뻑 반하고말았다.
《저희들의 성의를 받아주시니 고마운 인사는 제가 올려야 하겠습니다.》
박정인이 이렇게 말하며 깊이 허리를 숙이는데 옆에서 그들의 첫 상면을 지켜보는 길철이와 그의 누이 길봉례까지도 속이 뭉클해졌다.
정시명은 박정인의 두손목을 꾹 잡았다. 조국을 위한 의로운 길에 선뜻 뜻을 두려는 이 자산가의 진정에 겨운 호의와 반기는 정이 고맙기 그지없었다.
눈길과 말투에 비끼는 그의 무게있고 성실한 성품이 다시 확

인되는듯싶어 옛친구를 만나듯 믿음이 가고 정이 갔다.

《박선생님, 부인님.》

정시명은 그들의 안내를 받아 크고 정결하게 꾸려진 손님방에 들어서자 이렇게 조용히 불렀다.

《아무래도 우리가 더 깊이 사귀기 전에 여쭈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어서 말씀하십시오.》

박정인이 정시명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듯싶어 주씨에게 나가보라고 눈짓을 하였다.

그래 주씨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정시명이 만류하였다.

《부인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뒤날에 후회를 남길수 있다는데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남녘땅에서 민족을 배신하는 역적무리들과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울것을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한집안으로 합쳐질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당할수 있는 위험과 그로부터 댁에도 미칠수 있는 후과에 대하여 감추고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여 싸움을 크게 벌릴수록 놈들도 나나 나를 도와나선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것입니다. 서울에는 나라를 두쪼각으로 갈라놓으려는 놈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사생결단의 싸움으로밖에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박선생이 이제 사양할지라도 구태여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정시명은 박정인의 진정에 끌려 그에게 진속을 활짝 열어보였다.

무릇 인간의 성실성은 인간의 고귀함을 규정하는 첫째가는 징표라고 한다. 사회앞에, 집단앞에, 자기 안해와 벗들앞에 성실하게 산다는것이 얼마나 마땅하면서도 고상한 미덕인가.

정시명은 인간고유의 이 아름다운것이 깃든 심장이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귀고싶었고 나라위한 길에서 활짝 꽃피워주고싶었다. 또 그러한 인간들을 찾아내면 자기도 인간의 그 아름다

움을 소중히 여기는 참인간이라는 자부심으로 하여 스스로 행복하여지는것이였다. 그리고 그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그들과의 교제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 애썼으며 사업상특성으로부터 그 어떤 사교적인 위선이나 계교가 배여날세라 굳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다듬군 한다.

정시명은 전우들에게도 성실한 대상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성실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해주군 하였다.

이 순간에도 정시명은 부인까지 곁에 세우고 진정을 고이려고 애쓰는 박정인의 성실성과 진의를 조금도 의심하고싶지 않았으며 그 아름다운 심경을 우롱할세라 자기의 마음도 티없이 맑게 헤쳐놓는것이였다.

《선생님, 나를 믿어주시오. 내 젊은 시절에는 길을 잘못 들어 장검을 일찌기 버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나를 잡아주는 손이 있는데 이제야 다른 길에 들어서겠소. 날 다시 애국하는 길에 세워주시오. 겨레앞에 지은 죄를 내 손으로 씻게 해주시오.》

《선생님, 저도 주인의 뜻을 따르렵니다.》

박정인이 자못 엄숙한 어조로 정시명의 말을 받자 그때까지 고개를 다소곳이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부인이 곁들어나섰다.

녀인은 며칠전부터 남편의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곁에서 목격해왔던지라 여차하면 모처럼 차례진 이 기회를 잃을듯싶은 조바심이 나서 한마디 내비친것이였다.

정시명은 내외가 극성스럽게 인사를 차리자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여러번 곱씹었다.

박정인은 그들이 돌아간 후 일체 잡인출입을 금하게 하고 언제 그랬는가싶게 마작놀이도 술놀이도 싹 걷어치웠다.

그리고는 안팎청소를 주관하고 집안사람들모두가 옷차림도 정결하게 하고있도록 단단히 신칙을 하였다. 정시명일행이 들어오기 전날에는 궁궐같은 집이라 여러 사람이 여러가지 명목으로 지내왔는데 사례금을 후하게 주어 다 보내고 사랑채에서 살아온 길철의 누이 길봉례만 남겨놓았다.

× ×

정시명은 박정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 사업거점을 튼튼히 꾸리는 일에 달라붙었다.

흥국상회사무실을 기본거점으로 만들어 리용할 생각도 해보았으나 사람출입이 너무 많은 곳이여서 이따금씩 나타나 사장행세를 해보이기로 하고 기본거처지는 박정인의 집으로 눌러놓았다.

집주인과의 호상관계부터 합리적으로 하였다.

박정인의 생활형편으로 보아 세놓이로 준 방을 얻어쓴다면 곧이들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박정인과는 만저우에서 공동으로 농장일을 보던 친구간으로서 얼마전에 귀국하여 이곳에 림시로 거처하는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정시명이 중국실정을 잘 아는 조건에서 누가 와서 탐문하더라도 걸려들것이 없었다.

그는 사업거점의 특성과 신분에 맞게 자신의 변장도 잘하여 놈들의 수사망에 사소한 단서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정시명은 박정인의 도움을 받아 이제까지 입고 다니던 국민당의 대령계급장을 떼낸 군복을 벗어던지고 박정인이 입고 다니던 모본단바지저고리에 양단조끼를 입고 그우에 락타직외투를 걸치였다.

그렇게 차리고나서면 마치도 몰락한 시골지주나 돈깨나 건사하고있는 유생으로 보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능란하게 옷차림도 바꾸어가면서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행정기관의 고관이나 재판소의 판사로 되기도 하였다.

변장술에 따르는 실무지식도 전문가들에 못지 않게 수준이 높아 누구에게나 그대로 통할수가 있었다. 정시명은 장사치들속에 들어가면 해박한 장사물계로 쉽게 어울리고 지식인들과 마주앉으면 바닥없이 펴내는 심원한 지식으로 그들을 취하게 하였다. 정치인들과 마주앉으면 시국에 대한 명석한 견해로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것은 물론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정력과 사업에 대한 심오한 연구로부터 이루어진 노력의 열매였다.

박정인의 생활에서는 눈에 뜨이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중대문우에 다락을 만들었다. 모임이 있을 때면 주씨와 함께 거기에 올라 마작을 놀면서 바깥동정을 살피였다. 정시명일행의 숙식도 다 맡아 보장하였다.

그러는사이 정시명의 도움으로 안주에서 살던 부모들이 아들곁으로 왔다.

박정인은 부모들까지 서울에 오자 만시름을 잊고 정시명의 사업을 성의껏 도와나섰다.

그는 아버지에게 장기를 배워주어 다락우에 올라가서 자기대신 망을 보도록 하고 자신은 사업에 참여시켜달라고 정시명에게 졸랐다.

정시명은 박정인의 청을 쾌히 받아들였다.

어느날 박정인은 이목구비가 번듯하게 생긴 청년을 데리고왔다.

《선생님, 제 아들이올시다. 좀 애국자가 되게 해주시오.》

정시명이 박정인의 무랍없는 청탁을 받고 망설였다.

충청남도 도청 총무과장으로 있다는 박영수는 첫인상에 아버지를 닮은것이 무척 호감이 갔다.

그러나 주씨부인이 금지옥엽으로 키워왔다는 외독자라는것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들었다.

《아주머님과 의논이 되였습니까?》

《선생님, 애국자로 되는데도 어머니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까?》

정시명의 얼굴을 응시하던 박영수가 주저없이 받아넘긴다.

《허허… 그래, 그렇지… 그건 누구도 막을수 없는 각자의 권리지. 좋소, 생각해봅시다.》

정시명은 박영수의 꾸밈새없는 말이 마음에 들었지만 인차 결심은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박정인이 자못 섭섭해서 한마디 하였다.

《얘가 경성제국대학을 나왔다고 그러시오? 아니면 외아들이라서 마음 쓰시는게 아니시오?》

《그런 생각도 바이 없는게 아닙니다. 아드님까지 우리 일을 하면 결국 박선생네 집안은 3대가 어려운 일에 나서게 됩니다.》

《원 3대가 다 나라를 위해 나선다면 그보다 긍지로운 일이 어데 있겠습니까.》

정시명이 그의 말에 코마루가 찌르르해왔다.

그래도 박영수만은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싸움에서 비켜주고 싶은 생각은 어찌할수 없었다.

《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에 기어이 선생님들 휘하에 맡기렵니다. 그래서 렴치불문하고 아래웃턱을 뛰여넘어 감히 선생께 청탁드리는게 아닙니까!》

박정인의 절절한 당부가 정시명을 더 빠져나갈수 없게 하였다.

그는 끝내 마음이 동하여 고개를 끄덕이고말았다. 박정인도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고는 아들을 남겨두고 물러갔다.

《앉으라구.》

정시명이 그의 옷섶을 잡아 방바닥에 앉히고는 담배를 꺼내 권하였다.

《한대 태우지.》

《전 아직…》

《아버지도 담배는 태우지 않더구만. … 입에 붙여보지 않았으면 아예 버릇을 굳히지 않는게 좋지. …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알고있나?》

《예.》

《난 영수한테 아무런 약속도 해줄수 없소.》

《알고있습니다.》

《좋아. 다만 내가 믿고있는것은 우리가 나라의 운명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겨레의 고통을 덜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나간다면 후손들이 우리더러 애국충신으로 불러주리라는것이요.》

《더 바랄게 없습니다.》

정시명은 더 옹골차고 사내다운 억세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도 투쟁대오에 세워주기로 결심하였다.

그것은 이젠 귀중한 전우가 된 박정인의 부탁이다. 그리고 본인의 소망이다. 애국의 대오에 들어서는것은 박정인의 말대로 행복이요, 영광이다. 그 누구도 그걸 향유하고저 하는 이 시대 참인간들의 권리를 막지 말아야 한다.

첫 임무를 주었다.

《이제부터 일체 좌익의 운동에 관여하지 마오.》
《네?》
《될수록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하오.》
《뭐, 도지사쯤은 자신있습니다.》
《도지사?… 고작해서…》
《네?》
《허허… 좀더…》
정시명은 유쾌하게 웃었다. 박영수도 한껏 긴장되여있던 속을 풀고 희멀쑥한 얼굴에 웃음을 담았다.

5

정시명은 어느날 안지생을 만나 장시간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
안지생은 서울에 돌아온 후 김구가 거처하는 서울 죽첨동의 경교장에서 김구의 련락원으로 있었다.
경교장은 서대문 네거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지금도 고려대학병원 본관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있다.)
본래는 신의주에서 살던 으뜸가는 광산업자 최창학의 소유였다. 8.15후 적산가옥으로 되였는데 귀국한 김구가 아들을 데리고 자기 비서들과 함께 지내게 되였다.
김구가 경교장에 틀고앉으면서부터 여기는 우익진영의 정치참모부가 되였다. 하루에도 수십명의 우익계인물들이 들락날락하였다.
안지생은 그들속에 끼여서 그들에게 일정한 영향도 주고 동향도 장악하였다. 김구나 《림정》패의 우두머리들은 안지생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인정하고 여간 귀여워하지 않았다. 그가 있는데서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극비밀에 속하는 이야기도 나누군하였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본다면서 꼭꼭 안지생이더러 상정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가 내놓

은 의견이 신통해서 모두들 혀를 찼다.

안지생은 김구가 지금 명백히 우익에로 기울어져있다고 결론을 먼저 내리였다.

그가 《림정》계를 중심으로 자기 진영을 구축하고있는 자료들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나의 소원》이라고 표제를 단 김구의 구술원고부본도 있었다. 곧 발표될것이라 한다.

이 책을 보면 미국놈들이 김구를 멀리하는 까닭을 알게 될것이라고 주해를 달았다. 김구의 얼굴이 있다는것이다.

안지생은 리청천을 건드려 우익적인 청년조직인 대동청년단이라는 조직을 무슨데 대하여서도 보고하였다. 정시명이 기다리던 보고였다.

리청천은 리범석의 《족청》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안지생의 이야기에 처음은 껄껄 웃기만 하였다. 까짓거 내버려두라는 배심이였다.

리범석의 놀음판을 자기가 뒤에서 끈을 달아 당겼다 늦추었다 한다는것이였다.

(안되겠다.)

안지생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리청천은 리범석의 정치적야심에 대하여 전혀 방심하고 그전날 자기의 수하부하정도로 알고있는것이다.

그래서 어느날 안지생은 《족청》의 중앙훈련소로 그를 데리고 갔다.

리청천은 리범석이 도대체 무슨짓을 벌려놓는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따라섰는데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까무라치듯 놀랐다. 훈련소정문에는 리범석의 안경쓴 초상이 걸려있고 훈련소의 방들마다 그놈의 훈시가 나붙어있었던것이다.

《이놈의 자식!》

리청천의 입에서 대바람에 쌍욕이 터져나갔다.

리범석이 《제가 힘을 키워 리청천장군의 정사를 받들겠수다.》 하던 말은 궤변이였다.

리청천은 밸머리가 사납게 꿈틀거렸다. 당장 그놈의 목줄을 짓뭉개버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원래 리청천은 류동명에 이어 광복군총사령관노릇을 할 때부터 제놈의 밑에서 참모장으로 있던 리범석의 처세술과 탐위주의적 근성을 잘 알고있었지만 일이 이 정도로 벌어질줄은 몰랐다.

《족청》이 무엇때문에 생겨났으며 무엇을 노리고 움직이는가 하는것이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였다.

(지생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였구나.)

그리하여 그는 중국에서 쟝지에스의 중앙군관학교 특설반 책임자로 있던 시기 때를 묻힌 사람들을 내세워 대동청년단이라는것을 부랴부랴 조직하였다.

처음에는 대동청년단(대청)에 북반부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점차 리범석의 《족청》에서 탈단한 우익계청년들도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대청》세력이 강화되자 가는 곳마다 《대청》과 《족청》은 자파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물고뜯으면서 코코에 충돌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가지고 상대방의 세력을 분렬약화시키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몄다. 때로는 백주에 서울네거리에서 피비린 란투극까지 벌려놓았다.

이놈들은 지어 남조선 군부, 사법, 검찰기관에서도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물어채는 놀음을 벌렸다. 이것은 반동적인 청년들을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묶어세우려고 책동하고있는 미제의 야망을 분쇄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싸움을 붙여놨으니 이제 두고보십시오.》

안지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며 빙긋 웃었다. 왼볼에 보조개가 살짝 패우는 이 처녀같은 청년을 두고 누가 그 엄청난 투쟁의 조직자라고 믿겠는가.

정시명은 사랑과 믿음에 넘쳐 짤막히 치하했다.

《잘했구만!》

정시명은 김구계렬과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사전준비를 잘 벌릴데 대하여 강조한 다음 안지생을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이내 김구의 구술원고를 읽었다.

그 한 대목에서 눈길이 멎었다.

《일찍 어느 민족안에서나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 정치적리해의 충돌로 하여 두파, 세파로 갈라져 피흘리며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다.

그러나 지내놓고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잔 뒤의 초목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겯고 한 수풀을 이루고 살고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라는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흥망성쇠의 인연에 얽힌 한몸으로 이 땅우에 남는다.》

정시명은 책을 덮고는 벽에 허리를 기대고 생각에 잠겼다.

볼이 심술스럽게 처진 김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림정》을 중심으로 모두가 뭉쳐줄것을 바라는 그의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였다.

리승만에게도 추파를 던지고 홍명희, 려운형, 리극로 등 중간파 거물들에게도 손을 내밀고있다는 김구의 자세가 엿보이는 글이였다.

그래도 이 글에는 사상을 경시하고있는 제한성은 있지만 민족의 영원함을 주장하는 애국심이 진하게 깔려있다. 안지생이 방금 남겨놓고간 말이 생각났다.

《여기에 백범선생의 얼굴이 있습니다.》

정시명은 제 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시명은 또하나의 문건을 꺼내들었다.

리승만이 독립촉성협의회에서 한 연설문이였다. 그도 자기 두리에 뭉쳐줄것을 호소하고있다.

(진을 꾸려야 한다. 애국의 진을.)

정시명은 안지생의 말을 조용히 외워보았다.

모두가 바삐 뛰고있다.

미국놈들은 그놈들대로 제놈들의 정책집행을 말아줄 정치집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뛰고있다.

반동세력도 이 땅에서 대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안깐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도 뛰여야 한다. 시간을 놓치면 모든것을 놓친다. 어정거려서는 안된다.

진을 꾸리자. 어서바삐! 한시바삐!

정시명은 야릇하게 엄습해오는 불안과 초조감에 휩싸여 다시금 조용히 부르짖었다.

그의 눈앞에 남조선의 정치세력의 중심을 이루고있는 려운형, 리승만, 김구, 김규식 등 여러 인물들이 일시에 떠올랐다.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겠는가.

누구를 중심으로 애국의 진, 통일지향의 대오를 무어야 하겠는가.

송호정, 류동명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들도 마땅히 우리의 대오에 서야 할 사람들이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한 사람도 가볍게 따라나설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제 6 장
그들의 대답

1

송호정내외가 일요일에 정시명더러 동부인하여 와달라고 전해왔다. 송호정의 생일인데 다른 손님을 청하지 않겠으니 꼭 오시라고 송호정의 처가 각근히 당부까지 하였다.
정시명은 때마침이라고 쾌히 응하였다.
이날 점심상을 물린 뒤에 정시명이 민순임에게 경비대 총사령관의 댁으로 가자고 말하자 그 녀자는 가뜩이나 크고 어질게 생긴 눈부터 뗴꾼해졌다.
《원참, 제가 어떻게 그런 댁엘 다 간다고 그러십니까?》
《당신이 어째서?》
정시명이 반문하였다.
《촌녀자가 갈 집이 따로 있지. 전 못가요. 괜스레 따라나섰다가 당신께 무슨 망신을 시킬려고…》
《촌녀자?… 허허… 망신은 또 무슨 망신… 괜한 걱정이요. 송호정은 내 친구구 또 그사람 처도 촌에 살던 녀자요. 내 보건데는 그 녀자가 당신보다 나은데가 별로 없는것 같은데 어서 차빌 하오. 자식들은 아직 아이들이라오.》
《정 데리고가실라면 례영일 데리고가세요.》
민순임이 여전히 지체가 높은 댁에 가는게 여간 걱정스럽지 않아 바재인다.
그러지 않아도 요새 민순임은 서울생활이 덧쌓여갈수록 괜히 남편을 따라왔다고 후회가 크다. 옆에서 가만히 여겨보면 남편하는 일이 여간만 중요한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자 겨우 면무식을 한 자기로서는 전혀 도움이 될 일거리가 없다. 남편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하나같이 자기가 촌에서 보아왔던 례사로운 사람들이 아니였다. 누구이든 들어서는 사람들은 인사하는 법도부터 다르고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막된것이 없고 씨알이 배

기고 기품이 어려있어 범접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자기를 만나면 깍듯이 사모님이라 부르군 하는데 그 부름말부터가 듣기가 거북살스럽기 그지없다. 차라리 촌에서처럼 불러주면 좋으련만 한사코 사모님이다. 그래서 민순임은 자기는 될수록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고 허드레일이나 맡아안고 돌아가면서 제가 나서야 할 자리에도 우정 례영이를 내세워온다.

그러면 눈썰미있고 마음씨고운 례영이 민순임의 눈치를 알아차렸는지 군말없이 민순임의 어려운 구석을 대신해서 엉치가볍게 돌아가군 했다.

이런 일이 거듭될수록 민순임은 자기가 남편을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남편의 인끔을 떨구지나 않는지, 그에게 여러모로 부담거리로 되지 않는지 걱정스럽기만 하였다. 그저 그립던김에 가자는 말 한마디에 아무 생각없이 자리를 훌훌 털고 쫓아온것이 여간 후회되지 않는다. 그러다가도 밤샘을 하며 일하고 끼식도 번져가는 남편을 맞아들일 때면 자기가 옆에 있는것이 다행스러워지기도 하였다. 누가 제처럼 밥상을 마주하고도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대접해야 한술이라도 더 맛나게 들겠는가고 다심하게 봐주랴 싶은 생각에서였다.

사실 민순임은 이제야 비로소 안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는듯싶다.

평산집에 있을 때는 큰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앉아 엄한 시부모와 시댁의 여러 식솔들의 눈치를 보느라 언제 남편되는이의 식성을 헤아려볼 겨를이 없었다. 워낙 정시명이 그걸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런데다가 잔정을 쏟을만한 기회도 차례지지 않았다.

오래전에 자기에게서는 지나쳐버린 그 생활의 단맛을 이제야 찾은것이다. 그러나 그러루한 달콤한 사랑의 정도 날이 바뀌여갈수록 시들해가고 남편과의 하늘땅같은 차이를 메꿀수 없다는것을 깨달으며 후회되는 마음이 커만갔다. 남편도 자기의 속내를 알아차린것 같다. 그래서 될수록 자기 속을 홀가분하게 해주느라고 마음을 쓴다.

사실 정시명은 한편으로는 민순임을 편하게 해주고싶어 그앞

에서는 스스럼없는 바깥주인노릇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해의 성장을 소리없이 밀어주고 보살펴주었다. 하기에 오늘과 같은 자리에도 굳이 그를 데리고가려는것이였다. 민순임이 아무리 촌녀자라고 자기스스로 어깨를 떨구어도 어쨌든 그는 김정숙동지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해방된 내 나라에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어떤 의미에서 중국의 명문대학인 베이징대학 졸업생인 송호정의 처에게는 자기 말 백마디보다 촌녀자의 흙냄새나는 말 한마디가 백배의 설득력으로 귀에 들어갈수 있다. 그러니 송호정과의 사업을 위해서도 민순임을 꼭 데리고가고싶었다. 오늘저녁에는 송호정과도 단단히 셈을 치를 작정이였다.

《여보, 그래도 당신은 **김일성**장군님치하에서 살아본 녀자가 아니요. 당신이야말로 북조선의 대표라고 할수 있소.》

《제가요?》

민순임이 기겁을 하듯 소리질렀다.

《그럼, 리녀맹부위원장까지 했는데 그게 어디요. 남들을 쳐다만 보지 말고 굽어보란 말이요. 서울녀자들보다 못할게 뭐요?》

정시명이 이렇게 안해를 고무해주었다.

남편이 타이르는듯한 이야기가 민순임의 귀에 쏙쏙 들어왔다.

끝내 민순임의 마음이 움직이고야말았다. 그는 이내 주씨와 의논하였다.

큰 어른의 집으로 가게 되였다는 소리에 주씨는 제일처럼 좋아하며 동대문시장부터 돌아보자고 하였다. 심덕이 후한 주씨는 민순임과 나이도 성미도 생김새까지도 비슷한데가 많다. 이런 일에서 경험자인 주씨는 술가게에 가서 덮어놓고 제일 비싼 술로 두병을 샀다. 과자, 사탕도 반짝거리는 쇠곽에 담은걸로 사서 구럭에 넣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래도 절기에 따르는 나들이옷을 꼭 갖춰놓아야겠다고 하면서 한사코 양복점으로 가자고 했다.

그 소리에 민순임이 《아이구 성님, 그러지 말아요.》 하며 한길 뛰였다.

《바깔량반이 아시면 쫓겨나게요. 호호. …》

《호호. …》

두 녀인이 길가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한참 웃었다.

그럴만한 일이 있었다.

이 집 대문안에 민순임네가 들어선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이였다.

주씨가 민순임의 손에 슬그머니 두툼한 돈봉투를 쥐여주었다.

민순임이네 량주와 례영이, 동열이의 옷 한벌씩 마련하라는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동열이는 쟝지에스군의 군복을 벗지 못하였고 정시명의 옷차림도 보기가 딱할 정도였다. 그러나 민순임은 그 돈을 선뜻 받을수가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한푼 보태주는것없이 여러 입이 집살림을 갉아먹고있어 늘 미안쩍기 그지없었던것이다. 그래 순임이 한사코 사양했지만 주씨가 여러 말로 눌러놓고 기어이 손에 돈을 쥐여주었다.

그날저녁 민순임이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정시명이 여느때없이 대뜸 성을 냈다.

《당신두 참!… 지금 흥국상회가 겨우 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 옷장만을 하려구 돈을 받는단 말이요? 큰집 담장안에 들어서더니 마나님행세를 하려는게 아니요. 당장 갖다드리오. 그런 일이야 당신이 눈썰미있게 처리를 해야지. 성의라구 다 받아들여서야 인사법도가 제대로 되겠소.》

민순임은 마나님행세를 하려는가 하는 말에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찔끔 나게 분이 치밀었으나 찍소리 한마디 못한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정시명이 문을 열고 나서는 그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는 그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이튿날 정시명은 그 돈을 마동열에게 주어 화신백화점에 가서 고성능라지오 3대를 사오게 했다. 한대는 마동열에게 주고 한대는 자기 방에 가져다가 설치하였다. 중국에서부터 애용해왔던 라지오가 있기는 했으나 이제는 하두 오래된것이여서 잡음이 많고 고장이 자주 생겨 소리를 놓치는 일이 빈번하였던것이다. 나머지 한대는 박정인에게로 들고갔다.

《박선생님, 이제부터 저녁 10시가 되면 이걸 틀어놓고 평양

의 목소리를 듣군 하십시오. 제가 못듣는 날도 있을테니 들어두었다가 수고스러운대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리다.》
박정인은 인차 정치에 밝지 못한 자기의 눈을 밝게 해주려고 왼심을 쓰는 정시명의 웅심깊은 생각을 알아차리고 군말없이 정중하게 접수하였다.
실지 박정인은 라지오를 들으며 크게 달라져갔다. 어떤 때는 뒤방에 주씨와 함께 앉아서 여러 시간 평양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평양의 음악에 취하여 무릎장단을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씨는 자기가 준 돈이 라지오가 되여 되돌아왔다는것을 알자 기가 막혀 후에 여러가지로 수를 써보았으나 이날이때까지 종시 새옷을 장만해주지 못해 여간 속을 썩여온것이 아니였다. …
길가에서 한참 웃고난 주씨가 정색해서 말했다.
《동생, 너무 그렇게 네돈 내돈 그러지 말아요. 써야 할 일이라면 써야 될게 아닌가요. 자, 어서 가요. 옷주제로 큰 어른들께 흠이 되게 해서야 안될 일이 아니우.》
주씨가 이렇게 말하며 막무가내로 끄는데야 민순임이도 어쩌는 수가 없었다.
주씨는 아예 양복점에 들어선김에 네계절에 갈아입을 옷을 일식으로 맞추게 하고서야 흐뭇해서 나왔다.
그렇게 하고보니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집에 들어선 민순임이 옷궤를 열고 집에서 입고온 진회색 무명치마저고리를 꺼냈다. 평산을 떠나기 전에 맏동서가 쌀 한말을 이고 읍에 나가 바꿔가지고 와서 제 손으로 밤을 새워 만들어준것이였다. 민순임이 손에 펴들고 다시 다림질을 해야 되겠는지 망설이는데 례영이가 강습소에서 돌아왔다.
례영이는 민순임이 저녁에 고관댁에 정시명과 같이 가게 되였다는 말을 듣자 손벽을 치며 좋아하였다.
《나도 따라갈가?》
《참, 그러자꾸나.》

민순임이 그 소리에 좋아서 고개를 끄덕거려보였다.

그러나 례영이가 눈을 깜빡거리다가 고개를 살래살래 내저었다.

《난 안갈테야요. 모처럼 아버님 모시고 나들이 가는건데. 서울 구경삼아 재미있게 산보도 해보세요.》

《얜 새빠지게 산보가 다 뭐냐? 너의 아버진 총각시절에도 나 보기 싫다고 서울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나이 마흔 지나 무슨 놈의 산보냐. 남들이 웃겠다.》

《호호, 어머닌… 누가 봉건인지 모르겠네. 자, 인주세요. 다림질은 제가 해요. 그런데 이건 색갈이 너무 무거워…》

례영이 이렇게 태없이 굴며 민순임에게서 옷을 빼앗아들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민순임이 례영의 뒤모습을 보다가 자기도모르게 《호호.》하고 웃었다. 곁에 있으면 정이 쏙쏙 들게 하는 례영이 날이 갈수록 탐이 났다. 도회지에서 홀어미품에 곱게 자랐다는게 일손이 어찌나 바지런하고 엉뎅이가 가분가분한지 집에 들어서면 한시도 가만있지 않는다. 인사범절도 얼마나 밝고 스스럼없는지 보는 사람마다 귀한 딸 곱게 키웠다고 치하를 했다. 거기에 인물 또한 서울장안을 두루 봐야 비할이가 없을것 같다. 어쩌다가 저런 보배가 날아들었을가. 례영이가 곁에 붙어사는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생각할수록 꿈만 같다. 남편이라는이는 하루가야 이야기해볼짬이 없는 사람이고 원래 집안에서는 쓰다달다 군말이 없는 사람이다.

례영이 그가운데 끼여있어서 다행히도 언제나 집안에 향기가 있고 즙이 흐르는것 같다. 어떤 때는 집에 있는 맏이와 마음속으로 나란히 세워보기도 한다. 그애가 해방바람에 혼기를 놓쳤다는 말은 듣지 않게 되였지만 전같으면 로총각이라는 말을 들을 법 하다.

례영이를 맏이의 옆에 앉혀놓고 평생을 끼고 살았으면 여북 좋으랴.

지금도 민순임은 때없이 떠오른 이런 생각을 굴리며 그가 사라진 방문쪽을 취한듯 서서 바라보고있었다.

《동서가 있수?》

바깥에서 주씨의 소리가 났다.

민순임이 얼른 나들문을 열어주었다. 주씨가 연한 곤색의 비단옷을 들고 서있다.
《이 옷을 입고 가면 어떨가?》
《아유, 됐어요. 그 귀한걸 뭘요. …》
《입고 가세요. 내겐 여벌이 있으니 입고 다녀요. 선생님의 손들이 어떤분들이예요. 자, 한번 입어봐요.》
주씨가 문지방을 넘어서며 권했다.
민순임은 주씨의 권고가 고마와 인차 비단옷을 갈아입었다. 생전에 처음으로 감아보는 비단옷이다.
둘의 몸매가 비슷한데가 있어 민순임에게도 꼭 맞는다.
그의 옷매무시를 봐주던 주씨도 《됐수다. 난 치마가 좀 짧지 않을가 했더니 그렇게 입으니 일없군요.》 하고 신통해하였다.
례영이가 두런두런한 말소리에 방문을 빼써 열고 내다보다가 민순임이 비단옷을 차려입은것을 보자 눈이 휘딱해졌다.
《아니?!》
례영이 방에서 나와 마치도 화신백화점 진렬대에 서있는 커다란 인형을 둘러보듯 민순임의 주위를 한바퀴 휘 돌고는 《이렇게 차리니 어머님 초례청에 나선 새각시같애.》 하며 기쁨에 차서 깔깔거렸다.
《얘, 가살을 떨지 말아. 쑥스럽다.》
민순임이 이렇게 말하는데 례영의 말이 듣기가 나쁘지는 않는지 어리무던해보이는 얼굴에 발깃한 색갈이 점점이 물들어오른다. 평생을 이어온 농사일로 앞으로 약간 휘여든 실팍한 어깨와 기둥같이 굴곡이 없는 굵은 다리며 밋밋하게 뻗어오른 몸통이 두터운 비단천에 가리워지고 서울에 와서 살점이 오르기 시작한 크고 너부죽한 얼굴만이 그 비단우에 달처럼 환하게 솟아있다. 크고 둥글고 어질게 슴벅거리는 두눈도 이렇게 차리고보니 시원스러운게 풍만한 몸과 넙적한 얼굴에 꼭 어울린다.
《그런데 그 머리가…》
민순임의 곁에서 예쁜 눈을 반짝거리며 돌아가던 례영이가 흠잡을것을 찾아낸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큰어머니, 어떠세요. 머리모양새가 너무 구식이 아닐가요?》 하고는 주씨의 대답을 들을념도 없이 제 방에 가서 키낮은 외면경대를 내오고 그앞에 옷궤를 갖다놓았다.

《자, 앉으세요, 어머니.》

례영이는 민순임이를 끌어다가 옷궤우에 눌러앉히고 쪽진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냈다. 그리고 날랜 손기로 트레머리를 해서 뒤쪽에 붙이고는 제 머리에 있는 빈침을 뽑아 끼워놓았다. 그래놓으니 뒤쪽머리가 붕긋이 솟아올라 모양새가 한결 의젓하게 달라졌다.

《례영의 손이 정말 보배다. 참 보기가 좋구나.》

주씨가 맞장구를 치는데 례영이 얼른 민순임의 머리에 향수 몇방울을 이슬털듯 떨구었다. 삽시에 방안에 향내가 피였다.

《얘, 이건 또 무슨짓이냐.》

민순임이 덴겁을 하였으나 례영이는 호호— 웃으며 동백기름까지 손에 발라가지고 민순임의 머리를 비다듬어 내리였다.

《얘얘, 정말 남들이 웃겠다. 이젠 됐다.》

《봐요. 이젠 촌내촌내 하지 말아요. 촌내는 다 없어졌어요.》

례영이는 시치미를 떼고 민순임의 머리를 그냥 다듬으며 핀잔을 준다.

정시명은 이날 일찌기 집을 나섰다. 송호정이 차를 보내주겠다는걸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날오후는 안해를 위해 시간을 내기로 속구구를 했던것이다.

례영이와 함께 뒤따라나온 민순임을 보자 정시명이 저도모르게 입귀가 벌어졌다. 민순임이도 제풀에 어색해하며 《얘가 촌내를 없앤다고…》 하고 뒤말을 가무렸다.

《그렇게 차리니 보기가 좋구만. 그렇지만 촌내가 어떻다구…》

정시명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한결 의젓하고 미끈해진 안해의 모습이 싫지 않아 비주름히 웃었다.

《얘, 너때문이다.》

민순임이 이렇게 례영이를 빗대고 흘기고는 제먼저 대문밖으로 달아났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례영이 캐득거리며 그의 등뒤에 대고 손을 흔들었다.

례영이는 정시명내외가 자리를 뜬 후 잠시 동안을 두고 마동열이 대문가에 나타나자 눈을 빨며 그를 막아나섰다.

《오빠ㅡ》

례영이가 나직이 여러 말을 쏘아붙이는데 마동열이 히물거리며 그냥 대문을 열려고 하였다.

《아유 눈치두… 오늘은 제발 따라다니지 말아요.》

《참, 이렇게두 맹꽁이 한가지라구야. 이게 뭐 나들이가는 길인줄 알아?… 좋아, 내 절대로 사모님 눈에 띄지 않겠다는걸 맹세하오.》

마동열이 정중하게 맹세를 다져서야 례영이는 그를 놓아주었다.

정시명은 이날 민순임을 끌고 서울에서 명소로 일컫는 남한산성과 독립문, 창경원을 차례차례 돌아본 다음 해가 떨어질무렵에 남산재의 류동명의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송호정의 집으로 갔다.

송호정내외는 초대에 응해준 정시명내외를 무척 반갑게 맞았다.

특히 송호정의 처는 두번째로 만나게 된 정시명의 안해를 선뜻 형님으로 부르며 여간 상냥하게 굴지 않았다. 마흔을 갓 넘기였으나 처녀들처럼 몸매가 날씬하고 화장을 진하게 한데다가 이러한 사교에 능하여 몸가짐과 언행이 자못 우아한 맛이 있었다.

그 녀자는 성의껏 차린 생일상에서 민순임의 옆에 꼭 붙어앉아서는 민순임이 제 집에서처럼 편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좌석의 분위기를 재기있게 유도하여나갔다. 그러면서도 북에서 살던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애를 썼다.

저녁상을 물리자 민순임은 부엌에 나가 거둠질을 함께 거들었다.

응접실에서는 자리를 옮긴 정시명과 송호정사이에 인차 시국이야기가 시작되였다.

정시명은 이야기가 북반부에로 곬을 타자 단도직입으로 선언을 하였다.

《난 북의 정치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정치라고 생각하네.》

송호정이 어리둥절해져 《그래서?!》 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뚫어 지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난 북의 정치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네.》

《뭣이? 초야에 묻혀 조용히 살아가겠노라 내앞에서 한 소리는 언제고?》

송호정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조용히 살아갈수 없게 세상사가 찌그러지는데 무위도식할수는 없어.》

《그럼 아직도 공산당하겠는가?》

《물론이지.》

《국방경비대가 북의 공산당과 맞섰다는걸 알지 못하는게 아닌가?》

송호정의 어성이 커지는데 정시명은 여전히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어떻게 하겠나. 우린 팔자가 고약해서 그렇게 맞서가지고도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술상에서는 친구로 되여왔지.》

《빈정거리지 말고 이야기하세. 자네 그러고도 나를 찾아올 체면이 있던가?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집에 말이야.》

송호정의 목소리는 거칠어졌다.

그는 정시명이 중국에서 좌익계에서 활약했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의 사람됨에 머리를 숙여오며 더없는 벗으로 사귀였을따름이였다. 그러기에 송호정은 굳이 서울에 온 정시명이 조용히 살아가겠다는 그 말을 듣고는 안속으로 저으기 기뻐했다.

정시명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를 평생지기로 삼아 교분을 나누며 의좋게 살아갈수 있으리라는 타산에서였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공산주의를 막아나선 일선대결장의 지휘관인 자기앞에 또 공산주의자의 얼굴로 손을 내미는것을 보자 어쩐지 노여움이 앞서고 서글퍼졌다.

《물러가게. 그리고 얼씬말게.》

송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닫이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정시명이 열려진 문을 닫아걸고 같이 어성을 높였다.

《자네가 물러가라면 쫓겨날 정향이 아닐세. 자네가 개질을 그만두기 전에는 난 자네를 놓아주지 않겠네.》

《개질?… 내가 개질을 한다구?》

정시명에게는 이미 송호정과의 이날의 사업원칙이 뚜렷이 세워져있었다.

송호정은 량심적인 인물이다. 그는 의리를 중히 여기며 겨레앞에서 무엇인가 봉사하려는 인간이다. 이런 인간을 애국의 길로 이끄는데는 진실이면 족하다. 송호정이 나를 믿을진대 나 또한 송호정을 믿지 못할 리유가 없다. 이런 인간을 그 어떤 서툰 말재간으로 우롱한다는것은 인간의 의리에 대한 모욕이며 친구의 신의에 대한 배반이다. 개인적우정으로 봐도 그것은 도리에 저촉되는 저급한 소행이다. 일생동안 자기가 뒤에서 봐줄터이니 장사질은 그만두고 소일거리로 남달리 살아온 편력기나 두툼히 써내여 정객들의 머리를 교정시킬 인생독본을 마련하라고 진심으로 권유하던 고마운 벗이다.

그러기에 정시명은 더구나 참아낼수 없었고 물러설수가 없었다.

오늘은 송호정을 단단히 훈계해서 어떻게 하든지 속대를 바로세워주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물쏟아붓듯 거침없는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래, 자네는 평생토록 남의 개질을 하고있지. 그래도 쟝지에스의 밑에서 개질한것은 좀 덮어두고보세. 아무튼 쟝지에스는 일본놈과 헛총질이라도 해본 위인이니 그래도 쟝지에스의 개노릇은 일본놈을 물어뜯은 의로운것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양놈의 개질이 아닌가. 자넨 지금 양놈의 개껍데기를 쓰고있단 말이야.》

《양놈의 개껍데기? 국방경비대는 나라의 국방을 지키고있네.》

《국방?… 누구의 국방? 자네 언젠가 이야기한것처럼 미국놈 중좌한테 아침저녁 보고하러 다니는것도 일국의 국방을 책임진 사령관이 할짓인가? 자네 한번 강화도에 가보게. 거기 척화비에 서양오랑캐와 화친을 하는것은 나라를 파는 역적행위이니 자자손손 명심하라구 새겨져있네. 그래, 지금 미국놈들이 벌려놓는것이 아이들의 유희로 생각되는가?》

《… …》
송호정은 더는 대답을 못하고 거친 숨만 내쉬며 정시명을 쏘아보았다. 그는 점점 눈덕이 무거워지는것을 느꼈으나 여전히 표표한 눈빛으로 눈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듯 안깐힘을 다 썼다.
《자네 지금 도대체 어느 놈의 대문을 지키는가. 나라의 허리를 외세가 잘라버렸는데 그래 그놈들의 발밑에서 동강난 나라의 반쪽을 지키겠단 말인가. 나라의 분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는것이 천추에 지탄받을 역적행위라는걸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 …》
송호정의 눈길이 그만 툭 꺾이여 아래로 접혀들었다. 그러건말건 정시명은 내친김에 할 말을 해야겠다고 여전히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었다.
《우린 마땅히 나라를 하나로 이어놓고 압록강과 제주도에 국방의 진을 쳐야 하네. 그러면 누굴 믿고 나라를 세우겠는가? 리승만?… 어림도 없네. 그 늙다리가 벌써부터 미국에까지 건너가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세워야 되겠다고 로망을 부리고있는걸 자네도 잘 알겠지. 김구?… 어리석은 일이야. 〈림정〉식솔도 거느리지 못해 집안싸움을 그칠새없이 벌리던 김구의 좁은 가슴에 삼천만의 운명을 맡길수 있는가?…
난 선양에서 10월항쟁소식을 들었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나. 나라의 완전독립을 원했지. 배고파 죽겠다 쌀을 내라고 했지. 나라걱정으로 주먹을 쳐들었던 그사람들의 가슴에 경비대는 불질을 했지. 천오백의 애국자가 쓰러졌어. 이만 륙천이 부상을 당했지. 만 오천이 지금도 철창속에 있어. … 뜻있는 사람들은 다 적어놓고 눈에 불을 달고 벼르고있네.》
《그건 자네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난 국방경비대는 한명도 대구에 보내지 않았네. 국민에게 불질한건 미국과 경찰놈들일세.》
송호정이 비명지르듯 울부짖었으나 정시명은 여전히 무겁게 몰아댔다.
《같고같은 족속이야. 조만간에 경비대도 민중도살에 뛰여들어 칼부림을 하고야말걸세.》

그 소리에 송호정이 흠칫 놀랐다. 요새 그의 흉중에 맺혀있는 가장 아픈 급소를 찔렀던것이다. 바로 사처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다. 강심으로 그를 막아나서고있다. 정말 어느때까지 버티여낼수 있을가. 그런데 정시명은 남의 사정은 생각도 없이 제일 아픈 구석을 사정없이 찔러만댄다.

《천만에!》

송호정은 자기의 마음을 다시금 도사려 끝까지 지켜내려는듯 굵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천만에!》

이번에는 정시명이 준절한 어조로 받았다. 그리고 그를 쏘아보며 하던 말을 계속 토해놓았다.

《그래 우리가 무엇때문에 장장 20년 이국땅에 청춘을 묻고 항일을 했나? 가난하고 짓눌리고 천대받던 백의동포를 위해서였지. 그런데 감히 불질을 해? 그렇게도 그립고그립던 우리 겨레의 가슴에?》

정시명은 마치도 송호정이 방금 그 피비린내 나는 살륙장에서 돌아오기라도 한듯 정말 눈에 불을 켜달고 도끼로 장작을 패듯 주먹으로 허공을 연신 내찍었다. 정시명은 자기도 어쩔새없이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통분을 다잡으며 잠시 숨을 가라앉히였다.

다시 차분한 음성으로 타일렀다.

《이보게, 아닌게아니라 나도 복잡한 시국에 산골에 들어가 부대기나 뚜져먹으며 소일거리나 잡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도싶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짧으나 짧은 인생을 뭣때문에 소란스럽게 끝낼것인가 하는 생각도 과히 없지는 않단 말일세. 하지만 조국이 통일이냐 분렬이냐 판가리하는 력사의 준엄한 기슭에서 나라고 어찌 은둔하여 살아가겠나. 그래서 난 다시 민족의 가슴에 칼을 박으려는자들과 싸움을 선언하고 이렇게 다시 자리를 털고나섰네.》

정시명의 사리정연하고 준절한 질책은 송호정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카롭게 찔러들었다.

《음—》

송호정은 창자가 끊어지는듯한 신음소리를 지르며 쏘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난 가네.》
정시명이 애국의 편으로 그를 끌어들이려던 계획이 예상밖의 랭대를 받게 되자 노여움이 부지지 괴여올라 문을 드르릉— 열었다.
미닫이문앞에는 송호정의 처와 민순임이 찬비맞은 새처럼 오돌오돌 떨며 서있었다.
송호정의 처는 처음에는 그들의 말싸움에 기겁해진 민순임의 손목을 꼭 잡고 안심을 시켰다.
《걱정말아요. 저이들은 맞다들면 꼭 한번은 저렇게 수닭싸움을 벌려놓아야 직성이 풀리는분들이죠. 호호.》
그런데 그 도수가 넘어가자 못내 념려되여 달려왔던것이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주인이 몰리는것이 확연했다. 그 녀자는 중국녀자였다. 송호정과 살면서 남편의 뜻을 따른다고 벌써 중국에서 조선말을 다 익히고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던 뜻이 있는 녀인이였다. 녀인은 여느때없이 격한 정시명의 얼굴을 눈물이 그렁해서 쳐다보다가 속눈섭을 살풋이 내리깔았다.
《선생님!… 주인을 용서하세요.》
녀인은 제가 죄를 지은듯 꺼져드는 어조로 용서를 빌었다. 그 눈물어린 얼굴을 마주하니 정시명의 가슴이 불시에 저려오고 그 녀자가 측은해보였다.
《아주머니, 이거 죄송합니다.》
친구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한채 쫓겨나오는 자신이 그녀자앞에서 용렬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어쩌랴. 인간이란 피차에 제 갈길을 타고난 모양이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면 어찌하십니까? 주인을 저꼴로 남기고는 못가십니다.》
송호정의 처는 정시명의 두루마기자락을 잡으며 울먹이였다.
《어쩌겠습니까. 우린 인생고초를 다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이니 피차에 강권으로 나선 길을 돌려세우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정시명은 쓸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아주머님이 빚는 교즈맛을 보려는 오겠수다.》

송호정의 처는 교즈를 맛나게 빚군 하여 늘 정시명의 칭찬을 들어왔다.

그는 순진한 녀인의 마음을 다소간이나마 위로해주고싶어 허거픈 웃음을 보이고는 대문을 나섰다.

골이 잔뜩 오른 송호정의 앞에는 민순임이 실팍한 어깨를 옹송그리고 죄스럽게 서있었다.

《선생님, 저를 욕해주세요. 우리 주인이 저렇게 성내는건 저도 평생에 처음 봅니다. 용서해주세요. 제가 돌아가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순임이 꺼져드는 어조로 저저히 용서를 비는데 송호정이 고개를 푹 떨구었다.

《사모님, 그런게 아닙니다. 제가 정선생과 한두해 지내봤다구요. 제가 정향선생의 뜻을 간혹 거슬려서 욕을 보군 하지요. 달리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주인말씀은 그른데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송호정은 격한 가운데서도 깊이 사귀지 못한 녀인인지라 도리를 지켜 그의 남편을 내세워주었다.

송호정의 처가 민순임의 손목을 꼭 잡고 뜨락을 나서다가 대문가에서 고개를 외로 꺾으며 집안으로 달려갔다. 등뒤에서 《여보ㅡ》하는 녀인의 매운 목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였다. 눈물에 젖어 주인을 타매하는 녀인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렸다.

《당신이 어쩌면… 어쩌면…》

2

정시명이 길가를 나서는데 송호정의 승용차가 따라왔다.

운전사가 시창유리를 내리더니 고개를 내밀고 타라고 하였다.

뒤자리에는 민순임이 앉아있었다.

차는 남산재를 내려서자 종로네거리를 지나 질풍같이 내달렸다.

민순임은 아직도 가슴이 활랑활랑거려 입을 꽉 다물고앉아서 남편의 눈치만 살폈다.

정시명은 승용차에 올라앉아서도 등받이에 등을 붙인채 차창에 언뜻언뜻 스쳐가는 거리의 야경만 내다볼뿐이였다.

승용차가 한강다리를 넘어서자 차를 세우라고 부탁했다.

《댁에까지 모셔드리라고 마님이 분부하셨는데요.》

《됐소. 우린 여기서 걸어가겠소.》

《통인동이 여기서 어디라구요?》

《괜찮소. 고맙소.》

승용차를 바래주고나서 그들은 다리목에서 내려 한강변에 나섰다.

강뚝에서 잠시 초봄의 서늘한 바람을 탐스럽게 마시며 달빛이 비낀 강을 둘러보았다. 잔잔한 물결은 휘영청한 달빛을 안고 쉬임없이 반짝거리고있다.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 한마리가 불쑥 뛰여올라 고요한 수면을 마구 휘저어놓았다. 그러나 강물은 그 자그마한 반발을 무시해버리듯 둥그렇게 퍼져가는 파문을 삼켜버리고 다시 달빛을 담아싣고 유유히 아래로, 바다로 흘러갔다.

그 용용한 흐름을 우두커니 내려다보고있노라니 저도 대중할수 없는 불안에 가슴이 후둑후둑해오고 침울해졌다.

가까운 친구로 생각해왔던 사람이다. 말 한마디면 쾌히 손을 내밀것 같던 벗이였다.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송호정의 말과 거동이 떠오르자 헤아릴수 없는 환멸과 비애가 흉중을 꽉 메웠다. 송호정이 내앞에서 그럴수 있는가. 송호정이 정말 미국이 쥐여준 총대를 자기의 사상과 리념으로 받아멨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송호정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쉽게 달려든게 아닐가.

《여보!…》

민순임이 불러서야 정시명은 소용돌이하는 생각에서 깨여났다.

민순임이 용기를 내여 부르고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뿐이다.

그 둥글고 어진 눈이 촉촉히 젖어있는데 긴 속눈섭끝에 애절한 원망이 가닥가닥 매달려 애처럽게 떨고있는것 같다.
무언의 그 힐난에 정시명은 죄스러웠다.
《여보, 미안하오. 미안하오. … 당신까지 모처럼 데리고와서…》
《저같은거야 뭐랍니까.》
민순임이 나직이 중얼거린다.
《그저 큰일하는분들이 의가 상하지들 말았으면…》
민순임이 영문을 딱히 모르면서도 속상해서 조심스레 말을 했다.
민순임은 바깥사람들 하는 일에 절대로 끼여들지 않으리라 골백번 곱씹어 생각해온다. 제가 나서 도울 일도 없으련만 제같은 촌녀인이 남편하는 일을 도와나선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날 일은 아무리 생각해야 잘된 일같지 않다. 저이도 너무 자기를 다잡지 못한것만 같다.
《같은 말씀도 툭하고 탁하고 다르다고 아버님이 늘쌍 말씀했습니다.》
민순임이 아래입술을 감씹다가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거들어 내놓자 정시명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고개를 숙이는 안해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저으기 자기의 주장을 펴는 안해의 모습이 여늬때없이 의젓하고 믿음이 갔다.
정시명이 감심이 되여 고개를 끄덕이였다.
《당신 말이 옳소. … 하지만 괜찮소. 우린 어차피 딴길을 걷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요. 난 그 량반을 믿소.》
《부인도 마음씨가 여간 참하지 않아요.》
《그 녀인은 중국녀자요. 그리고 실은 주인과 같이 대학을 나왔소. 그들은 대학에서 사귀였다오.》
《그래요?… 저런! 그 말씀 왜 이제야 하세요?》
민순임이 놀라서 걸음까지 세우며 나무람조로 말했다.
《당신이 괜히 주눅이 들가봐…》
정시명이 히죽이 웃었다.
《당신 괄세합디까?》
《아니, 아니예요. … 아무런 내색도 없이 그저 새새 묻더군요.》

《뭘 말이요?》

《우리가 살아온 고향이야기며 북조선이야기지요. 토지개혁이라는게 뭔가, 어떻게 했는가, 지주들이 가만히 있던가, 현물세는 얼마나 내는가, 남녀평등권이란 뭐인가, 녀맹에서는 뭘하는가.》

《뭐라고 합디까?》

《왜 그 좋은걸 버리고 여길 왔느냐고, 서울살이가 후회될게라고 합디다.》

《그래서?…》

《주인이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서울서 중한 일이 기다린다고 해서 따라왔노라 했지요.》

《하, 거참… 당신은 사업을 잘해냈구만.》

《사업이요?》

《그런게 바로 사업이라는거요. 우리 일이 별게 아니요.

생각이 짧은 사람들에게는 보탬을 주고 옳은 길에서 비켜선 사람들은 바로 들어서게 해서 모두가 나라위해 살도록 하는거요. 당신 참 수고를 했소.》

정시명이 진심으로 고마와하며 밝게 웃었다. 과연 민순임은 이날 자기가 소리없이 맡아안은 몫을 소리없이 잘해낸것 같다. 무겁던 가슴 한귀퉁이가 들리는것 같다. 안팎으로 흔들어대느라면 송호정이 제아무리 질겨먹은 뿌다귀에 보짱을 세워놓았다 해도 견디여내지 못할걸. …

《자, 갑시다!》

정시명이 걸음을 재촉했다.

머리우에서 밤새가 청아한 가락으로 강반의 정적을 조용히 흔든다. 방축에 올라서니 동전만한 잎새가 불린 버드나무가지들이 흐느적이는데 그사이로 휘늘어져내리는 달빛이 춤추듯 그들의 몸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이쪽저쪽으로 숨기도 한다. 벌써 여기저기에는 남녀청춘들이 쌍쌍이 붙어앉은 모습이 달빛에 어려 이채롭게 눈에 띄였다.

민순임이 그런 광경들에 자주 곁눈이 돌아가서 《이봐요. 여긴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들어설 곳이 아닌가봐요.》 하며 쑥스러

워했다.
정시명이 그 말에 껄껄 웃기부터 한다.
《그래, 저런 시절은 지나갔지. 여보, 거 뭐 우리도 여기 잠간 앉았다 갑시다. 보오. 얼마나 좋소! 달빛도 좋고 강물도 좋고 봄바람도 좋고…》
정시명이 방축우에 아무렇게나 퍼더버리고앉으며 아름다운 강반의 밤경치에 취해든듯 감개에 떠서 속삭인다.
돌이켜보면 이렇듯 제멋에 들떠서 안해와 더불어 강반에 나서보기는 그와 인연을 맺은이래 처음인것 같다.
은근히 취기가 오른것이 더구나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얼마나 교교한 달빛인가. 희푸릿한 달빛을 받은 안해의 둥실한 얼굴도 이밤따라 유별히도 정이 간다.
송호정으로 해서 흐려졌던 마음이 부신듯이 사라졌다.
《자, 어서 이리 와서 앉으라는데두… 우리도 한번 젊은 시절에로 돌아가봅시다.》
젊어서는 희망속에 살고 나이들어서는 추억속에 산다고들 한다.
나이든 부부들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라면 두말할것없이 자기들의 사랑의 첫기슭에 얽혀있는 가지가지 사연들일것이다.
《원, 참 당신은… 이럴 때도 있었구려.》
민순임이 정시명의 손에 손목을 잡히운채 쑥스러운듯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쩐지 가슴안이 일렁일렁 달아올라 남편의 곁에 와서 무릎을 세우고 다소곳이 앉았다.
민순임에게 젊은 시절의 사랑의 이야기를 구태여 묻는다면 기다림과 그리움의 추억만을 담을것이다.
기다려지던 애인… 그리워지던 남편… 이게 전부다.
애모쁜 그리움속에 시작되여 기다림속에 영영 멀어져간 젊은 시절.
무슨 다른 얘기가 없을것 같다.
《여보, 생각나오? 서울하숙집말이요.》
정시명이 문득 꺼낸 소리였다.
《서울하숙집?…》

뜨아한 어조로 반문하던 민순임이 그만에야 《원 당신두, 생강스럽게…》 하고 처녀시절처럼 수집어 어쩔줄 몰라한다.

《하하…》

정시명은 민순임이 열적어하는게 보기 좋은듯 소리내여 웃었다.

정시명이 배재학교 2학년때다.

지난 학년말방학에 집에 갔다가 아버지의 강권으로 웃마을에 사는 민순임과 선을 보고 왔던 정시명은 결혼식을 하게 약조가 되여있는 2학년 겨울방학에는 우정 서울친구들의 집에서 어정거리면서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

결혼식준비를 다해놓고 신랑쟁이 오기만을 눈이 까매서 기다리던 집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형이 찾아온다, 처남되는 이가 찾아온다, 연방 아버지의 엄명이 날아왔으나 당자는 태평스럽게 도서관에 붙박혀 적색도서들만 읽고있었다. 정시명의 생각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결혼할 심산이였다.

그런데 어느날 하숙집에 들어가니 뜻밖에도 민순임이 와서 허리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오도카니 한구석에 앉아있었다. 정시명을 데리러왔던 처남이 결김에 《그사람 분명히 서울체네들을 봐두고 다니는것 같으니 네가 한번 서방될 사람 시원히 만나보고 오너라.》며 강다짐으로 서울에 끌고나와 자기는 돌아가고 민순임만 남겨놓았던것이다.

일은 그뒤가 난사였다. 같이 하숙하던 동무들 셋이 따라들어왔는데 정시명이 얼른 《우리 누나요.》 하고 소개해버린것이다.

그렇게 소개해버리고나니 일은 더 우습게 번지고말았다. 동무들이 친구의 누나로 깍듯이 인사를 개올리는데 민순임이 정시명의 누나역을 하기는 더욱 서툴었다. 차라리 누이동생이라 불러주었으면 어색한대로 처신을 하겠는데 신랑되는 사람앞에서 누나구실한다는게 당치 않은 일이였다.

정시명이 역시 오랍동생노릇을 하자니 피차에 땀이 나는 일이였다. 저녁시간이 되여 민순임이 려관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동무들이 펄쩍 뛰였다. 오래간만에 오랍동생을 만났는데 이 방에

서 쉬다가 래일아침 기차표를 자기네가 마련해오면 그때 떠나라는 것이였다. 서로 눈을 찔끔찔끔 맞춰가며 엉너리를 치는 품이 다 속내를 알아차리고 하는 수작들이였다.

그렇게 민순임과 정시명을 억지로 눌러놓고는 자기 이불들은 다 그러안고 키득거리며 나가버렸다. 나가면서 문고리에 붕어처럼 생긴 큼직한 자물쇠를 덜컥 채워놓기까지 하였다. 그 장난꾸러기들이 정시명과 민순임의 사이를 몰라볼리 만무했다. 정시명이 이게 무슨 꼴이 됐느냐고, 뭐가 급해 찾아다니며 망신을 당하게 하느냐고 뱉을 썼으나 처녀는 한마디 항변도 없다가 한마디 한것이 정시명을 웃기고말았다.

《거기서… 서울처녀들을 따라다닌다고 하기에…》

정시명이 어처구니없어 크게 소리내여 웃고는 자리를 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우정 미욱을 부리며 제 이부자리들은 다 안고 나간지라 그게 또한 야단이였다. 이부자리 하나 놓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민순임이 이불을 덮고 정시명은 다다미우에 단벌 무명저고리를 덮고 누웠다.

밤이 깊을수록 방안이 얼어들어 정시명은 잠들수가 없었다. 민순임이도 다리를 꼬부리고 새우잠을 자고있는 신랑을 옆에 두고 누우니 잠이 올리 없었다. 그래 살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정시명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는데 정시명이 다시 넘겨씌워주었다. 이불이 그들사이에 여러번 왔다갔다했다. 하는수없이 민순임이 다시 덮었다.

밤이 깊어 정시명이 덜덜 떨다가 물었다.

《자나?》

민순임이 뒤치락거리는것으로 대답하자 정시명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같이 잘가?》

아무래도 잠자리를 같이할 녀자인데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당장은 너무 몸이 얼어들어 잠들수 없는것이 급해났던것이다. 그 소리에 민순임이 갑자기 가슴이 활랑거리고 숨소리가 높아졌다.

민순임이 종시 대답을 못하는데 정시명이 크게 용단을 내린듯 이부자리밑으로 언발을 슬그머니 들이밀었다. 그러자 민순임이 정시

명에게 돌아누우며 한손으로 이불을 들어 무언의 약속을 내리고야 말았다.

민순임이 집으로 내려간지 두달만에 형수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약혼녀가 태기가 있으니 졸경을 치르지 말고 빨리 와서 식을 올리라는것이였다. 바빠맞은 정시명이 형수의 긴급호출에는 응하는수밖에 없었다.

결혼식을 한 후에 정시명은 동무들로부터 누님이 잘 있느냐고 놀림을 받군 하였는데 정시명은 정말 살면서 안해라기보다 누이처럼 여겨지군 할 때가 많았다. 민순임은 아무때나 다심한 누이처럼 군말없이 남편의 뒤시중을 들면서도 크게 바라는 일도 없이 집안일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였다.

그게 벌써 스물다섯해전의 이야기다.

열시를 알리는 고동소리가 이제는 밤이 깊었노라 일깨워주듯 길게 서울의 밤하늘을 흔들고 강반의 버들도 흔들었다.

《벌써 이렇게 되였는가?》

정시명이 아쉬운듯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어디로 가실랍니까?》

《전차정류소로 가야지.》

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강뚝에서 내려 큰 도로에 나섰다.

민순임이 문득 발을 세우고 《이보세요, 우리넨 휴가라는게 없는가요?》 하고 물었다.

《휴가?… 하하하…》

정시명이 실없는 소리같아 어이없어 소리내여 웃었다.

《원, 남은 열두번 생각다가 해본 소린데…》

《없소. 어떻게 집에 간단 말이요. 자, 빨리 갑시다.》

정시명이 분명한 어조로 대답을 주고는 앞서서 걸음을 빨리했다.

민순임이 정시명의 빠른 걸음을 따라서느라고 숨을 할딱거리며 《그래도 가고싶은 사람들은 다 갔다온다는데…》 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딴은 그래. 헌데 기어이 집에 다녀올 일이란건 뭐요?》

《맏이나이가 몇인줄 아세요? 그애 짝을 맞춰주고 올랍니다.》

《맏이의 짝을?… 허허허.》

정시명이 민순임이 꺼내놓은 리유라는게 너무나도 왕청같은것이여서 다시한번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고말았다.

《셈평좋은 소릴 한다. … 그 일때문에 38°선을 넘는단 말이요? 그거야 아버님도 계시고 형님내외분이 어련히 말아주지 않을라구.》

정시명이 한바탕 웃어넘기고는 안해를 무시하는것 같아 짐짓 정중하게 응수하였다.

《내가 봐둔 처녀가 있어 그럽네다. 당신이야 뭐 그런 일에 깜깜이시니…》

《그건 뭐 당신결심대로 하오. 어떤 처녀이기에?》

《당신두 잘 알아요.》

《내가?… 내가 잘 아는 처녀가 있다. … 에잇, 답답두 하다. 말해보오.》

정시명이 버쩍 호기심이 동했다.

《례영이…》

《례영이?》

정시명이 발을 우뚝 세웠다.

《그래요. 례영이… 우리 집안에 맞아들이자요. 난 그애없이는 살지 못할것 같애요. 당신두 좋지요?》

민순임이 요 며칠새 입안에서 뱅뱅 돌면서도 차마 입밖에 내지 못했던 말을 끄집어내놓고는 속이 시원해서 다그어댔다.

《당신이 말씀하셨지요. 례영이 아버진 당신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가정이 잊지 말아야 할분이지요. 어떠세요? 당신마음엔…》

《례영에게 말을 해두었소?》

《아직은… 그애가 우리 성의를 마다할라구요. 그래서 당신이 허락하면 례영이를 아예 데리고갔으면 해서…》

정시명이 이미 안해의 머리에는 타산이 다 돼있는 소리를 듣자 시적시적 걸음만 옮겨놓았다. 눈앞으로 김정필의 모습이 떠오른다. 맏이의 나이를 물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담던 일이 어제런듯싶다. 그래, 례영이를 행복하게 할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마

다하랴. 맏이를 맞세워놓으면 친구앞에서도 하나의 빚은 성의있게 값는셈이다. 그러나 례영이앞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며느리로 받아들이는것이 어쩐지 량심에 께름직하다.

며느리라니?… 아니, 안될 말이다. …

정시명은 은근히 화가 돋쳤다.

정시명이 입을 꾹 다문채 걸음만 옮겨놓자 민순임이 말꺼낸김에 끝을 보고싶어 《말씀해줘요.》 하고 대답을 보챘다.

정시명이 홀끔 안해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안되오.》 하고 한마디로 잘랐다.

《왜요?》

《글쎄 안되오.》

정시명이 무뚝뚝하게 반대해나서자 민순임이 더욱 등이 달았다.

《리유가 뭡니까? 저도 압세다.》

민순임이 평소의 그 여리던 마음이 어데 있었나싶게 곱지 않게 따지고들었다.

《그앤 내 딸이야!》

《예?… 딸이요?》

《그래그래. … 그앤 우리 딸이지. 친딸이야.》

《딸이면 어떻고 며느리면 어떻다는거요? 오히려 딸이야 출가외인이라고 문턱을 넘어서면 남의 사람이지만 며느리야 눈을 감겨주는 딸이상의 혈붙이가 아니예요.》

《어쩌구저쩌구해도 며느리는 딸보다 한걸음 뜨단 말이요.》

《원, 거야 뭐 생각나름이고 살아갈나름이지요.》

민순임이 그냥 고집을 부리자 정시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내 옛말 하나 하리다. 옛날부터 딸이라 함은 족보를 캐여보면 따른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오. 이를테면 좋건 나쁘건 부모를 평생 따르는 혈점이라는거요. 헌데 며느리라는 말은 뫼를 나른다는 말에서 생겨났소. 예로부터 조상들이 제사지내는 일을 사람의 제일 신성한 법도로 일러왔는데 제물을 차려주는 중한 일을 맡아하는 내인이라는 뜻이요. 어떻소. 딸과 며느리가 차이가 크지 않소?

글쎄 이건 고담이지만 례영이 그앨 며느리로 내결에 두려고 하지 마오. 그앤 전우의 딸이야. 우리의 친딸이요.》

정시명의 말에 진정이 울리고 뜨거운것이 흘러 민순임은 코마루가 저려올라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정시명이 말하는 뜻풀이는 바이 가늠이 안되였지만 례영이를 생각하는 그의 뜻은 비할바없이 높고 옳다고 생각되였다.

정시명이 전차정류소에 이르러 지나가는 소리로 슬쩍 내비치였다.

《례영이도 제 생각이 있는가봅디다.》

《네?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알고도 모르는게 자식들 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말끝에 정시명은 소리내여 웃는데 민순임은 처음 듣는 소리라 눈만 껌벅거리였다.

자정이 가까와서야 그들은 통인동의 박정인네 집 대문앞에 닿았다.

초인종을 누르니 대문우에 매달려있는 종이 땡땡 야무지게 울렸다.

대문간과 잇닿아있는 사랑채에서 길봉례가 얼른 나와 구멍으로 내다보고는 문을 열어주었다.

정시명이 먼저 들어가고 민순임이 길봉례와 몇마디 이야기를 건넨 후 중대문에 들어서는데 대문종이 또 땡땡거렸다.

돌아서보니 마동열이 그리로 쑥 들어왔다.

《아니, 저사람이…》

민순임은 깜짝 놀랐다.

아까 례영이가 붙잡는것 같애서 지금껏 생각도 하지 않고있었는데 기어이 그림자처럼 슬그머니 따라다닌 모양이다. 그런즉 지금 몇시냐. 따라다니는 사람의 수고로움은 생각지도 않고 제흥에 겨워 밤시간을 늦도록 흘러보낸것이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민순임이 종종걸음으로 마주가서 《이사람, 이 무슨 고생이람.》 하고 나무람을 하였다.

《원 사모님두, 고생이랄게 있습니까.》

《부처간에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참 사람두 미욱두 하지. 다

시는 이러지 말아요. 선생님이 아시면 큰 야단을 칠거예요.》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가 쉬십시오.》

《이사람, 어서 들어가 저녁이나 받아요.》

《뭘요. 제가 뭐 배곯고 다닐 놈인가요. 걱정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마동열은 히쭉 웃으며 길봉례의 사랑채와 대칭으로 서있는 맞은편 사랑채의 자기 침실로 들어갔다.

잠자리를 폈을 때 민순임이 마동열의 이야기를 하며 사람이 고지식하다고 혀를 끌끌 찼다. 그리고 우리때문에 밤이슬을 맞게 했노라고 미안쩍은 소리를 했다.

정시명이 그 소리를 듣더니 《그사람이 고지식해서 그러는게 아니요. 세상에 드물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요.… 참, 당신 그사람이 어떻소?》 했다.

《어떻다니요?》

《아, 례영이 짝으로 되지 못할가?》 하고 정시명이 의미있게 미소를 짓자 《정말?!》 하며 민순임이 두손을 모아잡으며 큰눈을 슴벅거렸다.

정시명은 자못 흡족해서 껄껄 웃었다.

3

송호정을 동지로 사귀려던 일은 좌절되였으나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티엔진에서 헤여졌던 김송일이 남조선에 나타났던것이다.

김송일은 정시명이 권고한대로 쟝지에스와의 친분을 더욱 두터이 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중장별까지 받아가지고 왔다.

그는 서울에 오자마자 소장의 계급장을 받았다. 경비대사관학교 교장자리가 차례졌다. 이미 쟝지에스가 미군사고문단 단장 웨드모웨이를 내세워 하지중장으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던 자리였다.

결국 김송일이 정시명이 요구하는 위치를 그가 그어준 각본에 따라 차지하게 된것이다.

경비대사관학교는 원래 미군이 남조선에 기여든 후 현지 군사통역관양성목적으로 태릉에 내왔던 미군사영어학교를 모체로 설립되였다.

군사영어학교는 하지의 명령에 따라 주체34(1945)년 10월경에 조직되였는데 다음해 1월까지 1기만 졸업시키고는 페교시키였다.

그리고 그자리에 장차 남조선에서 군대의 골간을 키울 목적으로 경비대사관학교를 내왔던것이다.

정시명은 김송일이 남조선에 들어오자 그와 련계를 곧 회복하였다.

경비대사관학교에 찾아가니 김송일은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그간 지내온 생활경위를 오랜 시간에 결쳐 보고하듯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에 와서 무난하게 사관학교 교장으로 등용된게 정향선생의 공이라고 격찬하였다.

정시명은 김송일을 부추겨 만군출신의 부교장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애국적인 인물을 앉혀놓도록 하였다. 또한 그를 통하여 수십명의 젊고 유망한 청년들을 사관학교에 입학시켰다.

반동상층의 심장부에 뚫고들어가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였다.

주타격대상은 한국민주당이였다.

《한민당》은 정당중에서 극우익적이고 규모가 제일 큰 정당이다. 지주, 자본가, 친일, 친미매국노들의 정치적집결처였다.

주체34(1945)년 9월 16일에 창당하여 본부를 동아일보사에 둔 《한민당》은 령수로서 리승만, 김구, 리시영, 서재필 등 우익적인 거물급인물들을 그들의 합의도 없이 선출하고 실권은 수석총무가 장악하고있었다.

첫번째 수석총무 송진우가 중간파인물에 의해 암살되자 호남벌의 대지주인 김성수가 그자리를 타고앉아 좌지우지하였다.

《한민당》은 세상에 나타난 그날부터 반공, 반북정책과 친미매국로선을 정면에 내걸고 미군정청의 가장 유력한 후원과 지지를 받

고있었다.

하지는 주체35(1946)년말에 이르러 남조선정치세력들의 정책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당으로서는 《한민당》을, 권력기관의 핵심세력으로서는 리범석의 《족청》세력을 기본으로 현지통치기관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획책하였다.

《한민당》은 리승만이 조작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에서도 중심세력이다. 그러므로 리승만의 정치적야망을 실현하는데서도 큰 몫을 담당하고있었다.

반동의 중심소굴로 전락된 《한민당》의 선전부장으로 틀고앉은 김증원은 당상층에 자기의 지반을 닦아나갔다.

행정권력이 집중되여있는 미군정청에 애국적인 인물들을 파견하는 사업도 크게 전진되고있었다.

미군정청은 서서히 행정업무를 현지인물들에게 이관하고있었는데 앞으로 반동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그들은 실제적으로 권력집단을 움직이면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의 하수인으로, 주동으로 놀아댈자들이였다.

미군정청안에서 좌우익에 관계없이 정당, 단체들의 동태와 인물관계자료, 군중들의 사상동향 등을 종합하여 미군사령관과 미군정장관, 미군정보부장에게 보고하는 직능은 공보여론조사과가 담당하고있었다.

정시명은 류동명을 내세워 말솜씨가 있고 지식수준이 높은 길철을 림시로 여론조사과장자리에 앉혀놓았다.

안지생은 《림정》요인의 한사람이며 후날에 《국회》의장을 한 신익회가 조직한 《반공련맹》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벌려나갔다.

《반공련맹》을 정시명이 중시한것은 이 련맹이 하지의 정보고문 노불이 직접 조종하는 사회단체로서 현재 권력기관들과 행정기관들에 소속되여있는 적지 않은 중간인물들이 장차 출세의 사다리를 미국놈의 후원에서 찾고 반공이라는 패쪽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참여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므로 이 단체만 잘 틀어쥐면 필요한 기관들을 장악하는데 유리할수 있었다.

실지 정시명과 안지생은 이런 줄로 미군정청의 각 부서들과 미제의 어용기구들에 적지 않은 동지들을 파견하였다.

이리하여 정시명과 그의 전우들은 남조선에 들어선지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수십개의 정당, 단체안에 애국적인 조직을 꾸렸으며 미군정청의 모든 국과 처를 비롯하여 적통치기관의 심장부와 괴뢰경찰기관, 특무첩보기관들에서 애국적인 인물들을 찾아내여 애국운동에 나서도록 하였다.

그 세력은 남조선의 모든 도와 중요 시, 군을 포괄하였다.

정시명은 지방에 있는 조직들을 장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마다 흥국상회의 출장소들을 만들어놓았다. 출장소책임자들로서는 해당 지역의 조직들을 지도할 인물들을 선발하여 배치하였다.

흥국상회를 정점으로 전국적인 판도에서 조직체계가 완성되여갔다.

4

어느날 정시명이 김명호를 만났다.

정시명이 신문사를 몇개 만들어보자고 하니 김명호는 깜짝 놀랐다.

《아예 손을 대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문쟁이라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자들은 어디서 끌어오며 인쇄소는 어떻게 리용하며 그 엄청난 자금은 어디서 대겠습니까. 제 일본놈때 16절지짜리 회람신문을 반월간지로 내는것도 땀을 빼다가 반년만에 물러앉고말았습니다. 신문글이 조금만 벌그레한 색갈을 드러내도 여기저기서 오라가라, 아이구 말도 마십시오.》

입이 무거운 김명호가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반대의사를 주저없이 펴는것을 보면 신문사일이 조련치 않을것 같았다.

그러나 신문사를 창설하는것은 정시명이 일전에 장군님을 뵙고나서 결심했던 문제이다. 문제는 신문사창설이 어려운가 쉬운가

하는것이 아니라 필요없는가 필요한가 하는것이다. 필요하다면 만난을 뚫고 하는것이요, 필요없다면 식은죽먹기일망정 구태여 벌려놓아서 무엇하겠는가.

정시명은 김명호의 주장에 다른 말이 없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신문사를 운영하면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데 좋을것이다. 반동들을 때리는데도 좋다. 그래서 한개 군단의 병사들이 이루지 못한 공을 신문기사 한편이 할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짤막한 기사 한편으로 수백만 인민을 각성시키고 력사적인 대중적반일항거를 불러일으켜 우리 민족사의 한페지에 빛나게 새겨졌다. 맑스의 《공산당선언》은 력사의 방향각을 돌려놓았다. …

그러나 신문사창설만으로는 그 의의가 부족하다. 《언론의 자유》—부르죠아사회가 표방하는 이 구호를 우리의 사업에 리용할수 있지 않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자의 직분만 가지면 그 어떤 분야든지 얼마든지 뚫고들어가 사업할수 있다. 중립적인 외피를 쓴다, 형식은 물론 자본주의적이다, 여기에 알속은 붉은것을 심어주자, 이렇게 하자면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출판사업에 경험이 있는 중간파인물을 전취하여 경영자로 내세워 출판활동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

자기 말에 응대를 하지 않고 딴 생각에 잠긴듯한 정시명의 모습을 피끗 보자 김명호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다.

《전 그러면…》

정시명의 침묵을 자기의 반론을 받아들인것으로 리해하였던것이다.

정시명이 눈시울을 내리붙이고있다가 벽에 기댔던 허리를 폈다.

《바쁜 일이 있소?》

《아니…》

《그러면 마저 의논해야지.》

김명호가 멋적은듯 다시 자리에 앉고는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하였다.

정시명이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이 길어지자 점차 김명호가 고개를 끄덕이였다. 필요성이 납득이 갔던것이다.

정시명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내놓으라 하고는 말을 끊었다.

김명호가 안경을 다시 끼고 정중한 가짐으로 앉아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앉은 자리에서 서너가지 생각을 내놓는 길철과 달리 김명호는 짜증이 날 정도로 오래동안 생각을 하다가 자기 의견을 내놓군 한다.

하지만 깊이 관찰해보면 머리회전이 떠서 그런것 같지 않다.

길철은 머리회전이 빠른데다가 도출되는 제안을 서슴없이 헤쳐보인다. 김명호도 역시 머리회전이 빠르지만 머리속에서 몇번 굴려보고야 내놓는것이 차이날뿐이다. 그들의 이러한 성격적차이는 간혹 모임때에도 드러나 충돌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정시명은 각기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있는 의견을 끝까지 듣기 위하여 그들의 론쟁에 끼여들지 않고 어느 한쪽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군 하였다.

김명호가 잠시후 《정동지, 저에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다.

정시명이 더 만류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김명호가 저쯤되면 마음을 놓을수 있다. 틀림없이 좋은 제안을 내놓을것이라고 기대되였다.

정시명의 생각이 옳았다. 저녁을 마치고 잠시 뒤뜰안에 나와 소풍을 하는데 혜영이 종종걸음으로 따라나와 《전화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어디서?》

《김리사께서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김명호의 목소리였다. 인사를 하는 품부터 무엇인가 자신이 있는 밝은 어조여서 정시명이 《말씀하십시오.》 하고는 주의깊게 그의 보고를 들었다.

《문제는 판권을 쥐여야 합니다. 판권을 쥐는데는 출판물계는 몰라도 차라리 돈많은 기업가를 끼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김명호가 이쯤되면 벌써 머리에 구상이 서있는것이다. 뚜렷한 주

장이 없으면 절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성미였다. 그는 지금 낮에 이야기한 정시명의 제안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있는것이다.

《흥미있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정시명은 전화이므로 정중하게 응답하면서 상대방을 고무해주었다. 설사 누가 들어도 실무가들의 실무적인 협의로 인식되여야 하는것이다.

김명호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신문이란 독자만 끌어모으면 치부의 수단으로 될수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기업가들에게 상정을 시키면 응할자도 있을것입니다.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김명호는 래일아침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정시명은 래일 하루를 긴장하게 뛰여다닐 김명호의 수고를 덜어주고싶어 《아니 내가 갑지요. 리발관이 문을 닫을무렵에요.》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저녁 8시가 지났는데 문화리발관대기실에는 손님 서넛이 순번을 기다리고있었다.

잠시 앉아있느라니 김명호의 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천연스럽게 표를 떼겠는가고 물었다.

정시명이 고개를 가로 젓고는 자기의 명함장을 내보이고 주인님께 채무청산을 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김명호의 처는 스스럼없이 그의 앞에 서서 남편이 기다리고있는 내실로 안내하였다.

정시명은 그 녀자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면서 김명호가 안해를 잘 훈련시키고있다고 생각하였다.

저쯤되면 어디 가서라도 무슨 일이든 맡아할것 같았다. 그 녀자의 말투에서나 걸음걸이에서나 리발관의 주인으로서의 체취가 풍기고 하나도 어색한것이 없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투쟁속에서 저처럼 자라나고있다.

김명호는 앉은책상을 마주하고 책을 보다가 정시명이 들어서

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안해는 방문을 꼭 닫은 다음에야 반가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선생님, 사모님도 무고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올린다.

《그럼요. 리발관이 잘 운영되는것 같습니다.》

《웬걸요. 아직도 궤도에 들어설라면 멀었습니다.

이제 좌석도 더 늘이고 고급리발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밑지고있습니다.》

《예, 궁냥이 그만큼 텄으면 수입에는 관계없이 발전한셈입니다. 리발관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들이 단합돼서 자꾸 생각을 해내느라면 잘돼갈겁니다. 첫술에 배가 부를수야 없지요.》

정시명이 이렇게 그 녀자의 수고를 치하해주었다.

안해가 나가자 김명호가 보고하였다.

《리달영이라는 기업가가 판권을 내보겠노라 했습니다. 미군정청의 공보실 신문담당관을 안다고 해서 오전에 그를 앞세우고 만나보았습니다. 이번주 말에 리달영의 이름으로 발행허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신문의 내적책임은 우리 성원인 최석호라는 동무에게 맡겼으면 합니다. 원래 출판물계도 알고 글도 잘 쓰고 책임성이 높은 동무입니다. 저녁전에 그도 만나보았는데 자신있게 대답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라도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저녁시간에 자리를 뜨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김명호가 자신이 하루에 한 사업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수고했습니다. 일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밀고나가야 밥맛도 생기는 법이요.》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김명호의 일본새에 정시명은 여간 흡족해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벌써 며칠후에는 종로구의 한 건물에 《조선중앙일보사》라는 큼직한 간판이 나붙고 일자리를 구하려 기자들과 로동자들이 드나들었다.

정시명은 신문사의 경비성원들과 편집집단을 합법적인 중립신문으로 잘 위장하면서도 혁명적내용을 보장할수 있도록 꾸리였다.

표면적으로는 리달영을 사장으로 내세웠고 그밑에 1부사장으

로 김명호의 조직성원인 최석호를 두어 신문사의 전반사업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외부와의 거래가 많은 재정경리업무와 외사업무는 리달영의 조카가 맡아보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보든지 리달영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신문이라는감을 주었다.

김명호는 점차 리달영이까지 완전히 포섭전취하여 의식적인 동정자로 만듦으로써 신문사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정시명은 분초를 쪼개쓰는 속에서도 《조선중앙일보》창간사를 비롯한 수많은 기사들을 직접 집필하여 신문사에 보내주군 하였다.

원래 정시명은 다년간의 기자생활을 통하여 예리한 필치를 소유하고있었다.

그가 상하이에서 중간신문이였던 민중일보사 기자로 활동할 때 저우언라이(주은래)를 비롯한 중국공산당의 지도급인물들의 특별한 신임과 존경을 받게 된 첫 동기도 짧은 글속에 착취사회의 반동성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호되게 답새길줄 아는 능란한 글솜씨와 한마디의 단어, 한줄의 문장으로 독자들의 심장을 끓게 하는 문필가로서의 뛰여난 재능이였다.

정시명은 명석하고 심오한 지식으로 일제의 야수성과 사회의 부패를 발가놓은 폭로기사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호소성이 강한 정론도 썼고 때로는 재치있는 해학과 유모아로 엮어진 풍자글을 써서 웃음속에 반동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생동한 시어에 망국의 울분과 분노를 담은 시들을 써서 무기명으로 신문사들에 보내여 싣기도 하였다.

일본놈들이 그를 7년간이나 죽음의 형무소로 악명을 떨친 충칭형무소에 가두어놓은것도 번개처럼 번쩍이기 시작한 그의 필봉을 시초에 꺾어버리자는데 있었다.

투쟁은 오래전에 그를 문필전선에서 물러앉게 하였다. 그러나 여러 필명으로 남조선출판물들에 실리기 시작한 정시명의 글들은 세

상에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장군님을 흠모하는 그의 글들은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널리 애독되였다.

정시명은 날을 따라 변모되는 북반부의 현실도 구수한 달문으로 널리 소개하였다.

평양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크게 은을 냈다.

그는 저녁에 일사업을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글을 쓰군 하였다.

민순임과 례영이가 새벽에 일어나 곱게 정서하였고 마동열이 아침식사를 마치자바람으로 문화리발관에 보내주군 하였다. 근래에 와서 련락임무가 늘어나서 타자강습소를 마친 례영이도 마동열의 사업에 망라되였다.

《조선중앙일보》의 활동이 정상화되자 또하나의 신문사를 설립하였다.

새 신문의 창간은 다른 방법으로 실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새로운 판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금난에 빠져있는 신문사를 탐문하여 어느 한 개인기업가의 명의로 변경수속을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신문》이라는 간판을 단 새로운 신문사가 출판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밖에도 정시명은 《광명일보》와 《독립신보》가 경영난에 허덕이자 여기에 자금을 대주고 일군들을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신문사의 출판활동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 신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의사와 지향의 적극적인 대변자로 복무함으로써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환영을 받았으며 독자대렬은 급속히 늘어나 《조선중앙일보》의 발행부수는 당시로서는 많은 축에 속하는 6만부에까지 이르렀다.

김명호는 점차 이 사업에 흥미를 느꼈다. 언론의 촉수가 미칠수 없는 부문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극히 드물다. 그들은 신문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을뿐아니라 다른 부문들에서 입수된 자료들중에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반동세력의 민족분렬책동들

에 대한 자료들을 폭로하는 사업도 벌려나갔다.

이것은 적내부를 혼란시키고 사회여론을 불러일으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 신문들이 남조선전역에 전파되자 반동들은 첫날부터 신문의 편집활동을 방해하려고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여기에 발맞추어 혁명대오에 잠입하여 조국청사에 천추만대 용서못할 죄행을 저지른 박헌영일당들까지 압력을 가해왔다.

어느날 박헌영의 졸개로서 남로당의 중요직위에 있는 홍민표가 직접 《조선중앙일보》의 최석호를 찾아왔다. 최석호는 그를 데리고 김명호에게로 갔다. 안경을 쓰고 이마빡이 매미처럼 반들거리는 홍민표는 자기의 반당반혁명적요구를 감히 공개적으로는 떠들지 못하였다.

홍민표는 장시간 남조선정세의 엄혹성에 대하여 빙빙 에돌아가면서 설명하였다.

김명호가 그때까지도 그놈이 찾아온 리유를 모르고 그놈의 장광설을 듣고있다가 물었다.

《그러니 신문의 타격도수를 더 높이자는거요?》

《도수를 더 높인다?… 말귀가 좀 어두운 량반이군.》

홍민표는 고양이상통같은 낯짝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혀를 찼다.

《이봐, 당신 혁명에는 1보전진도 있고 2보후퇴도 있다는 말 들어본 일이 있어? 당신도 한다하는 신문쟁이니 레닌의 이 말씀은 얻어들었겠지.… 에… 우리 지도부는 북반부의 선전을 당신들처럼 바지저고리 다 벗어놓고 하면 백색테로에 속옷까지 벗기우고만다는걸 주의주려고 하오. 당신네가 날린 불똥이 우리한테까지 올수 있단 말이요. 너무 극좌적으로 나가면 피차에 재미없으니 심중히 처리하길 바라오. 이건 내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박헌영동지의 조직적의사라는걸 알아야 하오.》

그놈은 박헌영의 이름으로 은근히 위협조로 나왔다.

사실 당시 박헌영은 정시명이 신문지상을 통하여 장군님에 대한 선전사업을 하는데 대하여 음으로양으로 반대하여나섰다. 그를 제

지시키라는 《엄격한 지시》까지 내려보냈다. 오래전에 일제에게 투항변절하였고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전락된 박헌영으로서는 남북삼천리에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높아지는것이 눈에 든 가시처럼 생각되였던것이다.

김명호는 박헌영의 정체는 몰랐지만 이미 정시명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한 시비에서는 원칙과 신념을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은바가 있었다.

그래서 주저없이 홍민표의 압력을 일축하여버렸다.

《당신들은 설설 기며 살아가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가슴을 펴고 살아가겠으니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닌줄 아오.》

그는 평소에도 필요없는 곳에서는 극좌적인 구호를 들어 대중의 혁명적기세를 저락시키고 무익한 희생을 내다가도 정작 기발을 들어야 할 때는 뒤전에 물러나는 박헌영과 홍민표에 대하여 불만이 컸다. 그로 하여 조직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였다.

홍민표는 이틀동안의 말미를 주겠으니 대답을 보내라는 오금을 박고는 숨을 씩씩거리다가 돌아갔다.

김명호는 그날중으로 정시명에게 제기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의 통보정형을 주모임에서 공개한 정시명은 동지들이 다 자기견해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데리고있는 동지들을 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모두가 박헌영일당의 소행을 옳지 않다고 격렬하게 규탄하였다.

그들의 토론을 결속하면서 정시명은 격노한 어조로 분연히 부르짖었다.

《박헌영은 분명히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공산주의자라면 아무리 파쟁에 열을 낸들 어찌 자기의 령도자와 혁명의 기지를 자랑조차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요. 내 생각도 동무들과 같소. 신문사동무들이 립장이 바로 섰소. 그 동무들에게 우리 지도부의 감사를 전해주오. 그리고 박헌영에게도 대답을 줍시다.》

정시명이 모임이 끝난 후 김명호를 따로 만나 그자들에 대한 측

면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모임때마다 박정인의 내외가 의례히 별식으로 성의있게 차려오는 저녁상을 물리자 한주일만에 만난 전우들과 한담을 나눌새도 없이 정시명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다. 정시명의 사무실은 날샐녘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침준비로 일어난 민순임이 방에서 아무런 기척도 없기에 들어가보니 책상우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고 속필로 쓴 원고가 있었다.

민순임이 발끝으로 발볌발볌 짚어나가는데 정시명이 눈을 감은채 피곤에 지친 어조로 물었다.

《례영이 일어났소?》

《또 밤을 새셨군요. 례영이는 아직 자고있어요.》

《깨우오. 그 원고를 빨리 정서하라고 하오.》

이틀이 지나 《조선중앙일보》에는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크게 모시고 그이의 빛나는 업적을 칭송하는 장문의 기사가 실리였다. 박헌영일당에게 보내는 그들의 단호한 대답이였다.

정시명이 장악한 《우리 신문》과 《광명일보》, 《조선중앙일보》는 반동들의 악랄한 탄압과 방해책동으로 여러번 정간 또는 휴간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떠나 남조선에서 통일세력을 대변하여 북반부의 눈부신 발전을 소개하고 미제와 반동들의 전쟁도발책동을 폭로하며 반동상층부의 내면을 파헤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였다.

제 7 장
력사의 회오리속에서

1

《국방경비대》사령부는 미군사령부가 자리잡은 룡산구의 유측진 곳에 자리잡고있었다.

요새 송호정은 늘 어깨가 처져다녔다. 사무실에 나오면 자기의 고문인 하우스맨중좌가 대구항쟁에 이어진 전남조선적인 민중시위에 《국방경비대》를 동원시키라고 호통질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매일같이 무시로 불러대는 하우스맨을 피해다니거나 적당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것이 여간 고되지 않다. 게다가 집에 돌아가면 처의 성화가 때없이 넌덜머리날 지경이다. 정향선생에게 사죄하였느냐고 빈번히 묻고는 지청구다. 뭘 사죄하라느냐고 소리를 치면 바른말씀만 하시는 선생을 노엽히게 한걸 사죄해야 한다는것이다. 남편이 더럭 성을 낼것 같으면 자기도 당신 입고있는 사령관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미 몇번이나 들은 소리라 송호정은 매번 코방귀를 뀄다.

《천만에!… 이 송호정이 이 옷을 벗어놓을상싶은가?》

언젠가 김구도 간곡하게 말했다.

《중령, 자네가 내곁을 떠날 때는 미웠지만 이왕에야 그자리를 지켜주게. 나와 쟝지에스가 보증한 자리일세. 그걸 리승만에게 넘겨주면 국방의 체질이 달라져 나라가 위태로와지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될수 있네.》

벌써 그런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있다. 군대를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집요해지고있는것이다.

(천만에, 이 송호정은 정치의 둘러리가 안될것이다. 나는 이 나라를 지켜가는 중임을 다할것이다.)

송호정은 이런 떡심으로 버티여왔다.

그런데 요새 마음은 어수선하기만 하다. 정시명과의 마찰이 그 어수선한데다 키질을 했다. 안해앞에서 떡떡거리다가도 돌아서

면 쓸쓸해진다. 자기의 가까이에서 소중한것들이 하나둘 멀어져가는것만 같다.

그 녀자는 이런 말도 했다.

《이보세요. 나라가 통일되면 누가 정권을 잡을것 같애요? 민심을 따르세요. 정선생님 부인이야기를 들으니 북은 국민의 지지속에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자리잡았다나 봐요. 그런데 당신총대가 지금 누굴 겨누고있어요? 북이지요? 그럼 북에서 정권을 쥐면 당신은 또 나와 같이 이 나라를 떠나가겠어요?》

아니, 다시는 이 나라지경을 넘지 않을테다. 죽어도 이 땅에서, 살아도 이 땅에서… 통일되면 통일된 내 나라를 지킬테다. 통일조국의 남부를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지킬테다. 그때까지는 이 송호정이 자리를 내놓지 않을것이다.

그는 이 말만은 자신있게 하군 하였다.

《여보, 나를 믿어주오. 통일조국앞에서 죄인이 되지 않게 살리다. 내가 뭐 내 평생에 호사나 바라서 이자리에 앉은건 아니잖소. 내까지 물러나면 군대는 미국놈들의 고용군이나 리승만의 가병이 될수 있소. 난 기꺼이 방패막이가 되고싶소. 그걸 알아주오.》

《그러나 당신이 꼭 그런 고역을 치를게 없잖아요. 당신 하는 일이 옳다면 정선생님이 어째서 화를 내시겠어요. 난 그분이 언제 우리보고 그른말씀 하시는걸 본적이 없어요.》

처는 여전히 고집이다. 남편뜻을 하늘처럼 따르는데 습관되여온 안해의 소리이기에 송호정은 집을 나서도 마디마디들이 귀전에서 그냥 떠나지 않는다.

지금도 송호정은 《경비대사령부》의 앞마당과 련결된 세종로쪽을 음울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울적한 심사를 다잡지못하고있었다.

세종로쪽에서는 벌써 련 나흘째 서울시민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있었다.

흰천으로 만든 프랑카드에 써있는 구호들이 명료하게 보였다.

《쏘미협상을 재개하라!》

《미국은 쏘미협상을 원하는가 반대하는가?》

《미국은 가면을 벗으라!》

쏘미협상과 관련한 구호들이다.
드문드문 이런 구호도 있다.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라!》
《물가인상 결사반대!》
방금전에 미6사단장 브라운이 쏘미협상수석대표의 자격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브라운의 전화는 처음부터 고압적이였다.
《총사령관, 당신은 지금 창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압니까?》
송호정은 짐짓 모르쇠를 했다.
《글쎄요?》
그러나 인차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말을 이었다.
《뭐 미쏘협상을 재개하라고 하는것 같은데… 수석대표각하, 당신이 나설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나설 때가 올거요.》
브라운이 송호정의 빈정거리는 투의 대답을 듣자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그전까지 소요를 내버려둘수는 없지 않소.》
송호정은 당신들이 협상에 나서면 간단히 저 소요를 진정시키겠는데 공연한 말썽거리를 만들어놓고 고생을 사서 한다고 박아주고 싶었다.
《난 방금 하지사령관으로부터 민중시위를 진압할데 대한 명령을 받았소.》
《진압이요?… 어떤 방법으로?》
송호정은 대뜸 긴장해졌다.
《내가 전화를 하는건 어째서 당신들의 국민앞에 해방자인 우리 미군이 총을 들고나서고 당신들 주인들은 팔짱끼고 구경이나 하는가 하는것때문이요.》
브라운은 동문서답으로 따지고들었다.
《유감스럽지만 치안은 우리 국방경비대의 소관밖입니다.》
《아, 그래선 안됩니다. 당장 경비대무력을 세종로에 투입하

시오. 적어도 한개 대대전투병력을 시위현장에 급파하시오.》
《명령이요?》
송호정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명령?… 지금은 권고요.》
《당신께 다시 상기시키오. 서울에는 한개 분대의 전투병력도 끌어들일수 없소. 국방에 틈이 생기면 당신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송호정은 위엄있게 일축하고는 전화를 놓아버리였다.
지난해에도 10월인민항쟁이 벌어졌을 때 아놀드가 압력을 가해왔다.
대구에서 벌어진 인민항쟁에 부산에 있는 5려단의 두개 대대를 투입하라는것이였다.
그 소리를 5려단장 최원기에게 하였더니 그 역시 이렇게 물어왔다.
《명령인가?》
《아니, 아놀드의 소리인데…》
《안됩니다. 경비대는 국방을 책임지고있습니다. 어째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한단 말이요?… 군대의 엄정중립… 명심합시다. 총사령관.》
그래서 끝내 아놀드는 경찰청장 장택상에게 경찰병력을 대구방면에 집결시키도록 했고 그걸로 되지 않자 주둔군인 떤사단의 미군병력을 풀어 항쟁군중을 공격하게 하였던것이다.
송호정은 정시명이 던지고 간 말이 문득 떠올랐다.
《언젠가는 경비대도 국민의 머리에 불질을 하게 될걸세.》
그의 노호한 얼굴이 되살아나자 송호정은 비웃듯이 중얼거리였다.
《천만에! 이 송호정이 뭣때문에 이자리에 버티고있는줄 아는가. … 그렇게는 안될걸.》
초인종소리에 송호정은 문가에서 돌아섰다.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부관이 들어왔다.
그는 문건철을 내밀며 짤막히 설명했다.

《고문관이 보내왔습니다.》
《됐소. 책상에 두고가라.》
《긴급비준을 요구하여왔습니다.》
《긴급비준?》
자기자리로 가던 송호정이 불쑥 물었다.
《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소?》
《데모지요.》
《뭣때문에?…》
《총사령관각하, 벌써 나흘째 계속되고있는 시위인데 모르고 계시였습니까? 기본은 미쏘협상재개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미쏘협상재개?… 그럼 재개하면 될게 아닌가?》
《저건 좌익이 조직한 데모임이 틀림없습니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상관있나? 옳은 요구라면 받아주면 데모도 뭐도 끝날게 아닌가. 서울뿐인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2백만이 참가하고있다고 합니다.》
《그것 보라구. 긁어 부스럼이라더니 애초에 꺼버리면 되겠는데 자꾸 쑤셔서 큰 불이 되게 하고는 우리보구 꺼달라고 야단질이거든.》
송호정은 자기의 부관이 노불이 박아넣은 밀정이라는걸 잘 안다.
하긴 부관이 졸업한 군사영어학교라는게 원래 미전략정보국 요원들이 주관해서 운영한 학교로서 앞으로 남조선에서 친미세력의 핵심들을 키워내는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어느놈치고 미국과 손을 잡지 않는 놈이 없었다. 다만 갈래가 각기 다르고 업은 놈이 다를뿐이였다. 송호정이 부관자리에서 여러놈을 쫓아내고 앉혀놓은 놈인데 노불이 몇번 만나보더니 그놈에게 아예 붙어버리고만것 같다. 또 쫓아낼가 하다가 가만놔두고있다. 이따금 얼굴 맞대고 말하기 어려운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노불과 노불을 거쳐 하지의 귀에 자기의 속말이 흘러들도록 하는데 쓸모가 있는 녀석이다.
부관이 내민 문건을 대강 받아 훑어본 송호정이 대뜸 화가 돋쳐 책상우에 홀 던져버렸다.
《좋아. 나가보라.》

《그럼 문건은?》
《연구하겠다고 전해.》
부관이 멋지게 손을 채양밑으로 올려갔다가 구두뒤축을 소리나게 맞쫗고는 돌아서서 방에서 나갔다.
《부관!》
송호정이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대기실에 나갔던 부관이 되돌아와서 송호정앞에 부동자세로 섰다.
송호정은 명령을 긴장하게 기다리는 젊은 중위를 잠시 바라보다가 쏘파에 앉으라고 턱짓을 하였다. 부관이 사양하지 않고 쏘파에 단정히 앉아 공손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부관, 솔직히 말해. 중위는 미쏘회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지?》
《저, 그건?…》
부관이 송호정이 돌발적으로 던진 물음의 의미를 리해하지 못하여 되물었다.
《가령 미쏘회담이 무얼 추구하고있는가?
미국이, 아니 우리가 미쏘회담재개를 두려워할 리유는 무엇인가? 애초에 어떻게 열린 회담이기에 미국은 회담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였는가?… 뭐 이러루한걸 아는껏 설명해보란 말이야.》
송호정은 일전에 정시명한테서 설명을 들은바가 있지만 아직도 석연치 않았다. 그래 정치감각이 예민한 부관의 설명을 다시 듣고싶은 생각이 동했던것이다.
송호정은 자주 그와 마주앉아 정치담을 나누군 하였다. 개체가 똑똑하고 총기있는 부관은 세상물정에 밝고 아는것이 많은 청년이였다.
그는 송호정이 강직하고 자주성이 강한 인간이며 아부와 굴종과 위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 송호정에게 정세에 대한 보고를 할 때면 제딴으로 객관성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다. 송호정도 자기의 부관이 노불의 끄나불이 되여버린것을 알면서도 즐겨 정치담을 나누는것은 이런 사정때문이였다.
《답변하겠습니다.》

부관은 서슴없이 접수하면서 용수철에서 튕겨오르듯 일어났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깜박거리다가 《미쏘협상문제는 멀리로 테헤란과 얄따에서 진행된 쏘, 미, 영수뇌자회담으로부터 풀이되여야 합니다.》하고 시험관앞에 나선 수험생처럼 조리있게 대답을 엮어나갔다.
송호정은 턱을 두손바닥에 고이고 앉은채 호기심을 보이느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었다.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루즈벨트는 조선반도에서 국민의 정치성을 고려하여 최고 50년까지의 련합국에 의한 통치를 할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신탁통치를 말입니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쏘, 미, 영외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중심의제로 상정되여 격렬한 론의끝에 최고 5년간의 4개국 렬강에 의한 후견제를 실시하되 조선의 각계층이 참여하는 림시정부를 세우고 전적으로 후견기간에도 조선인이 림시정부를 통해 스스로를 통치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결정이 되였습니다. 이 결정리행을 위하여 쏘미량군대표로 미쏘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여기에 조선의 각계 대표들을 참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공포되자 국내외적으로 지지와 반대세력이 갈라져 충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미국의 매파들속에서 결정내용이 공산권에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비난과 함께 모스크바3상회담에 참가했던 마샬전의 국무장관 번즈가 쏘련과 내통한 불순분자로 몰리고 3상회의결정을 뒤집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그럴테지. 그대로 했다가는 분명 림시정부가 좌익권의 수중에 장악될것이였지. 그러면 미국은 5년후에 빈털털이로 반도에서 쫓겨나게 될거구… 잘 알고있구만. 계속하게.》
송호정이 칭찬을 하자 부관은 신명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총사령관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이겠지만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남조선은 좌익세력이 훨씬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미쏘공동위원회가 3상회의결정리행을 실무적으로 추진시켜나가 림시정부를 조직하면 남도 북도 권력은 좌

익권이 독점하게 되여있었습니다. 그러니 번즈장관이 쏘련파로 몰릴 법도 하였지요. 미국으로서는 당장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내세워 1차미쏘회담을 저돌적인 방법으로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게 하고 한편으로는 좌익에 비한 우익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막후조종과 실력행사를 전격적으로 벌렸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의 국민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일종의 교란전도 벌렸습니다.》

《교란전?》

송호정은 처음 듣는 소리여서 물었다. 그 소리에 부관이 낯색이 달라졌다.

《용서하십시오. 총사령관님, 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싶어서…》

부관은 자기가 상전의 비위를 너무 건드리는것이 아닌가 하는 념려스러운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말끝을 흐리였다.

《아니, 내가 뭘 싫어하는지 알지. 생겨먹은 그대로 이야기해.》

《알았습니다.》

그제야 부관은 긴장을 풀며 다시 이야기를 엮어나갔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친미적인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모스크바3상회의가 쏘련의 주장에 의해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결정했으며 회의에서 미국은 조선에 즉각적인 독립을 부여하자고 했다는 외곡된 정보를 류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익집단들중에서 친미농도가 제일 강한 리승만의 〈독촉〉과 〈한민당〉이 〈반탁〉운동을 벌리고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지지하는 세력을 〈친탁〉으로 몰아붙이였습니다. 즉시독립을 주장해온 김구세력도 미국의 교란전에 말려들어 리승만의 〈반탁〉에 합류하였는데 이때문에 민족주의운동안에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남조선에서 정치권이 〈반탁〉과 〈친탁〉으로 대결하여 류혈참극까지 생겨나자 미쏘공동위원회 쏘련측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놓고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이 창출되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하였지만 아직도 국민여론은 혼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

제 2차미쏘회담이 열리면 어차피 미국은 여러모로 곤난에 빠지게 되고 미국의 반도정책이 총붕괴될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야.… 미국은 더는 눈감고 아웅할수가 없게 되였지. 그럼 부관은 어떤 립장이지?》

《저요?… 저야 군인이 아닙니까?》

《군인?… 군인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지금 국민이 바로 저렇게 미쏘협상을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합치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이에 대한 자기의 립장이 있어야 될게 아닌가?》

《총사령관각하, 전 군은 정치밖에 있어야 한다는 총사령관님의 좌우명이 옳다고 봅니다. 군인이 정치에 어떤 립장을 가지는것부터 정치참여의식의 한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가. 허허…》

송호정은 부관의 대답이 당돌하면서도 약삭바르기 짝이 없어 웃고말았다. 그러나 미꾸라지처럼 묘하게 살살 빠져나가는 부관의 반지러운 얼굴을 보며 이내 골살을 찌프렸다.

그는 잠시동안 이마빼기가 도드라져나온 부관의 매끈한 얼굴을 지켜보다가 《좋아, 나가보라.》하고 쫓아버렸다.

음, 바로 그렇단 말이지. 쏘미회담이 다시 열리면 어차피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안이 나올테지. 그러면 림시정부가 서게 되고 국토가 다시 합쳐지게 되겠지. 그런데 북의 공산권을 누를만한 정치집단이 준비되지 못했단 말이거든. 양놈들 바빠맞게는 됐어. …

제길할… 김구는 대체 뭘 하나. 장장 30년을 버티여온 상하이《림정》이 이런 때 주먹을 휘두르고 나서야 할게 아닌가.

헌데 뭐 그것도 아니야. 하여간 3상회의결정이 그대로 리행되면 5년안으로 우리가 완전독립국이 될게 아닌가.

돼질놈들! 력사에 차례진 호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하다니. 도대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들인가. 어떻게 차례진 독립의 기회인가.

독립전에 숱한 피를 흘려왔는데 막상 그 꿈이 손에 잡히게 되니

뿔뿔이들이 돼서 골받이들만 하고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아,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갈가.
송호정은 자기도 모르게 분통이 터져올라 윽윽거리다가 다시 눈앞에 걸려든 문건을 두고 시름겨운 어조로 중얼거리였다.
또하나의 문제거리를 안은 송호정은 푹신한 쏘파에 몸을 묻은채 일어나지 못했다.
(제길할것! 어느 하루 마음 편한 날이 없군. 도대체 이 무슨 변이냐.)
문건은 광주에 있는 14련대를 차령산줄기의 국사봉에 집결하고있는 야산대의 토벌작전에 동원시킬데 대한 건의서였다. 이번 일요일 저녁에 남부지역의 야산대들이 그곳에 집결하여 금후 남조선 전역에서 벌어지는 항의시위에 보조를 맞출 행동대책을 토론한다는 긴급정보에 기초한것이라 한다.
문건기안자는 얼마전에 하지가 직접 선발하여 임명한 참모장 리응준이였다.
리응준도 태릉군사영어학교를 졸업했는데 일본군에서 대좌로 있던자이다. 그놈은 송호정의 밑으로 오기 전에 하지의 군사통역관으로 있었다. 리응준은 오자마자 《국방경비대의 쇄신》을 제창하면서 이미 세워진 군지휘체계와 교범들을 뜯어고치는 놀음부터 벌리다가 송호정과 여러번 강한 마찰을 빚군 했다.
그는 참모장을 당장 불러들이려고 전화를 들었다.
《교환입니다. 누굴 찾으시렵니까?》
교환수가 물었다.
송호정은 전화를 놓았다. 문건내용을 다시 검토할바가 못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군대는 정치에 참여말아야 한다. 더구나 현 시국처럼 정치적계파들이 서로 물고뜯는 형편에서 군대가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는것이 송호정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부산에 있는 5려단장 최원기와 여러 군지휘관들도 자기의 주장에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내오고있다. 쟝지에스가 왜 중국의 통치권을 잃고 강남으로부터 대만으로 쫓겨나고말았는가. 그것은 군대가 토비화되고 군벌들의 사병으로 전락되였기때문이다.

야산대란 정치투쟁의 산아이다. 입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주먹을 든 정치행위의 연장이다.

송호정은 정초에 광주에 내려갔다가 14련대장으로부터 야산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은바가 있다.

야산대란 남조선각지의 농촌을 거점으로 조직된 무장조직이다.

미군과 경찰세력의 폭압을 박차고 나선 좌익세력들이 상대방의 힘의 압력으로부터 저들을 보위하기 위한 자위적인 형태로 되여있었다. 낮에는 정치투쟁을 벌리다가 밤에는 폭압을 일삼는 악질적이며 테로적인 우익계에 반격을 가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야산대는 미군정통치가 빚어놓은 정치의 부산물이다.

그런데 이것마저 《국방경비대》가 맡아안으라니 될말인가.

그것은 군대의 정치참여이다. 정치적엄정중립과는 대치되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방경비대》는 국방경비는 걷어치우고 국민을 적으로 하는 국내전쟁의 2대세력으로 될것이다.

《안될 말! 안돼!》

송호정은 마치도 참모장을 앞에 세워놓은듯 단호하게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밀어던진 문건을 도로 당겨다가 문건표지에 단단히 오금을 박아넣었다.

《참모장! 이따위문건을 다시는 들고다니지 말것!》

그리고는 손에 쥔 펜대를 책상우에 던졌다. 펜대가 책상우에서 굴러가다가 방바닥에 떨어졌다.

송호정은 부관을 호출하여 문건을 주었다.

부관이 사라진 후 송호정은 잠시토록 나들문을 거친 눈길로 노려보기만 하였다. 뒤머리가 무직해왔다. 저 문건의 기안자가 리응준이라 하지만 분명 명령자는 하우스맨일것이다. 하우스맨의 명령은 또 그자신의 견해만 반영한것이 아닐것이다.

최근 송호정은 미국것들이 민중과의 대결에 한사코 몸을 사리고 있는 《국방경비대》를 야산대에 맞세우려고 안달이 나 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송호정은 강하게 버티고있다. 온몸이 그대로 군의 존재에 버팀목이 된다는 비장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뻗치고 서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지도 만났다. 노불도 만나 론전을

장시간 벌렸다. 하우스맨과는 기회있는대로 군부의 중립성에 대해 강론을 펴고 자세를 낮추어 호소도 하고 애걸도 했다. … 군을 정치의 파수군으로, 정치인들의 사생아로 만들지 말아달라. …

이제 또 한차례의 회오리가 닥쳐들것이라는 직감이 왔다.

여기저기서 뛰여오고 불러대고 삿대질을 할것이다. 이럴 때는 시원히 자리를 피하는것이 상수다.

송호정은 방을 그냥 지키고있기 싫었다. 부관에게 사관학교에 간다고 이르고는 방을 나섰다. 운전사더러 아무데나 가서 바람을 쐬겠다고 말했다. 정말 어디에 가서 늘어지게 한잠 자든지 머리를 비워두고싶다. 이런저런 지겨운 생각에서 벗어나 태평스런 공간속에 마음껏 나래를 펴고싶었다. 8.15전에 서울 운송점에서 목탄차조수로 일했다는 운전사는 입이 무겁고 눈치빠른 사람이였다. 송호정은 운전사만은 아직 어느놈의 손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승용차에 올라앉자 세상만사가 귀찮아 눈을 감았다.

운전사는 룡산구를 지나자 한강다리를 넘어 성동구에 있는 아리랑극장앞에 와서 차를 세웠다.

《여긴 왜?》

눈을 뜬 송호정이 나들문우에 크게 써붙인 극장간판을 보자 골살을 찌프렸다.

운전사가 주인의 기분에는 아랑곳없이 히죽 웃으며 뛰여가더니 해사하게 생긴 극장안내원처녀를 데리고 왔다.

그 녀자는 애교있는 눈으로 어마어마한 직함을 가진 송호정을 할끔 치켜보고는 《어서 오십시오. 저희 극장에서는 지금 〈콩쥐와 팥쥐〉를 공연하고있습니다. 총사령관님을 모시게 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하고 연신 무릎을 갑신갑신거리였다.

《허ㅡ》

송호정은 자기의 무거운 속을 가볍게 해주려고 우정 이런 곳에 데려온 운전사에게 허거픈 웃음을 지어보이고는 처녀의 안내를 받으며 2층에 있는 특별석으로 갔다.

《〈콩쥐와 팥쥐〉라…》

안내원이 옆에서 분내를 날리며 또 뭐이라 설명하자 송호정은 귀찮은듯 손으로 어서 나가라고 쫓아버렸다.
무대에서는 콩쥐가 한창 팥쥐의 시샘을 받는 장면이 펼쳐지고있었다. 콩쥐가 무대 한구석에 쓰러져 섧게 우는데 팥쥐와 그의 어미가 나타나 네년이 감히 왕자님을 낚아보겠느냐고 매정스레 소리치고는 한바탕 간드러진 가락으로 야료를 부린다.
송호정은 몇장면 보다가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다. 다 귀찮다.
지금쯤 일이 어떻게 번져지고있을가?… 부관이 문건을 리응준에게 가져갔을것이고 리응준이 눈이 우멍해가지고 하우스맨에게 달려갔을것이다. 하우스맨이 브라운에게로 갔을것이고 브라운 역시 하지의 문턱을 넘을것이다. 그러면 하지가 살모사의 눈같이 독이 오른 두눈을 올롱해가지고 으르렁거리다가 전화통을 들것이다.
하지의 세모진 주걱턱이 떠오르자 송호정은 저도모르게 소름이 끼쳤다. 그 노랑눈에서 뿜어져나오는 독기가 언제나 매섭다.
그 눈빛만 봐도 다시 만나고싶지 않은 사나이다.
《이년아! 네가 감히 이 어미뜻을 어기고 팥쥐를 모함해. 이년!》
무대에서 울리는 새된 악청에 송호정은 화닥닥 놀라 눈을 떴다.
팥쥐의 어미년이 콩쥐의 머리끄뎅이를 쥐고 몇번 태를 치며 해대는 소리다. 창극이 마지막에 가까와오는것 같다. 쓰러졌던 콩쥐가 벌떡 일어나 뭐라고 항변한다. 다음에는 팥쥐가 달려들어 생야단이다.
《에잇, 그년들 앙탈도 야멸차다!》
송호정은 역정이 나서 투덜거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 불꺼진 극장에 피신해있다니… 일국의 국방의 통솔자라는게 팥쥐에미의 횡설수설이나 듣고있다니… 미국놈들앞에서 할 소리는 해야 될게 아닌가. 저 콩쥐도 할 소리는 하고있는데 이 무슨 용렬한짓이냐. 자리를 피했다 해서 시작된 태풍이 가라앉을가. 어떻게 하든지 또 그 맞서기 싫은 인간들과 마주서서 론전을 벌리고 국민전쟁에 무력을 동원시키려는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
송호정이 2층에서 내려오자 현관복도에 서있던 안내원이 왜 마

저 보지 않고 가시느냐고 인사를 하면서 몸을 꼰다.

송호정은 그의 인사를 듣는둥마는둥 덤덤한 표정으로 극장을 나섰다.

부관실에 들어서니 그동안 리응준이며 하우스맨에게서 여러번 전화가 왔다고 보고하였다. 송호정은 자기 방으로 향하다가말고 부관실옆 방문을 열었다. 하우스맨의 방이다.

그곳에는 브라운과 리응준이 하우스맨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고있다가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하우스맨을 개별적으로 만나 조용히 말을 붙여보려 했는데 뜻밖에 여럿의 도전적인 눈길들에 마주치자 주눅이 들었다.

브라운이 먼저 말을 꺼냈다.

《총사령관, 당신을 기다리던중입니다. 어서 앉으시오.》

브라운이 정중하게 맞으며 그에게 쏘파를 가리켰다. 브라운은 잠시 그를 눈여겨보더니 손에 문건을 들었다.

《난 미쏘협상수석으로서 당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하여 유감스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은 미쏘협상을 재개할것을 바라고있소. 그런데 발밑이 이렇게 어지러워서야 회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쏘협상이 재개되면 소요는 진정이 될겁니다.》

《야산대가 그것으로 해체될것이라는 그 무슨 담보가 당신에게 있다는거요?》

《야산대?… 거야 뭐 딴 문제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국방경비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송호정은 처음부터 기가 눌리우거나 세놈의 공세에 피동에 빠져서는 안되겠다고 바싹 마음을 도사렸다.

《다시 상기시키지만 국내치안은 우리의 소관밖입니다. 나는 경찰사령관이 아니라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경찰의 힘으로 안될 때는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아서 대답할 일이지요. 나는 미국군대가 공화당치하에서 민주당탄압에 리용되였다거나 민주당치하에서 공화당탄압에 동원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없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입고 무장한 군대가 국민의 적이 되여서야 안되지요.》

《여긴 서울이요. 정치상황이 다르다는것을 당신은 정말 모르십니까?》

《서울이건 워싱톤이건 상황이 어떻든지 군대의 성격은 다르게 해석되여서야 안되지요.》

《총사령관, 당신은 제 나라의 국가체제가 허물어지고 북의 공산권에 흡수되여도 군대는 관계하지 않을거라는것입니까?》

《소장각하, 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국민은 지금 자기 권리를 행사하여 나름으로의 체제를 주장하고있습니다. 난 당신들도 우리 군부도 그러한 국민적권리행사를 보호하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있는거요? 야산대의 총부리가 미군정을 겨누고 당신들을 겨누고있는것은 현실이요. 난 즉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립장을 재검토해줄것을 바라오.

이 문건을 더는 지체시켜서는 안되오.》

송호정을 더는 설복할수 없다고 판단한 브라운은 잠시 위압적인 눈길로 상대방을 노려보다가 문건을 내밀었다.

그러나 송호정은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단호하게 일축하였다.

《그런 문건에 난 수표할수 없소.》

《뭐요. 여전히 고집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남조선이 정말로 국내전쟁에 말려들면 당신이 책임지겠소?》

《그건 왜요?… 야산대가 보다 큰 항쟁군으로 된다고 합시다. 그 책임은 그들의 정치적요구를 외면해서 불씨를 커지게 한 사람들이 져야 할것이요.》

송호정이 열이 나서 뗑뗑 맞섰다.

브라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호정을 노려보는 그의 눈길이 여느때와 같은 평온을 잃고 적의로 번뜩이고있었다. 마주보는 송호정의 눈찌도 곱지 않았다.

《이제 난 더는 우리 미군을 당신들 대신으로 내세우지 않겠소.》

《그건 옳은 결심이요. 당신의 결심을 나는 지지하오.》
《좋소. 난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해결하겠소. 야산대는 분명 빨찌산화될 가능성이 크오. 요람기에 짓눌러버려야 하오.》
브라운은 신사다운 체면을 잃어버린듯 돌처럼 굳어진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송호정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브라운을 마주쏘아보다가 제먼저 하우스맨의 방에서 나와버렸다.

2

이날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온 송호정은 안해에게 사령부에서 저녁을 먹고왔다고 이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안으로 걸어버렸다.
안해가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하자 《시끄럽게 굴지 마오.》하고 꽥 소리쳤다. 불까지 꺼버렸다.
마루를 깐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좀체로 진정할수 없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불쾌하기도 했지만 그 후과가 두려워서가 아니였다.
송호정은 언제라도 자리를 내놓으라면 아무런 미련도 없이 물러날 배심이 있었다. 또 그렇게 될 날을 대기하고있었다.
그러나 이 저녁 그를 불안하게 한것은 아까 브라운이 내뱉은 위협적인 말이였다. 야산대에 대한 공격을 다른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식이란 무엇이겠는가? 리응준의 기안대로 강행하겠다는건가? 그러면 군대가 국민에게 도전하며 끝내 군대와 국민이 적아가 되여 쏘고 찌르는 전례를 만들어놓게 되는게 아닐가?
그는 도무지 종잡을수 없는 생각에 빠져 여전히 마루를 울리며 방을 거닐었다.
《이보세요.》
또다시 안해의 목소리와 함께 방문이 나직이 울렸다.

《자오, 자오, 자!》

송호정이 화를 냈다.

《이봐요. 불을 켜요. 통위부장어르신께서 찾아오셨어요.》

《뭐요?… 통위부장이?》

송호정이 크게 놀라며 불부터 켰다.

문을 여니 류동명이 성난 얼굴로 서있다.

송호정이 령감이 야밤삼경에 어찌된 일이냐싶어 놀라와하면서도 《참모총장님, 이거 참… 어서 들어오십시오.》하며 반기였다.

송호정은 류동명을 옛적버릇대로 참모총장으로 부르군 하였다.

《심사가 불편하다고 안사람을 울려서야 되겠소?》

류동명이 문턱을 넘어서며 크게 나무랐다.

《내 한마디만 묻고 가겠네.》

류동명이 권하는 걸상을 거들떠보지 않고 선자리에서 물었다.

첫 소리부터 힐난조다.

《총사령관이 야산대토벌에 광주련대를 불러오기로 했소?》

《네?… 아니요. 난 참모장이 기안해온걸 반대했습니다.》

류동명이 추궁조로 따지고들자 송호정은 분명하면서도 심술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요. 오늘 하지사령관방에 국방경비대의 토벌작전문건이 들어온걸 내 눈으로 보고왔는데…》

《예? 국방경비대문건?… 총사령관의 동의를 요구하기에 난 반대의 립장을 밝혀놨는데요.》

《그럼 총사령관은 반대했겠소?》

《거 참,… 그런데 누가 감히 사령관의 이름으로 된 문건을 들고다닙니까?… 그래서요?》

《음…그렇구만. … 결정되였소. 우리의 손에 끝내 동포의 피가 발리게 되였소.》

류동명이 떨리는 음성으로 탄식을 했다.

그러며 송호정이 권하던 걸상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길게 내쉬는 늙은이의 눈굽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드르르 살진 볼편으로 굴러내렸다.

《총사령관, 내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소. 군복을 벗으려네.
이 늙은게 여력을 제 나라 지켜줄 건군에 바치고저 나섰네만 다 헛일이야. 미국놈들밑에서 제 나라 군대라 이름지을만한 군력을 만들자는게 애초에 당치 않은 생각이야.》
류동명이 장탄식을 엮어가는데 송호정에게는 그 처량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드디여 올것이 왔다는, 어서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골이 윙윙거리였다.
송호정은 잠시후 전화로 사령부를 찾았다. 당장 차를 보내라고 호통을 쳤다.
그 소리에 류동명이 《어데로?… 하지한테로?》하고 겁질린 어조로 물었다.
《네… 만나야지요. 참모장도 불러내서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송호정이 당장 일을 낼듯 씩둑거리자 류동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후들거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사람, 자중하라구. 이제 보면 하지가 뒤에서 다 꾸며낸 일 같네. 이번 명령서는 미군정장관의 이름으로 내고 명령집행에 대한 감독권은 주둔지역 사단장 띤에게 부여됐네. 결국 경비대 사령부는 이번 작전에 대한 지휘권에서 배제되였네. 그 케속을 이제야 알듯싶구만.》
《어떻게 그럴수 있습니까?》
《나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 한데 하지의 대답인즉 미군정기간 미군사령관은 이 나라의 모든것을 관할하며 모든것을 책임지며 따라서 이번 작전에 대한 지휘도 그 결과도 책임진다는 걸세.》
《음. … 그렇게 됐군요.》
송호정은 류동명의 말에서 이미 대세를 역전시키기 어렵게 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마음속에 커다란 비분과 걱정이 쓸어들었다.
(야산대를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제가끔 해결대책을 찾느라고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대문밖에서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들려왔다.

송호정은 《류총장님, 자동차를 타고 댁으로 가십시오. 전 어데 갈데가 있습니다.》하고 말했다.

《갈데라니?… 그럼 사령관이 타고가야지.》

《아니, 전 걸어갔다오겠습니다.》

《그렇소?…》

류동명은 송호정의 서두르는 기색에서 그 어떤 의미심장한것을 감촉하였던지 더 말하지 않고 일어났다. 그리고 문을 열다말고 《하여간 잘해보시오.》하고 당부했다.

《참모총장님, 선생님께서는 통위부장자리를 내놓으실 생각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군부상층이 일본놈들에게 붙어먹던 놈들로 꽉 차있는데 선생님까지 물러서시면 이 나라의 군대가 어느 벼랑턱에 올라서겠습니까?》

《원, 내같은게 무슨 이 나라의 군력에 도움이 되겠다구. …

하여튼 총사령관의 뜻이 고맙소. 일을 부디 잘 꾸며 랑패 없도록 해주오. 어험! 다시는 우리 군이 남의 나라 총알받이가 돼서는 안되오.》

류동명은 가슴을 텅텅 소리나게 두드리며 일장 기염을 토하려고 하다가 송호정의 초조한 표정이 다시 눈에 짚이여 이내 돌아섰다.

류동명을 바래주고난 송호정은 안해를 불렀다.

《여보, 내 정선생을 만나야겠소.》

《벌써 그랬어야 했지요.》

그 녀자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이 밤중으로 만나야겠소.》

《이 밤에요?… 그건 갑자기… 래일 만나세요. 지금 몇시라구요.》

《아니, 지체해서는 안돼. 당신 수고해주오. 애들을 깨워가지고 정선생댁으로 수고를 해주오.》

《승용차를 다시 불러오면 안될가요?》

《안되오. 그건 안돼. 좋소. 그럼 나와 함께 갑시다. 역전공원까지 가다가 난 거기서 떨어지겠소.》

《네.》

그 녀자는 전에없이 긴장해지고 심각해진 남편의 모습에서 그 어떤 비장한것을 감촉하자 더 말을 하지 않고 서둘러 따라나섰다.

자정이 가까와왔지만 역전공원은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송호정은 담배를 연거퍼 갈아대며 돌걸상에 앉아서 정시명을 기다렸다. 그는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총사령관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극비에 속하는 작전내용을 좌익권에 넘겨주는것은 불온한 일이지만 동족과의 싸움에 자기 휘하의 군대를 끌어들이는것을 수수방관한다는건 민족앞에서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뒤날의 책임을 따져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정시명이 남로당선인지 어느 선이건 알아볼 여지도 없었다. 다만 정시명을 통하면 야산대로 련결된 선을 찾을수 있을것 같았다.

한시간이 좋이 지나서야 정시명이 안해와 나란히 걸어왔다. 그 뒤로 또 한사람이 따르고있었다. 그 사람은 공원입구에 이르자 어둠속에 사라져 더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마동열이였다.

송호정은 담배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시명에게로 다가가 푸르스름한 수은등불밑에서 마주섰다.

《어찌된 일인가? 다시는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라더니.》

정시명이 빈정거리였다.

《그래, 친구의 가슴을 함부로 우벼놓고 달아빼는 인사불성이 어디 있나. 십년지기 버리면 하늘이 벌내린다 했지.》

《허, 이것 봐. 제쪽에서 큰소리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네한테 전해야 할 얘기가 있네.》

《난 또 무릎꿇고 용서를 빌줄 알았더니.》

《체, 이 송호정 제손으로 목을 치면 쳤지 무릎꿇을상싶은가. 명심해 듣게. 이번 일요일에 차령산줄기의 국사봉에 남도의 야산대가 집결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네. … 제길할! 유격전을 벌리려면 지리산이나 오대산 같은데 붙을거지 종심이 얕은 국사봉쪽에 나앉을건 뭐람.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비대소속 광주련대가 출동하게 됐네.》

《뭣이? 경비대가? …자네가 눈이 시퍼래있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다니…》

《난 제 할바를 다했네. 강약이 부동이라 어쩌겠나. 넘어지는수밖에…》

《그래 어떻게 하라는건가?》

《어떻게 하다니?… 자네에게 야산대로 통하는 줄이 있잖겠나.》

《야산대로 통하는 줄?… 아직은 없네. 좋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날 찾은 리유는 그게 단가?》

《달세.》

《그게 다다?… 난 오면서 사실 더 큰걸 기대했지. 물론 이것도 더없이 훌륭한것이지만.》

《설마?… 내가 공산주의자로 둔갑할줄 알았나?》

정시명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호정, 이왕 이렇게 내밟은 걸음인데 한걸음만 더 성큼 밟아주게.》

《괜한 바람일세. 내게서 더이상의것은 바라지 말라구. 난 이 군복을 벗는 날까지 끝까지 내나름으로 민족앞에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네.

오늘처럼 더는 자기를 지켜낼수 없다면 군복을 벗어버리면 그만이지. 마누라도 뭐 이 껍데기가 꼴불견이라구 그러지 않아도 앙탈일세. 어려울것도 없어. 종이 한장에 내 이름 석자 적어 그 알량한 중좌한테 던지면 다야. 그러니 날 두고 딴 궁리 말아주게. 송호정은 제멋으로 사는 사람이야. 자네를 찾은것도 실은 민족앞에 하나의 봉사라도 더 하고픈 생각에서였다네.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내 량심이 판단을 내린다면 이보다 더 위험해도 자기 할바를 다 할결세. 이것만은 믿어달라구.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다는건가. 제 명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되는거지. …》

송호정의 말은 처량하였다. 그의 얼굴에 푸릿한 수은등불빛까지 비쳐들어 창백해보이고 엮어가는 마디마디가 배창밑에서 울려나오는듯 비장하고도 엄숙하게 들렸다.

정시명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송호정이 지금 깊은 번민에 말

려들어 방황하고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여겨져 다심하게 타이르기 시작했다.

《그러니… 자넨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간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눈치보기를 하자는건가?… 난 그게 싫네.》

《그럼?… 어떻게 살라는건가?… 친구를 자꾸 욕되게 하지 말게.》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지. 속주머닐 어떻게 건사하는가 하는게야. 어차피 우리 시대에 와서 민족에 대한 참다운 복무를 두고 제3의 길이란 있을수 없네. 해방전에는 그래도 민족주의라는것이 하나의 중간세력으로 존재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수 있었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어. 지금은 이쪽과 저쪽… 편은 둘로 갈라졌네. 굴종과 자주… 어차피 우린 여기서 한길을 택할수밖에 없네.

찍어놓고 말하면 공산주의와 련합하여 민족의 구성원으로 되느냐, 미국과 련합하여 민족의 배반자로 되느냐 이렇게 되여있네.》

《극단으로 몰아가지 말게. 난 중국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네. 난 지난날을 부끄럽지 않게 돌아볼수 있네.》

《글쎄… 그땐 그것이 가능했어. 왜냐하면 우리에겐 일본이라는 목표물을 두고 어느쪽에 서서라도 살을 날리기만 하면 되였네. 오늘은 조국건설이야.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운명을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식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책임지려고 하네. 그런데 우익세력은 민족의 장래를 미국에 의존하여 미국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네. 중간길—제3의 길은 없어.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란 말일세. 이쪽은 민족을 위한 길이요, 저쪽은 민족을 등진 길이야. 그래 자넨 도대체 어느쪽에 자기 일생을 맡길텐가?》

《아니 더는 설복말게. 내 지금껏 받아들이지 못한 공산주의를 50이 가까와 리념으로 받아들이진 못하겠어.》

《호정, 아마 우리의 이야기는 뒤날에 미루어 계속해야겠네.

자네의 이 고마운 성의가 헛되지 않도록 빨리 돌아가야겠네. 난 조국에 돌아와서 수난많은 겨레에게 바치는 자네의 첫 지성으로 접

수하고 잊지 않겠네. 아무튼 고맙네, 호정, 건강에 류의하고 신변을 잘 정리해두게.》
정시명은 곡진하게 타일렀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마주선김에 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었으나 여기서 더 지체할수 없었다.
송호정이 그 손을 꽉 잡았다. 잠시 합쳐진 두주먹이 얼어붙은듯 떨어지지 않았다.
정시명은 이 사람이 그 어떤 비장한 일도 치를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대바른 사람이고보면 복잡한 마음의 속박을 그런 식으로 끝낼수도 있다. 그의 눈길에, 그의 말투에 비낀것이 상서롭지 않아 은근히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정시명은 말소리에 진정을 모아 부탁했다.
《호정, 우린 지금껏 이 나라 위해 열은 있어도 바친것은 없는 사람들이야.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뗐어. 그런데 걸음을 옮기자마자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나라앞에 죄를 짓는거라구 생각되네.
난 부디 자네가 자기를 이겨내기를 바라네. 나라앞에 분렬이라는 구름이 몰려오고있는것을 보면서 자기의 의무를 포기해버리는 인생수치를 남기지 않도록 해주게. 부탁일세.》
송호정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을뿐이였다.
송호정과 그의 처를 바래워주고난 정시명은 마동열을 밤차로 대전으로 떠나게 하였다.
국사봉은 대전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 충청남도 도청에 있는 박영수를 통하면 야산대의 통로를 찾아낼수 있을것이다.
정시명은 야산대와 련결된 지방애국조직에 정보를 전달해주며 그것이 야산대에 전달된 정형까지 확인하고 오라고 말했다. 그와 함께 박영수에게 앞으로 야산대와 통하는 극비통로를 개설해놓을것을 위임하라고 일렀다.
박영수에게 주는 첫 임무였다.

3

남산의 5월은 붐비는 계절이다.

신록이 짙어가는 산천경개를 즐기는 사람들로 남산의 5월은 더 한층 이채롭다. 서울사람들은 휴식일이면 뾰족하고 날카롭게 오똑 솟은 북악산에 비하여 부드럽고 친근한 정을 느끼게 하는 남산에 올라 대자연의 웅건한 멋에 취하기도 하고 말안장같은 산정에 올라 유유히 굽이치는 한강과 멀리 북악산을 배경으로 넓게 펼쳐져있는 서울의 정경을 부감하며 인생의 고달픔을 위로하기도 한다. 한패의 사람들이 방금 산정에 오른듯 좀 때이른듯싶은 명주부채를 펴들고 바람을 일구며 바쁜 숨들을 몰아쉬고있다.

《얼마나 좋소. 저 마중위덕으로 겨우내 쌓인 체기가 다 씻겨가는것 같소.》

흰오리가 드문히 섞인 머리칼을 5월의 훈풍에 가벼이 날리며 한 사나이가 자못 흥에 겨운 어조로 부르짖는다.

일행속에서는 가벼운 웃음이 떠돈다. 정시명과 그의 전우들이였다. 일행의 환희에 찬 모습에는 두 처녀의 아릿다운 모습도 끼여있었다. 봄을 맞아 삶의 희열과 보람을 다시 찾은듯 자기의 밝은 모습을 되찾고 활짝 피기 시작한 례영이와 길철의 애인인 공주녀자고등학교 조직책임자였던 권혜숙이였다.

얼마전에 권혜숙은 지난해의 대구인민항쟁에 학생들을 불러일으켰다는 리유로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제주도와 광주, 인천 등지에로 피신하여 돌아다니다가 서울까지 왔었다.

어느날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길철을 만났다. 그러지 않아도 서울에 와서 길철을 찾아볼 생각이 간절했으나 쫓기는 몸에 분명 지하사업에 몸을 담고있을 애인에게 또하나의 걱정을 끼칠가봐 삼가해왔었다.

권혜숙의 처지를 리해한 길철은 우선 누이인 길봉례집에 피신시

키고 그 정형을 정시명에게 보고하였다.
길철의 이야기를 정시명은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로총각인 길철에게 꽃다운 애인이 있다는게 반가왔고 또하나의 믿음이 가는 동지를 어렵지 않게 찾게 된것이 흡족하였다. 언제부터 사귀였는가고 물으니 길철은 다소 얼굴이 벌그레해져서 해방전부터 그 처녀가 자기의 심부름을 많이 했노라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러니 벌써 오래전부터 길철이 사귀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온 사이라는것이다. 길철을 믿는 이상 그가 자기처럼 믿는 애인을 의심할나위가 없었다.
정시명은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사업에 인입하였다. 그는 례영이가 맡아하던 시내련락임무를 인계받고 례영은 경리사업을 담당하게 되였다.
식솔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일감들이 수없이 제기되였던것이다. 그대신 조직의 자금확보를 책임진 림인석이 자기사업에 시간과 힘을 더 넣을수 있게 되였다.
정시명의 기대대로 처녀들이 사업에 인입되자 녀성으로서의 섬세하고 침착한 활동으로 하여 인차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되였다.
이날도 처녀들은 구럭에 사이다 몇병과 봄과일을 들고 따라나섰는데 그러고보면 제법 그럴사한 산놀이였다.
주모임은 대체로 일요일에 공원이나 식당, 산과 강기슭에서 진행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장소에서 두번이상 열지 않았다.
정시명은 지도부를 결성하는 모임이 있은 후 조직의 명칭을 흥국상회로 하고 성원들에게 상회의 공식적인 직함을 적당히 마련해준 조건에서 주모임을 상회의 사무실에서 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러 사람들이 공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앉는것이 좋지 않을것 같았다. 그래 흥국상회의 주식분배와 같은 기업실무가 론의될 때만 그들을 불러서 얼굴을 보이게 하고는 모임은 이렇게 딴곳에서 열군 하였다.
이날의 모임은 서울생활에 아직은 익숙되지 못하고 또 그중 젊

은 마동열의 요구에 의하여 남산마루에서 서울장안을 구경하면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모임에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정시명이 개별적으로 받는 조건에서 따로 청취하지 않고 함께 의논해서 풀어야 할 문제거나 주사업에서 제기된 교훈적이고 경험적인 문제들만 내놓고 서로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웠다.

《림동무, 저 마루에 있는게 뭔지 아오?》

정시명이 서울시의 여기저기를 내려다보고있는 림인석에게 물었다.

시골에서 살다가 압록강을 건는 후 중국에서 내내 사업하여온 림인석은 서울바닥을 이렇게 발밑으로 굽어보는것이 처음이였다.

더구나 서울에 왔어도 늘쌍 내부에서 일해왔던 관계로 남산구경도 이날이 처음이였다.

《글쎄요?》

림인석이 산마루를 쳐다보다가 자신이 없는 대답을 하였다.

《저게 봉수대라는거요. 일명 봉화대라고도 하오. 일찌기 리씨조선이 설 때부터 500년을 내려오면서 변방의 여러곳의 경보를 조정에 알리는 신호대라는거요. 이 남산에만 해도 다섯군데의 봉수대가 있소. 지금은 통신수단도 발전되고 교통수단도 현대화되여 지방의 소식이 그날중으로 중앙에 집중되지만 그런 련락수단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저렇게 봉화대를 만들어놓고 밤에는 홰불로써 알리고 낮에는 연기로써 지방의 급보를 전하는것이 제일 안전하고 신속한 련락방법이였소. 봉화대의 시발은 멀리 함경도와 평안도의 변방지역과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해변가마을들에서 하였소. 오랑캐가 나타났을 때에는 두번을 올리고 적이 국경가까이에 다가들면 세번, 나라지경에 들어서면 네번, 접전이 벌어지면 다섯번을 올리였소.

봉화대를 통한 경보는 불의의 재변을 중앙에 알림과 동시에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준비시키는데도 의의가 컸소.》

일행은 어느새 적당한 자리에 둘러앉아 정시명의 이야기에 잠겨들었다. 이런 때는 이끼오른 력사의 기슭을 거슬러 이야기를 저저

이 엮어펼쳐가는 력사학자와 마주앉은 기분이다.
일행은 저도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취하여 정시명의 입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그중에서도 정시명을 알고 지낸지 얼마 안되는 길철이나 김명호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
(저 무한한 지식의 바다가 저 사람에게는 누구도 견줄수 없는 투쟁무기로 되고있다. 저러한 지적인 매력과 위력앞에서 누구인들 머리를 숙이지 않겠는가.)
정시명은 이윽고 자리를 잡은 전우들을 돌아보며 말머리를 돌렸다.
《주에 제기된 문제부터 들어봅시다.》
정시명이 이렇게 화제를 꺼내자 두 처녀는 기다린듯 자리에서 일어나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주변에서 한창 연한 이파리들을 내놓은 마타리며 삽주싹을 뜯으며 주변을 살폈다.
《저…》
김명호는 힘들게 입을 떼였다가 웬일인지 림인석의 얼굴을 힐끔쳐다보고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정시명이 김명호의 과묵한 성미를 참작하여 굳이 캐묻지 않고 마동열한테로 고개를 돌렸다.
《뭐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방이나 가지고서는…》
마동열은 자기가 경영하고있는 사업거점의 일을 생각밖에 물망에 올린것이 민망스러워 괜히 씨근덕거리며 얼굴을 붉히였다.
지방과 서울시내의 련락임무를 총괄하고있는 마동열은 누구보다도 자금의 필요를 절박하게 체험하고있었다. 며칠전에 마동열과 례영이 인천에 신혼나들이차림으로 중대한 긴급련락차로 갔다 올 때 시내로 들어오는 택시를 타지 못하고 뻐스를 타고오다가 놈들의 단속에 걸린 일도 있었다. 언젠가는 호부자자식의 차림으로 촌음식점에 들려 눅거리음식인 강냉이국수를 청해 먹다가 경찰의 주목을 받은 일도 있었다.
《자금이 문제긴 문제입니다.》

림인석이 마동열의 말을 인차 받으며 공감을 표시하였다.

재정사업을 맡은 림인석이로서는 응당한 고충이다. 사업범위가 커지고 일이 심화됨에 따라 누구나 림인석에게 손을 내밀지만 그들의 주머니를 시원스럽게 채워주지 못한다. 이따금 지나가는 소리로 돈이 없어 겪은 여러가지 일들을 꺼내놓을 때마다 가슴이 졸아드는듯한 아픔을 느끼군 하는 그였다.

《김선생도 그것때문이겠소?》

정시명이 방금 김명호가 림인석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던 생각이 나서 물었다.

《네… 사실은… 신문사에서 적자가 커집니다.》

김명호가 너부죽한 얼굴에 허거픈 웃음을 담으며 말끄리를 여물구지 못한다.

림인석은 자신에게로 은근히 쏠리는 눈길들을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다. 동지들의 제기를 자기의 사업에 대한 비판으로 접수하면서도 대책적인 의견을 제기할수 없는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묘책을 써보았으나 아직 한번도 정시명을 만족시킬만한 뾰족한 수는 내놓지 못하였다.

자금문제는 정시명이 늘쌍 관심하고 강조해온 문제였다. 사업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걸음마다 자금의 필요를 절감하고있었다.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선 현시점에 와서 이 문제는 더는 넘겨버릴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있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지만 적구에서 지하공작을 벌려나가자면 재정적보장이 있어야 한다. 조직을 기계라고 칭한다면 돈은 윤활유라고도 말할수 있다. 더우기 8.15직후 남조선사회에서는 돈이 없이는 한걸음도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없는 형편이였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것을 다 해결할수 있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50만원이면 살려낼수 있었다. 문자그대로 황금만능의 세상이다.

정시명은 초기에 귀국하였을 때는 이미 기업가로 변신한 동지들로부터 적지 않은 자금을 받아썼다. 그러나 독립군의 모금사업처럼 자금을 마련할수는 없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금을 모아들

이면 우선 기업을 차린 동지들이 기업경쟁에서 패배하여 기업을 망치고 활동을 뒤걸음질하게 할수 있었다. 그리고 돈지원을 받는 경우 유사시에 놈들의 도발에 걸려들더라도 빠져나갈수 있게 출처를 철저히 위장해야 하였다.

그래서 정시명은 사업비를 자체로 해결할것을 결심하였으나 아직 다른 일거리에 밀려서 손을 크게 대지 못하여왔는데 그 일이야말로 우선시해야 할 일같다.

그동안 서울시내의 여러곳에 다방이나 매점 그리고 여러가지 봉사소들을 장악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적자만 내고있었다.

설사 앞으로 궤도에 오른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방대한 활동을 담보하기는 어려울것이다. 동지들의 생활문제도 지금은 전적으로 박정인이 부담하고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해나갈수 없었다. 신문사의 판권을 얻어내느라고 적지 않은 자금을 꺼내쓴 탓으로 박정인의 돈자리도 거덜이 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얼마전에 박정인의 아들 박영수가 결혼식을 하였는데 차려놓은 잔치상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너무도 조촐하게 차렸던것이다.

박영수의 장인되는 사람이 충청남도에서 갑부로 꼽히는 사람인데 그가 돌아가서 딸에게 했다는 소리도 귀가 솔가왔다.

《사돈장이 돈 많다 소문은 났어도 과히 돈 쓸줄은 모르는것 같군.》

그날 정시명도 마음이 좋지 않아 외독자결혼식을 너무 가볍게 치른다고 섭섭한 소리를 하니 당자는 어줍게 웃어버리는데 주씨부인은 돌아앉아 눈굽을 닦았다.

정시명의 뇌리에는 이러루한 사연들이 일시에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한창 움씰움씰거리기 시작한 조직이 자금난에 발목이 잡힐것만 같았다.

정시명은 좌중을 둘러보았으나 누구도 답답한 가슴을 시원스럽게 해줄상싶지 않았다.

《문제는 돈을 얻는것인데…》

정시명이 조용히 혼자소리처럼 뇌이다가 한 생각이 피끗 떠올랐다.

《가만, 일전에 길철동무가 가져왔던 뭉치돈에 흥미가 있는데…》

《최남수말입니까?》

《그래, 최남수라고 했지. 무슨 사장이라고 했던것 같은데…》

《네, 명신상사 사장입니다.》

길철은 정시명이 넌지시 귀띔을 해주자 내려붙였던 속눈섭을 번쩍 들고 큰소리로 대답하였다.

얼마전에 길철이 조직에 뭉치돈을 가져온적이 있었다. 그날 돈의 출처에 대해 흥미있어하는 정시명에게 8.15전부터 알고있는 무역업자 최남수한테서 얻어온것이라고 밝히고는 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명신상사라는 큰 무역회사를 쥐고있는 최남수는 길철이와 한고향사람이였다. 해방전에 일본에 가서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자 더는 대학을 다닐수 없어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였다. 대학에서 광업분야를 공부했던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자 집과 가산을 몽땅 팔아 자그마한 금광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인부라야 고향에서 사귄 친구들과 자기까지 합쳐 불과 여라문명이였다.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도 황금노다지를 찾아냈다. 그통에 남도가 다 아는 벼락부자가 되였다. 사교술이 능하고 담이 큰 최남수는 그 금덩이를 밑천으로 기업체를 꾸리고 점차 무역사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서울에 영화촬영소까지 차려놓았고 일본땅에까지 기업과 무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선사업에 돈을 아끼지 않아 민심을 푼푼이 모아들이고있었는데 더구나 서울에 와 사는 고향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이든지 보태주고야 속이 편해하였다.

길철이 뭉치돈을 받은것도 연고가 있었다.

어느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누이와 함께 행랑살이를 한다는 말을 들은 최남수는 다짜고짜로 자기 집에 끌고가 그의 손에 뭉치돈을 쥐여주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자네가 우리 고향에서는 명물이야. 정치에 뛰여들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왕

나선 길이니 머리통이 열쪼각이 나더라도 〈대통령〉자리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용을 쓰게. 돈은 내 대줄터이니.》 하며 껄껄 웃었다.

길철은 아무런 사심도 없는 그의 돈을 두말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그의 기업범위가 거창하고 들랔날락하는 돈이 약차해서 그를 쥐여볼 엄두는 내지 못하고있었다.

길철은 지금도 선뜻 나설수 없어 주밋거릴뿐이였다.

정시명이 길철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게 힘을 주듯이 말을 이었다.

《길철동무생각은 어떻소? 최남수가 나라와 겨레를 위해 더 큰 몫을 안고 살아가게 할수 없을가?》

《네?》

《물론 우리에겐 돈이 필요하오. 그보다도 그 인간이 필요하오. 그러면 최남수에게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시명이 말을 잠시 끊자 길철은 그의 말꼬리를 잡고 생각에 잠겼다.

정시명의 문제설정이 어쩐지 가슴을 쿵 울리는데가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은 동지들을 포섭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면 임무수행이라는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상을 위한다는 견지에서 생각을 굴려본 일은 없었다.

《해보겠습니다.》

길철은 정시명의 웅심깊은 심중이 인차 납득이 되고 또 그로 하여 가슴이 달아올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다. 참으로 최남수를 애국의 대오에 세워준다면 그 인간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장하고 행복한 일이겠는가.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길철이 단마디명창으로 쉽게 응하는것이 의심쩍어 정시명이 오금을 박아 물었다.

《그건…》

길철은 입을 다물지 못한채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정시명은 길철의 제기를 받거나 임무를 줄 때면 드문히 이러

루하게 불의적인 질문으로 그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지들이 현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을 키워 정확한 평가를 내리게 하며 행동에 앞서 사색하고 연구하는 기풍을 세워주고싶었던것이다.

정시명은 정황에 대한 판단이 신속하고 결심채택과 행동에로의 돌입이 과단성있게 진행되는 길철에게는 특별히 류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늘쌍 관심하고있었다. 행동과 사고가 재빠른 사람일수록 빈틈이 많고 지나간 자국에 필요없는 흔적을 많이 남기는 법이다.

길철이 대답할 말을 고르지 못하자 정시명이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자기가 대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견해가 서있어야 하오. 그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가. 벗인가 원쑤인가, 포섭할수 있겠는가, 리용하는 정도이겠는가, 동지로 사귀지는 못하겠는가, 이런 견해에는 다 타당성이 있는 론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가진 결점이 무엇인데 이러이러한 장점으로 해서 극복할수 있다던지 혹은 이러한 장점은 있지만 저러저러한 결점으로 해서 우리 대오에 들어설수는 없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구태여 가지수로 계산하면 수천수만가지갈래로 나눌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대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관찰하고 연구한 다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가져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결심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하오.》

정시명은 이야기를 잠시 끊고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서울장안과 변두리에 련련히 뻗어간 관악산지의 봉우리들을 굽어보았다.

그의 눈길에 산나물을 열심히 뜯고있는 권혜숙의 늘씬한 허리가 언뜻 스쳐갔다.

그의 모습이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자 자신은 권혜숙이나 전우들에 대하여 다 알고있는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권혜숙은 복스러우면서도 아기자기하게 생긴 례영이와는 판이하게 눈도 코도 입도 다 시원스럽게 생기고 성미까지도 괄괄하다.

그래서 어느 모임끝에 마동열이 롱소리로 우리 집 괄량이라고 불렀는데 당자는 대번에 눈살이 꼿꼿해서 마동열을 쳐다보더니

《흥!》 하고 코소리를 내며 건너방으로 달아나버렸다. 길철이 폭소를 터뜨리며 《마동무가 면바로 맞혔소. 저 아가씨의 별명이 괄량이에다가 말자까지 덧붙여서 말괄량이였다오.》해서 모두가 크게 웃었다.

그런데 어제저녁에야 정시명은 례영이를 통해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러운 눈으로 권혜숙을 보게 되였다.

권혜숙의 고향은 남해바다가라고 한다. 아버지는 땅마지기나 가지고있는 농사군이였다. 권혜숙이 부산녀고를 다닐 때 갑자기 그를 시집보내려고 불러들였다. 당시 권혜숙은 학생들의 선두에 서서 학교안의 악질교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 집안의 화근을 뿌리빼려고 했던것이다. 그런줄은 모르고 《부친급병》이라는 전보를 받고 고향에 온 처녀는 집에서 벌려놓은 잔치바람에 반정신이 나가버렸다. 울며불며 야단을 부렸으나 아버지의 결심은 휘여들지 않았다. 여러날 자리에 누워 끙끙 앓던 처녀는 잔치전날에 북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쏘련에 가버리자고 마음을 먹었던것이다. 그러나 두만강가에서 경찰들에게 걸려들었다. 아버지가 경찰서에 탈가한 딸을 잡아달라고 의뢰하여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렸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경찰들에게 끌려온 처녀는 며칠후에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갔다.

여기서 길철을 만나게 되여 그의 지도와 방조속에 청계피복공장에 녀공으로 들어가 애국의 길에 나섰다. 8.15후에는 공주에서 교원으로 일하면서 여전히 지하사업에 참가하여왔다고 한다.

이 순간 정시명은 자기가 권혜숙이만이 아니라 김명호나 길철이나 그리고 박정인과 길봉례 등 한처마밑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이야기해줄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생겨났다.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너무도 모르는것이 많다는 후회가 갈마들었다.

정시명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최남수에 대한 내 의견을 먼저 내놓읍시다. 그에게서 좋다고 생각하는건 무엇인가. 그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정이요.

자기가 알고있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할줄 알고 동정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소중한것이요.

나쁜것은 무엇이겠는가. 돈을 세상의 전부처럼 생각하는거요.

아마 최남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가까이 사귀는것도 내놓는 돈의 크기로 회계를 깐깐히 하고있을것이요. 그러면 그의 결점을 장점으로 지워버릴수 있는가.

능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과 배려는 그의 타고난 성미라고 생각되오. 아버지도 원래 덕망이 높았다고 하니 그런 의미에서 교양이 잘된 가정이요. 반면에 돈에 대한 관심, 치부욕은 구차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준 악덕이요. 어지러운것은 우리가 다듬어줍시다. 자기 고향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내 나라, 내 겨레를 위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승화시켜나간다면 그는 벌어온 돈을 어떻게 써야 값진가 하는것을 깨닫게 될거요.》

정시명은 자금문제는 그것으로 눌러놓고 화제를 돌렸다.

《한가지만 제기하겠습니다. 쏘미회담재개가 정치의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미국놈들이 더는 뒤걸음질하지 못하게 되여가고 있습니다. 이건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미 예견하신바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쏘미협상을 기화로 미국놈들이 쏠라닥거릴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시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문제를 누구도 제기하지 않은것은 우리가 아직 자기의 임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세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동지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정시명의 목소리는 담담하게 울렸지만 누구나 자신들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심중하게 접수하였다.

길철은 지도부회의결정에 따라 미군정청일을 하면서도 최남수와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쳐나갔다. 그는 몇명의 조직성원들까지 동원하여 최남수의 동향과 주변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그들의 조사자료를 종합하니 매우 흥미있는 자료가 포착되였다.

리승만의 개인비서로 있으면서 민주동맹이라는 정치조직을 무은 리승규라는자에게 정치자금을 계통적으로 대주고있다는 자

료였다.

길철은 이 자료를 보고하여온 성원에게 리승규라는자의 정체에 대하여 더 상세히 알아볼것을 지시하였다.

리승규는 광주사람으로서 최남수와는 동경에서 사귄 사이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일본에서 돌아온 리승규는 광주의 유지들을 그러모아 민주동맹이라는 자그마한 그루빠를 만들어놓고는 그앞에다가는 《한국》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달아놓았다. 해방후의 회오리치는 정치바람을 타고 서울에 기여든 이자는 대세를 관망하다가 날쌔게 리승만의 옷섶에 매달렸다. 리승만은 《한국》민주동맹의 지도자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리승규의 대포에 속아넘어가 자기의 비서실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아직 정치적신조가 뚜렷하지 못하고 대세의 흐름에 둔감한 최남수는 반동들의 거짓선전에 넘어가 리승만역도를 민주와 독립의 대변자로 숭상하면서 역도의 꼬리에 매달린 리승규를 대견하게 여기고 막대한 돈을 찔러주고있었다. 리승규는 민주동맹의 운영금으로 다달이 최남수한테서 기부받은 돈을 제놈의 방탕한 생활에 거진 탕진하고있었다. 사실상 민주동맹이라는게 백명안팎으로 조직된 작은 집단인데다가 친목회처럼 이따금 모여 기생집에서 술놀이나 하는 정도로 운영되였으므로 운영비라는 말도 가당치 않았다.

길철은 료해한 자료들을 종합한 다음 정시명과 함께 그와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웠다. 최남수를 전취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리승만역도의 대미굴종과 매국죄행을 알려주고 어떻게 사는것이 참된 인생인가 하는것을 인식시켜야 하였다. 그리고 그자신이 리승규의 협잡과 정치적투기행위에 리용되고있다는것을 사실적자료로써 납득시켜야 하였다.

정시명은 길철이 밀매업자로 나서서 합작을 하는 방향에서 최남수와 관계를 가까이 하게 하고 리승규의 자금내용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내도록 하였다.

4

길철은 예고없이 최남수를 찾아갔다.

최남수는 키가 작고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진 체소한 사람인데 첫눈에 보면 사람이 무척 차거워보이고 까다로울것 같았다. 그러나 일단 사귀여놓으면 더없이 다심하고 속통을 크게 굴리는 사람이였다.

최남수는 뜻밖에 찾아온 길철을 보자 동자질을 하고있던 처와 아이들을 불러 인사시키면서 무척 반가와하였다.

길철은 준비해가지고 갔던 돈을 한뭉치 꺼내놓았다. 받아간 돈에 리자까지 붙여서 최남수에게 내밀었다.

순간 최남수의 얼굴에 감돌던 희색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시오. 내 수표 한장에 천만원이 왔다갔다 하오. 내 길선생을 동향지기로 알고 드린것이지 빚놀이를 하고파 선심을 쓴줄 아시오?》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사람이 선에 선으로 대하는것이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내 그동안 최선생이 주신 돈을 얼마간 돌려 장사를 좀 했는데 이제는 선생의 성의에 인사를 차릴만큼은 되였습니다.》

《그럼… 선생도 장사노릇을 하시오? 군정청과장은 어떻게 하고?…》

최남수는 차거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 눈길은 지금껏 상종할 때면 느껴왔던 선망의 빛이 말끔히 지워진 환멸과 실망의 감정이 뒤섞인 착잡한 눈길이였다.

길철은 최남수의 노여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말을 이었다.

《글쎄요. 그 일, 저 일 뭘 좀 해보자니 돈이 있어야 되겠기에 그리 내키지는 않지만 손을 대보았습니다.》

《글쎄, 그럴테지요.》

최남수는 그제야 길철의 뜻이 리해되는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지페뭉치 한묶음을 손에 들고 나왔다.

《받으시우. 앞으로도 필요하면 아무때나 찾아오시오. 그리고 선생은 장사일에서는 아예 손을 거두시오. 아차하면 본전까지 털리우고 돌아앉는게 장사질인데 정사를 봐야 할 사람들은 몸에 맞지 않는다우.》

최남수는 사양하는 길철의 가슴에 그가 내놓은 돈까지 합쳐 기어이 두 묶음의 지페를 안겨주었다.

《고맙습니다.》

길철은 하는수없이 받았다.

《돈벌이에 손을 대였다는 선생의 심정이 여북하겠소. 남쪽의 정치라는게 두루 살펴보면 더러운게 많아요. 내 그래서 리승규라는 사람 우리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민주동맹고문이라는걸 해보라고 권하는걸 싹 잘라맸수다.》

《리승규를 아십니까?》

길철은 그러지 않아도 리승규에게로 말끐을 티여볼 심산으로 은근히 바재였는데 최남수가 먼저 말꽉지를 떼놓아 숨이 나갔다.

《거 민주동맹위원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방전부터 광주에서는 인물이더니 서울에 와서 일판을 크게 벌리는가 봐요. 내 그래 크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뒤를 좀 봐준답니다. 선생도 리승규를 아시는지요?》

《네, 잘 알지요. 리승만의 턱찌끼를 받아먹으려고 덤비는 정치협잡군… 그 무슨 리념도 초지도 없이 권세의 맥을 타보려고 기회만 노리는 정치투기군… 난 그런자들은 정치브로카라고 인정합니다. 최선생님은 무엇인가 속고있습니다.》

길철은 우정 모가 난 말마디만 골라 리승규를 타매하였다.

《내가?… 그럼 길선생은 리승만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리승만?… 리승만을 평가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난 한마디로 리승만은 믿을수 없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는 상하이림시정부의 초대〈대통령〉이였소. 가만히 보면 지금 미국사람들이 리승만을 내세우는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연고가 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이 나라 국민이 누구를 나라의 국부로 선호하고있는가 하는 판단이라든지…》

《최선생, 선생의 이야기를 내가 납득이 되는 반론으로 부정하자면 아무래도 과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애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리승만의 매국에 대하여 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최남수는 례절있게 차분한 어조로 길철을 나무라기 시작하였다.

《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싫다는거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건 쩍하면 사람들을 이편저편으로 갈라놓고는 남을 걸고 모해를 하고 잡을 궁리만 한단 말이요.

길선생, 내 얼굴 맞대고 이런 말 한다고 욕하지 말아요. 내 성미라는게 원래 에돌줄 모르는 고약한게 돼서… 하지만 뒤통수에 대고 수작질하는것보다 면상에 대고 튕겨주는 사람 좋습디다. 내 리승규보고도 단단히 오금을 박았수다. 내앞에서 남들을 헐뜯겠으면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남을 속여먹는 장사질도 크게 성사할라면 서로 도와주고 신용을 지킬줄 알아야 하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정사를 보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패를 지어 말싱갱이나 해서야 민주요, 독립이 뭐가 되겠소. 여기 서울정객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꼭 각설이떼 보는것 같소.》

최남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담담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밑바닥에는 매섭고도 움직일수 없는 론리가 흐르고있었다.

사실상 최남수는 정치에는 돌아앉았다고 말했지만 그자신이 벌써 정치에 깊이 빠져들어 자기로서의 일가견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최남수는 이런 문제에서는 말싸움을 펴볼 의향이 없다는듯 돌아앉아 담배를 입에 가져갔다.

길철은 길지 않은 시간에 최남수의 인간됨을 더욱 깊이있게 알게 된것이 기뻤다. 무엇인가 희망적인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길철은 일조일석에 최남수를 전취할바가 못된다는것을 깨달았다. 그와

의 사업을 위한 자신의 사전준비가 부족하였다는 때늦은 후회도 생겨났다. 최남수를 의협심이 많은 사나이정도로 리해하였지 이렇듯 제나름으로의 인생관이 정립되여있는 인물임은 미처 몰랐던것이다.

그래 길철은 그와의 사업은 이 상태에서 보류하고 화제를 미군정청과 38°선 장사에로 돌렸다.

이즈막에 미제침략군은 38°선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던 북남의 왕래를 완전히 차단하여버렸다. 어떤 곳에는 철조망까지 늘이기 시작하였다. 분렬의 고착에로 미제는 한걸음한걸음 공공연하게 접근하고있었다.

북남간의 장사길도 단절되였다. 그러나 밀로를 알고있는 사람들은 놈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피하면서 여전히 북남을 드나들고 장사도 하고있었다. 그들은 혹 경우에는 생명을 내대는 아슬아슬한 고비도 넘겨야 했지만 장사거래자들이 줄어들었기때문에 일단 성공만 하면 폭리를 얻군 하였다.

최남수는 38°선 장사통로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길철의 말을 듣자 인차 장사군다운 호기심을 보이면서 물자조달은 자기가 할수있다고 선뜻 응해나섰다.

이날 길철은 여기까지 합의를 보고 헤여졌다.

정시명은 길철의 사업보고를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다가 길철이 싱글벙글거리며 문지방을 넘어서는것을 보고 우선 마음이 놓이였다.

길철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품에서 가져갔던 돈과 최남수가 덧붙여 얹어주던 묵직한 돈뭉음을 정시명의 앞에 꺼내놓았다.

《어찌된 일이요?》

정시명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길철은 최남수와의 사업정형을 보고하고는 이런 말로 아퀴를 지었다.

《정향선생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최남수는 우리 사람이 될것입니다.》

정시명은 그에게 리승규가 정치자금을 사리사욕에 리용한 자료들을 넘겨주었다. 그것은 《한민당》 선전부장 김증원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들이였다. 그 자료에는 리승규가 서울에서 리용하는 고

급료정들과 광주와 서울에 첩을 두고 생활하고있는 정형, 민주동맹의 내부조직체계도와 자금리용정형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여 있었다.

정시명은 최남수와의 사업을 오래 끌지 않기 위하여 다음번에는 리승규가 그의 집을 찾아가는 시간을 타산하여 면전에서 비행자료를 폭로하여 최남수의 인식부터 바로잡아주라고 의견을 주었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였다.

어느날 길철은 최남수의 집에서 리승규와 맞다들었다. 첫눈에 보매 리승규는 40대를 방금 벗어난듯싶은데 몸집이 실팍한데다가 키꼴도 좋아 름름한 풍채로 대방을 누구든지 압도할듯한 자신감에 차있었다.

최남수와 함께 마작을 놀다가 길철의 출현에 고개를 든 리승규는 금테안경너머로 너는 어디서 굴러온 마당쇠냐 하는듯한 눈찌로 그를 흘끔 쳐다보고는 다시 마작판에 눈길을 돌렸다.

《리선생, 이분은 나의 동향인데 해방전부터 아근에 반일지사로 명망이 있던분이시오. 지금 군정청 과장중임을 말아보시오.》

리승규는 최남수가 깍듯이 례를 차려 소개를 하였으나 다시 고개를 돌려 그를 어줍잖게 쳐다볼뿐이였다.

《길철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선생의 명함은 이미 들었습니다.》

대방의 눈치는 아랑곳없이 길철도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최남수가 권하는 팔걸이걸상에 조용히 앉았다.

《최선생의 친구요.》

리승규가 마뜩지 않은 눈으로 거드름스러운 자기의 처신을 힐책하는 최남수의 심기를 알아차리고 마지 못해 인사를 차렸다.

《리승만박사를 모시느라고 로심초사가 크겠습니다.》

길철은 리승규의 심보가 남조선정계의 중진으로 떠오른 리승만의 직속에서 근무한다는 배심이라는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그루를 박았다.

길철의 이야기에서 조소와 경멸의 감정을 포착한 리승규가 드디여 마작판에서 돌아앉아 길철의 말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시작하여 이리저리 화제를 굴려가던 길철은 슬쩍 정치인

들의 사생활문제를 거들기 시작하였다. 맨 처음에는 양인녀성을 데리고 환국한 리승만의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정치계에서 제 이름자들을 뚜렷이 새기고있는 여러 인물들의 안방세계를 헤집어놓았다. 리승규가 둥글넙적한 상판이 벌개져서 길철이 넓게 환을 그려놓고 서서히 죄여들기 시작한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안깐힘을 쓰느라고 해보았으나 헛된짓이였다.

길철은 이야기를 점차 리승규의 리면세계에로 몰아들어갔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담담한 어조로 타매하는 길철의 신랄한 공격에 리승규는 연신 안경을 벗었다썼다 하면서 반박도 해보았으나 미구에는 몸둘바를 몰라 쩔쩔맸다.

《최선생, 도대체 저자를 나와 맞세워놓는데는 무슨 리유가 있소? 이것이 신의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요?》

최남수의 앞에서 정치협잡배, 도덕적인 저렬아로서의 자신의 구린내나는 정체가 시시콜콜히 드러나자 리승규는 더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최남수에게 이렇게 발끈거리며 자기의 체면을 다소나마 세워보려고 기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앉으시오. 리승규선생.》

그들의 론전에 짐짓 끼여들지 않고 두 인간의 금새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재여보던 최남수는 리승규의 맥빠진 넉두리에는 개의치 않고 위엄있게 한마디 했다.

그러나 리승규는 패배자의 쓰디쓴 자기 환멸과 수치에 못이겨 거친 숨만 내쉬다가 인사도 없이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열려진 미닫이문으로 허둥지둥 달아나는 리승규의 꼬락서니를 말없이 노려보는 최남수의 입술이 분노로 푸들푸들 떨기 시작하였다.

《에잇, 고약한 놈, 사람의 진정을 저렇게 우롱할수 있는가.》

최남수는 방금전 리승규가 이마에 배여오르는 비지땀을 연신 벅벅 닦던 손수건을 더러운 물건이라도 띄여본듯 바깥에 홱 집어던졌다.

《길선생, 나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시오.》

최남수는 심각한 번뇌에 휘감겨들어 맥빠진 어조로 이렇게 중얼

거리였다.

《최선생, 잘 알아두시오. 돈이라는것도 잘 써야 애국에 도움이 되지 잘못 쓰다가는 저런 인간페물을 비호해주고 조장시켜주는 가장 더러운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길철은 이런 말을 남기고 일어섰다.

며칠후 최남수가 막내아들을 시켜 쪽지 한장을 보내왔다.

길철이 반가와 선자리에서 뜯어보니 두어구절 대답을 적어보내왔는데 기가 막혔다.

《길선생, 난 정치하는 인간들과 거래를 끊기로 결심했으니 그리 알고 조처해주시오.》

길철은 배신감으로 하여 분이 치밀어올랐으나 어데 해볼데가 없었다. 입만 쓰겁게 다시는수밖에 없었다.

의기양양해서 뛰여다니던 길철은 어깨가 축 늘어져서 정시명의 앞에 나타났다.

《정향동지, 면목이 없습니다.》

길철은 정시명의 앞에 쪽지편지를 내놓으며 말했다.

쪽지를 눈으로 읽은 정시명은 좌절감으로 어두워진 길철을 따뜻이 위로해주었다.

《너무 상심마오. 어떻게 매번 통장훈만 부르겠소. 그렇지만 길선생이 일단 손을 댄 이상 단념하지는 마오. 우리가 사는 보람이 뭐겠소.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이 나라를 깨끗하고 문명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게 아니겠소.

난 길선생에게 보내온 결별선언이 사실은 마음에 드오. 그건 최남수가 자신의 인생을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걸 말해주오. 지금은 그더러 인생총화를 짓도록 내버려둡시다.》

정시명이 이렇게 고무해주었으나 길철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워있었다. 그는 임무를 수행해내지 못한 자책감을 덜지 못한채 어줍은 미소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철을 바래주고나서 정시명은 곰방대에 담배를 다져넣고 잠시 무거운 생각에 말려들었다.

길철을 위로하느라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지만 생각은 복잡하였다. 당장은 자금난에 발목이 잡히게 되였다.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기에 목이 걸려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활동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자금난을 해결해서는 안된다. 합법적이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자금통로를 개척해야 한다. …

최남수에 대한 사업정형을 다시금 곰곰히 돌이켜보고난 정시명은 깊은 회오를 느끼였다.

(최남수와의 사업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다.

대상선정은 옳게 한것 같은데 사업방법에 문제가 있다. 길철이 너무 가볍게 달려든것 같다. 최남수를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할것이였다. 그가 이렇게 나올수 있다는것을 미리 예견하고 적절히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였어야 했다.

첫째 책임은 내게 있다. 내가 깊이 연구하고 그러한 허점을 찾아내야 했었다. 사업에 대한 지도를 일반적강조로 해서야 안되지.

내자신부터 아직 사업에 착실하게 발을 붙이지 못하고있는것이 분명하다. …)

정시명은 이렇게 속깊이 자신을 반성하면서 불꺼진 곰방대를 문채 오래도록 방안을 거닐었다. 다음번 모임에서는 자기비판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다시금 자금난을 타개할 방도를 모색하였다. 여러모로 생각을 굴려보던 끝에 박정인을 만났다. 그에게 자금난에 대해 툭 털어놓았다. 그래도 이런 물계에서 눈이 터있는 사람은 박정인이였다.

기대했던대로 박정인은 정시명의 말을 듣자 며칠간 말미를 달라고 하더니 여러가지 안을 궁리해가지고왔다.

《그래도 지금 형편에서 폭리를 볼수 있는건 대북장사이지요.

원래 남북간에는 헤여지면 못살게 돼있거던요. 남의 농토산물이 북으로 들어가고 북의 가공상품이 남으로 내려와야 살게 돼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38°선으로 남북거래가 끊어지면서 남조선의 적지 않은 장

사군들이 애를 먹고있지요.

이런 기회를 타서 잘만 하면 폭리를 얻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군정이 합법적으로는 차단하고있으므로 일단 트집을 잡히면 쫄딱 바지벗고 나앉는 판이 되지요.

두번째로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좋기는 배 한척 구해서 돌아가면 이게 또 돈떨어지는 큰 구멍이 됩네다.

무역이라는건 자고로 밑지는게 없다고 합지요. 세상에 3대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처녀가 시집 안간다는 말과 늙은이 빨리 죽겠다는 이야기와 장사군이 밑졌다는 이야기라는거웨다. 허허—》

박정인은 말끝에 사람좋은 웃음을 터치였다.

그의 말이 다 정시명에게 진속이 있는 방도로 납득이 되였다.

《그리고—》

박정인은 정시명이 자기 말에 공감하자 성수가 나서 한마디 더 하였다.

《요즈음 서울에 고래고기가 팔리는데 매상고가 높습니다. 고래가 제주도아래쪽 공해상에서 잡히나 봅디다. 그러니 포경선 하나쯤 장만해도 그게 또 돈벌이가 약차할것 같수다.》

정시명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도부모임을 열었다.

박정인이 처음으로 이 모임에 참가하여 자기 생각을 내놓았다.

곧 분공이 조직되고 자금확보를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박정인이 서울교외에 있던 땅을 팔아 그걸 밑돈으로 고려상사라는 무역상사를 조직하였다. 무역경험이 있는 림인석이 전무취체역으로 들어앉아 38°선에서의 장사를 진척시켰다. 개성을 비롯한 38°선지역에서는 아직도 북과의 장사를 크게 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림인석은 그들과 교제를 하였다.

박정인은 38°선장사를 통하여 구입한 물자들을 류동명을 통하여 미군정청 농림부 고문을 비롯한 여러명의 고위관료들을 끼고 남조선의 시장에 팔아넘기였다.

고려상사는 조직된지 몇달후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무역상사로 되였다.

대외무역통로도 개척되였다. 무역통로가 마련되자 일본을 비롯한 여러곳에 사업거점을 창설하는 문제도 해결되였다.

그런데 무역선박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 선박업자들은 턱자없이 운임료를 굵아냈다. 해외거점들과의 련락이나 대외무역을 원활하게 하자고 하여도 임의의 시간에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는 자기의 선박이 있어야 되겠는데 외국선박이나 국내의 다른 기관의 선박을 리용하자니 여러가지로 불편이 많았다.

정시명은 선박을 구입하기 위한 정보를 입수할것을 김명호에게 지시하였다.

인차 부산에 있는 경비려단장 최원기가 해군소속의 진해기지사령관 박룡문대령이 아직은 경향이 좋으며 처분허가를 받은 선박도 몇척 가지고있다는 정보를 보고하여왔다.

정시명은 박룡문과의 사업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기로 하고 그의 가정환경과 경력, 취미와 지식수준을 료해하였다.

박룡문은 일본에서 상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바다와 조선업에 조예가 깊고 지성적인 면모가 있는 인간이였다. 박룡문의 취미란 워낙 바다를 좋아해서 그런지 바다낚시질이였다.

낚시물계라면 정시명도 품들이지 않고 맞서볼만 하였다.

어느날 정시명은 피서객차림으로 진해바다가를 찾았다.

진해의 바다가풍경은 남해에서 손꼽히는 절경이다.

대나무가 설레이는 산발을 배경으로 바다가에는 해당화가 곱게 핀 백사장이 푸른 바다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 뻗어갔는데 벌써 이른봄철부터 피서객들이 밀려든다.

정시명은 박룡문대령과 낚시터에서 첫 교제를 시작하였다.

두사람은 곧잘 어울려 낚시질도 다녔고 자신들이 낚은 물고기를 안주로 해서 밤새껏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박룡문은 정시명에게 깊이 끌려들어 그의 인간됨에 매혹되고 마침내 그를 깊이 존경하게 되였다.

정시명의 의젓한 태도와 점잖은 인품 그리고 해박한 지식이 그렇게 만들었던것이다. 술좌석에서 정시명은 놀랄만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내놓군 하였는데 박룡문은 서당선생앞에 앉

아있는 초학도처럼 그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접하였다. 정시명은 백제, 신라를 거쳐 고려, 리조에 이르는 오랜 세월 진해와 려수항이 어떻게 오늘의 큰 군항으로 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도 줄줄 내리엮었다.

정시명은 리조때 수군군항으로서의 진해와 려수의 력사 305년을 년대는 물론 날자에 이르기까지 기억하고있었다. 또한 세계적인 군항의 발전력사와 발전추이까지도 뜨금으로 설명해내려갔다.

당시 일본상선학교를 나온 유일한 조선사람으로서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권위자라고 자처하던 박룡문이였지만 정시명의 박식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었다.

정시명에게 완전히 매혹된 박대령은 정시명이 달라는대로 800톤급 《금비라》호를 내주는데까지 이르렀다.

정시명은 《금비라》호를 구입한 다음 련이어 최원기가 자기의 려단소속으로 포경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몇척의 배를 박룡문으로부터 더 넘겨받았다.

이 배들은 해외무역을 원만히 보장하면서 해외에로의 성원들의 출입국과 련락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수단으로 되였다.

고려상사가 무역선박까지 가지게 되자 부진상태에 있던 성원들의 기업들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다.

흥국상회도 고려상사를 통하여 샹캉과 아오먼의 양복지들을 넘겨받아 국내에 풀어놓아 고급양복지를 취급하는 국내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정도로 번창해졌다.

제 8 장
장막을 헤치고

1

리승만은 브라운을 기다리고있었다.

그새 여러차례 초대를 하였는데 매번 시간을 낼수 없다며 사절해왔다.

그런데 브라운이 오늘 제발로 먼저 오겠다고 전해왔으니 자못 궁금하였다.

《그래 자네에게 무슨 얘기 없었나?》

리승만은 쏘파의 팔걸이에 살진 엉치를 붙이고앉아 자기의 어깨를 꽁꽁 주물러주는 모윤옥에게 물었다. 브라운의 말을 듣고온것이 모윤옥이였다.

《네. 딴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같은 녀자에게 구렝이같은 량반들이 제 속을 털어놓습니까.》

《어디 보세. 자네 솜씨 듣던바 그대론가. …》

《그 량반을 제발로 찾아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쯤한걸 가지고 생색을 내지 말아. 자네더러 뭐 항간에서 녀걸이라 한다면서? 호걸을 낚아내는게 녀걸이야.》

모윤옥이 퉁명스러우면서도 속말이 따로 있는 리승만의 소리에 처녀처럼 눈을 예쁘게 샐쭉거리며 《호호―》하고 간드러지게 웃었다.

《됐어, 됐어. … 에 간지럽다. ―》

리승만이 늙마에도 젊은 녀성의 보근보근한 손맛과 볼에 와닿는 입김에서 정욕의 짜릿한 불이 일어났던지 그 녀자의 뭉글뭉글한 엉뎅이를 쓰다듬으며 헤식은 웃음을 지었다.

모윤옥은 해방전 《천황》을 잔뜩 치켜올린 친일녀류시인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변신에 이골이 튼 모윤옥은 해방후 리승만의 품에 솜씨있게 날아들었다.

그 녀자의 얼굴은 그리 미모라고는 할수 없었다. 모든게 선이 굵고 큼직큼직하게 생겨먹었다. 그러나 허리가 잘룩하고 엉뎅

이와 앞가슴팍이 부풀어오르고 마흔되도록 애기낳이를 한번 해보지 않아 그런지 비온 뒤의 란초처럼 청초하고 싱싱해서 남자들의 정욕을 쉽게 자극하는 녀자였다. 거기에 교제술이 세련되여 어느 기생들도 따를수 없게 당대의 일류명사들을 손쉽게 다스리군 하였다.

리승만은 모윤옥이 처음으로 접근하여 침방까지 드나들게 됐을 때 윤치영이 그 녀자의 치마폭이 열두폭이라고 일러주던 말이 가끔 생각나군 했다. 그 열두폭치마로 총독청의 한다하는 명사들을 다 휘감아온것이 좀 께름은 하지만 녀자로서의 가치를 리승만은 후하게 매겨놓았다. 매일밤 동침하는 남자들이 달라지게 하는 그 솜씨가 리승만에게는 필요했던것이다.

리승만은 브라운이 응하지 않자 모윤옥을 내세웠다. 처음 몇번은 초대장을 들려 브라운에게 나타나게 하였다. 모윤옥이 브라운소리에 몸을 꼬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교태를 부리는것으로 보아 어제저녁에 끝내 그 열두폭치마로 브라운을 휘감아 브라운의 침실에서 딩굴고 온것 같다. 브라운이 드디여 리승만에게 제 먼저 오겠노라 한것도 모윤옥이 잠자리에서 구슬려낸 모양이다.

벽시계가 부르르 떨더니 열점을 땡땡 쳤다.

《아, 이렇게 됐는가?》

브라운이 10시경에 오겠노라 했다 한다.

리승만은 열에 떠서 발깃한 물이 오른 그 녀자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손을 뗐다.

모윤옥의 아양을 더 받아주고싶은데 아무래도 브라운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았다.

《참, 자네 시집이 언제 출판된다 했더라?…》

《다음주에… 출간회를 열자면…》

모윤옥이 이렇게 뒤말을 살짝 감추는척 하며 반점이 돋은 리승만의 손등을 쓸어주었다.

《좋아. 윤치영이더러 5만을 달라고 해.》

《고맙습니다. 위원장선생님.》

《허, 그 말 듣기 안좋다. 둘이 있을 때도 위원장인가. 령감님이라 불러.》

《호호호—》

모윤옥이 또 한바탕 간드러지게 웃고는 리승만의 왼쪽볼에 입술을 살짝 댔다가 떼며 《령감님, 그럼 안녕.》 하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모윤옥이 일본놈들이 망하자 곁에 앉기도 지긋지긋해보이는 반송장에 가까운 리승만에게 얼른 들어붙은것은 이런 재미때문이였다. 그는 8.15를 맞이하자 무엇보다도 《일본주구숙청자》 명단에서 빠져나와야 했던것이다. 그리고 인생을 즐길수 있는 돈줄이 필요했다. 그 대상을 리승만으로 꼽았다. 리승만도 그 녀자의 육체가 풍기는 서양적인 매력과 상류계에서 인정받은 사교술과 필요한 정도의 지성이 늙음을 자극하는 멋도 있고 장차 양인들과의 사업에도 쓸모가 있을것 같아 그 녀자를 받아들였다.

그랬던것이 피차에 노렸던바를 이렇게 주고받으며 서로 유익한 보상을 한다.

리승만은 모윤옥이 물러가자 곧 창문을 열어 그 녀자가 남기고간 분내와 향수내를 가셔냈다. 그는 거울앞에 가서 모윤옥이 마구 주물러놓은 옷매무시며 머리단장을 바로하고 쏘파에 도로 와서 앉았다.

(브라운이 도대체 무슨 말거리를 가지고오는가? 반가운 소식이겠는가, 불길한 소식이겠는가?…)

하지보다 브라운은 내흉스러운 인간이라고 판단되였다. 하지는 속에 있는 말을 다 토해놓지 않으면 갈증이라도 만난듯 참지 못하는데 브라운은 쇠통 속내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요즈음은 도무지 길흉이 내다뵈질 않았다. 미국무성은 여전히 자기를 이나라 통수권의 일인자로 지목하고있는것 같은데 하지와 그의 부하들은 갈팡질팡이다. 만날 때마다 우익세력의 단합을 요구하는데 그게 될상싶은가. 설사 안된다면 어쩔테냐. 미국에 붙어먹는 세력이 내 발밑에 벌떼처럼 몰려드는데 그것이면 족하지. 려운형이나 김구를 다 끌어안고 어쩌자는거냐.

세월이 흐를수록 하지는 공공연히 삿대질이다. 권력의 상좌를 다른 세력에게 넘겨줄 의향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미국에서부터 리승만이 제일 가까이 지내고 보호자로 자처해온 정치고문 구펠로까지 쫓아버렸다.

(구펠로… 당신이 있어야 되는건데…)

리승만은 때없이 떠오른 구펠로생각에 자기도모르게 상통이 찌그러지고 속에서 하지에 대한 분노가 부지지 끓어번졌다.

(미국의 리권을 지킨다는 네놈이 미국의 영원한 벗이 되겠다고 맹약한 리승만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들수 있다더냐.)

구펠로의 실각은 그와 리승만의 밀착관계가 빚어낸 추문으로 하여 벌어진 일이다.

리승만은 벌써 오래전부터 구펠로와 친교를 맺어왔다.

구펠로는 미중앙정보국의 전신인 미전략정보국 창설자의 한사람으로서 초대 비밀공작담당 부국장으로 있은 미국의 거물급정탐배였다.

구펠로는 주체31(1942)년에 리승만을 장차 아시아지역에 침투시킬 고등첩자로 내정하였다. 리승만의 독립청원놀음을 배후에서 협력해주는척 하면서 이 역적놈을 비밀대령급문관으로까지 채용하였다.

리승만은 구펠로의 접근에 추파를 보내였다. 미정계안에서의 구펠로의 영향력을 리용하여 제놈에 대한 미국의 지지기반을 넓혀나가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다. 리승만은 자기의 측근인물들인 장기영, 정윤수, 장석윤, 장덕수, 허정 등 20여명의 교포인물들을 구펠로에게 보내 전략정보국소속 정보학교 1기생으로 훈련받도록 하고 미전략정보국의 비밀요원으로 움직이도록 하였다.

리승만은 구펠로뿐아니라 미정계의 여러 인물들에게도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류학하던 자기의 정부인 임영신을 비롯한 녀자들을 안겨주어 비교적 두터운 친미인맥통로를 만들어놓았다.

8.15후 이들은 서울에 날아들어 리승만의 측근으로 공공연히 행세하면서 여전히 친미지레대를 단단히 거머쥐였다.

리승만은 구펠로밖에도 미국무성의 요직인물들인 올리버와 윌리암스, 해롤드 레이디 그리고 조선파견 선교사출신인 호머 할버트, 노불 등 여러 인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정치적립지를 미국의 정계에 튼튼히 다져놓았다. 이들은 리승만이 귀국할 때부터 《조선위원회》라는 비공식적인 후원단체까지 조직하여 미군부와 미중앙정보국에서 리승만을 장차 조선반도의 통치자로 내세우기 위한 활동을 맹렬히 벌렸다.

여기서는 단연 구펠로가 주동이 되였다.

구펠로는 상하이림시정부의 구미지부위원장자격으로 입국하려는 리승만의 입국사증이 미국무성에 의하여 부결되자 미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와 미국무장관 마샬을 여러차례 만나 미전략정보국의 대좌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혀서 서울에 나타나도록 막후공작을 벌렸다.

구펠로는 그후 하지중장의 정치고문이라는 공식명함장까지 버젓이 가지고 미군정청에 나타났다. 그는 리승만의 정책적움직임을 유도하는 한편 하지와 현지의 미군정인물들이 리승만을 지지하도록 공작을 하였다.

그런데 바다건너 멀리에 있는 이자들이 리승만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있는것은 결코 리승만의 가까운 지기라는 단순한 리유에서가 아니였다. 그들은 리승만의 정치적무게를 계산한데 기초하여 남조선에서 얻을수 있는 자기들의 경제적리윤부터 산출해냈으며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있었던것이다. 실제상 리승만이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한것은 리권이였다. 리승만은 미국식의 실용주의철학이 골수에 배인 양인들이 먹을 알이 없을 때는 눈섭 한오리 움직이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리승만은 귀국하자바람으로 《신의를 지켜》 이러한 맞바꿈질부터 시작하였다. 제놈의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한 지주, 자본가집단과 친일세력을 내세워 기름종지를 노리며 군침을 흘리는 이 서양고양이들에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하나둘 알속이 큰 경제적리권들을 안겨주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일은 판이 커져 인차 들장이 나게 되였다.

지난해 초에 《민주혁명당》의 미국지부가 발행하는 신문 《독립》이 리승만이 구펠로의 친구인 사무엘 돌베이라는 미국인을 남조선의 광업고문으로 임명하도록 주선한 대가로 백만딸라의 사례금을 받아 나누어먹었다는 자료를 실었다.

신문이 나가자마자 미국교포사회는 물론 남조선사회에서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났다.

리승만과 구펠로가 초기에는 신문을 걸고 미국 지방법원에 상소를 하였다. 반박기사도 신문에 실었으나 그럴수록 여론의 화살은 더욱 비발치듯 했다.

일이 터지자 그러지 않아도 리승만의 독선, 독주를 극구 찬양하여 그의 보호자로 나서는가 하면 은근히 맥아더와 미정보기관을 등에 업고 함부로 삿대질을 하던 구펠로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오던 하지는 불행중 다행이라고 인정하고 백악관에 급전을 보내여 맥아더가 미처 손쓸새가 없이 그를 소환시켜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리승만과 하지사이는 크게 벌어졌다. 쫓겨간 구펠로가 국무성과 국방성의 서울관계자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닌 덕으로 그자리에 리승만의 측근인물인 노불이 들어앉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하지앞에서 매우 제한적이였다. 구펠로에게서 쓴맛을 본 하지는 노불이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대하여 사정없이 면박을 가하군 하였다. …

《시간이 지났는데…》

리승만은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혼자소리로 투덜거리였다.

그는 쏘파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고는 브라운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브라운의 속내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노불은 브라운과의 사업도 중시하라고 여러번 귀띔을 주었으나 당자가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는다.

첫 면담에서 리승만은 세가지 문제로 하여 실망을 느꼈다.

첫째로 브라운은 시원스럽게 네가 룡상에 오를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속을 쓰게 깔찌근깔찌근거리는것이였다.

구펠로는 만날 때마다 한마디였다.

《걱정마시오.》
그런데 뒤날에 알고보니 브라운은 마땅히 자기앞에서 해야 할 말을 김구에게 던져주고 왔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지에게 달려가서 분통을 터치고야말았다.
일은 좋게 마무리되였지만 뒤자리가 찜찜하기 그지없다. 브라운이 어떤 속통으로 그렇게 소란을 피워놓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하여 피차에 관계가 어성버성해졌다.
둘째로 브라운은 구펠로를 만난 이야기를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은것이였다. 구펠로는 브라운이 서울에 온 후 곧 전화로 브라운을 워싱톤에서 만났다는것과 깊이있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여운이 있는 말을 하여왔다.
그런데 브라운은 시치미를 뚝 뗐다. 끝내 구펠로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셋째로 그를 실망시킨것은 브라운이 자기를 맨 마지막순위로 만나준것이였다. 분명 의도적인것이였다. 그리고 협상에서 명수급이라 하던 브라운이 오찬석상에서까지 한번도 웃지 않는것이였다.
사교적인 인간으로, 온건한 인물로 세평을 받고있는 브라운이 어째서 내앞에서는 잔뜩 신경을 도사리고있는가.
이것 또한 흉조이다. 그가 하지에게서 단단히 사전훈계를 받고온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모윤옥이라는 다리를 놓았다. 모윤옥이 그의 침방은 점거한것 같은데 마음까지 정복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워낙 양인들이란 제가 방금 재미를 본 녀인도 돌아앉아서는 목졸라버리는 포악한 사탄의 무리라고 리승만은 알고있다. 자기의 실리가 보이지 않으면 주저없이 어제날의 친구도 우정도 사랑도 헌신짝이 되고마는게 미국이다. 리승만도 이런 일을 수없이 보고 듣고 체험도 했다. 이른바 실용주의로 불리우는 이러한 사회적관계가 미국의 철학적리념이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찬미되지만 리승만은 속으로는 더러운 야만들이라고 욕질도 해온다.
《브라운이라…》

리승만은 복잡하게 서려드는 생각에서 헤여나오고싶은듯 이렇게 중얼거리였다. 이번에 오면 권력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확답을 받아내리라고 결심하였다.

2

오전 10시경에 오겠다던 브라운은 끝내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준비해놓았던 오찬상은 비서실의 윤치영을 불러 모윤옥을 가운데 앉히고 요정을 냈다.

리승만이 낮잠에서 깨여나 정신을 차릴무렵에야 브라운이 왔다고 윤치영이 알렸다.

브라운은 리승만이 내미는 손을 잡고 가볍게 목례를 해보였다.

《고맙소이다, 바쁘신 시간을 내주시여…》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김구선생한테 들려오느라고.》

브라운이 사죄를 하는데 그 인사치레가 대번에 리승만의 뇌리를 강하게 자극하였다.

(또 김구냐?)

《그러니… 또 순례방문이신가요?》

《아니…》

브라운이 한번 고개를 가로젓더니 가볍게 웃었다.

처음 보는 그 웃음이 다소 리승만에게 용기를 주었다.

자리에 앉자 브라운은 방안을 한바퀴 휘둘러보고는 《난 2차 미쏘협상과 관련한 리선생의 고견을 듣고싶어 왔습니다.》 하고 화제를 펴놓았다.

《2차협상?》

리승만은 전혀 예기하지 못했던 문제라 당황해지기까지 하였다.

저도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다. 벌어진 입안으로 금이발이 번

찍번찍거렸다.
모윤옥이 소리없이 들어와 브라운의 뒤자리에 앉았다. 브라운이 돌아보며 눈을 찔 빨았다. 리승만은 모윤옥을 가운데 앉혀놓고 좌석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하고싶었는데 브라운이 내쫓으라는 소리같아서 그에게 고개짓을 해보였다.
《말씀하시오. 우리한테서야 무슨 고견이 나오겠소. 거야 뭐 전일에 우리 〈독촉〉이 분명한 신호를 보냈던것 같은데.》
리승만은 그 문제라면 더 길게 론의할 가치가 없는것이라는 립장을 이런 식으로 내놓았다.
《바로 그 문제때문이지요. 우리는 당신들이 전술적으로 미쏘협상을 지지할것을 요망합니다.》
《미국도 미쏘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아닙니까?》
리승만은 1차면담시에 은근히 협상반대에로 자기를 유도해가던 브라운의 말이 생각났다.
《전술이란 가변적이지요. 정치는 정세라는 파도를 정확히 재빨리 타고 흘러야 실책을 면할수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리유를 설명해주시오.》
《리유는?… 미국이 협상을 재개할 결심이라는것이 리유지요.》
《그래 김구는 뭐라고 합디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난 반대요.》
리승만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대답하자 브라운은 지금까지 얼굴에 담고있던 온화한 빛이 일시에 지워졌다.
브라운은 한동안 얄팍해보이는 입술을 다물고 눈에는 엄숙한 빛을 담은채 리승만을 쏘아보았다.
그는 지금 하지의 밀령을 받고 떠나온 길이였다. 어제저녁에 2차미쏘협상을 시급히 재개할데 대한 미국무성의 최종지시가 떨어졌다. 미국은 남북조선인민들의 드세찬 압력을 더는 막을수 없었던것이다.
미군정청에서 작성보고한 회담전술안에 다소간의 수정을 가한 협상대책안도 극비전보문으로 내려왔다.

온밤 변신원들이 달라붙어 변신하였다.
그에 의하면 협상의 총적목표는 회담을 완전파탄시키는것으로 규정하여놓았다. 그러되 그 책임을 공산측에 들씌워 남조선에서《단선단정》의 실질적인 구실과 전제를 마련한다는것이였다.
협상대책안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였다.
《총적목표달성을 위해 세가지의 방법을 선택한다.
첫째, 회담재개전에 공산측의 반대의사를 유도해냄으로써 공산측의 반대로 미쏘회담이 무산된것으로 한다.
이를 위한 대책의 세부는 미국무성의 정책연구팀에서 추진한다.》
김구와 리승만에 대한 브라운의 불의방문도 이로부터 조직된것이였다. 미쏘회담을 시종 반대하여온 김구, 리승만이 방향전환을 하면 좌익과 중도세력들의 정세판단에 혼란을 주고 공산측의 협상태도를 후퇴시키게 될것이라는것이다.
《둘째, 회담장에서 회담을 결렬에로 끌고나가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현지세력들이 회담과정에 대하여 불신하도록 회의를 유도하며 그들을 회담장에서 탈퇴시킴으로써 협상을 중단하는것이다.
셋째 방법은 우의 전술안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 추진시키되 이에 대해서는 국무성밖의 기관들이 담당한다.》
하지와 브라운은 셋째 방법이란 모략이며 담당기관은 미전략정보국이라고 생각하였다.
브라운이 오전에 김구를 찾아가니 그는 반대의사를 내놓았다.
자기는 미쏘회담이 신탁통치를 위한 실무회담에 지나지 않으므로 반대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노라 하였다.
그러나 그도 현단계에서 회담의 최종결렬을 위한 한발자국의 양보라고 하자 내키지 않은투로 고개만 끄덕거리였다.
브라운은 리승만과는 설명을 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김구가 찬성하니 자기는 반대한다는 이러한 론법이 도대체 이 나라의 옥좌를 바라보는 인간의 대답인가? 리승만의 반대주장이 너무도 단순하고 졸렬하여 기분이 크게 잡치였다.

브라운은 새삼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보다가 이 기회에 이 인간을 단단히 다불려놓아야 되겠다고 속셈을 하였다.
《리선생, 난 구펠로에게서 당신에 대한 좋은 평가를 듣고 왔소. 그런데 지금 나는 구펠로가 왜 서울에서 쫓겨났으며 당신이 어째서 사령관의 랭대를 받고있는지 리해가 되였소. 당신은 정치의 문맹자요!》
《뭐라구요? 소장각하, …당신이 도대체 서울에 온지 얼마나 됐다구 그런 실언을 탕탕 하는거요. 당신은 례절이 없소.》
리승만은 내려붙은 눈덕을 걷어올리고 어성을 높였다.
그러나 브라운은 경멸에 찬 눈길을 접히지 않고 그냥 매정하게 질책을 하였다.
《당신은 아직 이 나라의 권력자가 아니라는걸 명심하시오.
미국은 당신이 옥좌에로 가는 길에 푸른 신호등을 켜주지 않았단말이요.》
《소장각하, 당신은 나에게서 뭘 더 바란단 말이요. 그래 이 나라에서 솔직한 말로 나보다 더 절친한 미국의 벗이라도 찾아냈단 말이요?》
《그건 우리의 화제에서 탈선된 소리요. 난 당신이 당파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미국적인 리해관계를 중시할것을 바라오.》
《좋아요. 당신이 제기한 문제가 미국의 정치에 부합된다면 난 구태여 그 과정을 묻지 않겠소. 접수하리다.》
리승만은 브라운이 그 도고한 자세를 한점도 흐트러놓지 않으려하자 기고만장하던 종전의 허세를 버리였다.
브라운에게는 리승만의 갑작변이가 또 어처구니없었다. 도무지 이런 인간이 어떻게 정치의 노를 쥐고있을가. 남의 소리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기의 공론으로 접수해버리는 이런 인간이 미국의 첫째가는 벗이라니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노릇이다.
그러니 미국의 남조선정책이라는것도 추진될리 만무하다.
브라운은 극도의 환멸감에 소태를 씹은듯 입이 쓰거워났다. 이런 인간을 구펠로가 어떻게 감싸고 돌아갈가.
《잘해보시오. 리선생, 나도 당신도 정치를 하고있소. 정치

야 정치답게 해야지. 이건 아이들이 벌리는 유희가 아니란 말이요.》

브라운은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왔던 사교적인 례의와 정중성의 자그마한 감정까지 일소해버리고 마치도 소학교아이들을 훈계하듯 책망하고 일어섰다.

승용차를 타려고 하는데 모윤옥이 그에게 자그마한 부인가방을 내민다.

《부인님께 저의 성의로 전해주세요.》

《모윤옥양의 성의?… 고맙소.》

브라운은 그 가방이 리승만이 마련한것이고 그 가방안에는 딸라뭉치가 차있을것이라는것을 감촉하였다.

승용차를 타고오면서 브라운은 제풀에 허허— 하고 웃고말았다.

어떻게 저 인간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가. 《독촉》만 봐도 수십만이라 한다. 《한민당》까지 저 인간을 내세운다. 거기에 리승만이 자기 심복자인 장덕수를 정치부장으로 들이박아 조종하고 있다지만 거기 실력자들을 만나보니 만만치 않다. 여러개의 청년단체도 모여들고 정보모략집단들도 여러개 쥐고있다고 한다.

사처에 저 인간의 사진이 김구와 나란히 걸려있다. 리승만의 《구심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가? 저렇게 권력에 미쳐 주견머리없는 인간이 주위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마술력》은 어디에서 오는걸가.

아… 그렇지. … 브라운은 웃었다. 그앞에 차려놓았던 만찬상이 생각났다. 상대방의 구미에 발라맞추어 그가 노린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힘, 미국의 지지이다. 저 인간이 맹목적인 굴종으로 얻어내는 미국의 지지가 측근세력을 통솔하는 힘이고 기교인것이다.

《미국의 끈에 매달린 늙다리!》

브라운은 입속으로 나직이 외우며 또다시 웃었다. 저런 뼈대없는 인간들을 추려서 그에 의지하려는 미국무성도 가련하다.

그의 눈앞에 다른 모습들이 리승만의 상판을 밀어내고 떠오른다.

기골이 름름하고 멋지게 생긴 사나이, 우렁우렁한 목소리, 아니

면 아니고 옳으면 옳다고 분명하게 주장하던 모습—려운형이다. 두볼이 심술스럽게 처지고 입술이 앞으로 밀려나온듯한 얼굴,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말하고는 버릇처럼 눈을 꼭 감아버리던 모습—김구다.

《그게… 인간들이지!》

브라운은 또한번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브라운이 떠나가자 리승만은 고현놈이라고 뒤발질하기 시작했다.

이제 브라운은 하지에게 곧바로 달려갈것이다. 두상이 어쩌오저쩌오 하면서 횡설수설할것이다.

《당초에 날 롱간해먹자고 잡도리하고 달려든 놈이여.》

리승만은 부엉이눈처럼 부어오른 눈을 데굴데굴 굴리며 욕질을 했다.

비서실에 들린 리승만은 거기서 윤치영과 한창 육담을 늘어놓으며 그 풍만한 가슴을 흔들어대고있는 모윤옥을 불러 다시는 브라운에게로 발길질 말라고 소리질렀다.

모윤옥이 입을 여우입처럼 해가지고 삐쭉거렸다.

리승만은 윤치영이더러 시급한 시일안으로 워싱톤을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그 준비를 이틀안으로 끝내라고 분부하였다.

3

방안에는 맑고 잔잔한 선률이 흐르고있었다. 백화만발한 5월의 계곡을 감돌며 조약돌을 정갈히 씻어버리는 골개수처럼 유정하고 머리칼을 가벼이 날리는 미풍처럼 상쾌함을 자아내는 음악이였다.

정시명은 라지오에서 울리는 그 음악의 세계에 취하여 벽에 허리를 기대고 비스듬히 앉아있었다. 분초를 쪼개가는 빳빳한 하루일정의 복잡다단한 일들을 보내고는 밤 10시가 가까와오면 라지오앞에서 평양방송에서 내보내는 음악을 감상하다가 밤 10시의 종

합보도를 듣는것이 어길수 없는 일과로 굳어져버리였다.

10분정도로 이어지는 길지 않은 사이음악이였지만 그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한 선률에 묻혀들 때면 정시명은 해종일 몰려든 피로가 가뭇없이 씻겨내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저도모르게 삶의 희열과 보람이 고즈넉이 차들군 한다.

이윽고 음악이 그치자 밤 10시를 알리는 신호종이 명료하게 울리고 귀에 익은 평양방송국의 녀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억양이 독특하면서도 열정적이고 마디마디마다 속깊이에서 우러져나는 힘과 기백이 실리는 그 목소리에 이젠 습관되여 그런지 청춘의 정열과 젊음으로 충만되고 리지가 어린 방송원의 얼굴이 누이동생처럼 정답게 련상되군 한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녀방송원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강구던 그는 처음부터 가슴에 더운것이 뭉클 치받쳐오름을 느꼈다. 방송원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의 한 인사를 만나주신 이야기를 온 세상에 격조높이 전하고있었던것이다.

정시명은 자기도모르게 벽에서 허리를 떼고 숭엄한 자세로 앉아 방송원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의를 집중하였다.

금시 눈앞이 뿌잇해지면서 그립고그리운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이 방불히 떠올랐다. 그이께서 바로 자기를 앉혀놓고 북조선이 지난 2년간 이룩한 찬란한 성과들에 대하여 담담한 어조로 차근차근 들려주시는것만 같았다.

장군님의 슬하를 떠나온것이 어떤 때는 방금 있었던 일처럼 되살아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벌써 오래전의 일처럼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때마다 목이 메이고 속깊이 잦아드는것은 다시 찾아뵙고 열밤이고 스무밤이고 그이의 다정한 미소에 몸도 마음도 다 맡기고 말씀을 듣고픈 그 심정뿐이다.

사무치는 그리움에 잠겨있던 정시명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서렸다. 방송원이 장군님께서 쏘미공동위원회사업에 대하여 심려하시였다고 전하였던것이다.

녀방송원이 아쉽게 **김일성**장군님의 회견소식을 끝내고 이어 남자방송원이 각지 근로자들의 건국투쟁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정시명은 보도가 끝나자 무엇인가 가슴을 쿵쿵 울리는 거창한것을 느끼며 라지오를 끄고 밖으로 나왔다. 한손을 뒤잔등에 올리고 천천히 뒤뜰안을 거니는 그에게는 녀방송원의 마지막이야기가 귀전에서 그냥 떠나지 않았다.

(쏘미공동위원회와 관련하여 그이께서 심려하시는것은 무엇일가?… 아, 우리가 놓치고있었구나. …)

그는 마치도 장군님앞에 나서기라도 한듯 자신을 심심히 뉘우치며 이제부터라도 쏘미공동위원회사업에 대하여 주목을 돌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무엇보다도 쏘미공동위원회사업과 관련한 각계층의 동향부터 조사하는것이 급선무일것만 같다.

지금 좌익권에서는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재개하라고 미국에 압력을 가하고있지만 미국은 태도표명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앞으로도 입을 다물고 꾹 닫아버린 대문의 빗장을 의연히 풀지 않으려는 심산일가. …

그런데 이튿날 송호정이 처를 통해 긴급련락을 보내왔다.

미군정청 통위부장 류동명이 가능한대로 빨리 정향처장을 찾아오라고 했다는 통보였다.

정시명은 류동명의 제의에 기꺼이 응하기로 하고 인천바다가의 해수욕장에서 만났다. 아직은 해수욕을 하기에는 이른 계절이였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봄볕이 재글재글 쪼이는 서울의 더위를 피해온 사람들로 붐비였다.

그들은 백사장에 세워진 버섯모양의 차일밑에서 마주앉았다.

《그래 서울생활이 어떻소? 한번 시간을 내서 찾아본다는게 차일피일 미루다나니…》

류동명은 이렇게 첫인사를 하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일전에 거처를 마련해주시여 저와 함께 서울에 온 지기들이 잘 지내고있습니다.》

정시명은 충칭시절보다 퍼그나도 왕성해보이는 류동명의 모습을 일별하며 생각하였다.

(한자리하더니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군. 미국놈들이 마련해준 자

리가 이 왕년의 무사를 만족하게 해주는가. … 하기는 통위부장이니 실권은 없어도 간판은 야단스러운것이지.)

《이보시오, 처장.》

류동명은 이내 그를 급히 불러낸 문제를 꺼내였다. 오랜 무인생활에 습관된 류동명은 번거로운 례의는 싫어하는 사람이였다.

《전일에 선생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시오?》

《네?!》

《아, 거 뭐 장사노릇하겠다던 이야기… 그래 정말 초야에 묻혀 시국을 등지고 살아가시오?》

《아, 그것말입니까?…》

정시명은 검버섯이 돋은 벌깃한 로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류동명의 묻는바가 인차 짚이웠으나 아직은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아니, 안될 말씀이요. 이제 그렇게도 바라마지않던 조국광복이 성취되였으나 국민이 정치의 노를 저어줄 명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있는 이 어수선한 세월에 어찌 선생같은분이 은둔할수 있겠소.》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류장군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건 지나친 겸양이시오. 내가 처장을 익히 알아 지내온것이 장장 스무해는 족히 되오. 난 벌써 상하이시절부터 선생을 큰 인물로 존경해왔소. 오늘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아 이렇게 조용히 만나자고 했소. 국민이 부르고있을 때 그 요청을 일신의 안위를 앞세워 무시하는건 애국의 초지로 일관된 선생의 뜻이 아닌줄 아오.

정향선생이 정말로 장사에 꺼져버리면 항간에 돌아가는 험담도 바이 틀림이 없다는게 아니겠소?》

《뭐 돈버는 장사치에게 돌아가는 소리가 한두가지겠습니까. 그래 류장군이 들으신 험담이라는건 어떤것입니까?》

정시명은 호기심이 동해서 되물었다.

《들은 그대로 전해도 일없을가?》

류동명이 량해를 구한다는듯 능청스럽게 눈을 찡긋거리며 말을 이었다.

《뭐 북쪽정권에 큰자리달라고 손을 내밀었다가 뒤발질을 당했다나. 그래 다시는 정계에 발을 들여밀지 않겠노라 남쪽에 와서 장사질을 시작했다는게 아니요.》

그 소리에 정시명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미 들은바 있는 험담치고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어처구니가 없는것이다.

정시명이 온몸을 들썩거리며 한바탕 웃자 류동명이 비죽이 따라웃고는 계속했다.

《내 그 말 전해온 사람에게 허무맹랑한 수작질이라고 퉁을 주기는 했지만 이왕이면 듣지 않기보다는 못해. 뒤자리가 무죽하거든. 아, 북조선정권이 어째서 옌안패들은 다 받아들여 한자리씩 주는데 정향선생같은 인걸을 쓴외보듯 한단 말이요.》

《허허…》

정시명이 헌헌하게 웃어버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가 어쩐지 명치에 맺혀든다. 정말 뒤자리가 쯤쯤하다. 북에 뒤발질 당하다니…

《웃어버릴 일이 아니웨다. 선생께는 객적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난 그 말이 우연치 않다고 봐요.

그런즉 허망하기 짝이 없는 늙은이의 로파심으로 흘리면서도 한마디 들어두시오.》

류동명이 다시 자기가 꺼낸 말곬으로 이야기를 몰아갔다.

《정향선생이 초야에 묻히면 자기 인생에 쌓아올린 탑을 일조에 허물어버리는거나 같은거란 말이요. 파란만장한 이 나라의 광복사가 드디여 장을 마무리하고있는 시점에 와서 정향선생같은분이 급기야 나라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세상잡사에 돌아앉는게 어찌보면 장부다운 인생결단인것 같지만 그게 바야흐로 새겨갈 건국사의 큰 페지를 비우는 큰 허실이 된다는 말이웨다.》

류동명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하다가 지나가는 접대원에게 랭수 한사발을 청하였다. 그리고는 상아물주리에 권연 한대를 꽂고 불을 붙인 다음 맛스럽게 들이켰다.

정시명은 류동명이 말꼭지를 류다르게 펴면서도 아직은 서두

르지 않는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여 묵묵히 자리를 지키기만 하였다.

《불원하여 이 남쪽땅에 해방 두주기가 다가오고있소이다.

허나 지금 나라 돼가는게 꼴불견이 아니요. 국민이 좌우로 갈라져 국내전쟁이나 다름없는 정쟁에 말려들어가고있는데 정치인들이라는건 나라평정할 방략을 내놓지 못하고 권력욕에 환장들이 돼서 돌아가고있소.

거기다가 양인들 하는짓들이 눈에 거슬리기만 하오. 나라정사 맡아본다고 하는 하지중장만 넘겨다봐도 그놈들 시키면 속궁냥이 뻔하다는 그말이웨다.

그래 나도 어떤 때는 백발을 날리는 인생말년에 관직자리가 헛일이라고 생각해보지만 다들 이런저런 핑게대고 보신이나 할것 같으면 양인들에게 곁에서 바른소리 해줄 사람은 누구일고?…바른대로 말한다면 하지군의 정치고문하던 구펠로, 그놈두 내가 쫓아버리도록 했소.

아, 정치고문이라는게 리승만의 연줄을 타서 금광채굴권이나 챙길 궁리나 하고있은즉 양인들에게 이 나라 정사 맡기는것이 승냥이무리더러 고간지켜 달라는거나 뭐가 다르냐 그말이웨다.》

류동명은 이렇게 기염을 토하는데 희고 긴 장미가 꿈틀거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거린다.

정시명은 류동명이 끄집어낸 구펠로의 금광채굴권이야기는 처음 듣는바가 아니였으나 류동명이 그를 쫓아내도록 했다는 말은 금시 초문이여서 무등 희한해서 로인을 쳐다보았다. 류동명은 아마도 하지의 곁에서 이따금 대바른 소리로 이 나라의 리권을 지켜가고있다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평생의 황혼을 즐기고있는 모양이였다.

정시명은 지난해 구펠로의 추문에 접하자 곧 그를 폭로규탄하는 여론전을 벌리게 하였었다. 그런데 하지에게 제때에 고소하고 움직이도록 부채질한것이 류동명이라는것을 비로소 알게 되자 한켠으로는 류동명의 사람됨이 새삼스러워지기도 했다.

《참으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시명은 진심으로 이 나라의 백성된 한사람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였다.

류동명이 정시명의 손목을 슬며시 잡았다.

정시명은 로인답지 않게 살이 지고 따스한 기운이 있는 그의 손에 손목이 잡히자 어쩐지 가슴이 찡해왔다.

《이 사람 처장, 내 인사 받고싶어 그 말 꺼낸게 아닐세.》

류동명은 이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나무람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가볍게 그의 손목을 흔들었다.

70여평생에 이르도록 기나긴 려정에서 형형색색의 사람들과 부딪쳐오며 친화력을 키워온 류동명은 그 나이에 어울리는 도고한 기상과 함께 인자하고도 섬세한 정으로 뭇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줄줄 안다.

사실 정시명은 류동명의 간단한 손동작에서 벌써 그와의 간격이 퍼그나도 좁혀든것만 같았다.

《내 정향처장에게 부디 청원하오. 정사에 몸을 담아주시오.》

류동명이 곡진한 어조로 말하며 그의 손목을 안타까이 흔들었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이날이때까지 평생을 나라를 걱정하며 살아온 오랜 무인의 우국충정이 헤아려졌다.

정시명은 그의 신의를 더는 매정하게 뿌리칠수가 없어 《선생님의 말씀을 중히 받들도록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받아주었다.

《그렇게 해주시오, 정향처장.》

류동명은 정시명의 대답이 어정쩡했으나 지금은 그나마도 만족한듯 로인반점이 거밋거밋 박힌 얼굴에 그제서야 함뿍 미소를 담고 정시명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런데 전 아직도 미국놈들이 누구를 내세워 권력이양을 하려고 하는지 가늠이 안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구태여 이름을 찍으라면 미국사람들도 아직은 자신이 없는듯 한데… 하지는 지금도 좌우익과 중간파를 다 묶어세울수 있는 그릇이 큰 인물을 물색하고있지만 정향처장도 돌아봐요.

그런 인물이 이 남한땅에 어디 있소?

그래서 사실은 정향처장이 수락한다면 하지에게 천거해볼 심산에서 오늘 수고로이 오시라 부탁드렸소이다. 내 일전에 우리 통위부 고문으로 이야기했던건 취소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보자고 지내 욕심을 부렸거던. … 하지에게 말을 붙여보라우?》

《하지에게요?》

《정사에 나설려면 밉던곱던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게 아닙니까. 난 정처장이 기발을 들면 분명 좌, 우, 중도가 그밑으로 모여들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하지도 어차피 수면우에 떠오른 인물들로부터 자기의 견해를 달리할수 있을것이라고 봐요.》

정시명은 류동명의 열띤 이야기가 계속되자 입가에 미소를 담았다.

류동명의 이야기가 현실적가능성이 있을듯 하지만 너무도 단순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하지가 자기— 정시명이라는 인물을 리승만이나 김구와 같은 서렬에 올려놓고 금새를 재이게끔 되자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들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는가.

하지는 고사하고 류동명이조차 정시명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지 않는가. 사실 류동명은 통위부장이라는 당시로서는 실력자로서 정계에 관여하고있었지만 아직도 한명의 우국지사에 불과하였지 정치의 복잡다단한 생리를 속속들이 꿰들고있는 정치가는 못되였다.

류동명도 정시명의 입가에 비낀 미소에서 자기의 정치적단순성을 느낀듯 접대원이 떠다놓은 찬물 한사발을 쭉 들이키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자기의 안목으로 관찰한 정치의 현상황을 나름대로 자상히 이야기하는데 빈번히 《내 생각에는 말이요.》 하는 말을 련발하군 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전후 련계가 부족하고 명백한 평가와 분석이 없었지만 미국놈들과 리승만, 김구와의 삼각관계에 대한 명확한 표상을 주는 생동성이 있어서 실감이 있었다.

류동명은 때로는 자기가 보아두었던 미군정청의 극비문건내용들도 인용하였는데 그 나이치고는 기억력이 상당하였다. 아마도 류동명은 정시명과의 담화를 위하여 사전에 이야기준비에 품을 들였던것 같았다.

정시명은 적지 않은 이야기들은 자기도 알고있었지만 류동명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다시금 정치의 흐름을 그려보았다.

《그렇게 됐은즉 내가 정향처장을 하지중장에게 소개하려고 생각한것이 과히 웃어보낼만한 일이 아니지 않소.》

류동명은 이렇게 정세를 개괄해보이고는 다시 돌아와 자기가 내놓은 문제에 매듭을 지었다.

정시명은 류동명의 옆자리에 앉아 승용차를 타고오면서 차창밖에 언뜻언뜻 스쳐가는 풍경에 눈길을 보낸채 류동명의 이야기를 곰곰히 되살리였다. 그리고 조성된 정세를 분석해보고 금후 대책적인 방향을 생각해보았다.

명백한것이 몇가지 떠올랐다.

무엇보다 류동명이 예나제나 변함없이 진심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애국충신이라는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정치적우매성은 여전한것 같다. 그는 아직도 미국에 대하여 어린애같은 단순심리를 가지고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있다. 더구나 근래에는 미국놈들과 아침저녁으로 상종하는 까닭에 미국의 국력에 위압을 당한듯싶었다. 류동명을 저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로 명백한것은 현남조선정치구도에서 중심은 하지를 대표로 하는 미국이라는것이다. 특히 남조선의 정국방향은 전적으로 하지의 결정권에 속하여있다는것이 확연하게 느껴졌다. 그러므로 장차 앞으로의 투쟁대상은 하지를 두목으로 하는 미군정으로 설정되여야 한다. 대결대상은 하지이며 조직의 전략적목표는 조선반도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화정책을 파탄시키는데 기여하는것이다.

그러자면 하지의 립장과 견해를 알아야 하며 미군정청안에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

셋째로 명백한것은 미국이 조선에서 통일적인 정부를 세울데 대한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뒤집어엎으려 한다는것이다. 그놈들이 현시국에서 남조선의 주되는 세력을 묶어세우기 위해 갖은 오그랑수를 다하고있는것은 통일정부구성에 대비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데 있다. 하지는 그 《단

독정부》를 이끌수 있는 재목감을 아직도 결심하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있는것이다.

누구한테 주패장을 던지려 하는가?… 정시명은 다시금 류동명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하지의 립장에 서서 해답을 찾아보았다.

일시에 여러 정객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얼핏얼핏 지나갔다. 종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하지를 만나는것이 문제를 파악하는 최선의 지름길 같다. 그를 만나본 후에 차후행동방안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마침 류동명이 이런 말을 꺼냈다.

《한번 하지중장을 만나보지 않으시려우?》

《하지를 말입니까?》

《만나보시우. 뭐 그 사람을 복잡하게 대상할것두 없어요. 그 사람 군사치고는 말재간은 있는 사람이지만 처장앞에서는 상대가 안될거라고 봐요. 미국것들이라는게 나라덩지를 믿고 앞에서는 우쭐거리지만 사귀고보면 잡뱅이 한가지라니…》 하며 류동명이 껄껄 웃었다.

《예, 마크 트웨인이라는 한 미국작가가 말한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정치가들이 하는 일이라면 벼룩이도 할수 있다. … 이렇게 말입니다.》

《벼룩이도 한다고? 허허허, 거 정말 명담이군.》

류동명이 다시금 폭소를 터뜨리였다.

《좋습니다. 만나봅시다. 이번 주말로 하면 어떨가요?》

《그건 안될것 같소. 어제저녁 비행기편으로 워싱톤에 불리워갔소. 마샬국무장관의 긴급호출을 받고 떠났다고 하니 언제 돌아올지는 미정이우다. 하여간 돌아오면 쉬이 면담을 주선하리다.》

류동명은 정시명이 자기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이는듯싶어 사뭇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하지가 왜 불리워갔답니까?》

《글쎄… 미쏘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닐는지…》

류동명이 자신이 없어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는데 정시명은 새로운 소식에 귀가 번쩍 띄였다.

그러지 않아도 은근히 그쪽으로 화제를 몰고가려고 했는데 류동명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놓으니 다행스러우면서도 희한한 생각도 들었다.

그래 얼른 그 말을 받았다.

《미쏘협상을 다시 연답디까?》

《아마 그런가봐요. 그놈들이 흉칙하거든.》

류동명이 정시명이 호기심을 보이자 말을 계속하였다.

《쏘련사람들이 받아물지 않을것을 타산했다나 봐요. 그래서 회의를 다시 열자고 작정한가 봐요.》

《그러면?…》

《양놈들속통이 뻔하지요. 지난해 미쏘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겨레가 얼마나 관심이 컸댔소. 헌데 미국것들이 그걸 결렬시켜놓으니 제놈들 꼴이 세상앞에서 어찌되였소. 내만 봐도 그다음부터는 양인들이 곱게 보이지 않더군. 그런데다가 국민이 미쏘회담을 재개하라고 들고일어났으니 야단이지요. 그러니 아마도 지난해의 실점을 회복하자는거겠지요.》

《그런데 쏘련이 쏘미공위재개를 반대할 리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마주앉아야 공리공담만 주고받을 그따위 회의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나앉을탁 없지요. 한주일전에 미국무성 고문이 미쏘회담수석대표인 브라운소장을 데리고와서 하지와 쑥덕공론하는걸 내 들었소. 흉칙한 놈들이야. 일은 저네들이 비틀어놓고는 돌아앉아서 죄를 넘겨씌울 수작을 벌리는거야. 흉칙해. 흉칙한것들이라니까.》

류동명은 흉칙하다는 말을 련발하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국놈들이 흉측한거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정시명은 류동명의 이야기에 이렇게 간단히 대답은 하였으나 신경은 날카로와졌다. 미국놈들이 분명 또하나의 정치적사기극을 준비하고있는것 같다.

정시명은 쏘미공동위원회의 결렬책임을 쏘련과 민주진영에 넘겨씌우려는 책동이 단지 여론을 의식한 미국의 제스츄어라고만 생각되지 않았다. 미국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선에서 제놈들의 식민지적기반을 닦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자면 어차피 미군과 쏘련군의 대치선으로 되여있는 38°선을 남북의 경계선으로 눌러놓고 그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세우려고 획책하고있다. 여기서 걸림돌은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채택된 조선을 독립국가로 건설하며 림시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결정이다.

결국 미국놈들은 또하나의 간교한 모략을 꾸미고있는것이다.

이 모략이 성공되면 미국놈들은 쏘련측과 민주진영이 통일정부수립에 관심이 없으므로 현단계에서는 남조선에서의 《단독정부》수립이 불가피하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공공연하게 들고나올것이다.

이를 분쇄해야 한다. 놈들에게 제놈들의 식민지적야망을 정당화할수 있는 구실과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미국놈들의 가면을 세상앞에서 벗겨놓고 그놈들을 수세에 몰아넣어야 한다.

정시명은 이렇게 결심하였다.

류동명은 정시명이 일을 보는 흥국상회정문에 승용차를 세웠다.

그는 하지가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놓겠으니 당분간 서울을 뜨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는 자기의 요청을 심사숙고하여 아무튼 대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말하였다.

정시명은 자기 사무실로 가자 인차 마동열을 전화로 찾았다.

김명호와 길철을 찾아내여 한시간간격으로 모나리자다방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

모나리자다방은 경비사령부의 가까이에 있는 차점으로서 혜영의 이름으로 등록해놓고있는 정시명의 사업거점이였다.

모나리자다방은 마동열이 운영하고있는 크로바차점과도 가까이에 있어 앞으로 그들을 결혼시켜 딴살림을 시킨다고 하여도 일보기가 편리하게 되여있다.

요새 마동열과 례영의 사이에는 무언의 장벽이 쌓아지고있었다.

마동열의 눈치가 달라지고 주위의 눈길이 자기와 마동열의 사이를 색다르게 보는것을 알게 된 례영은 마동열의 앞에서는 새침해져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처녀가 싸늘하게 태도를 보이자 마동열이도 괜히 거북스러워 례영이 나타날 때마다 구석짬을 찾느라고 덤비군 하였다.

그래도 밤늦게 다방에서 돌아올 때면 꼬바기 마중을 가군 했는데 전에는 례영이가 또 오셨는가고, 고맙다고, 래일도 늦게 올것 같으니 또 수고해달라고 무랍없이 인사를 차렸건만 요즘에는 인사는 고사하고 왜 또 나왔느냐는듯한 맞갖잖은 표정이다.

그때마다 총각은 밸이 우쩍 끓어올라 다시 마중나오면 내 도리깨아들이라고 자신에게 화를 내건만 막상 다음날저녁이 되여 어슬어슬해지면 례영의 걱정에 또 떠밀려나왔다.

당자들은 어떤 사이든 그들에게로 가는 눈길들은 한결 따스해졌다.

민순임이도 처음에는 동열삼촌이라고 어려워하였는데 그들의 색다른 교감을 알게 된 때부터는 마치도 사위 취급하듯 《자네》로 호칭이 바뀌여지고 《이러저러하게 하게나.》 하고 말투가 별로 곰상스러워졌다. 그리고 어느저녁인가 정시명에게 례영이네가 정말 조금도 짝이 기울지 않는 천상배필이라고 말끝마다 뇌이군 했다.

4

정시명은 그들의 생각으로 하여 흥떠진 기분으로 모나리자다방으로 들어갔다.

례영이가 가져온 차잔을 들고 정시명은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있게 될 미국놈들과의 대결을 두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시에 떠올랐다. 뻐근한것이 흉중에 꽉 차올랐다.

조직이 처음으로 벌리는 투쟁이므로 힘에 부치는 싸움이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식의 싸움이 아니다. 물론 회담자체에는 크게 기대를 걸고싶지 않았다. 미국놈들이 자결이요, 독립이요 사탕발린 요설을 많이 늘어놔도 남조선을 타고앉을 흑심만은 버리지 않으리라는것은 밤에 불보듯 하다.

애당초 미국놈들이 조선반도에 새로운 민주국가가 탄생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때문에 이 나라에 기여들었겠으며 피 한방울 흘리지 않는 주제에 군정은 왜 펴고있겠는가.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쏘미회담에서 완전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을 선사받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승냥이한테서 물고있는 고기덩이를 넘겨받을 꿈을 꾸는것처럼 어리석기 그지없는짓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놈들이 2차쏘미회담을 코에 걸고 흉계를 꾸민다는데 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미국놈들이 민족분렬이라는 력사적대범죄를 내키는대로 자행할것이다. 장군님의 명석하신 예언이 그대로 현실화되고있다.

아, 장군님께서 벌써 놈들의 꿍꿍이를 헤아려보신것이구나. …

그러니 이 싸움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맡아안자. 온 나라가 쏘미공동위원회를 재개하라는 피의 항전을 벌리고 안팎으로 미국놈들에게 압력을 가하고있는 때에 우리도 타격전을 벌려야 한다.

미국놈들에게 이 나라의 허리를 찍어놓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 땅의 주인들의 량심이 살아있고 이 나라의 완전독립의지가 굳건하다는것을 미국놈들의 골통에 쪼아박아넣어야 한다.

우리의 력량을 가지고 놈들의 모략을 짓부실수 있을가?…

그는 스스로 흥분되였다.

흥국상회를 무은 후 처음으로 벌리는 싸움이므로 더구나 절대로 패배하지 말아야 한다. 첫 대결에서 패하면 우리 동무들에게 주는 영향이 클것이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정시명은 이렇게 되뇌이며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정시명은 자기가 몹시 흥분되였다는것을 알자 빙그레 웃었다.

그는 랭철한 리성으로 돌아가고싶어 머리를 가로젓고 놈들과의 대결방안을 곰곰히 세워나갔다.

놈들의 흉계를 재확인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다.

하지가 무엇부터 시도하려는가?

그는 신문에서 보았던 하지의 얼굴을 눈앞에 떠올려놓고 그놈의 속심부터 헤쳐보았다. 류동명의 이야기에서 포착된 문제들이 하지의 속궁리로 다시 어울려들었다.

선명해지는것은 회담탁에 마주앉기 이전에 회담에 관한 쏘련측의 반대의사를 유도하려고 한다는것이였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미국놈들이 쏘련측으로부터 쏘미회담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유도해내려고 하겠는가. 조선문제를 쏘미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성의를 보여온 쏘련측이 무슨 근거로 회담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미국놈들의 첫번째의 계획은 분명히 이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할수 있다고 보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어떤 계교로써 쏘련의 불참의사를 유도하려고 하겠는가?

쏘련측의 립장을 변화시키려면 미국놈들은 그 무슨 획기적인 전술적변화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정시명은 스스로 걸어놓은 첫번째 의문부호부터 해명해낼수가 없었다.

그는 이 문제가 절벽처럼 막아서자 일단 덮어놓았다.

정시명은 다른 문제점을 끄집어냈다.

미국놈들은 공산측의 회담참가를 막을수 없다는 가정도 세워놓고있다.

그 경우에 어떻게 나오겠는가? 이 문제를 놓고는 여러가지 해답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회담을 질질 끌다가 상대방의 반응에서 그 어떤 트집거리를 찾아내서 회담을 결렬시킬수 있다. 이건 그놈들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수법이다. 지난 시기 테헤란회담이나 포

츠담회담에서도 미국놈들은 그렇게 한바가 있다.
회담결렬을 위해서는 우익세력을 써먹을수 있다.
1차 쏘미회담때처럼 《탁치반대》구호를 내걸고 회담반대의 역풍을 몰아올수 있다. 그러면 미국놈들은 《조선사람들이 일치 반대하는 회담이 현실적의의가 있는가.》 하는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회담중지를 선언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미국이 모략의 막을 내릴수 있겠는가? 두번째의 도전으로도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오겠는가?
일방적인 퇴장을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이건 막부득이한 경우에나 써먹을수 있는 궁여지책이다. 그리고 매우 저급하고 치졸한 방법이다.
1차회담때보다도 더 강도높은 규탄을 받게 될수 있다는것을 저놈들도 알고있을것이다.
그러니 이렇게는 감히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다른 방법을 찾게 될것이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가?… 어떤 방법인가?
사색은 다시 여기서 정지되였다. 역시 정확한 정보가 선행되여야 한다. 당장 길철부터 만나야 할것 같다. 모두가 미국놈들과의 첫 대결에서 크건작건 자기 몫을 안고 움직여야 할것 같다.
그가 어느 하나도 명확한 계선을 긋지 못한채 삭막한 미궁에서 헤매고있는데 김명호가 먼저 나타났다.
김명호가 자리에 앉자 인차 화제를 꺼내놓았다.
《김선생, 미국놈들과 한번 부딪쳐봅시다. 큼직하게 말이요.
지금 온 나라가 미국놈들에게 쏘미회담을 재개하라고 드세게 압력을 가하고있지 않소. 그러니 우리도 이 전인민적인 싸움에서 제 몫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소.》
정시명의 다소 흥분된 이야기에 김명호는 긴장한 눈길로 그를 쳐다볼뿐이였다.
《미국놈들이 제2차 쏘미회담을 주동적으로 재개하려고 한다오. 그런데 이 말자체에 문제가 있거든. 어떻소, 김선생?》
정시명은 김명호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이렇게 말고삐를 그에

게 슬쩍 넘겨주었다.

《네, 문제가 있기는 있는것 같습니다.》

김명호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긍정하면서도 뜨아한 어조로 응수하였다. 그는 자기에게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리된 립장이 없다는듯 선뜻 말고삐를 넘겨받으려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정시명은 굳게 닫아붙인 그의 두툼한 입술을 보다가 자신이 자기 흥분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을 생각하고 호주머니에서 곰방대를 꺼내 담배를 다져넣었다. 상대는 문제가 완전히 파악되고 그에 대한 자기의 견해가 완전히 정립되기 전에는 속생각을 함부로 내놓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시명도 아직은 길게 이야기할게 없었다. 류동명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전부다.

(이 사람과 전술적문제를 협의하자면 나의 자체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내가 첫 싸움을 예견하고 확실히 흥분하고 조급해졌구나. 그래서는 안되지. 지휘관이 감정이 앞서서는 옳은 책략을 세울수 없지. 더구나 이제 벌려야 할 싸움은 돌격구령을 내리면 포탄이 날고 병사들이 달려나가 백병전을 벌리는 속전속결의 전투가 아니다.

이건 지혜와 지혜, 사상과 사상의 대결이 이루어질 정치전이다. …)

정시명은 구체적인 준비와 초보적인 결심이 없이 김명호와의 사업을 시작한 자신을 질책하며 담화를 인차 마치였다. 그는 류동명에게서 들은 이야기만 들려주고 정당들과의 사업을 쏘미협상문제에로 지향시킬것과 인차 협의에 참가할 준비를 할데 대한 과업을 주어 돌려보냈다.

한시간이 지나 길철이도 왔으나 길게 붙잡지 않았다. 역시 류동명의 이야기를 해주고는 그와 관련한 미국의 동향과 움직임을 알아내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바탕 해보잡니까?》

길철이 정시명의 지시를 접수하고나서 무엇인가 거창한것이 짐작되는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우리가 미국놈들과 겨루게 될 첫 싸움이요. 미국놈들이 조선땅에서 제멋대로 날뛸수 없다는것을 단단히 가르쳐줍시다. 사실

상 미국놈들은 10월인민항쟁에서 조선사람들이 어떻다는것을 알게 된것 같소. 이번 싸움은 우리만이 해낼수 있는 싸움이요. 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 지휘일군들부터 조직의 특색에 맞는 싸움방식을 익히고 전투력을 키워나가야겠소.》

저녁에 정시명은 다시 류동명을 찾아 집을 나섰다. 미국놈들의 립장을 보다 정확히 알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은 미군정청앞에 있는 다방에서 만났다. 류동명은 낮에 만났던 정시명이 다시 온데 대해 궁금해했다.

아마도 자기가 제기했던 정계에 복귀하는 문제를 놓고 찾아온것이라고 제나름으로 앞질러 생각했던것 같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돌아가서 두루 생각해보았는데 쏘미협상문제가 석연치 않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쏘미협상?…》

류동명이 정시명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동문서답이여서 다소 실망은 되면서도 의심쩍은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장사를 시작했다는 사람이 지나버린 정치담을 두고 우정 품을 놓고 찾아왔은즉 그게 다른 연고가 있을게 아닌가.

정시명은 류동명의 눈초리에서 상대방의 심중을 대뜸 간파했으나 이제는 류동명앞에서 그런데 개의할바가 아니라는 믿음이 생겨 말을 이었다.

《무엇인가 상서롭지 않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쏘미협상에 크게 기대를 건것은 없다 하지만…》

《쏘미협상?… 옳소이다. 그게 뭐 제대로 될가. 미국놈들의 립장이라는게 심통바르지 않다보니 뭐 기대를 걸어볼게 못되우다.》

류동명은 백발의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통분해하였다.

《전 그래도 쏘미협상이 제대로 열렸으면 합니다.》

정시명은 류동명의 말곬을 열어놓으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랬으면 여북 좋겠소. 헌데 안될겁니다.

실은 내 며칠전에 하지의 방에서 미쏘협상과 관련한 미국무성의 지령문이라는것을 피뜩 보았는데 총적목표라는게 뭔지 아시우?… 회담의 완전결렬이라는겁니다. 아, 회담이라는거야 량켠이 마주앉

을 리유가 있어야 되는건데 이놈들은 마주앉기 전부터 내뺄 궁리부터 하니 무슨 회담이 된다는거요.》

류동명이 상대가 정시명인지라 이제껏 참아오던 울화를 터뜨려놓았다.

《완전결렬이라니요?! 그러면 회담을 재개한다는것은 무슨 쓸개빠진 수작이랍니까?》

《그래서 내 양인들이 흉측하기 짝이 없다는거요. 꼭 흉물들이라니깐. 좀 들어보시우다. 협상대책이라는게 세갈래로 되여있는데 뭐 그게 심술스럽기 그지없단 말이요.》

류동명은 미국무성의 지령문을 생각나는껏 이야기하고나서 흰장미를 푸들거리며 일장 기염을 토했다.

《하여튼 양인들이 미쏘회담과 관련하여 내세운 방안이라는게 뭐 이러루하게 잘해보자는게 아니라 아예 돌아앉을 잡도리를 한것인즉 거기다가 무릇 희망을 건다는게 허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놈들을 가만히 여겨보면 이 나라의 결합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놈들이요.》

류동명이 예까지 말하고는 화가 동하는듯 차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정시명은 차잔에 입을 댔다뗐다하면서 류동명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의를 집중하였다. 미국놈들의 진의도와 책략의 방향이 명백한 표상으로 안겨왔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판단과 너무도 일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미국놈들이 왜 이런 고약한 놀음을 벌려놓는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놈들이 노리는바가 무엇이라고 짐작하십니까?》

정시명은 이 기회에 류동명을 각성시키는것이 좋을듯싶어 의논조로 물었다.

《거야 칠칠야밤에 불보듯한 일이지요. 남북을 총괄하는 저들의 정부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제는 기회를 놓쳤고 힘에 겨운것이라는걸 알게 됐지요. 그러니 이 남쪽에만이라도 세워놓고 국토를 량분해놓아야겠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여론의 인정을 받을만한 명분

이 없다 그말이웨다.

그러니 이번에 그걸 찾아내려는데 있지 않을가. 난 그렇게 생각하우.》

《그러면 결국은 남북분렬을 고정화하자는게 아니겠습니까?》

류동명은 정시명의 예리해진 눈초리를 마주보다가 슬그머니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음—》 하고 땅이 꺼질듯 길고 거친 숨을 내뿜었다.

《그놈들의 흉측한짓을 알고야 어떻게 거저 스쳐버릴수가 있겠습니까.》

따지고드는듯한 정시명의 말에 류동명은 몸을 흠칫거리였다.

《그러니 어쩐단 말이요? 좌익에서 들고일어나겠지만 힘으로 될수 없는 일이 아니요. 대구항쟁도 뒤집어놓고보면 조상의 강토를 하나로 만들자는게 아니겠소. 헌데 숱한 피만 흘리고말았지요.

지금까지 좌익권에서 얼마나 많은 주검이 났소. 우익에서 같이 들고나서야겠는데 양인들에게 덜미를 잡혀있는 꼴들이니 엄두도 내지 못하는게 아닌가. 참 난사는 난사야. 시운이 오락가락하는걸 보느라면 마치도 을사년의 서울풍경을 보는것만 같소. 그래 정향선생이 이렇게 이 늙은이를 다시 찾아주실적에는 무슨 방략이라도 나서지 않았겠소?》

《아니,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접하고보니 당장은 쏘미협상을 기어이 재개하도록 제나름으로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놈들이 이 나라의 주인들을 업수이 여겨도 분수가 있어야지 어찌 한 나라 민족의 운명을 저울에 올려놓고 그리도 희롱질인가 말입니다. 미국놈들이 협상무대에서 더러운 흉모를 벌리는것을 내버려둬서는 안됩니다.》

《정향처장! 그래서 내 정향선생을 이 혼탁한 시국을 바로잡는데 나서라는게 아니요. 내 다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이 나라 백성된 마음으로 청을 드리건대 정향처장이 부디 정사에 나서주시오.

내 요 며칠새 이일저일 여의치 않아 이 서울장안에서 제노라 하는 명사들의 이름을 이리저리 훑으며 세상바람새 가라앉힐 위인을

찾아 헤매여왔소이다. 자, 이것보시오.》 하며 류동명은 품안에서 자그마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서 차곡차곡 접은 참지를 찾아 내여 정시명의 눈앞에 펴놓았다. 정말 거기에는 남조선정계에서 알려진 유명인물들의 이름이 좌익이건 우익이건 중도파인물이건 관계없이 수십명이나 써있었다.

앞머리에 정향이라는 성함도 씌여있었는데 색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있다.

참지에 깨알같이 써넣은 이름들을 들여다보느라니 정시명은 가슴이 뭉클해왔다.

참지에 숱한 이름들을 꼬박꼬박 새겨넣고 며칠토록 그걸 들여다보며 지내왔을 늙은이의 절절한 심경과 안타까움이 어느정도였겠는가 헤아려졌던것이다. 류동명이 나라걱정이 오죽했으면 겨레를 말아줄 영걸을 찾아 이렇게도 세심하고도 눈물겨운 고심을 하여왔겠는가. 야속함과 비탄에 잠겨 이 이름들을 오르내리 훑을 때마다 우국충정을 한생의 기둥으로 뻗쳐놓고 살아온 늙은 무장이 무엇을 생각했으랴.

정시명은 불쑥 선생님이 찾고계시는분은 평양에 계신다고, 그분은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하는 말이 입속에서 맴돌았으나 가까스로 참아냈다.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생각에서였다. 정시명은 뜨거운 정을 모아 그의 손목을 잡았을뿐이였다.

그는 늙은이의 손등을 쓰다듬다가 진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선생님의 그 충정을 제 한생토록 명심하렵니다.》

그것은 나라와 겨레에 대한 사명감으로 꺼져가는 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물들이고있는 뜻이 높은 한 지사앞에 다지는 인간 정시명의 엄숙한 서약이기도 하였다.

《원, 내 부질없는 소행에 너무 큰뜻을 싣지 말아주시우다.

뜻만 남고 열도 기도 다 쇄락해버린 늙은이 락엽이 져오니 비로소 근본의 귀함을 절감하게 되는거지요.》

《아닙니다. 그 뜻이 소중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정치인들이 그런 뜻으로 산다면 어째서 서울공기가 이다

지도 어지럽겠습니까.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겠으니 고견을 주십시오.》

《고맙소이다.》

류동명은 다소 뜨아해하면서도 기꺼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시명은 류동명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김명호와 길철에게 통보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활동선에서 각각 시급히 대책적안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자신도 다시금 미국놈들의 책략에 대처한 방안을 연구하느라고 여러 밤을 뜬눈으로 밝히였다.

점차 작전안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세번째 방안이라는것이 묘연하다. 목표물이 나타나야 살을 날리겠는데 그게 아직은 미지수이다. 미국무성은 분명 다른 계통을 통하여 세번째 방안을 모색하는것 같다.

유엔일가? 3국을 통한 모종의 막후교섭일가?

미국놈들이 힘을 믿고 유엔에서 독판치기를 하기 시작하였으니 제놈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내려먹일수도 있다. 그 경우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하든지 셋째 방안이라는것도 알아내야 한다. …

5

며칠후 정시명은 한강변의 오리나무숲에서 길철이부터 만났다.

길철이도 며칠밤을 밝히고왔는지 꺼칠해보였다.

물오리가 유유히 감돌고 뭇새들이 신비한 가락을 뽑는 강반의 운치가 장관이였으나 지금 그들은 시정에 취해있을 시간이 없었다.

길철이 먼저 그사이 쏘미협상과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들을 보고하고 연구해온 방안을 내놓았다.

《정향동지의 통보를 받고 군정청의 여러 인물들을 만나 재확인하였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무성이 연막속에 두

고있다는 셋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동무들에게 지시를 떨구었습니다. 특히 정보모략기관들에 있는 동무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여 임무를 떨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미군정청은 쏘미협상과 관련한 립장을 바꾸도록 우익정당들에 리면공작을 벌려놓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2차쏘미협상을 지지하도록 한다는겁니다. 지금까지 리승만이나 김구세력이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은 물론 1차쏘미협상에 대해서도 얼마나 악담을 퍼부어왔습니까. 헌데 이번에 미국이 립장변화를 유도하는데는 꿍꿍이가 있는게 틀림없습니다. 가령 상대측에서 미국과 우익세력들의 주동적인 회담재개설을 오판하도록 하자는것이 아닐가요?
원래 쏘련측은 1차회담때 리승만과 김구를 비롯한 〈반탁〉제창자들을 회담참가대상에서 배격하지 않았습니까.》
《흥미있소. 계속하오.》
《저는 놈들의 이러한 전략적의도에 대처하여 그놈들의 힘을 역리용하여 배지기를 떠보자는것입니다.》 하며 길철은 어깨너머로 상대방을 둘러메치는 흉내를 내며 빙긋이 웃었다.
《배지기를? 어떤 방법으로?》
정시명은 그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함께 따라 웃었다.
《제가 군정청 공보여론조사과장이니 한번 수를 써볼만 합니다. 배지기전술은 우리 동무들이 내놓은것입니다. 경험있는 씨름군은 상대방에게 먼저 수를 쓰고 기운을 쓰도록 하고는 상대방의 수와 함께 힘을 역리용하여 배지기로 넘어뜨린다는데 이런 안을 착상한 동무가 알고보니 옛날 경성대학의 상씨름군이였다고 합니다.》
《배지기수라… 좋은 묘안이요. … 그래서?》
《지금 미군정청은 제놈들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론조성에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욱 키질을 한 후에 그 여론의 힘으로 미국놈들의 막후흉계를 짓눌러버리자는것입니다.

미군정청의 실무진에 상대측이 쏘미회담의 재개를 더는 원치 않는다는 가정보를 슬쩍 흘러들어가게 합시다. 좀 상론해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가공만 하면 위험이 없이 여론전을 통하여 미국측의 정책실무진을 혼란에 빠지게 할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미국측이 안심을 하고 쏘미협상재개를 상대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할 때까지 이 공작이 기술적으로 잘만 위장되면 효과를 거둘것입니다.》
《좋소!…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여 회담전에 회담재개를 봉쇄하려던 미국놈들은 두번째 방안으로 넘어가게 되오. 어떻게 할셈이요?》
《그에 대해서는 아직…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길철이 우물쭈물하다가 천성그대로 솔직히 대답하였다.
《좋소. 착상이 좋고 기발하오. 아주 그럴듯해. 다음문제는 함께 궁리해봅시다.
사실 두번째 대책안은 김명호동무의 몫이요.》
정시명은 길철의 제안이 자기의 생각과 근사한것이 매우 희한하게 생각되였다. 오히려 그는 한수 더 떠서 배지기라는 통속적이면서도 쉽게 뜻이 통하는 이름까지 붙여놓았다.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적들속에 깊숙이 촉수를 박은 우리의 투쟁성격이고 전술적특성이 아니겠는가. 길철이 스스로 싸움속에서 이를 찾아내고 활용하고있는것이다. 정시명은 신뢰의 정이 함뿍 어린 눈길로 길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두사람의 생각이 일치해졌다는것은 다른 사람도 류사한 생각을 내놓을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적들도 이에 대해 생각하고 그에 대처할 수비책을 세워나갈수 있다.
정시명은 이것을 강조해주고 그의 제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였다.
길철은 정시명의 치하에 얼굴이 붉어졌다가 동무들의 말을 옮겨놓은데 불과하다고 하면서 열적게 웃었다.
길철이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상응하게 사색을 심도있게 한데는 그의 남다른 노력과 고충이 있었다.

원래 길철은 해방전부터 지하조직사업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였지만 이처럼 특수한 임무를 담당해보기는 처음이였다.

그러므로 길철은 사업을 분담받자 필요한 책들부터 많이 읽었다.

경험과 교훈들을 배우자는것이였다. 그것이 어느 나라의 어떤 인물의 이야기든지 가리지 않았다. 닥치는대로 책을 읽고 사업에 참고할것이 없겠는가 고심을 해왔다.

틈이 날세라 기울인 노력이 은을 내기 시작한것이다. 투쟁은 투사를 키워내는 학교이다.

길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가만, 길동무.》 하고 정시명이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어 은근한 소리로 주저앉혔다.

…민순임이 얼마전에 느닷없이 하던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이보세요, 혜숙이네 문제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민순임의 묻는 소리였다.

《혜숙이네 문제라니?… 왜, 무슨 일이 있었소?》

정시명은 아닌밤중에 홍두깨같은 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서 되물었다.

《남정네들이란 다 저러신다니깐요. … 8.15전부터 친해왔다는데 해방을 맞고도 지금 몇해째입니까? 그리워하는것도 한두해이지 가까이 지내면서 노상 부처님 보살 보듯이 지내게 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보살 보듯?… 하하하.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거요?》

정시명이 소리내여 웃다가 민순임의 말뜻이 헤아려져 넌지시 물었다.

《길선생님도 혼기를 서너번도 더 놓쳐버린 로총각이니 어서 결혼을 시켜 살림을 차려줘야지요. 당신 옛날에 서울체네 본다구 동네방네 소문놓았던 생각이 안나세요?》

《엉? 하하… 옳소. 제꺽 마련을 봐야겠군.》

정시명이 이 말이 있은 후 길철이와 조용히 마주앉을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하루이틀 미루다나니 오늘에 이르렀다.

정시명은 이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같았지만 생각난김에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길선생, 다름이 아니라 혜숙동무와의 문제말이요. 어떻게 하겠소?》
《어떻게 하다니요?》
길철이 반문하였다.
《이젠 살림을 차려야 하지 않을가?》
《원, 선생님두, 내남없이 콩튀듯 뛰고있는데 어느 하가에 그런 일을 벌려놓고있겠습니까.》
길철이 펄쩍 뛰며 더 말을 꺼내지 말라는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사업에 언제 한가할 때가 있겠소. 이번 싸움이나 벌리고는 제꺽 결혼식을 차립시다.》
그러나 길철은 씩 웃어버리고는 건성 대답하였다.
《아, 정향동지. 그때에 가서 다시 봅시다. 늙은 총각 장가 못들가봐 걱정입니까?》
《하하… 하긴 그런 걱정이 바이 없는것도 아니요. 꽃도 한철이란 말이 있지 않소. 혜숙이도 곁에서 속태우게 할거야 없지 않소.》
정시명은 말꼭지를 뗀김에 끝을 보고싶어 그냥 붙잡고있는데 김명호가 나타났다.
《에잇, 살아났다.》
길철은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움쩍 일어나 달아났다.
정시명은 웃음속에 그를 바래주고는 김명호와 마주앉았다.
김명호는 이렇게 보고하였다.
《미군정청은 벌써 공작에 진입하여 상당하게 실적을 올린것 같은데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저도 이번 싸움을 벌린것이 매우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한민당〉정치부장 장덕수의 말에 의하면 벌써 닷새전에 김성수와 함께 쏘미회담 미국측수석대표 브라운에게 불리워가서 2차쏘미회담에 초기에는 협력적인 자세로 나오라는 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며칠후에 자기 당의 지지성명이 나갈것이며 우익계의 언론들도 지지깜빠니야를 벌릴것이라 합니다.》
《가만, 장덕수의 말에서 초기라는 말이 의미가 있지 않을가?》
《옳습니다. 협상지지는 시한부적이라고 합니다.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회의과정을 보아가면서 태도변화가 다시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김증원동무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류사한 움직임이 신익회의 〈반공련맹〉이나 리승만의 〈독촉〉, 김구의 〈한독당〉을 비롯하여 쏘미회담장에 참가하게 될 다른 우익단체들에서도 벌어지고있습니다. 〈반공련맹〉에서 좀 색갈이 이상한것은 지지성명과 함께 반대성명도 준비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지성명이 미국무성의 첫번째 방안에 따르는것이고 반대성명은 두번째 방안에 따르는 대책일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럴듯 하오. 그러면 김선생은 어떤 계획을 세웠소?》

《저는 놈들의 방안항목들에 꺼꾸로 되는 제안들을 맞세우면 바로 우리의 방안이 될것이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가령 놈들의 총적목표가 회담의 결렬이라면 우리는 회담재개로 대처하면 될것이고 놈들이 회담결렬을 분렬고정화의 돌파구로 삼는다면 우린 회담결렬을 놈들의 정책적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놈들이 우익집단을 회담재개에로 추동세력을 몰아가는 광대놀음을 지켜봅시다.

회담재개후에는 반드시 장애물을 세워놓을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코코에 걸고들어 사전에 세상에 소리쳐보자는겁니다. 놈들이 자기모순에 빠져 회담장에서 꽁무니를 빼지 못하게 사처의 대문을 막아놓고 빗장을 단단히 쳐놓읍시다.》

김명호는 이렇게 보고를 끝내고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흥건히 내밴 땀기를 꾹꾹 지워버렸다.

정시명은 김명호의 보고에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써 동의를 표시하였다. 정시명의 마음은 사뭇 가벼워졌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미국무성의 방안을 타고 누를 전술적문제들이 다 나온셈이였다.

그러나 김명호도 셋째 방안에 대해서는 찍지 못하고있다. 그렇다고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김명호도 우리가 늦었다고 언급하지 않았는가. 서둘러야 한다.

김명호까지 돌려보낸 정시명은 그들의 보고를 종합하여 더욱 심화시켰다.

그러나 전술안을 완성하여가면서도 자꾸만 셋째 방안이 명치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문득 길철이 아까 피끗 스쳐지나간 말이 떠올랐다. 길철은 그에 대한 자료수집임무를 적들의 정보모략기관에 있는 조직성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했노라고 말했다. 그러니 길철도 바로 놈들의 세번째 타격이 그쪽으로부터 가해질수 있다고 생각한게 아닌가.

십분 타당성이 있는 가설이다. 미국놈들이 흔히 써먹는 계략이다. 회담장에서 해낼수 없으면 회담뒤에서 얻어내려고 할수 있다.

여기에서 주역으로 나설것은 모략의 명수들이 모여있는 정탐기관일수 있다.

다음날 정시명은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서 정시명은 제2차 쏘미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적목표에 직접적인 강타를 들이대기 위한 전술안을 내놓았다.

김명호와 길철의 제안이 이미 연구가 심화되여 파악이 있는것이므로 그대로 지도부의 결정으로 채택되였다. 그에 따르는 분담이 조직되였다.

정시명은 모임을 결속하면서 엄숙하게 강조하였다.

《동지들, 방금 결정한 싸움은 우리가 미국놈들과 벌리는 첫 대결이요. 국부적인 전투가 아니라 정책적이고 전면적인 대결이요. 어떤 동무들은 방금 조직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힘겹고 승산이 가늠되지 않는 싸움이라고도 할수 있소. 사실 어렵고 복잡한 정치전이며 우리모두가 익숙되지 못한 투쟁인것만은 사실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국앞에 박두한 위험을 두고 피해설수는 없소.

이번의 싸움은 우리만이 치를수 있는 싸움이라고도 할수 있소. 그러니 흥국상회의 명예를 걸고 본때있게 싸워봅시다. 다시 강조할진대 만약 이번 대결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미국놈들은 큰 저항이 없이 〈단선단정〉이라는 정책적목표물에로 접근할수 있소.

동무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미국놈들이 제마음대로 이 나라의 허리에 분렬이라는 패말뚝을 손쉽게 박아넣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 벌려나가게 될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그런 싸움으로 될것입니다. 민족이 부여한 력사적과제를 한시도 잊지 맙시다. 이번 대결에서 우리가 경계할것은 절대로 적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매사에 심사숙고하면서도 담이 크게, 지혜롭게 대결전을 벌려나갑시다.》

첫 작전명령을 내리는 정시명의 목소리는 저으기 비장하였다.

정시명은 모두들 돌아가자 불꺼진 상아물주리를 입에 문채 앉은뱅이책상앞에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피곤이 몰려들어 그자리에 누워버렸다.

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례영이가 발끝으로 발볌발볌 들어와 정시명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베개를 고여주었다. 그리고는 널려져있는 재털이며 종이장들을 정리하고는 불을 끄고 조용히 방에서 나갔다. 불시에 고독감이 쓸어들고 여러가지 시름겨운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정말 해낼가? 너무 아름찬걸 말아안지 않았는가. 싸움은 이제 시작되였다. 나는 이미 흥국상회사장으로서 구령을 내렸다. 다들 자기 몫을 감당할가?)

정시명은 이렇게 입속으로 자문자답을 하였다.

어쩐지 불안하다. 걱정스럽기만 하다.

상대는 미국이다. 적어도 2차세계대전에서 미군에 대한 총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마샬이 지휘하는 미국무성과 맞선 싸움이다.

상대는 온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노리는 강력한 힘과 두뇌진의 후원을 받는 로회하고 최정예의 조직체계를 가진 집단이다.

우리는 어떤가. 몇달전에 무어진 조직이다. 김명호도 길철이도 기세충천해 떠나갔지만 그들은 다 풋내기들이다. 항차 이런 일에서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젊은 사람들이다.

그의 눈앞으로 전우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다가왔다. 적진의 인물들도 그렇게 다가선다. 그들을 일 대 일로 맞세워보기도 했다.

(아, 아… 내가 흔들리고있구나. 돌격구령을 내린 지휘관이 동요하다니… 이래서는 안되지. 안되구말구. … 우린 이 나라를 지켜싸우는, 이 나라의 토양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다.

두려워말라 정시명! 용기를 내라! 자신을 믿으라! 전우들을 믿으라!

그대는 계산을 잘못하고있다.

그대와 그대의 전우들은 사자들이다.

통일은 정의요, 분렬은 범죄이다. 애국은 진리요, 매국은 반동이다.

우리는 밝은 태양이 더 밝게 빛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저놈들은 빛을 두려워 하고 어둠속으로 이 세상을 끌어가려고 버둥질하는 무리다. 나라를 합치는것은 이 땅의 량심이요, 이 땅의 영원한 삶의 노래이다. 네놈들이 아무리 요사를 부리고 총포를 휘두른들 우리의 영원한 심장의 노래인 조국찬가를 이겨내지는 못한다.

우리의 전우들은 네놈들이 백년가야 얻을수 없는 애국의 심장과 인간사랑으로 끓는 피가 용솟음치고있다. 백악관의 머슴들인 네놈들이, 월가의 사환군들인 네놈들이 이걸 알탁이 없다.

그래 맞서보자. 겨루어보자. 이건 네놈들과 겨루는 첫 대결이다.

우리는 조선사람들의 유명짜한 배지기로 네놈들을 둘러메치고야 말것이다.)

정시명은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잠들었다.

제 9 장
선과 악의 대결

1

정시명은 다시금 길철이를 만났다. 그에게 차례진 중요한 몫을 다시 상기시키고 대결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장시간 력설하였다.

사실상 길철의 활동은 임무의 첫단계 과업수행에서 핵심적요소이다. 그의 활동성과에 따라 작전전반의 운명이 좌우된다.

《동무에게 첫 관문을 열어제끼는 열쇠가 쥐여져있소. 동무의 과업은 미국놈들로 하여금 회담상대측이 협상재개를 원치 않는다는 가정보를 접수하도록 하는것이요. 놈들이 배지기에 걸려 들 때까지 실컷 기운을 뽑게 해야 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정시명은 필력이 있고 총명한 일군들로 그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길철의 사업거점인 종로구책방의 안방에서 침식을 하면서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들에 의하여 협상재개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여론들이 기술적으로 가공되여 련속적으로 공보여론조사과의 타자기를 거쳐 하지의 정보고문인 노불에게 제공되였다.

여론자료들은 노불의 검토를 거쳐 즉시 하지에게 들어가고 대양을 넘어 워싱톤에 날아갔다.

하지는 언제나 아침 첫일과를 노불이 제출하는 정보관계자료들을 보는것으로 시작하였다.

한편 김명호의 지도밑에 김증원이 극우익반동들속에서의 여론전을 능숙하게 조정하여나갔다.

그는 쏘미공동위원회가 재개되면 극우익집단들은 하나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탁통치를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식의 립장변화를 유도하여나갔다.

얼마후에는 제2차 쏘미협상에서 주요의제는 미국에 의한 신탁통치문제라는 여론이 광범하게 류포되였다.

좌익권에서 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즉시 반응이 일어났다. 서울시내에서 시위와 집회들이 열리고 신탁통치를 론의하는 쏘미협상을 반대한다는 격렬한 론조들이 튀여나왔다.

길철은 어느날 서울에 있는 쏘련대표부의 한 성원의 명의로 된 반영을 미국놈들의 구미에 맞게 그럴듯하게 작성하여 올리밀었다. 거기에는 거의 한해동안 공전만 거듭해온 쏘미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실질적인 결실을 얻기 힘들것이며 현재 서울에서 벌어지는 좌익권의 강한 반박도 무시할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이 담겨져있었다.

좌익계와 신문들도 이에 론조를 같이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김명호가 주관하는 신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노불이 대세의 역전에 흡족해하며 하지의 사나운 얼굴에서 주름살이 펴진다는 말이 정시명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정시명은 여러 선을 통하여 보고된 자료들을 즉시에 길철에게 보내주어 군정청에 계속 들이밀고 확인된 자료들은 마동열을 통하여 해당 기관에 흘러가도록 하였다.

길철의 그루빠는 고도로 예민한 싸움을 감당하고있었지만 성수가 나서 일하였다. 그들의 숙식을 보장하느라고 박정인이 민순임과 례영이 그리고 주씨까지 거느리고 밤을 패우는 일이 드문했다.

전체가 결사의 각오로 뛰고있었다.

어느날 길철은 제2차 쏘미회담과 관련하여 정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종합하여 꾸며가지고 노불의 방으로 갔다.

하지의 고문들중에서 정보담당고문은 정책작성과 집행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직책이였다.

노불은 중요정보들은 입수한 즉시로 두통을 만들어가지고 긴급문건으로 마샬과 하지에게 직송하군 하였다. 노불은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여러 계통의 정보들중에서 군정청의 한개 부서로 되여있는 공보여론조사과의 자료를 제일 중시하고있었다.

노불은 길철이 직접 들고온 자료들을 여러번 곱씹어읽더니 끄냐

크병을 들고와서 잔에 부었다.

《자, 듭시다. 당신네 나라의 속담에 있지요. 밤말은 새가 듣고 낮말은 쥐가 듣는다고…》

고향이 평양이고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의 대부분을 대동강반에서 보냈다는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노불은 미군정청안에서 첫번째의 《한국통》으로 자처하는 인물이였다.

사실 노불은 미국인들속에서 조선말을 자유자재로 번질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들중의 하나였다.

《아니, 우리 속담에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되여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새는 밤에 잠들고 쥐는 낮에 숨어있으니까.… 역시 비밀이란 시간적개념이라는 말이 옳소.》

노불은 술잔을 입에 가져가며 기분이 좋아서 떠들었다. 그러면서도 미국무성의 진의도에 대해서만은 가둬두고 딴전을 부리는것을 잊지 않았다. 길철은 이미 다 알고있는바였지만 짐짓 모르쇠를 하고 맞장구를 쳤다.

《글쎄요. 벌써 항간에는 미국이 미쏘협상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어 그리 정보라고 부를만한 가치가 없게 되였습니다.》

《허허… 좋소. 두고가시오. 동질의 자료라고 기각시키지 말고 계속 종합해야겠소. 미쏘공위에 대해서 우익은 기본적으로 돌아섰구만.》

《좌익은 반대로 매우 도전적입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좀더 떠들라고 내버려둡시다.》

《그런데 리승만세력에서는…》

《아, 당신들은 그곳까지는 사업권을 이어놓지 못했다고 했지요. 자, 이걸 보시오.》

노불은 비죽이 웃으며 서류함에서 한통의 서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리승만의 《독촉》과 《한민당》계렬에서 작성된 보고서

였다. 2차쏘미협상에서 법치국인 미국이 주관하는 신탁통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였다.

드디여 5월 중순 어느날 새벽에 하지의 관저로 대양건너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는 투덜거리며 잠자리에 누운채로 받았다. 시간차이가 워싱톤과는 꼭 열시간이 되므로 워싱톤의 고관들은 늘 하지가 단잠에 드는 자정무렵이면 전화통에 불러내군 한다.

전화상대는 마샬이였다.

《중장, 잠을 깨워 미안하오. 나의 정책실은 방금 결심을 내릴것을 건의해왔소. 난 이에 대해 곧 트루맨에게 보고하려고 결심했소. 어떻소, 중장?》

미쏘협상과 관련한 어리광대놀음을 시작하겠다는 소리다.

하지는 선뜻 동의하고싶었으나 잠시 동안을 두기로 하였다.

수화기에서는 잠시 전류가 흐르는 삭막한 소리만이 들렸다. 마샬이 잠자코 하지의 대답을 기다려주었다.

전화를 이렇게 받게 된것은 여기 서울에 와서 배운 버릇이다.

즉석에서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군복쟁이의 체질이 내용보다 형식이 중시되는 정치놀음에서 약삭바르게 변질된것이다.

만약 즉시에 대답을 준다면 상대는 가볍게 결심을 내리는 경솔한 외교관으로 평가할것이며 뻔한 문제도 상대가 짜증이 날 정도로 길게 생각하는척 해서 짧게 대답하면 무게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되는게 정치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류행이다.

지금 하지는 자신이 어리석은 흉내를 내고있다고 화를 내면서도 지꿎게 입을 다물고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날 아침 하지는 집무실에 들어서면서 브라운과 노불을 비롯한 측근 고문들을 불러오라고 부관에게 명령하였다.

하지는 앞상에 주런이 앉아있는 측근 인물들을 둘러보다가 기고만장해서 선포를 하였다.

《제씨들, 그동안 모두 수고했소. 때는 왔소. 공산측은 이제 더

는 물러설수 없을거요. 백악관은 결심을 내렸소. 막은 올랐소.》
이날 미국무장관 마샬은 트루맨대통령의 동의까지 얻어내자 곧 워싱톤주재 쏘련대사를 자기 방에 호출하였다.
그는 쏘련외무상 몰로또브에게 보내는 자기의 각서를 정중하게 전달하였다.
각서는 이렇게 되여있었다.
《아메리카합중국은 조선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된 미쏘공동위원회의 결렬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선문제를 조속한 기간안에 결속하여야 할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립장을 재천명하면서, 미쏘협상의 재개를 바라는 조선의 각계각층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류의하면서 조건부없는 협상의 재개를 즉시 시작할것을 귀측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놈들만이 할수 있는 낯가죽이 두터운 수작이였다. 미국무성은 저들의 각서가 모스크바에 전달도 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각서의 내용을 미국의 2대신문인 《워싱톤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공개하여버렸다.
남조선의 주요신문, 방송들도 일제히 그것을 받아물었다.
정시명은 때를 놓칠세라 반격을 가하였다.
씨름판에서 밀려돌아가고있던 좌익권이 드디여 공세에로 넘어갔다. 그때까지 협상재개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오던 남조선의 좌익과 중도세력들, 그들의 립장을 대변한 언론기관들이 협상지지에로 일제히 태도를 일변하였다.
미국이 막후에서 벌려온 어리광대극을 사전에 통보받고 대기하고있던 쏘련측은 미국무장관의 각서를 받은지 30분후에 그를 수락한다는 몰로또브외무상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마샬은 닭쫓다가 지붕 쳐다보는 개신세가 되고말았다.
미국무성은 완전히 오산하였다. 공산측이 협상을 부정하고 뒤걸음 치리라고 예상했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였다.
미륙군참모총장까지 하면서 군부에서 군턱이 져온 마샬은 국무성안의 정치분석가들을 불러놓고 《국록을 타먹는 외교무식쟁이들》, 《오뉴월의 쉬파리처럼 소란스럽기만 한 무위도식자들》

이라고 혹독하게 욕설을 퍼부어댔지만 일은 깨진 사발이 되고 말았다.

미국무성의 실무진은 또 그들대로 하지와 군정장관을 비롯한 현지 사환군들에게 《정치감각이 도끼등같은 군복쟁이들》이라고 내리욕질을 갈겨댔다. 하지는 그대로 측근을 들볶아댔다.

정시명은 이 사업을 중간총화하는 모임에서 민족청년단조직부장인 조태준이 보내여온 보고문을 통쾌한 심정으로 랑독하였다.

《동무들! 여기에 한통의 자료가 들어왔소. 나는 중간총화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하지 않겠소. 내 읽겠으니 들어주시오.

〈미쏘공동위원회 미국측대표단 수원인 미전략정보국소속 소좌 써젠트와 민족청년단 단장 리범석과의 일문일답(조태준 동석)

리범석; 2차 미쏘협상재개와 관련하여 서울정계가 갈팡질팡이다. 나도 얼떨떨하다.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하자는건가?

하자는건가 말자는건가? 나의 립장을 구태여 먼저 밝힌다면 걷어치우라는거다.

써젠트! 당신의 심정이 십분 리해된다.

협상재개는 미국의 진의가 아니다. 우리의 계산이 잘못되여 시행착오가 생겼을뿐이다. 마샬국무장관이 쏘련외무상 몰로또브에게 협상재개를 촉구한것은 쏘련측에서 틀림없이 거절하리라는 상황판단이 내려있었기때문이였다.

이것은 여러 계통의 통로를 통하여 입수되여 종합된 정보분석과 평가에 기초한것이다.

그러므로 국무성정책보좌팀은 확고한 견해일치를 보여왔다.

만약 마샬의 의도대로 몰로또브가 미국의 제의를 거절하였더라면 우리는 회의를 최종적으로 공산측에서 파탄시켰다고 책임을 넘겨씌우고 대표단을 완전히 철수했을것이다. 사실 이것이 미국의 책략적의도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공산측은 쾌히 접수하였다.

마샬은 엄중한 실책을 범했다. 하는수없이 미쏘협상이 며칠후 덕수궁에서 열리게 된다.

그렇지만 당신의 기대대로 될것이다. 우리는 껄렁껄렁 시간을 끌

다가 회의를 걷어치우게 될것이다. 그에 필요한 적당한 구실은 마련될것이다.〉

이상입니다. 뭘 더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껏 벌린 투쟁의 의의도 금후과업도 다 밝혀져있소.》

정시명이 이렇게 말을 그치자 마동열이 제일먼저 통쾌함을 금할수 없어 솥뚜껑같은 손바닥으로 박수를 쳤다.

2

1947년 5월말 서울 덕수궁에서는 제2차 쏘미공동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는 서울에 있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김명호가 준비시킨 여러명의 조직성원들도 참가하였다. 그중에는 《한민당》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한 김증원이도 있었다.

둘째단계의 조직활동에서는 주역이 바뀌였다. 길철을 대신하여 김명호가 나섰다.

정시명은 쏘미협상을 둘러싼 싸움에서 경험을 쌓은 길철을 그냥 내세울가 하다가 이번 싸움에는 정당들을 움직이는것이 기본이므로 김명호로 바꾸었다.

길철은 뒤전에 물러서기는 했으나 여전히 분주히 뛰여다녔다.

그는 회의와 관련한 자료들을 제때에 장악하여 정시명에게 보고하였으며 필요한 단위들에 넘기여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배후에서 강력히 지원하였다.

정시명은 조태준의 보고에서 지적된 《적당한 구실》에 대하여 주목을 돌릴것을 자기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다.

그 《적당한 구실》이 하나하나 감시권에 포착되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미쏘협상수석대표 브라운이 김구의 집을 불의에 방문하였다. 이어 브라운은 리승만의 집도 방문하였다. 브라운의 승용차가 며칠새에 겨끔내기로 정치의 두 거목의 집에 분주스럽게 들

락날락하였다. 그러더니 리승만과 김구가 마침내 조선호텔에서 비밀리에 마주앉았다.
이에 대한 자료가 즉시 안지생으로부터 보고되여왔다.
《… …
리승만과 김구가 브라운의 중재밑에 조선호텔에서 회담을 가졌다. 그들은 며칠후에 쏘미협상과 관련한 자기들의 반대의사를 련명으로 발표할것을 합의하였다. 공동성명의 초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여있다.
〈다른 사람들이 미쏘공동위원회에 참가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2차협상에서도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있다.
우리는 회담에서 종종 울려나오는 위임통치요, 신탁통치요 하는데 대하여 접수할수 없다.
더구나 신탁통치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민주주의와 현지기관의 자유와 독자적재량권의 계선에 대한 회담쌍방의 명백한 태도표명이 있기 전에는 회담의미가 없다고 인정하고 참가를 보류하고저 한다.〉 이것은 물론 브라운의 지령에 의한것이다.
이 성명서가 공개되면 미국은 남조선의 주되는 정치세력들인 리승만, 김구집단의 회담 보이꼬트를 걸고 쏘미공동위원회의 실효성을 운운하면서 회의종결을 선언할것이다.》
정시명은 이 자료를 리승만과 김구가 움직이기 전에 즉시에 서울의 일간신문들에 대서특필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 신문들이 서울시내에 한벌 깔린 그날, 회의휴식시간에 쏘련대표단 단장 스티꼬브중장은 미국인접대원이 가져온 커피를 마시다가 지나가는 소리로 슬쩍 한마디 비치였다.
《브라운소장, 난 오늘아침 서울신문에서 매우 흥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리승만과 김구가 회의에서 물러나고 당신들도 물러날것이라고 전망했던데 당신들은 정보관리를 잘못하는것 같습니다.》
스티꼬브가 빙그레 웃는데 브라운의 희멀끔하던 상통이 순식간에 벽돌빛으로 달아올랐다.
그러나 사진기자들이 련이어 조명불빛을 번쩍거리기 시작하자 인

차 혜식은 웃음을 용케 지어내고는 능청스럽게 대꾸하였다.
《스티꼬브중장, 난 신문쟁이들의 글장난에 눈을 팔지 않습니다.
우린 군복을 입은 정치가들이지요. 고양이가 야웅한다고 가던 길을 돌아설수야 없지요.》
《하하… 그러니 내가 과민반응을 했나 봅니다. 옳습니다. 우린 군복을 입은 정치가들이지요. 고양이가 야웅하면 놀라는건 쥐새끼들뿐이지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새겨두겠습니다.》
브라운은 상대의 웃음보다 훨씬 청높은 웃음을 터뜨려놓았으나 오히려 그 위선으로 하여 발목에 족쇄가 채워졌다. 미국은 회담장에서 빠져나갈수 없게 되였던것이다.
뒤덜미를 단단히 잡힌 미국은 또다시 구차스러운 오그랑수를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브라운은 내키지 않은 기분으로 미국무성의 각본에 따라 미군정청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이미 그곳에는 군정청의 호출을 받은 리승만과 김구가 한발 앞서 와서 쏘파에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그들을 보자 브라운은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리승만과 김구를 번갈아 노려보기만 하였다.
당장에 두상태기들을 한대씩 쥐멕이고 도대체 어떻게 입방아질을 하고 다니기에 날 망신시키고 일을 뒤틀리게 하느냐고 되게 족치고싶었다.
당신들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기까지 하면서 비밀관리를 부탁했는데 대문을 나서기 급하게 세상이 떠들썩하니 저것들을 끼고 어떻게 거사를 치른단 말인가.
기자들이 들어오고 장내가 한동안 소란해지자 브라운은 여전히 표표한 눈길로 리승만과 김구를 쏘아보기만 하였다.
리승만과 김구도 《네놈들이 요사를 떠는 바람에 돼가는 꼴이 엉망이다》는듯한 도전적인 눈초리로 마주보고있었다.
장내가 정돈되자 브라운이 앉은자리에서 뱉아버리듯 짤막히 말했다.
《리선생, 김선생, 미쏘협상은 당신네도 지지한바이니 순순히 참

가할것을 권고하오.》

리승만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브라운은 한손을 들어 앉으라고 하고는 그를 무시하듯 기자들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 일부 비협조적인 언론매체들에서는 미군정당국의 회담의지에 대해 불신을 표명하고있는데 우리는 미쏘회담을 일정대로 계속해나갈것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하는 바입니다.》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맨 앞에 앉아있던 한 녀성기자가 냉큼 일어나 질문을 들이대려고 했으나 브라운은 돌아보지도 않고 연탁에서 내려 나들문으로 향하였다.

그는 리승만과 김구가 심술스럽게 입을 내밀고있는것을 흘끔 돌아보았으나 시치미를 떼고 인사도 없이 그들앞을 지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다음날에는 미국무성에서도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미국무성은 미쏘협상과 관련하여 현지집단과의 그 어떤 비밀접촉이 있었다는것은 무근거한 날조된 류언비어라고 딱 잡아뗐다.

도적놈이 발 저려 하는 수작질이였다.

미국무성은 한걸음 더 내밟아 일부 세력들의 회의탈퇴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부언하였다. 들어오는 손님에게 개를 풀어놓아 물어뜯게 하고는 손님앞에서 개배때기를 차는 격이다.

며칠후 분통이 터질대로 터진 리승만과 김구는 협상반대성명을 끝내 발표하고 자기 대표들을 회담장에서 퇴장시켜버리였다.

그들은 미국놈들이 꼭두각시처럼 주무르다가 체면이 없게 되자 주저없이 자기들을 마구 희롱질하며 언론앞에서까지 저들의 부끄러운데를 가리워주는 정도로 취급을 하는데 대하여 더는 참아낼수 없었던것이다.

특히 리승만은 미쏘협상이 당초의 밀약대로 되지 않자 양놈들에게서 배신을 당했노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돌아갔다.

김명호가 이것을 알아내여 기어이 불집을 쑤셔놓고야말았다.

어느날 김명호가 준비시킨 《서울신문》 정치부의 기자로 있

는 김증원의 처 윤미향이 웃음을 남실거리며 리승만과 마주앉았다.
기자는 화제를 애교있게 돌려가다가 쏘미협상문제에로 끌고갔다.
《난 그 문제라면 빚진거 없어. 하지일파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였단 말이야. 그놈들은 신의라고는 꼬물만치도 찾아보기 힘든 군사정객들이요.》
리승만에겐 이 대목이 목에 가시처럼 박혀들었다. 촉각이 예리한 녀기자는 그걸 놓치지 않고 난딱 물어챘다.
《저, 위원장선생님, 하지가 지키지 못한 약조라는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째서 회담이 계속되고있습니까?… 위원장선생님은 정치적고아가 됐다는 설도 있는데 유감입니다.》
녀기자가 살짝 웃으며 리승만의 비위를 건드려놓자 리승만이 결난 김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브라운이 찾아왔더란 말이요. 하지의 특명을 받았다나. 그 사람이 나하고 약속하기를 2차 미쏘회담이 단선단정을 위한 사치품이다, 회담무산을 위한 일시적양보이니 우선은 회담재개를 운운하라하는거야. 그래서 난 애초에 그걸 신통치 않게 여겼지만 그네들이 두번세번 찾아오는 일이라 응했던거요. 헌데 일은 어떻게 되였는가. 미쏘회담은 그냥 벌어지고 총선거요, 통일정부요 하는 따위의 잡꼬대만 무성해진단 말이요. 이게 신의를 가지고 하는 정치요?》
《참, 사내들이 하는짓에도 변덕이 많군요. 그럼 선생님, 전 실례하겠습니다.》
리승만은 밤을 자고난 아침에야 잠자리에서 이일저일 생각해보다가 제놈이 그 해사한 계집에게 굉장한 실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누라인 프란체스까가 덩달아 화닥닥 일어날 지경으로 자리를 차고일어나 전화통에 매달렸다.
서울신문사를 찾아 오늘 신문에 녀기자의 회견내용이 실리지 않았느냐고 하니 벌써 시내바닥에 뿌려져 돌풍을 일으키고있노라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
《이거 야단이 났군. 고 암고양이같은 계집이 살살 꼬인다 했더

니 내 간을 빼려고 했댔군. 이거 큰일이요!》
리승만은 너무 경황이 없어 이렇게 얼이 빠져서 주절거렸다.
리승만의 불안이 우연이 아니였다. 하지와 브라운이 뿔이 났다. 시켜서 한 일에 수족이 묶이게 된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따지고 드는 전화가 군정청에 쉴새없이 날아들었다. 마샬까지도 전화로 《어째 서울은 바람 잘 날이 없느냐》고 짤막하지만 바늘끝처럼 날카로운 추궁을 하여왔다.
부아통이 터진 하지는 처음에는 브라운이 서투르게 정객들을 다루었노라 야단을 부리다가 그것이 성차지 않아 리승만을 당장 끌어오라고 하였다.
리승만이 부엉이처럼 부어오른 눈시울을 붙이고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엉기적엉기적 들어섰다.
하지는 옆에다가 브라운과 노불이며 여러 고문들을 주런이 앉혀놓은채 《당신 로망인가?》 하고 하인 다루듯 고함을 질렀다.
하지는 거의 한시간되게 줄욕을 퍼부어대다가 하와이에 넘어가 꼬아리장사나 하라고 모욕을 주었다.
리승만은 그자리에서는 《죽여주소》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내리는 회초리를 다 받았으나 제 소굴에 들어서자 이를 뿌드득 갈았다.
리승만은 골방에 틀어박혀 며칠동안 앙앙거리다가 또다시 워싱톤에 날아갔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싸다니면서 하지를 《국제공산당의 프락찌야》, 《로씨야체까에 미국의 리권을 팔아먹는 붉은 마녀》 하고 악이 치받치는대로 딱지를 붙였다. 나중에는 미국회에까지 찾아가서 맥카시즘에 걸어 당장 법정에 세우라고 고소질을 하였다.
이무렵에 미국정계에서는 미국회 하원의원인 맥카시가 미국무성과 군부와 사회각계에 붉은 마녀(공산주의자)들이 틀고앉아있다는 괴문서를 돌리면서 반공히스테리를 벌리기 시작했다.
맥카시는 지어 미국무성의 80프로가 붉은 마녀들이라고 공격해나섰다.
리승만이 그 마녀들속에 하지를 밀어넣으려 한것이다. 리승만은

워싱톤정가를 한바탕 휘젓고난 다음 돌아오는 길에는 제놈의 실언때문에 비발치고있는 내외의 공세로부터 당분간 피신해있을겸 난징에 들렸다.
며칠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리승만은 가까스로 쟝지에스를 만났다.
이자리에서도 리승만은 쏘미회담의 부당성과 하지의 배신에 대하여 루루히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이들의 밀담내용도 미군사령관 하지가 알기 전에 정시명이 먼저 알았다.
쟝지에스의 《서울대표부》에 서기관으로 있는 그의 사람이 그놈들의 단독밀회에 통역으로 참가했던것이다.
그가 보고한 자료는 이러했다.
《리승만과 쟝지에스의 단독회담내용
리승만; 만약 미쏘회담이 나의 의견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영국, 중국, 쏘련 등 4대렬강회의를 별도로 소집할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지금 미군정은 협상에서 렬세에 처해있다. 조선반도의 공산화가 심히 우려되는 회담은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의 안전에도 백해무익하다.
나는 귀정부의 협조를 요망한다. 원래 태평양전쟁의 참전국인 귀측이 조선문제토의에서 도외시된것은 심히 유감이다.
쟝지에스; 지당한 말이다. 일본과 당당히 전쟁을 한 전승국으로서 우리가 린방문제해결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것은 국제관례상 이례적인 일로서 나도 불쾌하게 생각하고있다.
그런 견지에서 미쏘공동위원회란 그 발족부터 미국인들의 부당한 정치유희이다. 어떻게 일국의 전도를 두 나라의 장성들이 모여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나는 당신의 정치적구상이 정당한 발기라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지금 당장에라도 미쏘회담을 배격하고 상기의 대안을 내놓는다면 전적인 지지와 협조를 줄것이다.》
정시명은 이 자료를 곧 리승만의 비서실에 있는 신정섭에게 보내여 밀담내용을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신정섭은 정시명과 직접 련결되여있는 사람이였다.

신정섭은 밀담한데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알고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있다고 알려왔다.

정시명은 자료를 즉시 길철을 통하여 하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김명호에게도 알려주었다.

하지는 보고를 받자 자기의 특사를 비행기에 태워 쟝지에스에게 보냈다. 특사는 쟝지에스를 만나 리승만과 모의한 내용을 극비에 붙여달라는것을 미국무장관의 명의로 정중히 전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밀담내용은 회담장안팎에서 회담결렬을 꾀하는 미제와 반동들을 답새기는 비수가 되여 번뜩이였다.

브라운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놈들의 흉계를 발가내는 상대방의 공세에 한마디의 반발도 못하고 진땀만 뺐다.

회의장안팎에서 회의성과를 기대하는 세력들의 눈부신 활약과 압력으로 우익세력권에서도 더는 회의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잡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브라운의 입침을 단단히 맞아둔 《한민당》이나 《반공련맹》의 대표들까지도 울며 겨자먹기로 회담장에 꼬바기 나앉군 하였다.

서울의 정치분위기는 회의에서 물러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건 민족의 장래에 먹구름을 몰아오는 역적의 무리로 규정되여 벼락같은 공격을 받을만큼 팽배해져 있었던것이다.

하는수 없이 미국무성은 덕수궁회의 일정을 꼬바기 지켜나가도록 대표단에 지령을 새로 떨구었다.

회의실황은 매일 세계적인 중대뉴스가 되여 온 세상에 전해졌다.

미국무성은 급해났다. 더욱 급해진것은 하지와 브라운이였다.

그들의 수중에 있던 방안이라는게 이제는 거덜이 난셈이다.

회담이 거듭될수록 《협상의 명수》가 낭떠러지에 밀려나기만 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더러운 본질이 발가져서 회의연단에서 완전히 만신창이 되여가고있었다.

5월말에 열려 한달가까이 진행된 덕수궁회의는 평양에서 회담을 계속하기로 하고 계획된 일정을 고스란히 마치고 막을 내렸다.

3

하지는 덕수궁회의가 끝나자 브라운의 정형보고에 앞서 자기 나름의 평가를 내린 간략보고를 마샬국무장관과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전화로 하였다. 한마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맥아더는 전화를 받고나서 컹— 컹— 기침을 몇번 하고는 회담정형을 짜증이 날 정도로 꼬치꼬치 캐여물었다.

그리고는 《좋아. 하지사령관, 여기 닛꼬에 오지 않겠나? 내 별장에 와서 며칠 온천덕수도 맞으면서 머리를 식히고 돌아가지. 중장이 고생이 많아.》 하고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나 하지는 그 친절밑에 깔려있는 조롱과 멸시를 간파하고 깍듯이 례의를 지켜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헌데 고생으로 말하면 사령관각하께서 친히 파견하신 브라운이 큽지요.》

당신이 친히 천거한 브라운도 여기 서울에서는 쩔쩔맨다는 야릇한 도전이였다.

맥아더는 하지의 말속의 말을 의식하고는 《좋소. 자세한 총화보고서를 기다리겠소.》 하고 명령투의 말로 전화를 끊었다.

그동안 회담소식을 매일 주되는 관심사항으로 일일이 보고받아 온 마샬은 하지의 전화보고를 받고나서 맥아더가 보여준 겉발린 인사말조차 없었다. 그는 한동안 쓰다달다 말이 없었다.

한참후에야 마샬은 이제는 세번째 방안으로 넘어가겠으니 당신네는 손털고 나앉아있으라고 하고는 잘 있으라는 인사도 없이 끊었다.

《셋째 방안이란 무엇인가?》

하지는 발신음이 들려오는 수화기를 귀에 붙인 채 우두커니 서서 중얼거리였다. 너는 더이상 말상대가 못된다는것을 일부러

강조하는듯한 마샬의 지시가 자못 불쾌하지만 응당히 차례진 대접이라고 자신을 구슬프게 위로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세번째 방안이 어떤것인지, 그것마저 통하지 않을 때는 마샬이 다시 내댈만한 주패장이 있을는지 못내 궁금하였다.

그래서 하지는 노불을 찾아오라고 부관실에 명령했다. 노불이 기다린듯 인차 들어왔다.

《노불, 우리가 팔짱끼고 나앉을수야 없지 않소. 찾아내시오. 셋째 방안이란 무엇인가?》

노불이 돌아가자 브라운을 또 불러왔다.

브라운이 들어와 인사를 하고는 쏘파에 가서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이 서로 마주보았다. 둘다 상대방이 지쳐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쏘미협상의 그 지긋지긋한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브라운이 먼저 말을 떼였다.

《사령관각하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 어조가 사뭇 감회로우면서도 처량하다.

《뭘말이요?》

하지가 쏘미협상때문에 더 깊숙이 패워진 세모눈에 비로소 활기를 띄우며 물었다. 브라운은 확실히 약삭바르게 상대방을 다룰줄 안다.

《백악관이나 미국무성은 태평양 건너에서 입방아나 찧지만 조선사람들을 너무 모른다고 했지요.》

《아, 내가 그랬던가?… 그래 당신은 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있소?》

《저도 조선사람들을 너무 모르고있었지요. 이제야 당신의 고충이 십분 리해가 됩니다. 조선사람들은 정치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정치를 좋아한다고?… 글쎄, 그것도 비슷한 소리갈구만. 정치를 좋아한다… 서양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

《옳습니다. 서양인들은 권력보다도 황금을 더 귀하게 여기지요. 쉑스피어의 시 한구절이 생각납니다. 황금은 어제날의 거지도 임금으로 만들고 손을 떠는 로파도 신방에 앉힌다고 했습니다.》

《허허허… 로파도 신방에 앉힌다. … 쉑스피어가 재미있는 사람이지요.》

패배자의 렬등의식이 그들을 갑자기 친밀하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는 초인종을 눌렀다. 금발머리의 녀접대원이 쟁반에 술병과 사기잔을 들고왔다. 접대원은 그들앞에 꼬냐크를 부은 잔을 갖다주고는 가벼이 묵례를 해보이고 방을 나갔다.

《마십시다. 사실 당신을 부른건 한주일간 진해에 보내고싶어서요. 진해에 가면 아베총독이 쓰던 별장이 있소. 지난해 초에 한번 가보았는데 타호호(미국의 이름난 명승지)가 비할바가 못되오. 바다바람을 쏘이면서 보양을 하고오시오.》

《고맙습니다. 사령관각하, 한데 보양은 당신께서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나도 서울장안을 벗어나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오. 그런데 이제 당장은 떠나지 못하겠소. 마샬이 하는 말이 우리더러 이젠 잠자코 있으라는데 이게 사실은 심상치 않거던.》

《그렇다면 협상은?》

《세번째 방안에 넘어간다는거요. 세번째 방안이라는게 뭘가?》

《세번째라… 세번째 방안이라…》

브라운은 잔을 비우다말고 하지의 말을 받아 외웠다.

미군정을 떠받들고있는 두 괴수들은 또다시 무거운 생각에 잠겨 덤덤히 앉아있었다.

마샬이 예비안으로 묻어두고있는 세번째 방안이란 무엇인가?……

정시명조직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저 승리에 취해볼 겨를이 없이 오히려 보다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정시명은 쏘미회담과 관련한 투쟁을 벌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생각에서 한시도 풀려난적이 없었다. 덕수궁회의가 끝난 지금에 와서 이 문제는 분과 초를 다투는 긴급과제로 나섰다.

그러나 여적 실마리조차 잡은게 없다. 모든 조직성원들의 눈과 귀가 여기에 집중되였다.

정시명이 틀어쥐고 깊숙이 묻어두었던 인물들도 놈들의 안방을 추적해들어갔다.

송호정이도 류동명이도 이 문제에서는 전혀 깜깜이다. 길철이쪽에서도 그에 대한 소식이 없다. 정보고문인 노불까지도 은근히 자기에게 낌새를 알아내기 위해 이따금 묘하게 문제를 던지면서 초조해한다고 한다.

정시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안스러워졌다. 미국놈들이 그렇게도 철저한 보호막을 치고있는 흉모이기에 더욱 예감이 좋지 않았다. 노불이나 하지에게조차 비밀이 봉쇄되는 정도이니 더욱 결과가 상서롭지 않다.

저녁마다 길철이 흥국상회에 전화를 걸어왔는데 매번 같았다.

《오늘 천도매실적이 씨원치 않습니다.》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였다.

평양회의날자가 급박해왔다. 브라운이 진해에서 돌아와 곧 서울을 떠난다고 한다. 류동명의 견해에 의하면 브라운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떠난다고 한다. 평양회담에서 지령만 떨어지면 즉시에 체면이고 여론이고 할것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게 될것이라 한다.

이제 국제법적관례도 초보적인 외교적례의도 무시한 후안무치가 연출될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세번째 방안인가? 이런 정도의 술법이라면 그렇게 흑막에 덮어올 리유가 있을가?… 아니 다른것이 있다. 초기에 예상했던것처럼 유엔이나 다른 무대를 통하여 가해지는 타격인가. 그 경우에도 앞질러야 대책마련이 설게 아닌가.

브라운이 받을 임무는 마지막선택일수 있다. 세번째 방안마저 성사되지 못할 경우를 가상하여 취해진 궁여지책일수 있다. 세번째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벼락치듯 타격이 가해지면 수습하기에는 때가 늦고 벗어나기 힘들다. 비교적 미국놈들과의 첫 대결을 승리적으로 밀고왔는데 막판에 와서 승부를 가늠하기 힘들게 되였다. … 정시명은 납덩이같이 무거운 가슴을 안고 서늘한 밤공기를 마시며 뜨락을 거닐군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밤 길철이 예고없이 뛰여들었다.

《선생님! 됐습니다. 놈들의 꿍꿍이를 알아냈습니다!》

길철은 뜨락의 한가운데에서 무슨 인사치레도 없이 큰소리로 떠

들었다.

《가만, 방으로.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정시명은 그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향했다. 불을 켜자 길철은 품속에서 한장의 종이를 꺼내여 책상우에 놓아주며 말했다.

《자, 보십시오. 미국무성이 꾸민 흉계라는게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는 쏘미협상미국측 수석대표 브라운을 평양에서 암살하는데 그 담당자는 건국청년동맹위원장 반정강이며 배후기관은 김포에 있는 미항공출장소라는것이 적혀있었다.

반정강이라는 놈이 려운형에 대한 암살작전도 준비하고있다는 자료도 덧붙여있었다. 이틀후에 자택에 반정강의 자객들이 쳐들어갈것이라 한다.

자료를 다 읽고난 정시명은 너무도 뜻밖인지라 인차 믿어지지 않았다. 려운형에 대한 암살기도는 지금껏 여러번 있어서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브라운암살계획은 허점이 많다.

정시명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장성급인물, 그것도 세계적주목을 받고있는 인물을 없애버리다니? 이럴수 있겠는가. 미국놈들이 아무리 야만들이기로 어떻게 자기들의 수석대표를 죽여버릴 생각을 한단 말인가?

김포에 있는 항공출장소란 또 어떤 기관인가? 항공출장소가 어떻게 되여 미국무성과 직접 련계되여 이 엄청난 모략극을 연출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반정강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이기에 감히 미군2성장성을 모살해버릴 공작을 담당하게 되였는가?…어느것하나 순리로써 납득이 가지 않았다.

물론 정시명은 이 어망처망한 살인극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하여서는 인차 판단이 갔다. 그러나 그 집행방법과 가해대상이며 배후인물들에 대해서는 쉽게 속단할수가 없었다. 이 살인극이 허위정보가 아니면 미국무성이 통채로 미쳤던지 둘중의 하나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국제적인 초점을 모으고있는 협상무대에 오른 저들의 수석대표를 죽일 흉계를 꾸밀수 있으랴. …

정시명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길철이 상대방의 표정에서 이러한 속내를 읽자 서둘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너무도 상상밖이기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떨떨합니다.

제말 들어보십시오. 우선 이 자료를 보고하여온 동무를 저는 믿습니다. 건국청년동맹에 있는 동무인데 책임성이 높은 동무입니다. 놈들의 역정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놈들이 구태여 이런 끔찍한 역정보를 돌릴 리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포비행장에 있다는 미항공출장소라는것을 확인해보았는데 항공업무를 취급하는것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놈들의 첩보기관이 틀림없습니다.

자료에 있는바와 같이 브라운에 대한 암살은 반드시 평양에서 벌려야 한다고 밝혀져 있는데 여기에 또 문제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길철은 단숨에 정시명의 여러 의문점들을 다 풀어주느라고 빠른 말씨로 설명을 하였다.

정시명은 여전히 눈을 감은채 생각에 잠겨있었다. 길철의 분석이 옳다.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놈들이 쏘미협상의 진전에 눈이 뒤집혀진 모양이다. 그러니 이제는 피를 보려고 할수 있다. 서둘러야겠다. 더구나 이제는 자료의 신빙성여부를 더 확증할만한 시간이 없다. 래일, 아니 모레아침이면 브라운은 서울을 떠나게 된다.

길철이 다시 확언하듯 힘을 주어 말했다.

《전 이것이 미국무성의 세번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전의 내용으로 보아 하지에게까지 장막을 친 미국놈들의 꿍꿍이가 리해됩니다.》

《옳소!》

마침내 정시명은 눈을 번쩍 뜨고 결심을 내렸다.

《동무의 분석과 추리가 정확하다고 보오. 이것이 놈들이 기도한 세번째 방안이 옳소. 미국놈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합시다. 려운형선생에게 반정강의 암살계획을 알려주

시오. 김명호동무에게 전하시오. … 아니, 그만두시오. 이왕이면 내가 려선생을 만나겠소. 이번 기회에 경종을 크게 울려줘야겠소. 이 자료는 하지에게 보내줍시다.》

《하지에게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오. 무기명투서형식으로 하지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합시다. 필경 놈들끼리 개싸움이 벌어질거요. 그다음에는 마동열에게 넘겨 해당 기관들에도 시급히 통보하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소.》

《서두르겠습니다.》

길철은 나직이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시명은 길철을 돌려보낸 뒤 려운형을 만날 차비를 하였다.

귀국후 려운형이나 홍명희 같은 중도세력의 량심적인 인물들 중에서 좌익권에 동조하는 중진인물들부터 만나야 되겠다고 별러왔으나 복잡한 일감에 묻혀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지금까지 정시명은 려운형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본적이 없었다. 려운형이 상하이에서 조선거류민단을 조직하고 그 단장으로 있을 때 몇번 만나 얼굴이나 익혔을 정도였다. 지금도 려운형에게 시간을 낼 계제는 못되나 맞다든 자료의 성격으로 보아 자기가 직접 전해주어야 할것 같다. 려운형이 벌써 여러번 테로를 당하였는데 저러다가는 그예 일을 낼것 같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예감이 나쁘다. 당자는 오히려 승이 나서 남조선전역을 누비며 제 할소리 다하며 다닌다는것이다.

정시명이 알고있는 려운형은 기상이 수리같고 책략에 능하며 사고가 경직되여있지 않고 활동력이 비상하다는 주변의 평가정도이다. 장군님께서 찾아온 려운형을 두달나마 가까이에 두고 정사를 의논하셨다는것은 그이로부터 직접 들은바였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서 수수께끼는 이미 여러차례의 테로를 당했는데 흉흉하게 돌아가는 소문은 우익에서도 벌리고 좌익에서도 벌렸다는것이다.

그러니 좌, 우익이 다 려운형을 싫어하고 배척한다는것일가.

려운형이 친일파들이 주력이 되여있는 우익의 미움을 받는 리유는 리해되지만 좌익의 징벌을 받아야 할 리유는 무엇인가.

려운형과의 사업을 편견없이 하기 위하여서는 그 인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정시명은 김증원을 만나 려운형에 대한 이야기를 장시간에 걸쳐 들었다. 김증원은 한때 려운형과 같이 국제공산당 원동지국에 여러차례 드나든 일이 있어 려운형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다.

김증원은 이렇게 말했다.

《몽양이 결코 속이 비좁아 사면팔방으로부터 칼을 받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너무 커서 여기저기서 삿대질을 해대는거지요.

몽양은 공산주의자들을 원쑤로 인정한 민족주의자들속에 끼여있으면서도 일생동안 공산주의자들과 자유롭게 교제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책략을 위해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의 일거일동에 마음쓰는 인간이 아닙니다.

헌데 좌익이 그 사람 미워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8.15직후 몽양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가 리승만과 김구의 세력들도 무원칙하게 포용했다는 리유입니다.

근래에 더 빈축을 사게 된 까닭은 공산당과 덧나서 백남운과 같이 근로인민당을 무은겁니다.

그래서 앞뒤쪽에서 주먹질을 하고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몽양이 **김일성**장군님을 뵙고 미국놈들이 그렇게도 꾀여가려던 두 따님까지 평양으로 보낸거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청년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몽양은 탁류에 버티고 선 바위다. 흐린 하늘 희미한 속으로 새여 나오는 빛이다.〉 이럽니다. 몽양의 주위에 청년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니 리승만이나 김구는 물론이고 남로당의 큰 팔을 뭉청 떼운 박헌영패거리가 좋아 할턱이 없지요.》

김증원은 려운형에 대한 장시간의 소개에 이렇게 아퀴를 짓는다.

그러고 보면 김증원도 려운형의 곁에서 떨어져 나온지는 오래지만 그의 기질과 인격에 후한 점수를 주는것이다.

김증원과 헤여져 오면서 정시명은 려운형과의 사업을 심중하게 그려보았다.

그의 언행에는 간과할수 없는 문제점들이 수두룩하다. 지나간 사실들은 덮어놓더라도 3당합당에 대한 그의 립장은 옳지 않다.

어떤 리유에서일가? 김증원도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찍지 못하였다.

끝내 공산주의를 리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건가.

그렇다면 해방직후에 공공연히 기자들을 불러놓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일반대중을 위하는것이 공산주의라면 나는 기꺼이 공산주의자로 되겠다고 선언한것은 당시 남조선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좌익에 던지는 추파였던가.

장군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까지 받은 사람이 중도좌익정당을 만들어 혁명세력을 분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가슴이 아픈 일이다. 정시명은 바로 이때문에 사유를 알아보고 탈선에 경종을 울려주어야 되겠다고 여러번 생각해왔다.

더더구나 급해지는것은 민족이 사랑하는 지도인물중의 한명인 몽양을 해치려는 시도가 그치지 않는것이였다.

어째서 3.1봉기이래 좌익으로는 레닌과 손문을 비롯한 세기의 거인들과 친교를 가지였고 우익으로서는 일본《천황》까지도 수하에 두려고 따라 다녔던 민족의 위엄을 떨쳐온 영웅호걸을 해방조국에서 없애치우려고 하는가.

정시명은 이 하나의 리유만 하여도 만사를 제쳐놓고 시간을 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건너다보며 걱정만 하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후회를 남길수 있다는 아니아니한 심정을 더 이겨 낼수 없었다.

원래 정시명은 벌써 몇달전부터 려운형밖에도 홍명희나 리극로와 같이 나라 위한 길에서 동요없이 지조를 지켜가는 지사들과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는 과학자나 문화인들을 외세와 반동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대책을 나름으로 세워왔다.

그는 길철에게 믿음이 가는 청년들을 각각 네명정도 마동열에게

넘겨주어 려운형과 홍명희에게 붙여줄수 있게 준비시키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명호에게는 과학자, 문예인들을 망라한 여러 갈래의 민주단체들을 시급히 조직하여 그들을 결속시켜 우익반동들로부터 자기들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벌써 이러한 단체들이 서울시와 여러 도들에 나왔는데 과학자, 문화인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반영이 들어왔다.

마동열이 그새 준비시킨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젊고 팔팔하고 믿음이 갔다.

어느날 마동열은 한강변의 모래불에서 그들의 격술솜씨를 보여 준 일이 있었다. 끌끌한 청년들이였다.

…이날 정시명이 마동열과 그가 훈련시킨 두명의 청년을 데리고 려운형의 집에 들어선것은 해가 뉘엿뉘엿할무렵이였다.

대문가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잠시후 둔중한 대문이 찌꾸덩 소리를 내며 열렸다.

새까만 바지에 여름샤쯔를 입은 젊은 청년이 나와서 비서라고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어데서 온 누구시냐고 물었다.

그에게 흥국상회사장 명함장을 들여보냈더니 무슨 일때문에 왔느냐는 려운형의 곱지 않은 질문이 또 달려나왔다.

일행을 따라 왔던 마동열이 불쾌한 어조로 《이분은 중국서 국민당 판사처장으로 계시던 정향선생님이시오. 귀국방문차로 알현왔다고 전하시오.》 하고 설명을 하였다.

비서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시들한 어조로 따라 서라고 말했다.

정시명은 검불하나 없이 정갈한 마당을 가로질러가면서 속으로는 쓰겁게 웃었다. 아마 매일처럼 떼를 지어 몰려드는 방문객들에 시달린 려운형이 저녁시간에 찾아든 장사치가 반갑지가 않은 모양이다. 더구나 시안판사처장이 장사치가 됐다는 소문을 어디서 얻어들은 모양이다.

(하는수 없지. 스스로 청해놓은 대접이니 누굴 탓할바도 없지. 어떻든 제 볼장을 보고 제 욕심 챙기면 되는 일이라…)

정시명은 마음을 흥겹게 가지며 대청마루에 올라섰다.

비서의 안내로 대기방에 들어가 잠시 앉아있으니 려운형의 사무실에서 양복차림의 중년사나이가 나와 꼿꼿이 문쪽으로 걸어갔다.

여겨보니 김구의 측근에서 움직이고있는 렬사 안중근의 동생인 안공근이다. 안중근과 친분이 두터웠던 김구는 친구의 동생들과 그 후손들을 혈붙이이상으로 위해주며 자기주위에 두고 보살펴온다.

그런데 김구의 측근인물이 려운형의 자택에 찾아온데는 까닭이 있는것 같다.

원래 그들의 사이가 옹추간이다.

려운형은 상하이《림정》이 생겨났을 때 외무차관직을 잠간 차지했다가 탈퇴한 후로 그 주변에서 오락가락하면서도 한번도 김구가 틀고앉은 《림정》에 기웃거린적이 없다. 지금도 려운형은 김구를 왼눈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안공근이 이 집 대문안에 들어선것은 둘사이에 막후조종이 있었다는건가? 그것이 좌익에서 또 몇발자국 멀어지는 결과에로 이어지는 흥정이 아닐가?

정시명은 짧은 시간에 일시에 떠오른 의문들을 풀지 못한채 비서의 안내를 받아 려운형의 방에 들어섰다.

연한 여름철양복에 나비넥타이를 하고 나비수염을 단정하게 다스린 려운형이 정시명이 들어서자 천천히 마주걸어왔다.

《몽양선생님, 그동안 옥체건강하십니까?》

정시명은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려운형이 우묵히 들어간 눈확에서 방금 닦아낸 방울처럼 시원하게 번쩍이는 눈망울을 굴리며 정시명의 손을 건성 잡아쥐고 세번 흔들었다.

《정향선생,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못 장중하고 틀스러우면서도 실무적이고 외교적이다. 상대방의 몸값에 맞게 적당히 처신해서 길게 시간을 축내지 않겠다는 심사인것 같다.

정시명이 이미 예견했던바였다.

려운형과의 사업을 크게 시작할 잡도리를 하고 온것은 아니였다. 신변에 대한 경종을 강하게 울려주고 그의 주변에 보호해줄 청년들을 떠맡기면 된다.

그와의 사업은 아직은 뒤전에 궁리되여있다. 그래 정시명은 극히 실무적이고 차거운 려운형의 태도를 탓하지 않고 역시 실무적으로 간단히 대답하였다.

《통보해드릴게 하나 있고 부탁을 드릴게 하나 있어 인사 삼아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서 말씀하시오.》

《통보할 문제란 이틀후에 댁에서 모종의 테로가 예견된다는것입니다.》

《테로요?… 허허허…망나니패들이 이 몽양의 몸값을 자꾸만 높이는군. 이제는 아홉번째라… 또 신문들에 란리가 나겠군. 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밀려드는 기자들을 접대하느라고 차값만 크게 축낸다오. 하하하.》

려운형이 몸통을 흔들며 호탕하게 웃었다.

정시명이 덤덤해있자 려운형은 웃음을 거두고 흔연히 말했다.

《고맙소. 그런데 정향선생이 어떻게?…》

려운형의 눈이 갑자기 떼꾼해졌다.

그는 정시명의 낯빛에 신경을 쓰며 대답을 기다렸다. 상대방의 정체가 애매해졌던것이다.

《하하하ㅡ》

이번에는 정시명이 웃몸을 흔들며 유쾌하게 웃었다. 바싹 긴장해진 려운형의 속내를 넘겨짚었던것이다.

《관심되는분의 신변사이니 여겨들은거지요. 부탁드릴건 당분간 댁에서 내 사람을 두어명 건사해달라는겁니다. 꼭 댁에서 일보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흥국상회란 꽤 돈구멍이 큰줄 아는데 선생이 익히 나한테 부탁드리는 연고는 무어요?》

정시명은 안색을 바꾸지 않고 호걸스럽게 따지고드는 려운형의 잘 생긴 얼굴을 마주보며 싱긋 웃었다.

듣던바대로 려운형은 직통배기다. 에돌줄을 모른다. 불의를 미워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자신을 과신하며 세상만사를 눈아래로 굽어보는 려운형의 인간적매력이 이렇게 나타나는지도 모른다.

《사절하시는것입니까?》

《아니요, 난 이미 수락했소. 헌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걸 보면 만사가 뒤엉켜서 종잡기 어려운 세월이 아닙니까.

방금전에 백범이 전해온 말이 날더러 옛 시절처럼 와신상담이 좋다는겁니다. 헝, 와신상담이라니… 내 쪽발이세상에서도 떠가는 구름처럼 살아왔는데 해방까지 되였는데 와신상담이라니! 내 꼴보기 싫다는거겠지.》

《모난 돌이 먼저 맞는다는거겠지요. 몽양선생님에겐 적이 너무 많은게 아닐가요?》

《헝, 싸우는 맛에 사는 멋이 있는거요. 적이 많아야 이 몽양이 기운이 난다오. 허허－》

다시 려운형은 웃몸을 들썩거리며 헌헌히 웃는다.

정시명은 려운형이 테로에 대한 경보를 받고도 만사를 겪어본듯한듯한 반석같은 태도를 보이는게 썩 마음에 들었지만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걱정스러웠다. 시들어빠진 나무가지보다 생나무가지꺾기가 더 쉬운 일이다. 지나친 객기가 만용이라는것을 말해두어야 한다.

정시명은 찾아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정색을 하고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몽양선생님, 제 아무래도 이것만은 밝히지 말자고 했는데 말해 두고 가야겠습니다.

내가 데리고온 청년들은 선생의 신변을 지켜드리는것을 애국에 한몫 하는 일로 생각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자신의 신변에 주의를 돌려야겠습니다.》

《하, 그건 무슨 말씀이시오? 그렇다면 부탁을 거두어주시오.

내 일생 소원은 싸움터에서 죽는것이니 몽양이 겁기가 많아져서 옆에다가 협객들을 두고 산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오.

그것도 와신상담을 바라는 백범의 뜻과 뭐가 다르단 말이요.

뜻은 고마우나 날 새장에 가두어버릴 생각은 아예 마시오. 이 몽양이 죽기를 겁나하면 어떻게 몽양으로 불리우겠는가.》

려운형은 자기도모르게 흥분되여 이야기가 끝났다는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려운형이 정시명의 말을 역설로 받아들인것 같다. 이대로 물러 간다면 엄청난 오해를 남길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선 려운형의 신변이 위험해질수 있다.

장군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계시는가.

정시명은 려운형과의 사업을 위하여 당분간은 자신을 밝히지 말자고 했는데 더 미루어서는 이모저모로 랑패일것 같았다.

정시명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려운형의 표표한 눈길을 마주보다가 말마디에 천근무게를 담아 또박또박 말했다.

《려운형선생님, 달리 생각지 마십시오. 선생의 신변을 지켜 드리는건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민족의 대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선생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큰일을 더 많이 해주실것을 바라십니다.

난 홍명희선생을 위해서도 곧 이같은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시명이 말을 그치자 려운형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다짜고짜로 그의 손목부터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정시명의 얼굴을 상대가 무안해질 정도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잠시후에야 려운형은 슬그머니 손을 풀더니 무겁게 발을 옮겨 뒤자리에 있는 쏘파에 가서 주저앉았다. 그는 넓고 윤기나는 이마를 주먹으로 받쳐들고 오래동안 망두석처럼 굳어져있었다.

잠시후에야 려운형이 고개를 들더니 다시 정시명에게로 다가가 말없이 그의 손을 더듬어잡았다. 부신듯하던 눈망울에 빛이 꺼지고 류창한 열변이 쉬임없이 쏟아지던 입은 굳게 다물려 두툼한 입술만 푸드득 뛴다.

《몽양선생님!》

정시명은 순식간에 달라진 려운형의 모습에 저으기 당황해져

서 조심히 불렀다.

《정향선생! 뜻을 어긴 죄 많은 몽양이올시다. … 김장군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 아… 그래서는 안되는건데…그러면 정향선생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몽양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남쪽땅에 닥쳐 든 대재난을 가시고저 합니다. 웅지와 고견으로 이끌어주십시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정향선생! 사실은 내 쓸데없는 소문을 들은적도 있고… 이렇게 찾아주니 정말 고맙소.》

려운형은 얼굴이 벌깃벌깃해져서 사죄를 했다. 그리고는 정시명의 손등을 자꾸만 쓸어만진다.

한동안 북받쳐 오르는 고마움에 어쩔줄 모르던 려운형이 다시 눈을 번쩍거리기 시작하였다.

《정향선생이 정히 공산주의자라면 내 좀 말합시다. 박헌영이 나더러 로동당의 지도부에 들어올려면 〈건준〉(건국준비위원회) 시절의 묵은 죄부터 공개청산하라고 들이대는데 그럼 리승만을 〈인민공화국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대회때 공산당은 구경이나 했단 말이요? 건국을 위해 필요하면 몇발자국 물러서기도 하는거지.

항차 저들도 손들고 나선 일을 나더러 다 걸어안고 만인앞에 공개사죄하라니 이게 날 모함하려는 수작이 아니고 뭐요.

레닌은 맑스주의를 로씨야에 자기 식으로 받아들여 혁명을 했고 손문도 맑스주의를 자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청조를 뒤집었단 말이요.

난 아직도 건국위업을 위해서는 호박 쓰고 도야지굴에 뛰여드는 짓도 서슴잖을 심산이요.

그러니 이 몽양이 묵은 때 벗기는 어려울것이고 아침저녁 박헌영이와 마주앉기는 코집이 틀린게 아니겠소.》

려운형이 울기가 돋쳐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라 한바탕 그류창한 언변으로 지론을 펴나갔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저지른 과오에 대한 구차스러운 변명을 한다는 생각에 말을 끊고 정시명의 기색에 마음을 썼다.

정시명은 맞다든 김에 그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싶었으나 오래 지체할수 없었다. 이 사람과는 품을 들여 마주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굳어졌다.

그래서 려운형이 저녁이나 같이들며 이야기를 하자는것을 자주 찾아오겠으니 오늘은 바삐 돌아갈 일이 있다고 겨우 사양하고 그의 바래움을 받으며 나섰다.

대문가에는 벌써 함께 온 청년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듯 보초병처럼 서있다가 그들에게 절도있게 인사를 하였다.

마동열이 그들에게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주었던것이다.

려운형은 그에게 다가가 청년의 실한 어깨를 움켜쥐고 몇번 흔들어주었다.

정시명은 그제야 한시름을 놓고 려운형에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돌아오면서 정시명은 인차 려운형을 내세워 애국의 진을 재편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나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자면 려운형을 나라앞에 지닌 큰 사명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였다.

만나고보니 세상에 유명짜한 독립운동의 거물이 생각밖으로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저런 인간은 민족의 재부이다.

저런 인간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아끼고 보호해주고 내세워주어야 나라가 강해지고 민족이 흥한다.

나라재산치고 으뜸가는것은 인간의 재능이다.

인간의 재능을 이런저런 구실로 랑비하거나 무시해버려서야 어찌 민족번영을 기대할수 있는가.

폭군 히틀러가 베를린광장에서 나라의 정신적유산인 도서들을 불태우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학자들과 문인들이 추방되여 대양을 건너갈 때 세상은 히틀러는 망하고 도이췰란드제국도 넘어질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지금이야말로 건국을 위해 사람을 아끼고 재능을 보호해주어야 할 때다.

저 사람에게는 확실히 사람들을 선도할줄 아는 비범한 재능이 있

다. 그 기상은 여전히 하늘을 찌를듯 하고 절개 또한 세상을 들썩거리게 하던 소문그대로 호걸장부답다.

저런 인간을 박헌영이 어째서 그렇게 랭대를 하였을가?

남로당창립문제와 관련하여 과오에 대한 죄의식과 함께 범행동기와 관련한 울분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 그 모순적인 립장이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장차 그와의 사업에서 기대를 가지게 하는 한줄기의 빛과도 같은것이다.

그러나 정시명은 려운형을 두고 오래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마지막고비에 이른 어려운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4

하지의 정보담당고문 노불이 길철이 제출한 자료를 받은것은 자정무렵이였다.

자료를 두번세번 훑어보고난 노불은 혼비백산해졌다.

《이럴수 있는가?》

노불은 자료에 담겨진 내용이 풀이되자 저도모르게 용수철에서 튕겨나듯 팔걸이걸상에서 일어났다.

노불은 한동안 초점 잃은 눈으로 천정만 멍해서 쳐다보다가 길철을 전화로 찾았다.

자료의 출처부터 물었다.

《무기명투서입니다. 정보의 심각성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노불은 이런 대답을 듣자 곧장 하지의 집무실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그는 문을 막아서는 부관을 홱 밀어제끼고 다짜고짜 하지의 방문을 열었다.

《사령관각하,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대표단의 출발을 보류

해야겠습니다.》

노불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어망결에 이렇게 큰소리로 떠들며 하지에게로 재빨리 걸어갔다.

《노불! 당신 웬일이요? 무슨 놈의 본때인가?》

하지가 무례하게 헤덤비는 부하를 매섭게 쏘아보며 꽥 소리질렀다.

그제야 노불은 자기가 극도로 흥분되였다는것을 알고 방안을 둘러보았다. 미군정장관과 군복을 걸친 여러 사람들의 눈길이 그에게 쏠렸다. 그중에는 브라운도 있었다. 대표단이 래일아침에 떠나게 되였으므로 밤늦도록 일장 훈시를 하고있었던 모양이다.

노불은 《사령관각하, 죄송합니다. 너무 급한 문제가 제기되여…》하고 사죄하고 물러가다가 부관실에 들려가지고온 문건을 부관에게 주었다.

《즉시 지급으로 봐달라고 보고하시오.》

부관이 문건봉투를 가지고 하지방에 들어갔다.

부관이 하지에게로 절도있게 다가가 문건봉투를 내밀며 보고했다.

《노불고문이 즉시 지급으로 문건을 보아달라고 합니다. 지금 대기하고있습니다.》

《그래?…》

하지는 마지못해 좌중에게 잠간 실례하겠다고 량해를 구하고는 봉투에서 문건을 꺼냈다. 서두를 대충 훑던 하지가 대번에 《뭐야?!》하고 혼비백산하여 쏘파에서 튕겨나듯 벌떡 일어났다.

문건 첫 머리에서 《극비. 브라운소장에 대한 암살기도》라는 제목을 보았던것이다.

그는 잠시 좌중을 둘러보다가 《브라운소장, 돌아가서 발언문을 다시 검토해보시오. 오늘은 이만합시다. 브라운소장과는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하지는 서둘러 대표단일행을 쫓아보냈다. 그리고는 초인종을 눌러 부관을 들어오게 하였다.

《노불고문을 들여보내!》

하지는 노불이 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물었다.
《이게 무슨 허튼 수작이요?》
《각하, 그렇게만 생각하실게 못됩니다.》
《어디서?… 어느 놈들이?… 빨찌산인가?》
하지는 기관총련발사격하듯 빠르고도 날카로운 어조로 다그어댔다.
《암살예정지는 평양입니다. 테로집단은 유감스럽게도…》
노불이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불이 팔팔 이는 하지의 세모눈을 보자 어기가 질려 슬그머니 고개를 외로 틀며 꺼지는듯한 어조로 대답을 이었다.
《혹 이것이 그 세번째 방안이라는게 아닐가요?》
노불이 조심스럽게 자기의 견해를 내놓자 하지는 주먹으로 책상을 힘껏 내리쳤다.
《노불!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미국무성이 무슨 얼이 빠졌다고 그따위짓을 벌리겠는가?》
《그래도 이건 부인할수 없는…》
《닥치시오. 허무맹랑한 허튼 수작이요. 난 당신네가 가져오는 정보를 절반도 믿지 않는단 말이요. 좋소. 또 한번 속아봅시다. 대표단경비력량을 배로 증가하라고 평양대표부에 전하시오. 그리고 곧 공산측에 보낼 항의각서를 작성하시오. 강도높게…》
《사령관각하, 문제는 다르게 설정되여있습니다. 그럼 제가…》
노불은 사령관이 제목만 보고 대경실색해진듯싶어 자기가 읽어주려고 문건을 손에 들었다. 하지의 역증을 더는 말로써는 당해낼수 없었던것이다.
그러자 하지가 그의 손에서 신경질적으로 문건을 빼앗아들고 눈으로 더듬었다. 구절구절이 너무도 뜻밖이고 놀라와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몇번 눈으로 훑고나서 그 의미를 씹어보듯 소리내여 읽기 시작하였다.

《미쏘회담수석대표 브라운소장에 대한 암살작전이 준비되고

있다.

배후조종집단은 김포항공출장소이며 집행자는 리승만의 직속테로기관인 정탐사 사장이며 건국청년동맹위원장 반정강이다.

이미 평양에 있는 반정강의 첩자 2명에게 밀령이 내려갔으며 거사후 증거인멸을 위해 현지첩자들을 처리할 2명의 정탐사 요원들이 서울을 떠났다고 한다.

브라운에 대한 암살은 될수록 회담전야에 평양에서 진행할것이다.

※ 이 자료는 무기명투서로 입수되였다.

다만 봉투에는 〈미쏘협상의 성사를 바라는 무명의 국민으로부터〉라는 글이 있었다.

투서는 종로구 우체통에 넣어 본부서에 입수되게 하였으며 문건에는 지문이 없었다.

우리의 판단에 의하면 자료제공자는 암살작전의 배후가 강력한 조직이라는데로부터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 무기명투서의 형식으로 통보하여온것이라고 보아진다.

암살작전은 미쏘협상을 현단계에서 무산시킬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투서는 그에 불만을 가진자의 소행으로 간주된다.》

다 읽고나자 하지는 온몸이 굳어졌다. 일순간 모든 감각이 마비되여 노불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제기된 상황에 판단이 가지 않았다.

《사령관각하!》

노불이 그 멍청해진 꼴을 보자 큰소리로 불렀다.

그제야 하지는 다시 종이장을 훑어보고는 물었다.

《어데서 들어왔소?》

《공보여론조사과장이 수집한 자료중에서 긴급으로 보고하여왔습니다.》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가?》

《글쎄요. …》

《좋소. … 나가보시오. 필요한 자료가 들어오면 즉시에 가져

오시오.》
노불이 나가자 하지는 쏘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아래다리가 후들후들거리였다. 전신의 기운이 일시에 발끝에 잦아내린듯 나른해왔다.
미국이 이정도가 되였는가?… 이 지경으로 미치게 되였는가.
자기의 사단장까지 제물로 바쳐야 할만큼 사태가 막바지에 이른것인가. …
잠시후 마음을 수습한 하지는 사태의 전후관계를 랭정하게 추리해보기 시작하였다.
무엇때문인가?… 그건 아마도 노불의 직감이 맞는것 같다. 미쏘협상결렬이라는 목표가 명백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세번째 방안일수 있다.
누가?… 반정강?… 아니다. 그가 아니다. 반정강이 이 어마어마한 살인극을 연출할수는 없다. 어느 놈일가?…
불현듯 언제나 신사연한체 검정양복에 넥타이를 단정히 조여매고 윤기나는 칠피단화를 신고 다니는 틀진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레코라우스, 김포항공출장소 소장이다. 그놈밖에는 미군사단장을 저승에 보낼 이 엄청난 모략을 궁리해낼수 없다. 대표단에서 수원정도라면 모르겠다.
거기에 리승만이 아마도 합세한것 같다. 정탐사를 그 정도의 모략에 개입시키려면 그 두상의 동의가 없이는 곤난하다.
정탐사는 리승만의 직속테로기관이다.
그 늙다리가 이런 살인흉모에 가담하다니… 아니 가담정도가 아닐수 있다. 주창자의 한놈일수 있다.
《안돼! 사단장을 죽여버리다니. 미군사단장의 목숨이 파리목숨이더냐. 그사람이 죽어야 할 죄라도 있는 사람이냐. 안돼!…
그건 안돼! 더구나 이 하지는 자기 사단장을 물어먹었다는 오명은 남기지 않을테다.》
미칠듯한 흥분에 휩싸인 하지는 전화를 들었다.
《당장 김포항공출장소를 찾으라!》
하지는 전화통에 대고 소리질렀다.

하지는 다시 방안을 왔다갔다하며 사색을 이어갔다. 맥아더의 말이 생각났다. 맥아더가 좋아하는 명언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명령에 불복하는자 유명해지노라.》이다. 또하나는 《전장에서 자기를 구원해주는것은 덕이다.》이다.

앞의 말은 군인은 싸움을 창발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이요, 뒤의 말은 장교는 수하 장병들에게 덕을 베풀라는 뜻이다.

하지는 맥아더라는 위인을 그닥 탐탁치 않게 여기지만 이 말은 그럴사하다고 생각해온다. 하지는 자기의 군복무에서 이 말을 은근히 따르고있었다. 그가 아놀드가 쫓겨갈 때 아리조나주에 가서 농장을 경영할수 있도록 자리를 알선해주고 필요한 자금까지 무둑히 안겨준것도 맥아더의 그 알량스러운 명언을 따른것이라 할수 있었다.

하지는 아놀드뿐아니라 수하 부하들이 자기곁을 떠날 때는 언제나 그들이 불만을 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상대가 비록 자기가 철직시켜버린자라 해도 례외가 아니였다.

하기에 수하 장교들치고 그를 싫어하는 놈이 얼마 없으며 떠나간자 치고 그를 시비질하는 놈이 얼마 없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위급이나 좌급장교도 아니요 큰별을 두개씩이나 올려놓고다니는 수하 사단장을 죽음에로 몰아가는 이 무지한 활극을 가만보고만 있을수 있는가. 도대체 레코라우스가 이 하지를 뭘로 보는건가. 빌어먹을놈, 네놈을 당장 군사법정에 세워놓고 목대를 비틀어놔야지. …

김포항공출장소는 명색뿐이고 실은 미전략정보국 남조선지부이다.

레코라우스가 그 우두머리이다.

그가 셋째방안의 기안자이고 집행자임에 틀림이 없다. 이미 레코라우스가 덕수궁회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있다는 자료가 들어왔다.

노불의 말에 의하면 레코라우스의 첩자인 《뉴욕타임스》 서울특파원을 비롯한 세명의 요원들이 덕수궁회의에 참가하여 각각 평가보고서를 매일 제출한다고 한다.

하루는 《뉴욕타임스》 특파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부본이 하지에게 전해졌다.

그 내용이 유모아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하여 지금도 하지의 기억에 남아있다.

《…

회담에서 밀리는것은 브라운이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왜냐하면 브라운소장은 뒤걸음치려는 사람이고 쏘련대표 스티꼬브중장은 나가려는 사람인 까닭이다.

그런데 회의가 길어질수록 브라운은 점차 배수진에 이르고있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벌거벗기우고있다. 이제 알몸으로 나앉을 때가 왔다. 가리워보자니 맨손뿐이라 그 역시 난사이다. 돌아서서 물에 첨벙 뛰여드는것이 차라리 더 큰 수치를 면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아닐가?…》

전화종이 울렸다. 교환수가 김포항공출장소 소장이 지금 부재중이라고 알렸다.

《엉큼하기로 황구렝이 눈알 빼먹을 놈, 오금이 저려나는 모양이군.》

하지는 수화기를 던지며 씹어뱉듯 중얼거리였다. 레코라우스가 전화를 사절하는 모양이다.

다시 방안에는 무거운 군화소리가 울렸다.

하지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을 열자 초여름의 훈훈한 공기가 확 쓸어들었다. 그는 3층창턱까지 솟아있는 푸르청청한 전나무의 뾰족뾰족한 잎새들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무표정한 눈길로 한동안 나무잎새만 내려다보느라니 치미는 분노와 흥분이 서서히 가라앉고 피도 식어진것 같다. 모닥불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던 울분이 사그러들자 어떻게 된 노릇인지 다르게 생각이 이어졌다. 레코라우스가 전화를 사절한것이 차라리 다행스럽다. 세번째 방안이 추구하는 의미는 석연하다. 레코라우스의 립장에 서보자.

브라운을 쓸어눕힌다. 평양에서 거사를 실현한다. 그다음에는 북조선측에 그 책임을 전가시킨다. 하수인들을 없애버리면 어차피 신

변안전을 담보한 북조선측이 책임을 지게 되는것은 상례다.

아니 그들의 소행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서 북조선측이 미쏘회담을 반대한다는 여론을 돌리고 그것을 구실로 회담을 끝내버린다. 남에서는 좌익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단선단정》만이 해결책이라는것을 골자로 세계여론을 대상한 공세를 벌린다.

그러면 왜 꼭 회담의 수석대표를 제물로 바쳐야 하겠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난문제이므로 어차피 세계를 놀랠만한 도박을 놀아야 한다. 고래 잡는데 붕어 낚는 미끼로야 어림도 없지 않는가.

(브라운… 당신이 불쌍하구나.)

하지의 격하던 감정은 쓸쓸한 비애로 바뀌였다.

(하지, 당신도 불쌍해. 제 새끼 물어가는줄 알면서도 손가락 한번 튕기지 못하게 되였으니 너도 비겁쟁이임에 틀림이 없구나.)

하지는 부지불식간에 커다란 고뇌와 비분이 가슴에 쓸어들었다. 끝없는 절망과 허탈에 잠겨 쏘파로 어정어정 걸어가 주저앉았다.

그는 갑자기 골속에 파묻혀버린듯한 눈으로 천정의 한점을 멀거니 올려다보았다.

(아놀드는 쫓겨나게 하고 브라운은 이렇게 제물로 보내다니…)

온몸이 떨렸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피가 꺼꾸로 솟는다.

그러다 갑자기 두주먹에 힘을 주며 쏘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난 의무앞에서 복종만 아는 군인이다. 난 지금 미국의 리권을 지키고있는 현지의 두목이다. 그건 다 얄팍한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끝내 군인다운 랭정성이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감정을 이겨낸것이다.

《하는수 없어. 미국이 이 땅을 삼키려던 백년대계가 어찌 피가 없이 성취되겠는가. 브라운! 영예롭게 죽으라.

뒤날에 내 그대의 묘비를 크게 세워주리다. 영예로운 순국을 했노라 비문도 크게 쪼아박지.》

하지의 세모눈이 다시 번들거리기 시작하였다. 살기가 뻗쳤다.
다음날 하지는 출발에 앞서 사무실에 인사하러온 브라운을 만났다.
그를 정작 마주서자 으스스한 기분을 덜수 없었다. 아무리 혈관에 랭혈적이고 과격적인 스코트종족의 피가 흐른다지만 제 부하를 도살장에 보내게 되니 자꾸만 그의 눈을 피하게 되였다.
신변에 각별히 류의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기여올랐으나 가까스로 참아냈다.
브라운이 돌아서나가려 하자 《잠간, 소장.》 하고 멈춰세우고는 꼬냐크를 꺼내놓았다. 군정의 두 거두들은 말없이 잔을 쪼았다.
하지는 잔을 들면서도 고별주라는 생각에 가슴이 후두둑해왔다. …

위험은 제때에 제거되였다.
하지는 끝내 자료내용을 브라운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암살작전은 파탄되였다. 평양에서 브라운을 노린 현지첩자 두명과 반정강이 파견한 살인악당들은 브라운의 숙소가 있는 모란봉에서 거사직전에 평양보안원들과의 총격전에서 다 즉사하였다.
미국의 세번째 방안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미제의 모략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되였다.
회의장 안팎에서 망신만 당한 미국놈들은 날이 갈수록 제놈들의 검은 속심이 폭로되고 외교적승산이 도저히 보이지 않게 되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
끝내 브라운이 막다른 배수진에 걸려들고만것이다.
기다린듯 세상은 미국의 량면술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기 시작하였다.
《조선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자》로서의 미국의 가면은 벗겨졌다.
회담결렬을 《단선단정》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흉계도 분쇄되였다.
오히려 미국은 새로운 강타에 직면하였다.

쏘련대표단이 브라운일행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후 쏘미량군을 즉각 철수시켜 조선인민이 자기 손으로 통일정부를 세울수 있는 가능성을 줄데 대한 성명을 발표한것이다.

5

미국무성의 지령대로 회담을 결렬시키고 승용차의 뒤좌석에 허리를 묻고 서울에 돌아오는 브라운은 복잡한 심경에 빠져있었다.

그는 이날아침 평양을 출발하기 앞서 평양보안서장과 간단히 만났다.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견이였다.

보안서장이 들고온 시비거리가 뭐일가 하고 은연중 긴장하여 있는데 젊으면서도 무게가 엿보이는 상대는 정중하게 말을 뗐다.

《당신에게 통고해줄것이 있기때문에 잠시 지체시켰습니다. 당신이 조만식선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서 당신에 대한 암살미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브라운은 눈알이 홱 돌아갔다.

《뭐라고요?!》

조만식을 만난것은 회의가 시작되여 이튿날 저녁이였다. 각본에 따라 브라운은 협상무대에 야릇한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북조선체제의 이단자로 몰리우고있는 북조선민주당 지도자인 조만식을 만났던것이다.

그는 사실 북조선측이 조만식과의 접촉을 불허할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시비거리로 만들어 공산측에 대한 모종의 공세를 취할것을 타산하였다. 회담장에서 취약성을 보이게 될 자기의 립장을 그런 식으로라도 메우고싶었던것이다.

그런데 북조선측은 쾌히 자기의 도전세력인물을 만나도록 하였다.

바로 그날 자기에 대한 암살미수가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는 머리칼이 곤두서는것을 느끼며 침착하게 물었다.
《범인을 체포하였습니까?》
《예, 네놈이였는데 미전략정보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남조선의 테로기관 정탐사의 두목 반정강의 첩자들입니다.》
《미전략정보국의 지시라구요?》
브라운은 눈이 퀭 해졌다. 머리에 번개불처럼 핑끗 스치는것이 있었다.
(세번째 방안?!…)
마샬이 지금껏 흑막속에 묻어두어왔던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가?… 아니, 설마 그럴수가 있는가.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럴수는 없다. 이건 너무도 엄청난 배신이다. 아니 이것은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패륜이다.
그는 등골을 스쳐가는 전률을 느끼며 태연자약하려고 애썼다.
어쨌든 젊은 서장앞에서 미국의 2성장군이 눈섭 한오리 까딱해서는 안된다. 모략일수도 있지 않는가. 그는 발끝에 힘을 주었다.
《그렇다면 범인들을 만나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우린 즉시 정부에 보고해야겠습니다. 나의 수행원들이 만나서 확인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좋기는 우리 당국에 범인들을 인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기관의 수사절차에 따르게 해주십시오.》
브라운은 가까스로 평온을 되찾고 외교가답게 랭정하면서도 위엄있게 요구하였다.
그러자 상대방은 얼굴에 준엄한 빛을 띄우더니 고개를 끄덕이였다.
《유감입니다. 당신을 저격하게 된 악당 두놈은 현지인물로서 사건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당신을 사살한 후 그들을 처리하여 증거인멸을 하려고 서울에서 들어온 반정강의 파견첩자 두놈은 도망치다가 죽었습니다. 한놈이 중상을 입고 죽기 전에 이상의 자료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뒈져버린 악당들의 사진과 파견첩자라는 놈의 진술자료사본을 넘겨주었다.

브라운은 그것을 받아들다가 자기가 공산측의 공식적인 인물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리권과 존엄을 상징하고있다는 생각이 들어 미소를 담고 여유작작하게 반박을 하였다.

《당신측이 나의 주위에서 벌어진 비렬한 살인흉계를 미연에 방지하여준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에 주의를 돌리고싶습니다.

귀측에서는 어째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통보해주지 않고 대표단의 출발직전에 통보해주십니까? 그리고 전략정보국의 소행이라고 볼수 있는 근거가 허약하지 않습니까?》

보안서장은 입가에 쓰거운 미소를 짓더니 여전히 한본새의 자세를 허물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은 혹 우리의 연출에 따르는 조작극이 아닌가고 묻고싶지는 않습니까? 유감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살인극이 아니라 정치행위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주인이고 당신은 손님입니다. 손님을 청해놓고 제 집에서 모살하는것은 상식도 아니요, 인륜도 아닌 불법무도한 죄행입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회담도중에 사실을 통보해주면 당신측에서 걸고 드는 의미의 론쟁이 벌어질것이며 이것이 회담에 부정적영향을 주게 되리라는것을 고려하였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회담결렬을 희망하는 반대세력의 소행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여왔으며 당신측은 1차회담도, 2차회담도 보시다싶이 고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결렬시켰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충고해주고싶은것은 이것은 분명히 당신을 희생시켜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킴으로써 회담결렬을 시도한 모종의 계획된 정치행위라는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확대시키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고 회담은 깨졌습니다.

우리 통보에 대하여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데 대하여 구태여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평양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건져준데 대하여서

는 고맙게 추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운은 말마디에 강약을 주면서 막내동생을 꾸짖는 맏형처럼 엄하고도 동정어린 어조로 이야기를 엮어가는 젊은 서장의 얼굴을 경의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

지금도 브라운은 그의 이야기를 구절구절 되살리고있었다. 그의 판단과 충고에는 부정할수 없는 유력한 론거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런짓을 벌려놓을수 없다. 젊은 서장의 분석이 명석하다.

회담결렬에 리해관계를 가진 세력의 도발이다.

《세번째 방안이라…》

브라운은 신음하듯 괴롭게 중얼거렸다. 애당초 마샬은 처음부터 회담을 결렬시키자고 했고 내가 하수인노릇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북조선의 공식계층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지레대라고 간주했던 조만식이마저 강하게 비난하였다.

《미국은 어쩌자는건가?》

브라운은 사건의 전후관계를 련결시켜보았다.

회담을 일방적으로 도중퇴장하는 방법으로 결렬시킬데 대한 국무성지시를 최종적으로 받은것은 조만식을 만나고온 다음날 저녁이였다. 그러니 암살미수가 있었다는 날부터 하루 지나서였다.

미국무성은 아마도 세번째 방안마저 파탄되였다는 보고에 접하자 국제적망신을 무릅쓰고 그따위 어리석은 지령을 내린것이다.

옳다, 모든것이 론거가 명백하다. 이런 사건은 두말할것없이 정보기관의 몫이니 전략정보국의 지시라는것도 론박할 여지가 없다.

정말 이럴수 있는가? 마샬이 내 운명을 장기판의 졸값으로 매겨놓을수 있는가.

서울이 가까와올수록 브라운에게는 사태의 본질이 명백해지고 그게 확고해질수록 극도로 흥분되였다. 치미는 분노로 하여 이마빡에서 쥐가 펄떡펄떡 뛴다.

(하지가 모르고있었을가?!)

새로운 의심이 생겼다. 그러고보니 수상쩍은게 있다. 평양으로 떠나오는 아침에 꼬냐크를 권하던 그 얼굴… 무엇인가 더 말해

줄듯말듯 하던 그 이상스럽던 거동이 수상하다. 아, 노불이 전날 대표단사업을 최종적으로 협의할 때 사색이 되여 뛰여들었다가 쫓겨나기까지 했지.… 그러면 하지도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건가?…
피가 거꾸로 솟는것만 같다. 주먹이 떨고 호흡이 가빠졌다.
너무도 엄청난 배신앞에서 막 미쳐날것만 같았다.
브라운은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의 오백리길을 줄창 눈에 불심지를 돋구어가지고 이발을 빠드득빠드득 갈며 달렸다.
브라운은 가까스로 자기를 지탱하며 하지에게 회담정형을 건성 보고하였다. 하기는 회담정형을 매 시각 그대로 하지와 마샬에게 통보하였으니 더 상세히 언급할것은 없었다.
하지도 별스럽게 바빠하면서 어서 자리를 거두었으면 하는 눈치다. 그게 더욱 의심스럽다.
《중장각하, 난 오늘 아침 평양보안서장으로부터 상상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브라운은 숨을 톺아올리며 나직하나 랭담한 어조로 말을 뗐다.
《보안서장?》
하지가 그 세모눈을 크게 뜨며 흠칠하였다.
브라운은 하지의 일거일동을 끈질기게 파고들면서 평양보안서장의 통보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범죄자들의 사진과 진술서사본도 그의 앞에 팽개치듯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초점을 잃고 허둥거리는 하지의 눈을 쏘아보며 따지고들었다.
《중장각하, 당신께서는 혹 이 사건을 모르고계셨습니까?》
《유감이요, 소장.》
하지는 대바람에 성을 내며 시치미를 뗐다.
《그건 북조선의 모략이요.》
(그럼, 네가 달리야 대답을 할수 없을테지.)
브라운은 하지가 주모자일수도 있다는 의심이 더 짙어졌으나 슬쩍 에돌아 그루를 박았다.
《감사합니다, 사령관각하. 용서를 빕니다. 난 당신에 대하여 일시적이나마 의심하였습니다. 옳습니다. 북조선의 모략입니다.》

방에서 나오자 곧 노불의 방에 들렸다. 그놈도 당황한 기색으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인차 자신을 수습하고 아닌보살을 했다.

브라운은 울화가 터졌으나 그에게서 반정강의 주소를 알아가지고는 인차 방을 나섰다.

그는 자기 사단의 정보관을 시켜 반정강을 끌어오게 했다.

그런데 키가 작달막하고 낯짝이 곰의 발통처럼 생겨먹은 놈이 여간내기가 아니였다. 단마디로 모르쇠를 한다.

마지막으로 김포비행장으로 차를 몰아댔다.

브라운도 김포항공출장소가 미전략정보국 남조선지부이며 거기서 두목은 레코라우스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레코라우스는 브라운이 들어서자 천연스럽게 《아 소장, 멋지게 해냈거든요. 거 골치 아픈 놀음을 걷어치웠으니 이젠 모두 발편잠을 자겠습니다.

자, 평양나들이얘기나 들려 주시오.》 하고 엉너리를 쳤다. 그는 성공적으로 돌아왔으니 축배부터 들자며 술병부터 꺼내놓았다.

브라운은 그가 채워준 술잔을 입술에 댔다뗐다 하면서 사건이야기를 꺼냈다.

레코라우스도 무작정 북조선의 소행이라고 우기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는 왜 평양에서 그걸 코에 걸고 한바탕 휘저어놓지 못했느냐고 하였다.

브라운은 참새한테도 굴레를 씌운다고 소문난 이 로회한 정탐배와는 대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얼굴이 뻘개가지고 인차 물러났다.

그러나 비밀이란 시간적개념이다. 대표단의 출발에 앞서 사건자료가 노불을 통하여 하지에게 통보되였다는것이 알려지게 되였다.

정시명이 브라운의 동향을 보고받고 제때에 그에게 사건전말이 들어가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던것이다.

브라운은 드디여 자기에 대한 전략정보국의 살해작전이 미국무성의 의뢰에 따라 회담결렬을 위한 세번째 방안으로 선택되여 극

비밀리에 추진되고 벌어졌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였다. 분노는 모닥불처럼 확 타올랐다.

그는 노불의 방에 들어가서 권총까지 뽑아들고 기어이 토설을 받아내고야말았다.

《말해라!》

레코라우스와 반정강은 살인하수인들이 뒈졌으므로 벽도 문이라고 냅다 우겨서 빠져나갈수 있었으나 하지만은 살인극통보를 깔아뭉갠 책임을 회피할수 없게 되였다.

결국 하지는 공범자인것이다.

노불은 브라운의 눈에 돋은 살기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 그는 브라운이 방문을 신경질적으로 걷어차고 나가버리자 얼른 전화로 하지의 부관실을 찾았다. 그는 부관에게 이제 브라운소장이 그쪽으로 가는데 적당히 구실을 붙여 하지의 집무실에 들여놓지 말라고 말했다.

브라운은 지금 완전히 리성을 잃고있었다. 언제나 느슨한 미소를 머금고있던 입가장자리는 분노로 초들초들 말라터지고 오가는 잡소리에도 제 속심을 가리운채 고요한 빛을 담군 하던 눈에서는 동자가 앞으로 쏟아져나올듯 울기가 뻗쳐있었다. 앞으로 꺾어질듯 솟아오른 매부리코는 누구라도 한바탕 쪼아버리고야 직성이 풀릴듯 더 날카롭게 번뜩거리고 두주먹은 마주서는것이라면 담벽이라도 까부실듯 돌처럼 옹쳐있었다.

그는 막아서는 부관들을 주먹으로 쳐갈기고는 나들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갔다.

하지는 브라운의 광기 돋친 기상에 겁이 났다. 브라운의 멀쑥하고 신사연하던 얼굴에 복수의 갈망이 번뜩이고있었다. 여차하면 너죽고 나죽고 할 판이다. 하지는 그의 눈을 피하여 앉으라고 쏘파를 가리켰다.

하지를 당장 물어메칠듯 험악한 기세로 한걸음한걸음 다가서던 브라운은 앞상을 주먹으로 부서지라고 내리쳤다. 앞상에 있는 문건철과 잉크단지가 허공에 떴다가 주단우에 굴러떨어졌다.

《중장! 당신은 개자식이요!》

브라운은 원색적인 쌍욕을 던지고는 방을 나섰다.
브라운은 미군사령부청사를 벗어나기 전에 노불의 방에 들려 사직서를 썼다.
《나, 미룩군소장 브라운은 신병관계로 군정업무와 사단지휘를 감당할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해임시켜줄것을 청원합니다.》
그는 사직서를 하지의 부관실에 던지고는 자기 사단으로 내려갔다.
이날 정시명네는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수고했소! 수고했소, 동무들!… 이번 투쟁에서 우리는 미제의 교활성, 침략성을 만천하에 고발하였소. 이것은 불구대천의 원쑤 침략자 미제와의 대결에서 우리가 거둔 첫 성과요.》
정시명은 길철의 눈과 마주치자 그에게로 다가가 덥석 손목을 쥐고흔들었다.
《길철동무가 제일 바쁘게 살았지.》
《저야 뭐.… 거저 심부름을 발이 닳도록 했을뿐이지요.》
길철이 뒤덜미를 만지며 어줍게 웃었다.
모두가 즐겁게 웃었다. 회의에서는 길철이를 군정청에서 소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의 관하 조직들이 커짐에 따라 그를 어느 한 공식적인 자리에 매여둘수 없었던것이다.
…
밤이 깊어갔다.
전우들은 새로운 결의를 안고 떠나갔다.
정시명은 그들을 바래워주고는 이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종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기도 이름 짓지 못할 그 무슨 비상하고 벅찬것이 그냥 가슴에서 들먹들먹거린다.
생각이 생각을 불러내며 잠시도 진정해낼수가 없다. 그는 조용히 뒤뜰에 나섰다. 노가지나무숲에서 풍겨오는 싱싱하고 알싸한 냄새를 걸탐스럽게 들이며 하늘을 쳐다본다. 요 며칠전부터 장마비가 걷더니 하늘은 높게 들리고 별이 총총 여물었다. 밤하늘을 세로 질러간 은하수는 반짝거리는 진주같은 아기별들을 수없이 걷

어안고 북쪽으로 뻗어갔다.

문득 그의 뇌리에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에 떠밀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던 시안의 밤이다. 그 밤도 별은 총총하였지.

인생에서 또하나의 운명의 갈림길이 뻗어가던 밤이였다. 지루하던 밤이였다. 괴롭던 밤이였다.

옳은 선택이였던가?… 옳았구 말구!…

정시명은 가슴이 훈훈해왔다.

쉽지 않게 내리였던 결단을 높이 평가해주시던 그리운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겨레가 당하는 아픔을 그러안고 나라에 충정을 고이고저 하는 한 인간의 운명의 남다른 선택을 그리도 대견해하시며 인간아름다움의 최절정에 세워주시던 **김일성**장군님! 맞잡은 두손에 지그시 힘을 주시던 그 인자하신 모습이 그리웁다.

그래! 그렇구말구!… 이제 나는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

내가 이 길에 오른것은 참으로 행복이였다.

아, 아, 나도 이제는 이 나라의 주인구실을 비로소 하게 되였구나. 이것이 삶이라는건가! 이것이 살아가는 보람이라는건가!…

다시 심장이 후둑후둑 들뛰여 오른다. 나라와 민족앞에 유익한 인간으로 마침내 살게 되였다는 자부심이 온몸을 후덥게 해주었다.

그는 사뭇 감개에 젖어 부르짖었다.

풍운에 휘감겨
흘러간 40평생
망국의 설음속에
눈물도 많았더라

돌아 보니 헤쳐온 길
중중첩첩 아득한데
머리에는 때아닌

서리가 불렸고나

님따라 이어진
사나이 인생길
후회가 있을소냐
눈보라 세차다고

헤쳐갈 길 천만리에
별빛은 유정한데
이내 마음에도
해빛은 찬란토다

그의 머리우에서 아기별들은 여전히 새물새물 웃고있었다.

장 편 소 설

력 사 의 대 결

제1부 38°선

제3판

저 자 허문길 편 집 리영옥, 리남혁

그림 및 장정 강상준

편 성 정향애 교 정 박명희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1판발행 주체89(2000)년 9월 30일

2판발행 주체95(2006)년 5월 30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2월 1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2월 5일

ㄱ－16556 값 220원

ISBN 978－9946－21－315－6